

인천경제자유구역청
www.ifez.go.kr

Asia's No.1 Gateway
인천경제자유구역 백서 2003. 8 ~ 2005. 10

Asia's No.1 Gateway 인천경제자유구역 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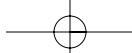
2003. 8 ~ 2005. 10

인천광역시
www.incheon.go.kr

IFEZ
INCHEON
FREE
ECONOMIC
ZONE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94번지 (우) 406-130
TEL : (032) 453-7114 FAX : (032) 453-7109

인천광역시
www.incheon.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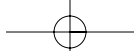
Asia's No.1 Gateway

인천경제자유구역 백서

2003. 8 ~ 2005. 10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발 간 사

우리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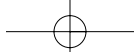
19세기 중후반, 우리 인천 앞바다는 조선에 진출하려는 서양세력의 끈질긴 시도와 이를 저지하려는 조선의 해금책(海禁策)이 팽팽하게 맞서다 결국 개항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천에는 개항장이 생겨나고 외세의 진입과 서양문물의 유입이 성행하여 고령 이후 500년 만에 다시 국제사회의 무대에 등장했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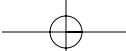
오랫동안 어두운 시대를 보냈던 인천은, 문명사적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21세기에 들어와 새로운 희망과 주도적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공항과 국제적인 항만을 갖고 있는 우리 인천은, 거대중국이 열리고 북한이 개방되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 우리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철저한 대비를 해야합니다.

그 준비의 일환으로, 우리는 송도·영종·청라지구 등 여의도의 70배 면적에 달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Incheon Free Economic Zone)을 탄생시켰습니다. IFEZ는 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조기에 달성하고 3만 달러 시대로 가는 도약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IT, BT 등 최첨단 산업 등 신성장동력을 구축하고 이를 공항·항만과 연계해 인천을 동북아의 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로 건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에는 우리나라 최장의 사장교인 인천대교, 국제회의와 각종 전시회를 주도할 국제컨벤션센터, 국제업무지구를 건설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외국 유수의 기업과 자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UN 산하기구인 APCICT(아시아 태평양 정보통신기술센터)를 우리 송도국제신도시에 유치하게 된 것은 인천의 위상과 발전가능성이 국내외적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 고무적인 일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효과를 기존 구도심에 흡수·확산시켜 인천을 새롭게 탈바꿈 시키고 시민의 보편적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전략하에, 검단신도시 개발, 가정오거리 뉴타운사업, 경인고속도로직선화사업, 역세권개발 등 대형 사업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인천시 예산을 경제자유구역에 쏟아 넣어 도시발전이 더디다는 오해가 있으나, 경제자유구역이 있기에 사람도, 첨단산업도, 외국 돈도 인천에 몰리고 도로건설과 구도심 개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천이 우리나라의 문호를 연 이후, 산업화 시대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왔고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개최에 이어 인천-평양 간 남북측 합의와 2005년 제16회 인천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대성공에 이르기까지 하루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이제 이런 인천의 역량과 시민의 저력을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물류·비즈니스 허브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업무를 총괄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의 개청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진행과정을 소상하게 담은「인천경제자유구역 백서」에는, 심한 산고를 치르며 태어난 경제자유구역과 그 이후의 땀 냄새가 흠뻑 밴 공직자들의 활동들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백서가 경제자유구역을 폭넓게 이해하는데 도움되고 행정업무수행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 10

인천광역시장



축 사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행하고 있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 2주년을 맞아 발간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백서」를 260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날 세계경제는 1993년 WTO(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면서 국가 간의 무역장벽이 무너져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특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IT와 BT, 그리고 지식 기반산업과 핵심 부품기술 등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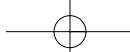
우리나라도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신성장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허약한 우리 경제의 구조를 고도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편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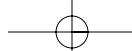
우리 시의회에서도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개발로 우리 인천이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를 실현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05. 10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2년간의 성과 바탕으로 차질없는 개발과 외자유치 추진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세계 최고의 기업 환경과 생활 환경을 만들어 세계 초일류 기업들을 유치해 10년 뒤에는 싱가포르, 홍콩, 중국의 푸둥 등 선발주자보다 월등히 수준 높고 쾌적한 역동적인 국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불과 7~8년 전만 해도 광활한 바다였던 송도는 ‘컨벤션센터’, ‘인천대교’ 건설과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등 최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비즈니스센터를 갖춘 세계적인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영종은 인천국제공항 2단계 공사와 IBC-I, II 개발, 그리고 자유무역지역 기반시설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서 기업들의 입주를 기다리고 있으며 청라지구는 금년 11월 착공을 시작으로 2008년에 1단계 사업이 완성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2008년 1단계 완성 로드맵에 따른 차질 없는 개발과 투자유치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이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15년에 완성될 새로운 미래도시 건설의 비전을 하나씩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 경제청이 발족한 이후 2년간의 성과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본 책자에 담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의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아울러 그 동안 경제자유구역청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우리의 풍요로운 삶과 자라나는 2세들의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 260만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2005. 10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인 사 말



시민의 힘 하나로 **인천의 힘** 세계로

축하 메시지

발간사/ 인천광역시장	02
축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04
인사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05

포커스

IFEZ 20대 뉴스	10
IFEZ 일지	30

제1장 IFEZ의 추진배경과 성공조건

제 1 절 추진배경과 필요성	36
제 2 절 추진경과	40
제 3 절 경제자유구역 개발전략	42
제 4 절 경제자유구역 추진의 성공조건	49
제 5 절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경제적 효과	59

Asia's No.1 Gateway

인천경제자유구역 백서

편집위원

발 행 인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위 원 장 : 기획국장 방종설

부위원장 : 기획정책과장 김상길

위 원 :

총 괄

기획팀장 변주영

기획팀 윤도영

실 · 과별

기획정책과 이금호

투자정책과 김영수

투자유치 2과 이경숙

송재명

계획총괄과 윤응규

안병탁

건설계획과 박두로

건축지적과 김병수

송도개발과 김충휴

영종개발과 조건영

이무영

제2장 IFEZ의 일반현황 및 추진전략

제 1 절 일반현황	62
1. 개요	62
2. 조직·정원	63
3. 예산규모	64
4. 주요사업	64
5. 주요 성과 및 향후 중점 추진 방향	81

Contents

제 2 절 IFEZ의 경쟁력과 추진전략	83
1. 경쟁력 기반	83
2. 4대 허브 전략	84
3. 3대 차별화 전략	85
4. 마케팅 전략	94
제 3 절 주요 제도 개선사항	96
1.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및 개정	96
2. One-Stop Service 제도개선	101
3. 개발 관련 규제완화	101



표지 이야기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인천의 랜드마크로서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인천대교(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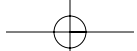
제3장 주요 투자유치 활동

제 1 절 투자유치 방향	104
제 2 절 주요 투자유치 사례	106
제 3 절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홍보활동 전개	128
제 4 절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158

제4장 지구별 개발계획 및 추진현황

제 1 절 송도지구 개발계획과 추진현황	166
1. 개발계획	166
2. 기반시설조성공사	171
• 공유수면 매립공사	
• 기반시설 조성공사	
• 생태도시 조성공사	
• 물류 인프라 건설사업	

발행일 2005년 11월 10일
발행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INCHEON FREE ECONOMIC ZONE)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94번지
(우)406-130
TEL (032) 453-7114
FAX (032) 453-7109
<http://www.ifez.go.kr>



시민의 힘 하나로 인천의 힘 세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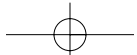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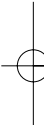
3. 주요 개발사업	186
• 국제업무단지 개발	
• 산업단지 조성	
• 바이오단지 조성계획	
• 어민생활 대책용지 개발	

제 2 절 영종지구 개발계획과 추진현황	209
-----------------------	-----

1. 개발계획	209
2. 기반시설 조성공사	212
• 예단포 ~ 중산동 간 도로	
• 북측 유수지 ~ 남측 유수지 간 도로	
• 예단포 ~ 운북환경사업소 간 도로	
• 예단포 ~ 공항고속도로 간 도로	
• 영종화주 도로	
• 공항철도 영종역사	
• 공항철도 용유역사	
3. 주요 개발사업	214
•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	
• 용유 · 무의관광단지 조성사업	
4. 인천국제공항	239

제 3 절 청라지구 개발계획과 추진현황	255
-----------------------	-----

1. 개발계획	255
2. 주요 개발사업	259
• 국제금융업무단지	
• 스포츠 · 레저단지	
• 첨단 화훼단지	
• GM대우 R&D 시설 건설사업	
3. 사업추진 상황	260



Contents

4. 재정 로드맵(공공부문 종합투자계획)	262
------------------------	-----

제5장 민원 및 갈등해결 모범사례

제 1 절 인천대교 건설사업	294
1. 사업개요	294
2. 추진현황	295
제 2 절 미사일 기지 이전사업	311
1. 사업개요	311
2. 추진현황	311
제 3 절 관광 포장마차 조성사업	316
1. 사업개요	316
2. 추진현황	317

제6장 오피니언 리더와 언론이 본 IFEZ

제 1 절 오피니언 리더가 본 경제자유구역	326
제 2 절 투자가 기고문	341
제 3 절 국내외 주요 언론 보도내용	355

부록

1.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주한 외국기업인 인식조사결과 (조사기관 : 전국경제인연합회)	406
2. IFEZ 송도지구 입주업체 현황	416



IFEZ 20대 뉴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출범, 이환균 초대 청장 취임 (2003. 10. 15)



2003년 8월 11일 인천 송도·영종·청라지구가 우리나라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0월 1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출범(정원 286명)했다. 초대 청장에 건설교통부 장관을 역임한 이환균 청장이 임명됐으며, 노무현 대통령, 안상수 시장, 신경철 시의회장 등이 참석 한 가운데 개청 현판식을 가졌다.

인천광역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개발, 인천을 동북아허브로 실현하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총 6,336만평의 면적에 계획 인구 48만 7천명이 생활하는 국제도시로 건설된다. 총 사업비 14.8조원(기반 시설 건설비)이 투자되며 사업기간은 2003~2020년(1단계 2008년)이다.



영국 노드 앵글리아 교육 그룹과 외국교육기관 설립위한 MOU 체결 (2004. 8. 5)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 교육 기관의 유치는 필수적이다.

2004년 8월 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학교 유치를 위해 영국에서 가장 큰 교육기관인 노드 앵글리아 교육 그룹(Nord Anglia Education PLC Group)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노드 앵글리아 교육 그룹의 상하이국제학교는 최종 학교설립 협약서가 체결된 시점부터 4년 이내에 중구 운북동 2만 여평의 부지에 2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노드 앵글리아 교육 그룹은 영국 내 12개의 사립학교와 상하이 등 아시아 지역과 유럽에 10개 이상의 국제학교를 설립, 운영 중에 있는 교육전문 기관이다.

한국관광공사와 관광개발 및 투자유치 촉진 업무협정 체결 (2004. 11. 9)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4년 11월 9일 서울 소공동 조선포텔에서 이환균 청장과 유건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관광공사와 업무 협조 약정을 체결했다.

업무협정 체결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관광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문을 공사측에 구하고, 관광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강사를 지원받게 된다.

또 공사측으로부터 관광 개발에 필요한 투자 유치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고 정보 자료를 제공받게 되며 투자 설명회와 전시회 개최 등 마케팅 활동에서도 지원을 받게 된다.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양 기관은 업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업무 협조 범위와 추진 방법 등 세부사항을 협의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공사 내 관광투자유치센터와 해외지사망을 활용해 용유 · 무의 관광단지와 청라지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관광개발 사업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송도 국제컨벤션센터 기공식 (2004. 11. 11)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NSC, 미국 부동산 투자 회사 게일사와 한국 포스코 건설의 합작법인)는 2004년 11월 11일 이현재 경제부총리, 안상수 인천시장, 이환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스탠 게일 미 게일사 회장,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컨벤션센터’ 기공식을 가졌다.

NSC가 1억 2,500만 달러(1,500억원)를 투입, 2007년 12월 말 완공할 국제컨벤션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 면적 1만 2,600평 규모로 국제회의와 전시회 등을 갖춘 초현대식 건물로 건립돼 송도지구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된다.

이현재 경제부총리는 치사에서 “이 기공식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이 본격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뜻 깊은 행사”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은 국제컨벤션센터 기공으로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인천대교 중앙 교각 사이 폭 800m로 합의 (2004. 12. 12)



인천대교 중앙 교각 사이 폭을 두고 논란을 벌여온 정부와 인천광역시, 시민단체가 교각 사이 폭을 800m로 합의하면서 ‘동북아 허브 다리’ 인천대교 건설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인천대교는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총연장 12.3km로 영국 아멕사가 사업자로 선정돼 2004년 8월에 공사에 들어가 2008년 8월에 완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천 시민단체와 항만단체로 구성된 ‘제2연

륙교(인천대교의 옛이름)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선박들의 안전 운항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중앙 교각 사이 폭을 1,000m로 확장할 것을 요구하면서 착공이 연기되는 등 사업이 표류해 왔다.

2004년 12월 12일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제2 연륙교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 장승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천대교 적정 교각 폭에 대한 최종 협의회를 열고 중앙 교각 사이의 폭을 당초 700m에서 800m로 늘리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해찬 총리 IFEZ 방문, 간담회 개최 (2004. 12. 27)



“앞으로 대한민국의 장래를 걸머진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된 국가 정책이 심도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논의를 해나가겠다.”

이해찬 국무총리가 2004년 12월 27일 송도국제도시 갯벌타워에서 열린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 등과 관련한 간담회’에 참석,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중요성과 함께 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그동안 서울의 위성 도시로 인식돼왔던 인천은 이제 경제뿐만 아니라 IT·BT 등 최첨단 국

가전략산업의 허브로 대한민국의 장래를 이끌어갈 중심지가 됐다”며 “남북관계 화해 분위기 속에서 북한 개성공단과 서울, 인천을 연결하는 삼각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10년 후 인천은 대한민국은 물론 동북아의 요충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리는 또 ‘인천항 현황과 개발계획’을 보고 받고 “인천항이 중국, 수도권, 개성 공단 등의 중심 항만이 돼야 한다”며 인천항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GM대우와 주행성능시험장 건립 위한 MOU 체결 (2004. 12. 30)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에 GM대우자동차의 주
 행성능시험장(CTT)과 연구·개발(R&D) 시설이 들
 어선다.

인천광역시와 GM대우는 2004년 12월 30일 청라
 경제자유구역 내 주행성능시험장 및 연구 시설 건립
 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인천광역시는 서구 원창동 청라 지구 내 부지 14만
 여 평을 매입해 GM대우에 무상으로 제공하게 된다.
 임대 기간은 최초 30년이며 추가로 20년을 연장할

수 있다.
 GM대우는 이곳에 주행성능시험장 건설에 약 240
 억원, R&D시설 건립에 약 490억원 등 총 730억원
 을 투자해 2006년 8월에 완공할 계획이다.

이번 GM대우의 직접 투자 유치로 인천 지역이 자
 동차 산업 기지로 발돋움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는
 한편, 청라 지구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
 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중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04. 12. 31)



2004년 12월 31일 「경제자유구역법 중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에서 내국인도 자유롭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국인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005년 1월 2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작업을 거쳐 2005년 4월부터 시행 중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국내외 병원 간 의료 인력 교류를 통해 해외원정 진료 수요의 흡수와 국내 의료 산업 발전 등의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병원 유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인천 경제자유구역에는 미국 병원 2곳이 유치되어 2008년에 개원할 계획이다.



이환균 청장, 미국 IR활동 'IFEZ 개발프로젝트' 협의 (2005. 1. 18)



이환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05년 1월 18일부터 23일까지 미국을 방문,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를 위한 IR 활동을 펼쳤다. 이 청장은 뉴저지에 있는 게일 본사를 방문, 스탠 게일 회장과 만나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학교 유치 관련 운용전략, 커리큘럼 등을 협의하고, 송도국제도시 홍보 전략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이 청장은 게일사가 키튼 앤 파트너스(Kitson & Partner)와 공동 개발한 플로리다 팜 비치에 있는 골

프리조트 주거단지를 방문,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룬 현장을 확인했다.

또한 이 청장은 투자 회사인 안젤로 고든(Angelo Gordon)사를 방문, 케이즈 바켓 등 회사 관계자들과 만나 송도 DEC(Digital Entertainment Cluster) 개발과 관련된 벤처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협의했다.

이 청장은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도 만나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협의했다(사진).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국제도시 연장사업 기공식 (2005. 2. 18)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 공사가 시작되었다.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는 2005년 2월 18일 송도국제도시에서 안상수 인천시장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국제도시 연장건설 사업 기공식’ 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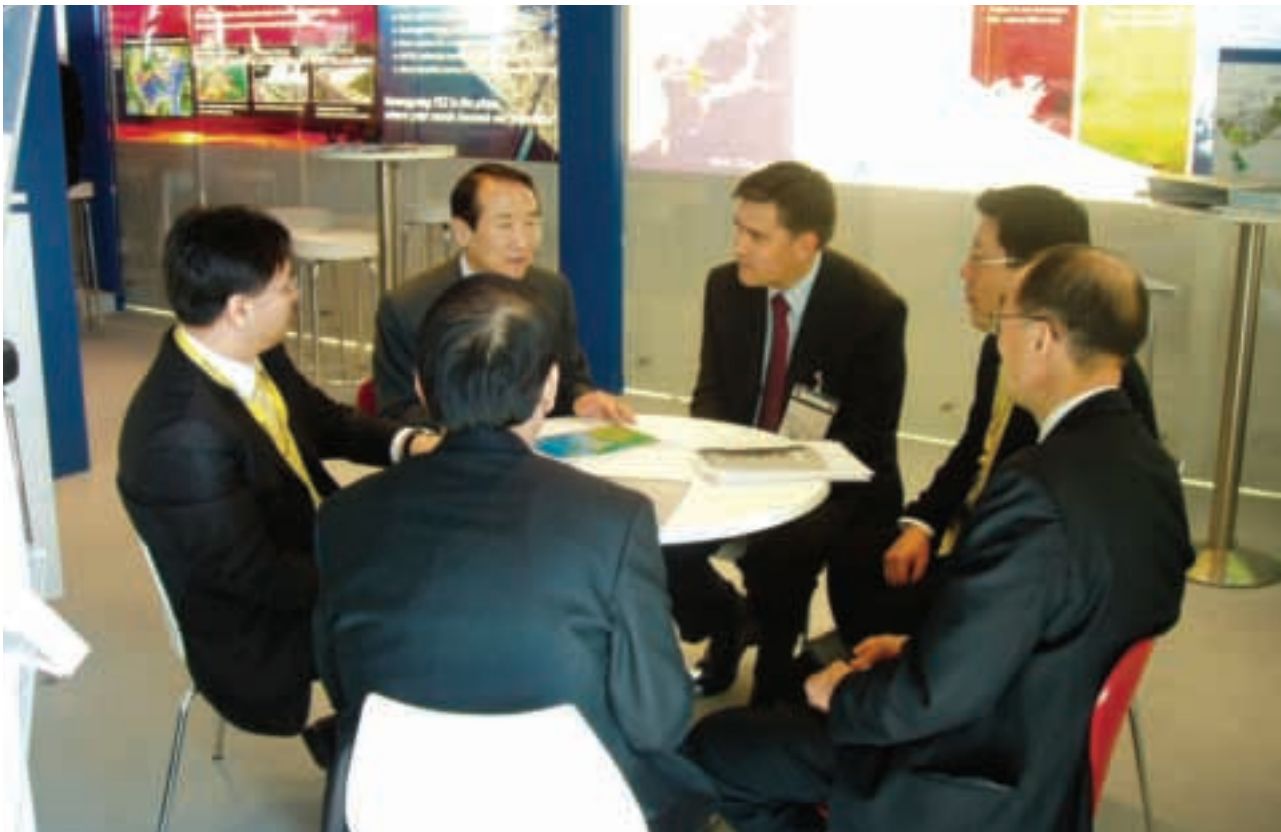
이 사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입주민의 대중교통 수단 확보를 위한 것으로 연수구 동춘동 동막

역에서 동춘동 매립 1공구 6.5km 구간에 걸쳐 정거장 6곳을 건설하며, 총 7,045억원의 예산이 투입 돼 2009년 10월 개통될 예정이다.

이 구간이 완공되면 인천 지하철 1호선은 현재 24.6km에서 32.34km로, 역사가 22곳에서 28곳으로 늘어난다. 연장 구간 모든 정거장에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돼 승강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명피해 등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게 되며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확대 설치된다.



세계 부동산박람회 'MIPIM 2005' 참가, 투자유치 홍보 활동 (2005. 3. 8)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5년 3월 8일부터 11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개최된 부동산 박람회 '미뫼 (MIPIM) 2005'에 참가해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다. 16회째가 되는 미뫼 박람회는 유럽을 대표하는 부동산 박람회로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2,050여개 업체가 참가해 IFEZ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이환균 청장을 대표로 참가단을 구성했으며, 재정경제부 기획단의 주관 하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광양만경제자유구역

청과 함께 'Korea's Fezs'라는 공동부스를 설치했다. 한국 참가단 중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유일하게 지난해 참가한 경험을 살려 좀더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했다.

투자자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 특히 송도 국제업무 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해외 투자자들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널리 알리고, 100여 건의 투자상담 실적을 올렸다.

주한미상공회의소 회원사 초청 투자설명회 개최 (2005. 3. 29)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5년 3월 29일 서울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 암참) 회원사를 초청해 ‘경제자유구역 투자설명회’를 갖고, 경제자유구역의 비전과 장점을 소개했다.

이환균 청장, 조성익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장, 제프리 존스 전 암참 회장, 태미 오버비 암참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설명회에는 50여개의 미국 기업들이 참석,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조성익 단장은 기존 연설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인센티브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미국 기업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리적 요건이나 세제 감면, 규제완화 등 정책적인 면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생활 편의 시설 등에서 외국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주문하기도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러한 행사가 국내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인지도 제고와 관심 유발에 크게 기여하면서 향후 경제자유구역 투자 확대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커스 - IFEZ 20대 뉴스

송도국제도시 5·7공구 매립공사 기공식 (2005. 4. 8)



세계적인 IT클러스터로 조성될 송도국제도시 5·7 공구 매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5년 4월 8일 송도국제도시에서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이환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7 공구 매립 기공식을 가졌다.

이 사업은 인천 연수구 동춘동 일대 공유수면에 있는 송도국제도시 5·7 공구 198만 평을 매립하게 되며, 총 1.925억원을 들여 2007년 말쯤 완공할 예정이다.

우선 총 8,392m의 호안이 축조된 후 4,750여 만톤의 복토를 이용해 호안 쪽 공유수면이 매립되고 있다. 이환균 청장은 기공식 경과보고를 통해 “5·7 공구가 3년 뒤 완전히 매립되면 이 지역의 12만 평에는 정보통신부와 우리 경제청이 공동으로 세계적인 IT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5·7 공구 매립까지 완료되면 송도국제도시시는 모두 581만 평의 부지를 확보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공유수면 매립은 앞으로 증가될 외국 투자자들의 부지 수요를 충당하게 된다.



안상수 시장, 미국 캐나다에서 IFEZ 투자유치 활동 (2005. 4. 26)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인천광역시는 다각적인 투자유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은 2005년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모두 14명으로 구성된 투자유치단을 이끌고 미국 필라델피아, 뉴욕, 샌프란시스코와 캐나다 토론토 등 북미를 방문,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종전과 달리 송도국제도시 내 국

제업무단지 167만평 개발사업자인 미국 게일사, 필라델피아 시청, 재미교민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 등과 공동으로 투자유치 마케팅을 벌이고, 대상을 재미교포로 크게 확대하며 투자설명회를 추후 개별 상담으로 연계시켜 성과를 극대화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투자유치단은 미국 우수 엔지니어링 회사인 HNTB로부터 투자의향서 접수, 세계적인 물류 회사인 AMD 프로퍼티의 2억 달러 투자 의사 확인 등의 성과를 거뒀다.



홍콩 · 싱가포르 투자유치 설명회 (2005. 5. 9)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5년 5월 9일부터 13일까지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했다.

안영도 투자유치국장을 단장으로 한 투자유치단은 홍콩과 싱가포르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 IFEZ에 대한 소개와 함께 주요잠재 투자가의 투자유치 상담을 벌였다.

5월 10일 홍콩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된 투자유치 설명회에는 60여명의 다국적 기업 및 지사,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IFEZ에 대한 투자정책 및

정부 지원책, 송도, 영종, 청라 등 3개 지구의 개발 방향과 상품을 설명했다.

5월 11일 싱가포르 샹그리라 호텔에서 개최한 투자유치설명회에는 다국적 기업 및 관계기관 직원들이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됐다. 투자유치설명회 참석자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많은 질문을 했다.

이번 행사는 참석한 투자자 20여개사와 개별 상담을 통해 IT, BT, 금융, 부동산 개발 분야에서 투자가 능성 업체 12개사를 발굴해내는 성과를 거뒀다.

UN기구 APCICT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기술개발센터) 유치 (2005. 5. 18)



송도국제도시에 UN 산하기구인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기술개발센터(APCICT, Asian and Pacific Training Center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Development)가 설립된다.

이 같은 결정은 2005년 5월 1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 제61차 연례총회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유치는 정보통신부, 외교통상부,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노력해 이루어진 값진 결실이다. APCICT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IT 교육 훈련과 정책자

문, 정보교류를 통하여 국제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기관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62개 ESCAP 회원 및 준회원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ICT 전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역내 정보화 촉진 및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인력을 대상으로 무상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UN기구를 유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APCICT의 송도국제도시 유치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과 역할을 제고하고 명실상부 동북아 IT 리더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될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새 홍보관 ‘인천경제자유구역 비전21’ 개관 (2005. 6. 10)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비전을 보여줄 새 홍보관이 문을 열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5년 6월 10일 송도국제도시 내 갯벌타워 21층에 새 홍보관 ‘인천경제자유구역 비전21’ (영문으로는 ‘IFEZ Vision 21’)을 개관했다.

새 홍보관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서고, 기존 홍보관과의 이원화 및 차별화를 통해 IFEZ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비전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총 예산 28억 6천만원을 들여 1년여의 준비 끝에 선을 보

였다. 새 홍보관에는 IFEZ의 전체 모형전시물, PDA 정보 검색기, 홍보 판넬 등도 갖추어져 있지만 탁 트인 바다를 배경으로 송도국제도시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가 위치하고 있어 성과가 기대된다.

새 홍보관이 강력한 투자앵커 시설로 기대를 모으는 것도 바로 모형물 등 홍보시설과 실제 개발현장 체험이 가능한 입체적인 홍보 전시관이기 때문이다. 새 홍보관은 실질적인 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방문예약제로 운영하며 기존의 송도홍보관과 함께 이원적으로 운영한다

노무현 대통령, 인천대교 기공식 참석 및 물류경제지문회의 주재 (2005. 6. 16)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랜드마크가 될 인천대교 기공식이 2005년 6월 15일 송도국제도시 제3공구에서 열리면서 4년 4개월간의 대역사를 시작했다.

이날 기공식은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추경직 교통건설부 장관,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이환균 인천경제청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인천대교가 완공되는 2009년엔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이 현실로 가시화되고, 인천은 세계를 향한 번영의 관문으로 선진한국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과 번영의 다

리’ 인천대교는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총연장 12.3km로서 인천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해상교량 길이만 11.7km에 이르는 국내에서 가장 긴 해상교량이다.

이 사업에는 총 1조 2,467억원(2004년 1월 불변가격)이 투입되며 국내 민자사업으로는 최초로 시행사와 시공사는 분리해 시행사인 KODA개발(영국 AMEC사와 인천시 합작법인)이 자금조달과 사업관리를, 삼성JV가 설계와 시공을 담당한다.



안상수 시장, 미국 필라델피아 'BIO 2005' 참석 (2005. 6. 19)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2005년 6월 18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한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은 19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BIO 2005' 행사에 참석해 IFEZ의 바이오메디컬 허브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안 시장은 전세계 2만 여명이 참여하는 'BIO 2005' 행사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이 최근 신약 개발, 뇌과학 등 첨단 의학과 바이오 분야 연구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을 갖추고 있는 한국은 아시아 바이오메디컬 허브로서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특히, 안 시장은 “인천은 세계적인 국제공항과 항만을 갖고 있고, 중국 시장과 북한의 물류 교두보로서 손색이 없다”며 많은 해외 기업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안 시장과 동행한 인천경제청 투자유치단은 이 행사에서 2012년을 목표 연도로 영종지역에 동아시아 첨단, 전문 종합병원과 유전체, 신약, 재생의학, 뇌과학 등 미래기술을 선도할 연구센터, 전문의료, 한방, 전문 교육기관 등으로 구성된 '바이오메디컬 단지' 구축 계획을 설명했다.

셀트리온, 미국 BMS에 신약 20억 달러 공급 계약 체결 (2005. 6. 22)



송도국제도시 인천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1호 기업인 생명공학회사(주)셀트리온(Celtrion)이 2005년 6월 22일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회사인 미국 BMS사와 10년간 20억 달러에 달하는 바이오 신약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내용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BMS사가 최근 개발한 관절염 치료용 바이오신약 아바타셉트(Abatacept)를 비롯한 BMS의 향후 개발 신약을 생산, 공급하게 된다.

서정진 셀트리온 사장은 “이번 계약은 단일 계약 규

모로는 국내 제약업계 최대 규모”라며 “외국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계약을 성사시킴으로써 세계적인 생명공학 회사의 대열에 진입하는 기반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서 사장은 또 “자체 또는 해외 우수 기업과의 합작으로 2010년까지 약 1조원을 투자해 송도에 국제적인 바이오밸리를 조성하겠다”며 고 덧붙였다.



셀트리온은 미국 생명공학회사인 백스젠(지분 48%)이 에이즈백신과 단백질 의약품 생산을 위해 설립한 기업으로 국내 기업으로는 KT&G, 넥셀, 제인 스테판&컴퍼니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포커스 - IFEZ 일지



IFEZ 일지

2002년		2003년	
1. 14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 기본구상 발표	7.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4. 4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기본계획 확정	8. 11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인천 '송도, 영종, 청라지구' 를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고시
7. 29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세부실행계획 확정	10. 13	인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 및 규칙 공포
11. 14	경제자유구역법지정및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 의결(2002. 12. 30 공포)		
			
12. 4	경제자유구역준비기획단 발족	10.15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출범, 이환균 초대 청장 취임





2004년

3. 9	아일랜드 투자유치 활동	11. 3	경제자유구역의 현실과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5. 13	미국 뉴욕 투자설명회(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 등 참석)	11. 9	한국관광공사와 관광개발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업무협정 체결
5. 18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한국 경제자유구역 유럽투자상담회 개최	11. 11	송도 국제컨벤션센터 기공식
		11. 18	인천도시개발공사, 송도4공구 웰 카운티 아파트 모델하우스 개장
7. 8	인천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 개최(노무현 대통령 참석)	11. 25	상하이, 센젠, 홍콩 등 중국 경제특구 벤치마킹
8. 5	영국 노드앵글리아교육그룹산하 상하이 영국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K-1) 설립을 위한 MOU 체결	12. 12	인천대교 중앙 교각 사이 폭 800m로 합의 (제2연륙교 범시민대책위와 안상수 시장,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 장승우 해양수산부 장관)
10. 4	윤석윤 초대 차장 취임	12. 27	이해찬 총리 IFEZ 방문, 간담회 개최
10. 8	미국 샌프란시스코 'WCG 2004'에 참여, 홍보활동 및 투자유치 상담	12. 30	GM대우와 자동차 성능시험장 및 연구시설 건립을 위한 MOU 체결
10. 25	미주 한인상공인총연합회 회원 초청 투자설명회(인천 베스트웨스턴호텔)	12. 3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2005년

1. 7	‘U-City 전략’ 용역 착수 보고회	3. 8	모건스탠리, 송도국제도시에
1. 13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위한		150억원 투자 발표
	‘민관협의회’ 구성	3. 8	세계 부동산박람회 ‘MIPIM 2005’
1. 14	투자유치 강화 위해 조직개편		참가, 투자유치 홍보 활동
	– 투자유치국을 3개과로 개편,	3. 22	미 부동산투자업체 엔젤로고든사,
	기획정보과를 기획정책과로,		송도 ‘사이버시티’ 개발 참여 발표
	민원세정과를 민원행정과로,	3. 29	주한미상공회의소 회원사 초청
	도시기반국에 건설계획과 신설		투자 설명회 개최
1. 18	이환균 청장, 미국 IR활동 – 게일사,	3. 31	이환균 청장 – 싱가포르 원노스,
	안젤로고든사와 개발 프로젝트 협의		두바이 인터넷 시티 방문
2. 18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신도시	4. 08	송도국제도시 5·7공구 매립공사 기공식
	연장사업 기공식	4. 19	송도·만수 하수처리장 준공식
		4. 22	조직개편
			(1담당관3국12과2사무소에서
			1담당관3국11과1사무소로)
		4. 26	안상수 시장, 미국 캐나다에서 IFEZ
			투자유치 활동
		4. 28	이환균 청장, 싱가포르
			세계경제포럼에서 특별연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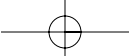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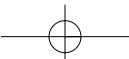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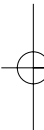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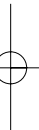
2005년

5. 9	홍콩, 싱가포르 투자유치 설명회	6. 10	새 홍보관 'IFEZ 비전21' 개관 (갯벌타워 21층)
5. 16	일본 도쿄, 오사카 투자설명회 개최	6. 16	인천대교 기공식 및 노무현 대통령 물류경제지문회의 주재
5. 18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NSC),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및 개발 일정 보고회	6. 16	제2연륙교 명칭 '인천대교' 로 확정
5. 18	송도국제도시에 UN기구 APCICT(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 기술개발센터) 유치	6. 16	아시아지역 통합과 경제협력을 주제로 '2005 IFEZ 국제세미나' 개최
		6. 19	안상수 시장, 미국 필라델피아 'BIO 2005' 참석
		6. 22	셀트리온, 미국 BMS에 신약 20억 달러 공급 계약 체결 발표
		6. 23	NSC, 1조 5천억원 프로젝트 파이낸싱 계약 체결
		6. 28	인천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7. 13	RFID/USN 정책세미나 개최 (여의도 전경련회관)





포커스 - IFEZ 20대 뉴스



제1장

IFEZ의 추진배경과 성공조건

책임집필: 기획팀장 변주영

- 제1절 추진배경과 필요성
- 제2절 추진경과
- 제3절 경제자유구역 개발전략
- 제4절 경제자유구역 추진의 성공조건
- 제5절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경제적 효과

제1절

추진배경과 필요성

1.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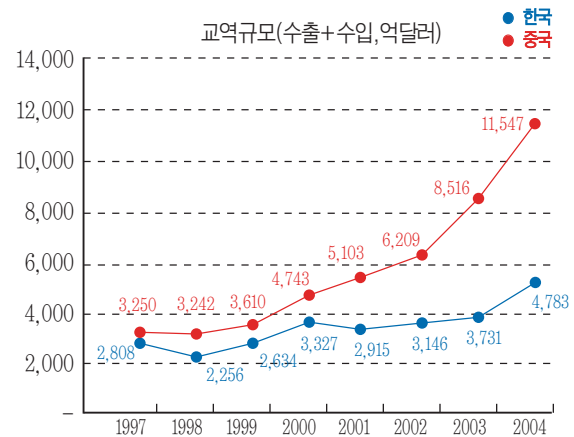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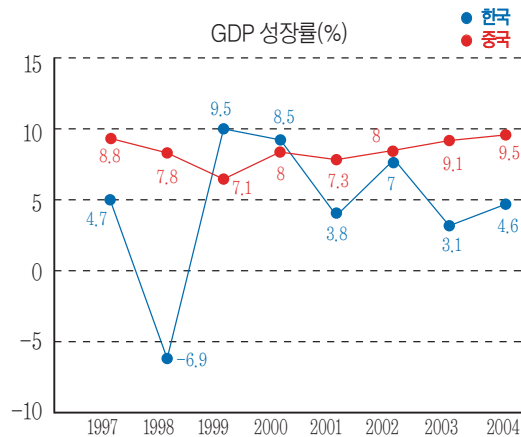
21세기 세계 경제 여건의 변화는 20세기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며, 이는 각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동북아 지역이 세계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과 비즈니스 거점화를 위한 주변국 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최근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하지만 세계3대 교역권이라 할 수 있는 동북아 지역 내에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 각국의 위상이 세계화, 블록화, 정보화 등의 대조류 속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지역은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가입을 계기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고, EU 및 NAFTA와 더불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 물동량 가운데 동북아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27%수준이었으나 2000년 28.1%로 증가했고, 오는 2006년경에는 30.1%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1998년부터 2011년까지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서 세계 전체가 연6.7%정도의 성장이 기대되는 반면 동북아 지역의 경우 연 8.1%의 증가율이 예상된다.



세계 물동량 가운데 동북아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2006년에는 30.1%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와중에 중국 경제가 풍부한 저임금의 인적자원과 광대한 잠재 시장을 바탕으로 떠오르면서 홍콩과 대만에서는 이미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고, 그 여파가 한국과 일본에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의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향후 5~10년 안에 우리가 동북아 중심 국가로서 위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의 지정학적 여건이 오히려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 더구나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은 낮은 수준의 기술을 가진 나라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의 실현은 앞으로 한국 경제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인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대 아시아 FDI의 중국 집중 현상 심화〉

FDI(억달러)	1997	1998	1999	2000	2002	2004
한국	70	89	155	152	90	128
중국	452	456	404	407	527	606

〈포스코 경영연구소 자료〉

〈중저가 범용제품 시장에서 국내 기업 제품에 대한 중국의 시장 잠식 본격화〉

〈한·중 간 시장점유율 격차 추이(점유율, %)〉

구분	세계시장		미국시장		일본시장	
	1995	2004	1995	2004	1995	2004
한국	2.6	2.6	3.3	3.1	5.1	4.8
중국	2.6	6.5	6.1	13.4	10.7	20.7

〈포스코 경영연구소 자료〉



2. 경제특구 도입의 필요성

세계 각국은 국경 없는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가운데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유치에 적합한 특별지역 등 경제특구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개방경제시대의 성장거점을 선점하기 위해서 '무역+물류+기업집적+기술혁신' 이 결합된 경제특구를 개발하고 있다

중국은 1970년대 말부터 경제특구를 자원집중과 시장경제확산의 전진기지로 삼아 경제·사회 전체의 개방에 성공하는 등 경제발전의 중요한 축의 하나로 활용해 오고 있다. 싱가포르는 1988년 지식기반산업의 세계 허브(Hub)를 달성하기 위한 「Industry 21」계획을 발표하고 홍콩은 1997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비즈니스 중심지화 전략」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국가전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삼아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 또한 유럽의 경우 핀란드(올루)는 테크폴리스 등 첨단산업단지에 IBM, HP, SUN, 컴팩 등 세계일류기업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으며, 아일랜드는 낮은 법인세율과 개방체제를 무기로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생산기지로 변모해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한국은 27위로 대만(24위) 말레이시아(26위)보다 낮다. 미국의 헤리티지재단은 한국을 95년도 이후 경제자유도가 가장 많이 하락한 10개국 중 하나로 평가(2002)하고 있다. 경쟁국들에 비해 기업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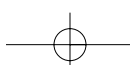
기업 경영환경 관련 국가별 순위

평가기관	국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스위스	한국	비고
EIU(60)		3	27	4	12	1	8	5	26	
IMD(49)		1	30	16	15	4	2	10	27	
WEF(75)		2	15	7	4	3	1	5	28	
Heritage(156)		4	35	9	20	4	14	12	38	
Frase Inst(62)		3	24	4	15	8	11	5	38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평가대상 국가수.

자료 :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02), IMD(2002), WEF(2001~2002), Heritage Foundation(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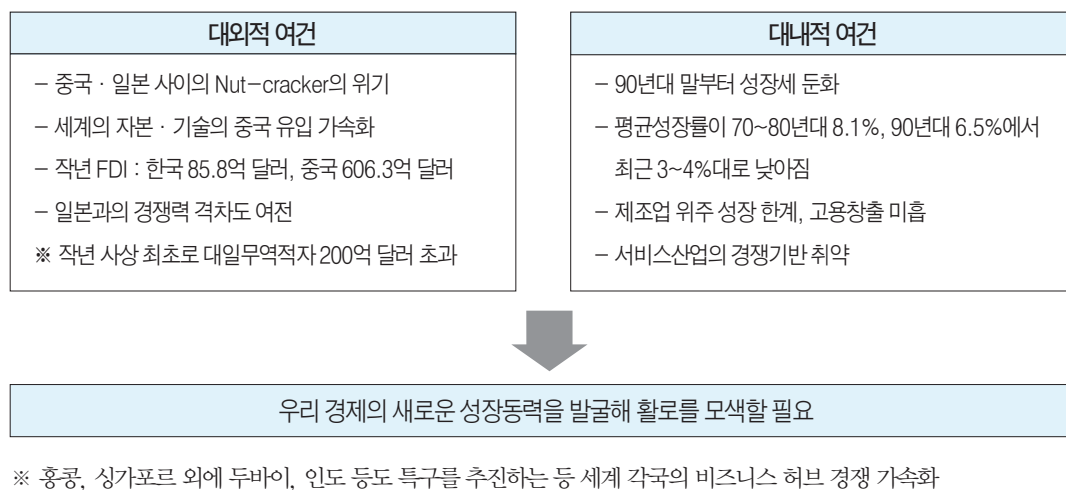
신기술 도입, 공동개발, 인력교류 등 국내로 유입되는 직접투자가 적은 것은 세계 기업들의 가치창출 거점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해외투자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조기에 기업여건을 개선하지 못할 경우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넛크래커(Nut Cracker)로 전락되는 등 경쟁대열에서 영원히 탈락할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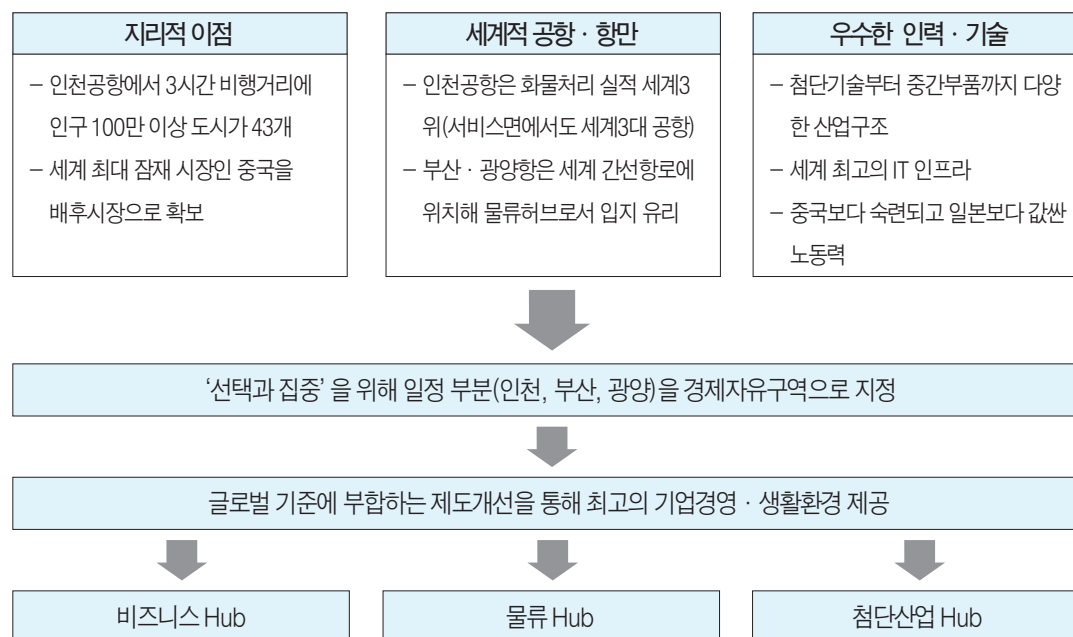


경제자유구역은 이러한 대내외적인 우리경제에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해서 출범했다. 기업정책 및 규제를 일시에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특구를 선진적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제특구는 과감한 규제완화, 시장원리의 구현, 기업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제도운영의 시험무대가 될 것이다.

가. 경제자유구역의 추진 배경



나. 경제자유구역의 의미



제2절

추진경과

우리나라에서 경제특구가 추진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이다. 1990년대 중반 정부의 ‘세계화’ 추진과정에서 일부 논의가 있었고 1990년대 말에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동북아 거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당시에는 정부의 추진 의지가 미약해 논의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청사진 마련 등을 통한 구체적인 실천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2001년 국토연구원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개방형 국토 거점의 육성방안을 구체화하는 의미에서 「세방화(globalization)시대의 신개방 국토거점 육성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서는 개방 거점의 개념을 “국내의 여타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일단의 정책수단을 통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각종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수출입 및 투자 등 특정한 종류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제한된 범위의 지리적 공간”이라고 정의했다. 중국의 푸둥, 싱가포르 등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정책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한 것이다.

2001년 하반기에 기업, 협회, 연구기관 등이 경제특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2002년 초반부터 정부 차원에서 경제특구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2002년 8월 경제특구법(경제특별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입법예고하기에 이르렀고,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후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로 최종적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경제특구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02년 11월 1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출범 (2003년 10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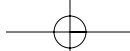
정부의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내용

구분	제도내용
2002. 1. 14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육성 기본 구상 발표
2002. 4. 4	국가경제자문회의 겸 경제정책조정회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Master Plan) 확정
2002. 7. 29	경제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세부 실행계획(Action Plan)을 확정
2002. 11.1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의결(2003. 7.1 시행) - 인천광역시시는 2003년 7월 1일 법 시행과 동시에 송도정보화신도시, 영종·용유·무의지역, 서북부김포매립지를 '인천경제자유구역' 으로 지정·신청
2003. 8. 11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인천의 '송도·영종·청라지구' 를 우리나라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
2003. 10. 15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출범(정원 286명)
2003. 10. 30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부산·진해, 광양만권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고시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은 인구 23.5만명, 면적 3,145만평 규모의 21세기형 항만·물류 중심도시로 건설되어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중점 육성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은 인구 22만명, 면적 2,691만평 규모의 21세기형 항만·물류 중심의 계획도시로 건설, 동북아 물류·석유·제철산업 클러스터를 형성
2004. 11. 11	최초 경제자유구역 사업인 송도국제도시 착공
2004. 12. 31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제도적 미비사항 보완 - 주요 개정 내용 :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허용, 경제자유구역청 자율성 강화

인천경제자유구역

- 1986 : 송도정보화 신도시 조성계획 수립
- 1989. 1 : 영종·용유도 인천시 편입
- 1989. 6 : 연수구 동춘동 일원 공유수면(535만평)매립 기본계획수립
- 1990. 11 : 송도정보화 신도시 공유수면 매립 승인(해양수산부)
- 1992. 11 : 인천국제공항 공사 착공
- 1994. 9 : 본격적인 송도정보화 신도시 조성공사 시작
- 2001. 3 : 인천국제공항 개항
- 2002. 3 : 127억 달러 외자유치(167만평, 국제비즈니스 센터)

※ 송도국제도시는 기존 시가지 내의 개발 가능지역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수면 매립이 검토되었고 1979년경 송도지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수립됨.



제3절

경제자유구역 개발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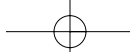
1. FEZ의 개발전략

동북아의 경제권이 급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도 높아지고 있으나 경쟁국에 비해 뒤늦은 경제중심 실현전략이 추진되고 있는데다 내수시장 부진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세계적인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동북아 경제권의 경쟁관계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으로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전략」은 불가피한 전략이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전략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세계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에서 우리 경제의 위상을 새롭게 확보하고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왔던 제조업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21세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첨단산업(IT), 물류, 금융 등 고부가 가치 서비스 산업의 복합 발전을 추구하며 장기적으로는 인천·부산·광양 등 비즈니스 거점 개발지역과 각 지방의 산업클러스터와 연계를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제의 활력을 도모해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당초 다수의 경제자유구역 후보지가 거론되고 지자체의 자율적 개발방식 등이 논의 되었으나 '선택과 집중'을 사업 추진의 기본방향으로 채택, 국제공항, 국제항만 등 기반 인프라를 갖춘 인천(2003. 8), 부산(2003. 10), 광양(2003. 10)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우선 지정 거점전략으로 지역별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분(지정일)	사업 계획	개발방향
인천 (2003.8.6)	- 송도·영종·청라지구 6,336만평 - 사업비: 14.7조원 - 계획인구: 49만명 - 계획기간: 2020년	- 송도:국제비즈니스,IT등 첨단산업 중심 - 영종:항공물류,특송화물,관광 중심 - 청라:금융,국제업무,레저(테마파크)중심
부산·진해 (2003.10.27)	- 부산 강서구, 경남 진해 일원 3,154만평 - 사업비: 7.7조원 - 계획인구 23.5만명 - 계획기간: 2020년	- 신항만을 동북아물류 거점으로 육성 - 첨단기계·소재,자동차부품 등 첨단산업단지·R&D센터 조성
광양 (2003.10.27)	- 전남 광양·순천·여수, 경남 하동 2,691만평 - 사업비: 8.1조원 - 계획인구: 22만명 - 계획기간: 2020년	- 광양제철소, 여수화학단지 활용, 동북아 물류기지와 석유·제철산업 클러스터 형성





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인천광역시 송도(연수구), 영종(중구), 청라(서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면적은 6,336만평에 달한다. 개발계획은 1단계는 2008년까지, 2단계는 2020년까지 나누어 개발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개발되면 생산, 부가가치 및 고용 등의 부문에서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발전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생산유발액 53조 4,35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22조 4,370억원, 신규 고용창출은 약 13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성사업비는 기반시설사업을 기준으로 총사업비는 14조 7,0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조달 방법은 국비 4,883억원, 인천시 4조 7,156억원, 민자 9조 4,981억원으로 조달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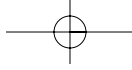
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경상남도 진해시 일원에 위치한 5개 지역으로 총 3,154만 평 규모이다. 부산·진해의 신항만 지역을 동북아 해양물류의 중심거점으로 육성하고 첨단산업단지와 R&D 센터를 조성하여 동남권의 생산거점 및 R&D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추정에 의하면 부산·진해자유구역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외국인 투자유치 155억달러, 생산 유발 효과 95조원 부가가치 창출 39조원, 고용창출 효과 152만명 등의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개발계획은 1-1단계는 2006년까지, 1-2단계는 2010까지, 2단계는 2020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조성사업비는 기본 인프라시설 4조 1,158억원, 부지조성비 3조 5,744억원으로 총 7조 6,902억원이 소요된다.

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전라남도 여수·순천·광양시와 경상남도 하동권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5개지구 24단지로 총 2,691만평에 달한다 광양만권은 허브항으로서 광양항의 잠재력을 활용, 해외 우수 물류기업을 유치하고, 화물의 저장·분류·가공·조립 등을 거쳐 제3국에 반출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개발계획은 1-1단계(2003~2006), 1-2단계(2010년까지), 2단계(2015년까지), 3단계(2020년까지)로 나누어지고 특히 1-1단계는 상하이 등과의 경쟁을 고려하여 항만 및 배후부지 조기 집중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1장 - IFEZ의 추진배경과 성공조건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면 광양만권의 외국인 투자는 현재보다 약 5배가 증가한 1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 유발 효과는 105조원, 고용창출은 160만명 정도가 예상된다. 기본 인프라 및 부지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8조 1,000억원으로 이는 총사업비 13조 7,400억원 중 부지매각 등 자체조달분 5조 6,400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2. IFEZ의 개발전략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국제공항 및 항만, 광역교통시설, 수도권 배후지역이 위치하고 풍부한 토지공급이 가능한 영종·송도·청라지구 등 3개 지구 6,336만평(209km²)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글로벌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편리하게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장 매력적인 비즈니스 환경과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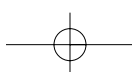
이러한 전략하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세계 최첨단 시설을 갖춘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허브 기반을 활용하여 국제업무 및 지식기반산업의 중심지, 관광·위락 및 국제금융업무 중심지 조성 등을 통해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21세기 세계 최고의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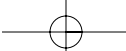
※ 지구별 개요(수용인구 총 49만명)

구 분		송도지구	영종지구	청라지구
주기능		국제업무 지식기반산업	공항지원 항공물류, 국제관광	국제금융 관광·레저
기 본 현 황	면적	1,611만평	4,184만평	541만평
	사업기간	1단계 : 1989~2008 2단계 : 2009~2020	1단계 : 2002~2008 2단계 : 2009~2020	2004 ~ 2008
	계획기간	25만명	15만명	9만명
주요개발계획현황		· 국제비즈니스센터 · 지식정보산업단지 · 첨단바이오단지	· 자유무역지구 · 물류·첨단산업단지 · 용유·무의관광단지	· 국제금융·업무 · 스포츠·레저 · 화훼단지·공공용지

가. 영종지구 : 항공 물류의 허브, 해양 레저 도시

인천국제공항 주변으로 조성되는 영종지구는 공항을 지원하는 기능을 보강해 항공 물류 거점으로 개발되면서 새로운 개념의 미래 도시로 다시 태어난다. 이 지역은 영종도와 용유도를 포함한 총 4,184만평에 이르는 대규모 단지로 조성된다. 공항과 밀접하게 연결된 영종, 중산, 운남, 운서동 일대는 복합 도시로 개발되어 주거, 산업 및 물류, 국제 업무 등의 기능을, 용유도와 무의도 지구는 종합레저 단지로 기능을 갖추게 된다.





가장 눈에 띄는 개발 사업은 63만평에 이르는 공항 물류단지와 화물터미널지역으로서, 고부가가치 항공물류중심지로 육성한다. 30만평의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수출입 상품들의 가공 처리를 지원하며 2005년 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13만평 규모의 화물터미널 2단계 확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곳에는 국제 특송 업체인 DHL이 2천만 달러를, TNT가 700만 유로를 투자해 각각 6,800평과 2,100평의 물류 센터를 건설, 2007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곳에서 일할 사람과 외국인들을 위해 대규모 주거단지도 꾸며진다. 단독 주택 5,560가구, 공동 주택 4만 9,490가구, 주상 복합 650가구 등 모두 5만 5,700 가구가 공급되며 14만 4천 여 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곳에는 외국인 전용 단지 2만 여 평이 조성된다. 내국인도 입학할 수 있는 외국인 학교 2곳, 외국 병원 1곳, 외국 대학 분교 1곳을 유치할 예정이다.



삼각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송도·영종·청라지구 위치.

용유도와 무의도에 조성될 213만 평 규모의 국제적인 종합관광단지도 영종지구 개발에서 빼놓을 수 없다. 영종도 구읍 선착장 주변에는 바닷가를 이용한 관광·레저 단지를 만들고, 영종도 북쪽 예단포 일대는 관광 어촌을, 백운산 북쪽 운북동에는 리조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비즈니스맨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최상의 휴식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송도 지구 : 지식정보 산업 중심, 국제 비즈니스 도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도시’ 광활한 갯벌이 펼쳐진 송도 앞 바다가 국제 수준의 최첨단 정보화 신도시로 태어나고 있다. 인천시가 이곳을 미래 발전의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1994년부터 매립하기 시작해 9월 현재 1,2,3,4 공구 383만 평의 매립을 완료한 상태. 2020년에 모든 개발이 완료되면 총 1,611만 평의 광대한 땅을 확보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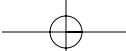
현재 이곳은 국제 비즈니스 센터, 첨단 바이오 단지,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공동 주거단지 등이 어우러지는 세계 최첨단의 정보 통신 인프라와 비즈니스 센터를 갖춘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다.

국제비즈니스 센터는 미국의 게일사와 한국의 포스코가 컨소시엄인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가 167만평에 127억 달러를 투자해 건설한다. 2004년 11월 착공한 이곳에는 2013년까지 65층 규모의 국제무역센터와 컨벤션 센터를 비롯해 최고급 호텔과 백화점 및 쇼핑몰, 업무용 고층 빌딩, 골프장 등이 들어선다. 외국인 주거단지와 오페라 하우스 등 문화 센터도 세워진다.



송도 국제업무지구 조감도.

첨단바이오단지는 10만 평 규모로 조성된다. 지난 2002년 12월 12일 민간 기업 최초로 바이오 벤처 기업인 (주)의과학연구소가 착공식을 가졌고, 2003년 3월 25일에는 미국의 단백질 백신 개발 회사인 백신젠 (Vaxgen)사가 최대 주주로 있는 한미합작 회사인 (주)셀트리온이 송도국제도시 2공구와 4공구에서 생산 시설 및 연구개발센터 준공식을 2004년 6월에 가졌다. 넓은 대지에 하나둘씩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첨단바이오



단지는 조만간 동북아를 대표하는 바이오산업 메카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첨단지식 산업단지가 들어설 80만 평 규모의 땅에는 이미 송도테크노파크 본부동과 벤처빌딩, 시범생산공장이 이미 완공되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13만 7천 평의 테크노파크에는 32개 벤처 기업 연구소들이 입주해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21층 규모의 벤처 빌딩인 ‘갯벌 타워(Get Pearl Tower)’ 에도 벤처 업체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다. 그밖에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등 나머지 시설들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곳은 세계 유수의 반도체 산업이 한데 모여 첨단 기술의 전진 기지가 된 미국의 실리콘 밸리와 같은 최첨단 지식 산업 단지로 조성되어 우리나라 첨단 지식 산업을 견인하게 된다.

송도에 조성될 국제도시는 어디서나 최첨단 통신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개념을 도입해 21세기 정보 통신 시대에 걸맞는 최고의 주거 환경을 지향하고 있다. 54만 평의 대지에 7,900세대 2만 2,900명이 상주한다. 2004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송도국제도시는 입지나 시설 면에서 인천 주거 문화의 품격을 한 차원 끌어올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6% 이상의 녹지 공간과 공원, 호수 공원, 도심 가로 공원, 생태 공원을 갖춘 생태 문화 도시요, 외국인 학교와 병원 등을 구비해 외국인들이 편리한 생활 도시로 꾸며진다. 특히 외국인들을 위해 외국인 전용 단독 주택 단지 6만평과 외국인 학교 2곳, 외국인 전용 종합 병원 1곳, 외국인 대학 분교 1곳을 유치할 예정이다.

다. 청라지구 : 최첨단 테마 파크, 국제 관광 · 레저 도시

서북부 매립지, 동아 매립지로 불리던 청라지구가 ‘국제 관광 레저의 메카’ 로 탈바꿈한다. 이곳은 서구 정서, 원창, 연희동 일대의 537. 6만평에 이른다. 2008년까지 3조 5,44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최첨단 관광 도시를 개발할 예정이다. 규모는 작지만 송도, 영종지구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트라이앵글을 형성하면서 국제 관광 레저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서울 등 수도권과 빠르게 연결되는 지리적인 특성을 활용한 수도권 220만 시민들의 휴식 공간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22만 평에 이르는 매립지 중심부인 국제 업무 용지에는 종합 금융 회사, 은행, 오피스 빌딩 등이 입주하는 6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 3~4개가 건립된다. 이곳에 가까운 외국 주거단지에는 외국인 기업에서 일하는 이들을 위해 3층 이하의 단독 주택 3천여 가구가 지어진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레저 스포츠 단지도 들어서 골프장과 자동차 경주장이 선을 보이게 된다.



제1장 - IFEZ의 추진배경과 성공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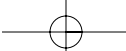
국제적 수준의 교육, 의료 시설도 들어선다. 내국인의 입학이 허용되는 외국인 학교 1개, 외국 병원 1개, 외국 대학 분교 1개 등을 유치한다. 휴식을 위한 43만 평 규모의 테마 파크도 만든다.



청라지구 개발 계획도.

한편 이곳에는 일산이나 분당 수준 이상의 국제도시가 세워진다. 167만평에 이르는 주거, 업무 용지에서는 주거 단지와 상업 시설, 공공시설 등이 들어선다. 주거 단지는 외국인과 고급 인력을 위해 중형 주택과 대형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단독 주택 2,320가구에 아파트 등 공동 주택 2만 5,620가구, 주상 복합 1,090가구를 지어 9만여 명이 거주하게 된다.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인접한 지역과 심곡천 남측에는 57만 평에 이르는 화훼 단지도 꾸며진다. 이곳은 인천 공항 이용객과 시민들을 위한 테마 관광지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나머지 22만 평은 국제 업무 도시 기능이 활성화될 때까지 축구와 야구장, 생활 스포츠 용지 등으로 활용된다.



제4절

경제자유구역 추진의 성공조건

1. 충분조건

경제특구라는 ‘상품’의 생산자·공급자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다. 따라서 먼저 경제특구의 소비자·수요자로서 외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어떠한 상품을 구매하기를 원하는가를 잘 파악하는 것이 경제특구의 성공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한다면, 생산자·공급자로서 우리나라 국민이 그러한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경제특구의 성공을 위한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충분조건은 외부적인 요구에 대해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우리 사회 내부의 역량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간단히 생각하면 외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경제특구에 대해 원하는 바가 기본적으로 외국의 다른 경쟁 지역에 비해 기업하기에 더욱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라면, 우리나라 국민이 그러한 기업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때 경제특구는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내부적 역량이 그러한 기업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까지 미치지 못한다면 경제특구는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경제특구가 궁극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극복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다.

가. 전제조건 : 개방과 경쟁의 사회적 의지

경제특구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국제기준, 즉 글로벌 스탠다드의 통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당위론적인 관점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현실적으로는 과연 우리들이 이러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세와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경제특구에서 모든 일이 국제기준에 의해 처리된다고 할 때,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이 이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국제기준은 경제특구에서나 통용되는 일로서 자신과는 상관없는 별천지의 문제로 생각한다면 경제특구는 하나의 고립된 섬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제특구를 하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이며, 경제특구를 통하여 이를 배우고 실천해 보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경제특구가 우리나라 전체의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데 촉매제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이 경제특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기꺼이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인을 바라보는 눈도 마찬가지이다. 외국인에 대해 기꺼이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경제특구의 파급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좀더 현실적인 차원에서 경제특구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왜 경제특구라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그리고 왜 외국기업과 외국인에 대해서만 각종 혜택을 부여하느냐라는 일종의 특혜 시비논란일 것이다. 자본시장, 노동시장, 토지시장에서 시행되는 각종 정부규제의 완화, 세제 혜택, 교육 및 의료시장과 같은 서비스 시장의 개방 등이 이와 관련된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교육시장 및 의료시장 개방의 문제는 노동계, 교육계, 의료계 관련 이익 집단의 이해관계와 첨예하게 대립하여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는 근본적으로 경제특구가 국내 경쟁이 아닌 국제 경쟁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해결 될 수 있다. 즉, 국가 간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으로 경제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사갈등을 없애고 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 놓겠다는 사회적 의지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마음의 국경을 허물고 세계시장에서 외국과堂堂히 경쟁해 보겠다는 결연한 자세와 의지를 가져야 한다. 국경없는 무한경쟁 시대에서 ‘개방’과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눈을 국내가 아닌 세계로 돌려 ‘개방’과 ‘경쟁’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려는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가 요구 되는 것이다.

나. 지역과 국적 제약의 신축성

정부의 산업지원 정책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특정법인·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지방 산업단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 등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공간 단위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주로 기반시설 지원, 토지이용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반대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토지법」 등은 국적 기준에 따라 외국기업이나 투자자와 같은 특정법인·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이러한 정책은 주로 조세, 금융, 경영, 기술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정책 대상의 범위는 특정 지역에 들어서는 특정 법인이나 개인만을 대상으로 좀더 한정될 수 있다. 경제특구는 이러한 정책유형에 속하는데, 기본적으로 특정 지역에 들어서는 외국기업과 투자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환원하면, 경제특구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적·공간적 제약과 국적 제약이 동시에 적용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지원 대상의 범위가 특정지역에 들어서는 특정법인·개인으로 국한되



는 경우, 정책의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제특구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간적 국적 제약조건을 경우에 따라 좀더 신축적으로 적용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

앞서 경제특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에게 좀더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거, 쇼핑, 교육, 의료, 여가 공간 등의 지역적 범위를 반드시 경제특구 내로 한정시킬 필요가 없다. 즉, 외국인들의 생활공간에 관한 한 경제특구의 공간적 제약을 완화하여 그 범위를 좀더 광역적인 차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과의 교류가 좀더 많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활성화되면서 국민 전체에 대한 경제특구의 공간적 파급효과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



송도국제업무지구에 들어설 외국인학교 (조감도).

이와 마찬가지로 국적 제약도 경우에 따라 좀더 신축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 기업의 입지 문제이다. 만약 세계적인 수준의 국내 우수기업이 동북아시아 또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의 푸둥, 홍콩, 싱가포르 등과 같은 외국의 경쟁지역에 생산·업무시설을 세운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손해일 뿐만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환

경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경제특구를 도입한 우리나라로서는 마치 뒤통수를 맞는 것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외국의 우수기업을 국내에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우수기업을 외국의 경쟁지역에 빼앗기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경제특구의 입주 기업에 대한 기준은 단순한 국적 기준을 벗어나 세계시장에서 확보한 기업 경쟁력 수준에 따라 좀더 신축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특구의 유치기업은 국내 우수기업도 포함하는 다국적 기업 개념으로 확대해 나가야한다. 이에 따라 경제특구에서 세계 수준의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이 함께 경쟁하고 교류할 수 있다면, 기업 간 학습효과를 비롯한 시너지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고, 이에 따라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그만큼 커질 것이다.

다. 국토 및 수도권 정책

경제특구가 성공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입지조건으로서 국제공항을 비롯한 물리적 기반시설 및 고급인력과 각종 경영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그리고 배후생활 문화 환경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나마 외국의 다른 지역들과 경쟁해 외국기업과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 입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곳이 수도권 지역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입지 경쟁력의 측면에서 볼 때, 경제특구는 우선적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추진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이 지는 입지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에서 추진되는 경제특구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첨예한 갈등 요소로 작용해온 수도권 집중과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킬 것이다. 즉, 수도권의 경제특구는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논란이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수도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찾지 못한다면, 경제특구는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며, 이는 곧 경제특구의 성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 국토 및 수도권 정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서 외부적으로 외국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경제특구의 성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게 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토 및 수도권 정책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수도권 규제=지역균형발전'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가, 즉 과연 수도권을 규제한다고 해서 비수도권 지역이 발전하는가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수도권을 규제함으로써 그 반사 이익이 비수도권 지역의 몫으로 돌아간다면, 즉 수도권에 대한 입지규제로 인해 수도권에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외국기업이 국내의 다른 지역에 들어서게 된다면, 적어도 국가 경제 내에서는 제로섬 게임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이 국내 비수도권 지역이 아닌 외국 경쟁 지역의 몫으로 돌아간다면, 즉 수도권 규제로 인해 외국기업이 수도권 대신 중국의 푸둥, 홍콩, 싱가포르 등 이들 지역을 장래 생산·업무활동의 거점으로 선택하게 된다면, 이는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섬 게임(minus-sum game)이 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수도권 규제의 대가를 국가 전체가 치르는 결과를 부르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세계화에 따른 개방경제 시대에서는 국내 지역 간의 경쟁 아닌, 외국의 다른 지역과의 국가 간 경쟁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제특구를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토 및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을 규제함으로써 그 반사이익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꾀하겠다는 소극적이고 간접적인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좀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차원에서 지역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국토정책의 틀은 수도권 지역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재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수도권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자원에 기초한 다양한 발전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지역균형발전을 논의함에 있어 그 저변에는 수도권만이 ‘정답’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들은 수도권과 똑같아져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이 내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수도권은 결코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들이 추구해야 할 ‘정답’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을 열심히 뒤쫓아 간다고 해서 그들과 똑같아 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미국과 일본의 뒤만 쫓아가다가는 영원히 그들을 추월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과 ‘뒤쫓아 가는 경쟁’이 아닌 ‘함께하는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고유한 특성과 장점에 기초하여 그들과는 차별화되는 발전모델을 구축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지역발전에 수도권이 유일 한 모델이 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국토정책은 지역 간 ‘균형’보다는 ‘특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한 발전 모델과 경로를 개발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지역발전에 여러 가지 모델과 경로가 있을수록 다품종 소량생산 소비시대에 진정으로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따지고 보면 결국 지역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특성화 발전은 무엇보다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문화코드(code)를 잘 읽어내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가 상파울로에 비해 경제력은 뒤지지만, 리우데자네이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리우데자네이로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문화 환경 때문이다.

결국 지역발전은 고유의 문화적 토양을 기초할 때 내생적인 발전 토대를 마련할 수 있으며, 이것이 지역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수도권 집중과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를 둘러싸고 그동안 지루하게 전개해왔던 논쟁과 갈등을 종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에 상생의 윈윈(win-win)전

제1장 - IFEZ의 추진배경과 성공조건

락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국토 및 수도권 정책이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그래야만 궁극적으로 경제특구도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플러스섬 게임(plus-sum game)의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2. 필요조건

기업환경이란 기업(법인)의 관점에서 볼 때 생산·업무환경과 경영환경, 그리고 기업에 종사하는 근무자(개인)의 관점에서 볼 때 근무환경과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개념이다. 또한 기반시설이나 주거환경과 같은 물리적 환경 또는 하드웨어(Hardware)환경과 자본시장, 노동시장 여건과 같은 비물리적, 사회 경제적 환경 또는 소프트웨어(software)환경을 모두 포괄한다.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의 경제특구에 매력을 느끼기 위해서는 경제특구가 제공하는 생산·업무환경이나 근무환경, 그리고 생활환경이 외국의 경쟁 지역에 비해 더 나아야 한다.

가. 전제조건 : 국제기준(global standard)

우리나라의 경제특구가 외국에 비해 유리한 기업환경을 제공하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잣대는 국제기준, 글로벌 스탠다드의 통용 여부이다. 경제특구의 기업환경이 외국과 비교하여 최소한 동일한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선진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국제기준이 경제특구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외국기업이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것에 비해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기준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예는 오늘날 이미 세계 공용어가 되어 버린 영어의 사용으로 경제특구에서는 모든 문서가 영어로 작성 처리되고 영어의 소통도 자유스러워야 한다. 또한 달러, 유로화 등 주요 외국 통화도 외국환거래규정 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통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환전에 따른 불편함이나 환차에 따른 위험 부담을 갖지 않고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출입국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 나아가 자본시장, 노동시장, 토지시장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의 제도와 관행보다는 국제적 관행을 우선해 적용해야 한다. 특히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운 자본의 특성을 고려하면, 경제특구 내·외 간 자본의 이동과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기업경영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특히 심한 편이다. 따라서 경제특구가 국제기준에 의해 운영되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법제도와 관행에 다른 각종 규제의 틀을 과감히 떨쳐 버려야 한다. 경제특구에서도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제도와 관행을 따라야 한다면 굳이 외국을 떠나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운영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특구는 기본적으로 모든 생산·업무활동과 생활 여건 등이 국제기준에 의해 운영·관리되는 일종의 경제자치구 또는 경제치외법권 지역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나. 입지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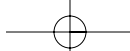
국제기준의 통용은 경제특구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이자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된다고 해서 어느 곳에서나 경제특구가 모두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구체적으로 외국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공간적 입지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위치에 따라 변하는 즉지적(卽地的) 요소 때문에 경제특구가 아무 곳이나 지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기반시설

전통적으로 기업의 입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 온 요인 중의 하나는 교통·물류 비용이다. 즉 기업들은 교통·물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교통·물류 네트워크가 잘 발달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는 곳에 들어서려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외국기업에는 무엇보다 국가간 교통·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입지여건과 기반시설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공항과 항만은 경제특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물리적인 환경 요소이다. 무엇보다 국제공항과 항만을 비롯한 도로, 철도 등의 교통·물류 인프라는 경제특구가 초기에 생산·교역의 중심지로 자리잡기 위해 필수적을 요구되는 기반시설이다

또한 오늘날의 정보화 시대에서는 교통·물류 시설뿐만 아니라 정보 통신 인프라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정보통신 인프라는 경제특구가 생산·교역의 중심지로 출발하여 궁극적으로 지식 창조를 선도하는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반 시설이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특구는 공항(airport), 항만(seaport), 텔레포트(teleport)의 삼박자를 갖추고 있는 곳에 지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라. 배후지역

교통·물류기반 시설과 같은 물리적·하드웨어 환경 외에 비물리적·소프트웨어 환경 또한 기업 입지에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우선 경제특구에서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해서는 배후지역에서 풍부한 노동력이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특히 경제특구가 초기 단계에 생산·교역의 중심지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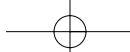
노동력의 경우 양뿐만 아니라 질이 중요한데, 외국기업이 요구하는 영어능력 등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이 높은 고급 전문 인력이 풍부해야 한다. 이러한 고급 인력은 특히 경제특구가 생산·교역형에서 지식 창조형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적자원의 질은 금융, 회계, 법률서비스 등을 포함한 각종 고차원의 서비스 제공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오늘날 정보화 사회, 탈 산업사회에서는 기업 환경의 외주화, 네트워크화 추세에 따라 각종 경영 지원 서비스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제4차산업이라고 불리는 생산자 지원 서비스업이나 제5차 산업이라고 불리는 지식·정보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식 기반산업이 지역경제 개편의 주요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특구는 물리적인 인프라뿐만 아니라 고급 인적자원과 함께 각종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갖춘 배후 도시를 필요로 한다. 외국기업에 대한 영어 서비스도 일종의 경영지원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도시가 제조업 생산공장이 밀집해 있던 과거의 도시와 비교하여 정보 생산공장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마. 세제지원

경제 주체로서 기업과 정부 간에 직접적인 거래 관계는 조세제도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경제특구 내에서 정부가 가장 직접적으로 기업의 생산·업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다.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규제의 완화가 기업하기에 좋은 토양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면, 기업활동에 대해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기업이라는 나무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 물과 비료를 주는 것과 같다.





우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서 경제특구는 기본적으로 관세자유지역의 성격을 지녀야한다, 경제특구 내 외 간 상품과 원자재의 이동이 기존의 관세제도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면 구태여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기업을 운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거래과세도 신축적으로 운용해 각종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가 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취득세·등록세·종합토지세·재산세 등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의 취득과 보유에 관한 세금에도 혜택을 부여해 기업활동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 등 취득하고 보유하는데 따르는 부담을 경감시켜줘야 한다.



인천 배후 지역은 풍부한 노동력 공급기지의 역할이 가능하다.

거래과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소득과세에 대한 혜택이다.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상당 부분 경감해줌으로써 경제특구 내에서의 기업활동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한 법인세뿐만 아니라 기업에 종사하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도 경감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경제특구에서 근무하는데 따르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이때 구체적으로 각종 세금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할 것인가의 기준은 철저하게 외국 경쟁 지역의 실효세율 수준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한다. 즉 세제지원의 기준은 국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관점이 아닌 외국 경쟁 지역과의 상대적 비교우위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경제특구는 국내 지역 간 경쟁이 아닌 세계시장의 국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 생활환경

경제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생산·업무환경과 경영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도 궁극적으로는 사람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배려 없이는 결코 만족할 만한 기업환경이 조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경제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국학교(조감도) 유치도 중요하다.

경제특구가 기업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생산·업무시설 및 서비스산업뿐만 아니라 주택, 쇼핑·편익시설, 여가·문화시설 등 다양한 배후 생활 지원 시설과 서비스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외국인 근무자를 위한 공공 편의시설 가운데 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교육 시설과 의료 시설이다. 이는 나라마다 면허제도, 조제, 처방제도 등과 관련된 교육 시스템과 의료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근무를 하더라도 전혀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국에 있을 때와 똑같은 교육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절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경제적 효과

1. 국민경제적 효과

가. 총사업비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성공적으로 조성되려면 2020년까지 총 202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사업별로 보면 비즈니스 63조원, 물류 44조원, 산업 29조원, 관광 2조원, 주거 44조원, 기반시설 2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까지 거시경제효과는 생산유발 312조원, 부가가치 유발 128조원, 고용유발 484만명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년 GDP를 1%추가 성장시키고, 실업률을 0.2% ~ 0.3%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거시경제적 효과(2020년까지) : 총사업비 기준 〉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
312조원	128조원	484만명

나. 기반시설 사업비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에 필요한 기초인프라 조성사업은 총 14조 7천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인프라 시설 조성과 관련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면 생산유발 53조 4천억원, 부가가치 유발 22조 4천억원, 고용효과는 약 13만명에 달한다.

〈 기초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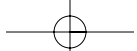
(단위 : 10억원, 천명)

구분	조성사업비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고용유발
(유발계수)	-	(3.62)	(1.52)	(0.88)
경제자유구역전역	14,761	53,435	22,437	130
송도지구	8,151	29,507	12,390	72
영종지구	2,623	9,495	3,987	23
청라지구	3,987	14,433	6,060	35

다. 외국인 투자 및 관광객 유치효과

2020년까지 외국인 직접투자 176억 달러, 프로젝트 파이낸싱 100억 달러 등 총 276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하고 중국관광객을 비롯, 연간 2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다.

주) 제5절에서 1. 국민경제적 효과만 위부분으로 변경하고 2. 동북아 허브로 한국경제의 국제화를 선도라는 내용은 그냥 두세요



2. 동북아의 허브로 한국경제의 국제화 선도

인천공항을 포함한 영종지구는 Sea & Air 복합운송시스템을 갖춘 동북아 항공물류 거점으로, 청라지구는 인천국제공항의 비즈니스 기반을 활용해 최첨단 테마파크를 갖춘 동북아 금융 중심지로 개발되며, 송도지구는 IT, R&D부문을 유치해 동북아 지식기반산업 및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하게 된다.

경제자유구역의 1단계가 완공되는 2008년이 되면 한국은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북아 경제·물류중심으로 도약하고, 경제자유구역은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

가. 국내 행정 절차의 획기적 개선 및 행정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 (전 행정기관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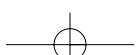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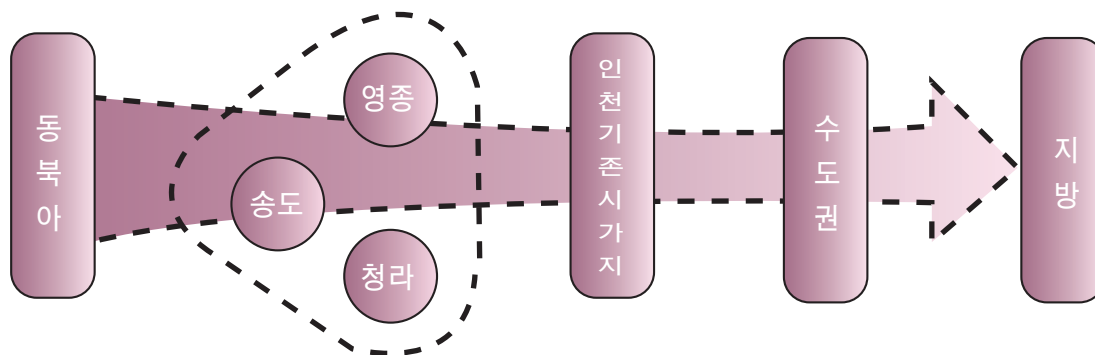
- 34개 법령의 의제처리에 따른 대민·대기업 서비스의 속도와 질이 개선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 전문가 고용, 입국에서 출국(Port to Port)까지 밀착 서비스(One-Man Service) 제공

나. 외국 우수 학교·병원 유치에 따른 의료 서비스 및 교육 서비스의 질 개선

- 의료기술, 교육 노하우 등의 이전, 외국교수 충원 등을 통해 국내 서비스 분야의 구조적 발전 계기

다.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개발 효과의 지역 확산

- 인천을 중심으로 물류·비즈니스·IT, BT 첨단정보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기흥, 남양만, 파주 등을 통해 경기 남부 및 북부의 개발 촉진



제2장

IFEZ의 일반 현황 및 추진전략

책임집필: 기획팀장 변주영

제1절 일반 현황

제2절 IFEZ의 경쟁력과 추진전략

제3절 주요 제도개선 사항

제1절

일반 현황

1.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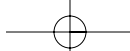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총209km²(6,333만평)면적에 송도지구(53km², 1,611만평), 영종지구(138km², 4,184만평), 청라지구(18km², 538만평) 등 3개 지구로 구성되었으며, 계획 인구는 487천명에 총사업비 147,610억원(기반시설 조성비)으로 사업기간 2003년부터 2020년(1단계 2008년, 2단계 2020년)까지 조성하도록 되어 있다.

가. 위치도



나.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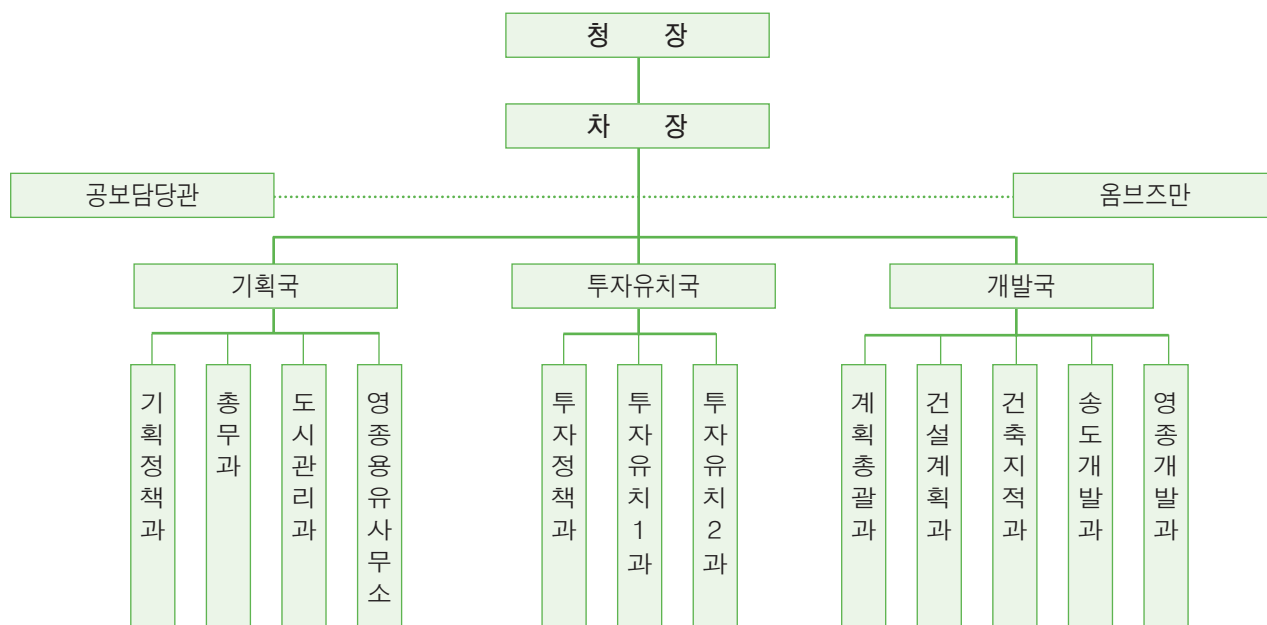
- 2002. 1. 14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기본구상 발표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 2002. 4. 4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Master Plan 수립
 -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광역시 개발계획을 반영
- 2002. 7. 24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세부실행계획 수립 (경제장관회의 결정)
 - 송도, 영종, 청라지역 개발계획을 구체화



- 2002. 11. 14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국회의결
- 2002. 12. 4 : 「경제자유구역준비기획단」 발족
- 2002. 12. 30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수립 용역 착수
- 2003. 3. 31 : 행정기구설치조례및정원조례 공포(준비기획단 28명)
- 2003. 6. 30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수립 완료
- 2003. 7. 1 :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
- 2003. 7. 8 : 인천경제자유구역 기구·정원 승인신청(286명)
- 2003. 7. 1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시행
- 2003. 8. 11 :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재경부)
- 2003. 10. 13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및규칙공포(286명)
- 2003. 10. 15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청

2. 조직·정원 (3국, 11과, 1담당관, 1사무소, 47개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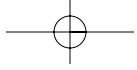
가. 조직도



직원 현황 (정원/현원)

(2005년 8월 현재)

구분	총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	289/266	1/1	1/0	3/3	13/10	52/52	80/71	87/88	25/16	6/4	21/21
계약직	58/49	1/1	0/0	1/1	4/4	15/12	20/15	15/14	2/0	0/2	-



3. 예산규모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2005년 예산안	2004년도	증 감(%)	비 고
계	444,324	224,442	98.0	
일 반 회 계	111,521	48,076	132.0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96,772	158,912	86.8	
공항배후지원단사업 특별회계	36,031	17,454	106.4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포함

4. 주요사업

가. 송도지구 개발사업

1)사업개요

- 사업규모 : 1,611만평 (1단계 773만평)
- 계획인구 : 252.5천명(98천 세대)
- 사업기간 : 1989 ~ 2020(1단계 2008)
- 사 업 비 : 81,500억원(기반시설 조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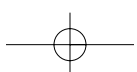
가) 국제업무단지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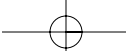
(1) 사업개요

- 위 치 : 송도 1·3공구 및 2·4공구 일부 167만평
- 면 적 : 167만평(선도개발지구 10만평 포함)
- 사 업 비 : 127억 달러(토지매립 10억 달러, 개발 117억 달러)
- 사업기간 : 2003 ~ 2015(1단계 2008)
- 주요시설 : 국제업무빌딩, 컨벤션센터, 문화센터, 외국인 학교, 병원, 주거, 공원, 공공청사 등
- 시 행 자 : 인천시, NSC

(2) 추진사항

- 2002. 3 : 토지공급계약 체결 (127억 달러 투자)
- 2003. 1 : 조기종결계약 체결 (인천시 + NSC)
- 2003. 10 : 컨벤션센터 계약체결(컨벤션센터 1달러에 기부채납)





- 2005. 3 : 추가계약 체결 (개발 및 비용부담 주체 정리)

나) 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사업

(1) 사업개요

- 위 치 : 연수구 동춘동 997번지 일원(2·4공구 내)
- 규 모 : 803천평(도로 등 공공시설 용지 포함)
- 사업기간 : 2000 ~ 2008(기반시설 2005. 12)
- 유치업종 : 소프트웨어, 정보통신서비스, 전자·정보기기, 신소재, 메카트로닉스(정밀기기), 생물 등

(2) 추진사항

- 2000. 9 :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지정고시
- 2002. 12 :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 2002. 12 : 도로 등 기반시설공사 착공
- 2003. 8 :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 2005. 7 : 기반시설공사 공정 68%

(3) 개발사업 추진현황(기분양 토지)

(가) 테크노파크(10.8천평) - 토지분양 : 총 40필지 중 38필지 분양 완료

- ※ 2개 필지는 계약 해지되어 2005년 7월 말 분양계약 예정
- 건축현황 : 39개 업체 중 준공 29, 건축 중 6, 미착공 4
- ⇒ 2005년 12월까지 건축완료 예정
- 입주현황 : 건축준공된 29개 업체 중 20개 업체 입주

(나) 공동주택부지(82천평)

- 토지분양 : 4개 블록 82천평 인천도시개발공사에 매각
- ※ 분양가 : 평당 320만원, 3회 분할 납부
- APT건축 : 2개 블록 1,000세대 건축 중
- ※ 2개 블록(1,000세대) 2006년 상반기 착공 후 2009년 완료 예정



(다) 산업단지 잔여부지 개발계획

- 규 모 : 126천평(지식기반 서비스 59천평, 지식기반 R&D 40천평, 지식기반 제조업 27천평)
- 유치업종 : REID/USN 관련 연계산업, Mobile 게임 관련 연계산업, 전자·정보기기, 메카트로닉스, 정밀기기 등
- 분양방법 : 국내외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공고 후 적격업체 선정분양
- 분양시기 : 정통부 REID/USN 공유기반시설 구축센타(당초 요구 25천평, 추가 50만평) 및 IBM Data Center(5천평) 부지 결정 후 적정시기

다) 첨단 바이오단지 조성

(1) 사업개요

- 위 치 : 연수구 동춘동 1001번지 일원(송도4공구)
- 규 모 : 109천평(셀트리온 28천평, 생산/연구단지 56천평, 열병합시설 25천평)
- 사업기간 : 2001 ~ 2008

(2) 추진사항

- 2001. 10 : 백스젠사와 실시협약서 체결
- 2002. 2 : 백스젠사와 토지매매계약체결 및 국내 파트너와 합작 법인 설립(셀트리온)
- 2003. 3 : Bio 신약생산시설 및 R&D 센타 착공
- 2005. 3 : 셀트리온 공장 준공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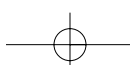
(3) 바이오단지 기반시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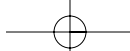
- 2002. 4 ~ 2004.12 : 바이오단지 일원(송도5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
- 2005. 7월 현재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기반시설공사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

※ 기반시설공사 : 2005년 11월 착공, 2007년 11월 준공 예정

(4) 바이오단지 확장계획

- 규 모 : 56천평(잔여부지)
- 유치분야 : Bio 생산 및 연구시설





- 분양시기 : 현재 (주)셀트리온에서 잔여부지 전체 매각을 요청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투자유치 추진

라) 어민 생활대책용지 개발

(1) 사업개요

- 공급대상 : 송도, 동막, 척전, 고잔 어촌계원 1,264명
- 공급토지 : 송도1공구 준주거지 세대당 50평씩
- 공급면적 : 104필지 212,065㎡(64,149평)
- 공급가격 : 2공구 조성원가의 125%(평당 140만원)

※ 10년 무이자 균등분할 납부

(2) 추진사항

- 1997. 8 : 어민생활대책용지 공급 약정 체결
- 2003. 12 :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완료
- 2004. 12 : 생활대책용지 공급합의 체결 (어민대표↔인천시)
- 2005. 2 : 배정 희망토지 신청 및 접수 (척전제외 3개어촌계획 802명)
- 2005. 7 : 용지공급 계약체결 (현재 계약율 60%)

마) 송도 5·7공구 IT클러스터 조성사업

(1) 사업개요

- 규 모 : 198만평(6.51km²)
- 사 업 비 : 2,746억원(호안 576억원, 매립 2170억원)
- 사업기간 : 2005. 12 ~ 2007. 12(매립사업)

(2) 추진사항

- 2004. 12 : 매립공사 착공
- 2005. 7 : 가호안 축조 공사 중(공정 5%)



바) 송도 6·8공구 레저단지 개발사업

(1) 사업개요

- 규 모 : 192만평(6.34km²)
- 사 업 비 : 3,634억원(호안 734억원, 매립 2,900억원)
- 사업기간 : 2005. 12 ~ 2008. 12(매립사업)

(2) 추진사항

- 2004. 12 : 매립공사 실시설계 용역착수
- 2005. 7 : 실시설계 공정 60% (2005. 9 완료예정)

사) 송도 9공구(제3준설토 투기장) 개발사업

(1) 사업개요

- 규 모 : 96만평(3.18km²)
- 사 업 비 : 482억원(호안축조공사비, 매립은 항로준설토 활용)
- 사업기간 : 1991. 1 ~ 2011. 12(호안축조 2005. 7 완료)
- 시 행 청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2) 추진사항

- 2002. 12 : 호안축조공사 착공
- 2005. 7 : 호안축조 마무리 공사 중

아) 인천대교 건설사업

(1) 사업개요

(단위: 억원)

구 분	계	민자(교량)	연결도로			기 타		
			소계	동측	서측	소계	시공기반시설	요금소
계	20,012	10,961	8,391	6,857	1,534	660	260	400
국고	12,128	5,271		6,857				
인천시	2,643	449			1,534		260	400
민 자	5,241	5,241						





- 구 간 : 영종도 배후단지IC-송도국제도시-제2경인고속도로
- 총 연 장 : 21.48km(민자 12.34km, 연결도로 9.14km)
- 사 업 비 : 20,012억원(민자 등 10,961억원, 연결도로등 9,051억원)
- 사업 기 간 : 2003. 6~2009.10(운영 30년)
- 교 량 형 식 : 사장교 - 주경간 800m, 주탑 높이 230.5m, 선박통과 높이 74m
- 사업시행자 : KODA개발(민자), 한국도로공사(연결도로)

구 분	시행자	시공자
민자구간 (12.34km)	KODA 개발 (AMEC 23%, 인천시 6%, 국민 · 기업은행 등 71%)	삼성 JV(Joint Venture) [삼성물산(45), 대림(20), 대우(13), GS(10), 한진(5), 한화(5), 금호(2)]
연결도로 (9.14km)	한국도로공사 (국비/인천시)	1공구 - 코오롱(65%), 대우자판(25%), 경우(10%) 2공구 - 대림(50%), 삼성물산(30%), 진흥기업(10%), 원광건설(10%) 3공구 - 현대(40%), 대우건설(30%), 쌍용(25%), 일성(5%) 4공구 - 에스케이(65%), 동부(25%), 효명(10%) 5공구 - 두산(34%), 동부(33%), 포스코(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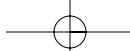
(2) 추진사항

- 2000. 2 : 민간투자 사업제안서 제출
- 2001. 7 : 우선 협상대상자 KODA개발(주) 지정
- 2003. 6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2004. 5 : 시공사 선정(삼성JV)
- 2004. 12 : 주경간 폭 최종 확정(700m→800m)
- 2005. 5 : 시공기반시설 준공 및 실시협약 변경체결
- 2005. 6 : 인천대교 명칭 확정
- 2005. 6 :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2005. 6.16 기공식)

자) 공유수면 매립준공

(1) 사업개요

- 매립면적 : 383만평 (1공구 130만평, 2공구 76만평, 3공구 77만평, 4공구 100만평)
- 사 업 비 : 3,906억원(호안 992억원, 매립 2,914억원)

**제2장** - IFEZ의 일반 현황 및 추진전략

- 사업기간 : 1994~2005(4공구 1999. 3, 2공구 1999. 5, 1공구 2003. 5 준공, 3공구 2005. 8 준공)

(2) 공유수면 매립 진행사업

- 5·7공구(198만평) 매립공사
 - 사업비 : 2,746억원(호안 576억원, 매립 2,170억원)
 - 사업기간 : 2004. 12 ~ 2007. 12
 - 2005. 7현재 : 가호안 축조 및 준설구역 확보 협의중(공정5%)
- 6·8공구(192만평) 매립공사
 - 사업비 : 3,634억원(호안 734억원, 매립 2,900억원)
 - 사업기간 : 2005. 12 ~ 2008. 12
 - 2005. 7현재 : 설계 공정 60%(2005. 8 설계완료), 2005. 12 공사착수
- 9공구(142만평) 매립공사
 - 사업비 : 480억원(호안축조공사비, 매립은 항로 준설토 활용)
 - 사업기간 : 1999. 1 ~ 2011. 12(호안축조 2005. 7 완료)
 - 2005. 7현재 : 호안축조 마무리 공사중(인천지방해양수산청)

차) 생태도시 조성사업**(1) 공원·녹지 조성공사****(가) 야조공원 조성공사(5.8만평)**

- 사업규모 : Visitor Center, 담수지, 인공섬, 기수지 등
- 사업비 : 50억원, 사업기간 : 2003. 12 ~ 2006. 8
- 2005. 7현재 : 토공 및 수목식재공사중(공정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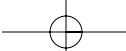
(나) 송도1시가지 공원·녹지조성공사(43만평)

- 사업규모 : 근린공원5, 어린이공원6, 시설녹지, 미관광장 등
- 사업비 : 1,170억원, 사업기간 : 2004. 7 ~ 2007. 2
- 2005. 7현재 : 공원조성 및 가로수 식재공사중(공정15%)

(다) 지식정보산업단지 공원·녹지조성공사(6.4만평)

- 사업규모 : 근린공원2, 어린이공원2, 시설녹지2, 미관광장1 등





- 사업비 : 198억원, 사업기간 : 2004. 6 ~ 2007. 2
- 2005. 7 현재 : 공원조성 및 수목식재공사중(공정15%)

(2) 환경친화시설 설치공사

(가) 2공구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 사업규모 : 투입구 129개소, 관로 3,440m, 집하장 1개소
- 사업비 : 86억원(시부담 36억원, 아파트 개발사업자 50억원)
- 2005. 7 현재 : 집하장 및 투입구 설치중(공정85%), 2005. 11 완료

(나) 중수도공급시설공사

- 사업규모 : 중수 57,500톤/일, 공급관망 60km
- 사업비 : 200억원, 사업기간 : 2006. 1 ~ 2008. 12
- 2005. 7 현재 : 설계공정 60%(2005. 10 완료)

※ 환경부 사업공모 당선 국비 60억원 확보

나. 영종지역(570만평) 개발사업

1) 사업개요

- 동북아 허브공항 육성을 위한 국제적 공항도시 개발
- 주거·관광·사업·물류 등 복합적 기능을 도입한 자족도시 건설

2) 사업규모 : 18,8km²(570만평)

3) 사업기간 : 2002 ~ 2016(최종목표 2020)

4) 사업비 : 58,000억원

5)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공사(90%) 인천도시개발공사(10%)

6) 추진사항

- 2003. 8 : 경제자유구역지정(재정부)
- 2003. 7 ~ 2005. 4 : 공영개발 반대민원 설득 및 서한문 발송



- 2004. 5. 31 : 공영개발 추진관련 기본협약 체결
- 2004. 6. 16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사업시행자) 변경승인(재경부)
- 2004. 12 : 항공측량 발주
- 2005. 6 : 각종 영향평가 착수(한국토지공사)
- 2005. 7 : 실사설계 용역 착수

7) 추진 계획

- 2006. 2 ~ 2006. 8 : 실시계획 승인 신청 및 재경부 승인
- 2006. 12 : 토지 및 지장물 보상착수
- 2007. 3 ~ 2016. 12 : 착공 및 준공

8) 주요 개발사업

가)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

(1) 사업개요

-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21세기 미래형 복합레저단지 조성
 - 주거단지, 업무·상업시설, 차이나몰, 관광어촌 등이 적되는 단지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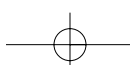
(2) 사업규모 : 2.7km²(82만평)

(3) 사 업 비 : 7,617억원(보상비 5,497억원, 공사비 2,120억원)

(4) 사업기간 : 2004 ~ 2008

(5) 추진상황

- 2003. 8. 11 : 경제자유구역 지정(운북관광단지 반영)
- 2004. 1. 27 : 군부대 영종 이전 관련 주민합의서 체결
 - 3. 19 : 운북관광단지 사업추진 계획 수립
 - 3. 31 : 차이나 타운(Rich Valley) 건설 MOU체결(市 ↔ 한국중화총상회)
 - 4. 22 : 운북관광단지 내 건축허가 제한(2년간)
 - 5. 31 : 운북동 복합레저단지 개발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발주(도시개발공사)





7. 19 : 운북동 복합레저단지 개발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착수

9. 21 : 운북동 복합레저단지 용역추진계획보고회(용역사→경제자유구역청)

- 2005. 5. 19 : 운북복합레저단지 개발계획 변경신청(사→재경부)
- 2005. 8. 24 : 운북복합레저단지 개발계획 변경승인(재경부)

(6) 추진계획

- 2005. 10 : 보상 착수
- 2005. 11 : 실시계획 승인 신청
- 2005. 12 : 실시계획 승인
- 2006. 6 : 기반시설 및 부지공사 착수(2008. 12 완료)

나)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

(1) 사업개요

- 국제비즈니스와 연계된 동북아 관광단지 허브 구축
-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고부가가치 창출로 국가 경쟁력 강화

(2) 사업 규모 : 213만평(1단계 39만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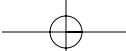
(3) 사업비 : 2조 1,200억원(1단계:약 2,771억원)

(4) 사업기간 : 2003 ~ 2015 (1단계 : 2003 ~ 2008)

(5) 사업시행자 : 인천도시개발공사(예정)

(6) 추진상황

- 1997. 9. 12 ~ 1999. 5. 22 : 기본계획 수립
- 2003. 12. 17 ~ 2004. 6. 22 : 1단계 사업지구 조성계획 완료(도시개발공사)
- 2004. 7. 14 : 1단계 이외 지구 사업추진계획(안) 방침 결정(시장)
 - 마스터플랜수립 추진 및 투자유치 : 공동 시행
 - 단지 조성, 보상 등 추진 : 인천도시개발공사
- 2004. 10. 05 : 1단계 사업지구 기본설계 용역 착수

**제2장 - IFEZ의 일반 현황 및 추진전략**

- 2004. 12. 21 : 영향평가 용역 착수(39만평)
- 2005. 5. : 2단계 사업지구 개발계획 용역 착수

(7) 추진계획

- 용유 · 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1단계 : 39만평》

- 2005. 10 ~ 2005. 12 : 실시계획 승인
- 2006. 1 ~ 2006. 6 : 실시설계 및 지장물 보상
- 2006. 7 ~ 2008. 12 : 기반시설 조성완료

《2단계 : 174만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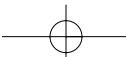
- 2006. 3 : 타당성 조사 및 개발전략 수립 용역완료
- 2008. 1 : 기본설계 및 영향 평가
- 2008. 2 : 실시계획 승인
- 2009. 3 : 실시설계 및 지장물 보상
- 2009. 4 : 기반시설 조성 및 부지조성 착수(2011. 12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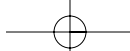
다) 덕교동 일원 도시개발사업**(1) 사업개요**

- 위 치 : 중구 덕교동 182번지 일원
- 규 모 : 617,280m²(187천평)
 - 취락정비(102천m²), 유원지(27천m²), 광장(58천m²)
- 사업기간 : 2005~2009

(2) 추진사항

- 2005. 3 : 덕교동 해변 정비계획 방침 결정
 - 취락정비구역 : 혼용방식(매수+환지), 인천광역시(도개공 수탁)





- 유 원 지 : 전면매수, 인천광역시(도개공 수탁)
- 광 장 : 전면매수, 인천광역시

(3) 추진계획

- 2005. 10 :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착수(2006. 12 완료)
- 2007. 1 ~ 2007. 12 : 실시계획 인가
- 2008. 1 ~ 2009. 6 : 부지조성공사 및 환지계획인가

라) 해양생태공원(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

(1) 사업개요

- 위 치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남측(영종해안 ~ 운암도)
- 사업규모 : 부지조성 95만평,
- 사 업 비 : 295억원(투기장 조성사업비)
- 사업기간 : 2000 ~ 2011
- 시 행 청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2) 추진사항

- 2001. 7 : 투기장 조성사업 착수(호안축조)
- 2004. 8 : 호안축조공사 완료
- 2005. 7 : 준설토 투기장(북항개발 준설토 반입)

(3) 추진계획

- 2011. 12 : 준설토 투기완료 및 부지조성공사 시행

마) 자유무역지역 개발사업

(1) 사업개요

- 위 치 : 인천국제공항 북동측
- 사업규모 : 약 62만평(공항물류단지 30만평, 화물터미널지역 32만평)

**제2장 - IFEZ의 일반 현황 및 추진전략**

- 사 업 비 : 1,464억원(부지 및 기반시설 공사비)
- 사업기간 : 2002. 12 ~ 2008. 12

(2) 추진사항

- 2004.12 : 공항물류단지 조성 완료(기반시설 2005. 10 완료예정)
- 공항물류단지 입주자 유치(1, 2차)
 - 총 39필지중 18필지 임대(임대율 40%, 약 57천평)
 - 물류업 11개사, 제조업 2개사 유치
- 화물터미널지역 세계적 물류기업 유치
 - UPS, Lufthansa, Polar 등에 대한 투자유치 마케팅 활동 전개
 - DHL(2천만불), TNT(7백만유로) 사업계획서 제출예정

(3) 추진계획

- 2005. 계속 : 공항물류단지 잔여부지(21필지, 84천평) 입주자 유치
- 2005. 계속 : 화물터미널지역에 세계적 물류기업 투자유치
- 2005. 11 : 공항물류단지 입주자 건축공사 완료(1차 4개사)
- 2006 초 : 자유무역지역(공항물류단지) 오픈

바) 골프장(72홀) 조성사업**(1) 사업개요**

- 위 치 : 신불도(18홀), 제5활주로예정지(54홀)
- 면 적 : 121만평(제1사업권 28.3만평, 제2사업권 92.7만평)
- 사업규모 : 대중골프장 72홀 조성 및 아카데미 부대시설
- 건설기간 : 2002. 7 ~ 2005. 10(운영 2005. 7 ~ 2020. 12)
- 사 업 비 : 1,478억원(제1사업권 : 363.7억원, 제2사업권 : 1,114.8억원)
- 개발방식 : 민간자본유치(BOT 방식)
- 시 행 자 : 클럽폴라리스(주)

(2) 추진사항



- 2002. 7 : 실시협약 체결(공항공사 ↔ 클럽폴라리스)
- 2004. 2 : 골프장 부지조성공사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착수
- 2004. 9 : 골프장 사업계획승인
- 2005. 1 : 골프장시설조성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1차)

(3) 향후계획

- 2005. 7 : 신불도 하늘골프장(18홀) 준공
- 2005. 9 : 삼목도 바다골프장(54홀) 준공 및 운영개시

사) IBC-II 개발사업(공항 내)

(1) 사업개요

- 대상 위치 : 공항 북측 IBC-II 지역 일원
- 개발 규모 : 약 129만평(유수지 46만평 포함)
- 개발 방향 : 공항지원기능으로의 국제업무지역 개발
 - 주요 도입기능 : 업무 및 상업시설, 호텔, 문화, 관광시설, 국제학교등
- 투자 규모 : 20억불
- 사업 기간 : 사업착수일(2005)로부터 10년간

(2) 추진사항

- 2004. 4 : IBC-II 개발을 위한 MOU 체결(재정부 ↔ AMEC)
- 2005. 1 ~ 2005. 5 : 사업추진 관련 관계기관 실무협의(재정부 주관)
- 2005. 4. 26 : MOU 기간연장 협약체결(2005. 10)

(3) 추진계획

- 재정부에서 2005년 중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AMEC측 사업계획 작성 및 관계기관 검토 추진

아) 군사시설 이전사업

(1) 사업개요

**제2장 - IFEZ의 일반 현황 및 추진전략**

- 위 치 : 인천 중구 운북동 일원(금산, 예단포)
- 사업규모 : 군사시설 1식 (건축물 등 78동)
- 사업기간 : 2000. 8 ~ 2005. 12 (공사 : 2003.10.23 ~ 2005. 7.27)
- 총사업비 : 885억원(공사 582억원 보상 248억원 , 감리비 55억원)

(2) 추진사항

- 2003. 4. 3 : 군사시설 이전 위치 변경결정(금산, 예단포)
- 2003. 10. 23 : 군사시설 이전사업 착공
- 2004. 1. 27 : 주민합의(시 ↔ 운북동 주민대표 10명)
- 2006. 7. 현재 : 도로노면 포장작업중(현공정 92%)

(3) 추진계획

- 2005. 7 : 군사시설 이전사업 토목 및 건축분야 완료
- 2005. 9 : 기존부대(봉제산) 지뢰제거 실시
- 2005. 9 : 군부대 이사완료(봉제산 완전철수)
- 2005. 12 : 지뢰제거 완료 및 재산 인계인수 사업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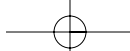
마. 청라지구 개발사업**1) 사업개요**

- 금융을 중심으로 국제업무기능, 첨단레저시설, 첨단화훼단지 유치
- 외국관광객 및 수도권 시민의 휴식 공간 조성

2) 사업규모 : 538만평(17.8km²)

- 국제금융 및 스포츠 · 레저단지 개발 : 480만평
- 첨단화훼단지 개발 : 58만평(GM대우 주행시험장 17만평 포함)

3) 사업비 : 39,880억원(기반시설 조성비)**4) 사업기간 : 2003 ~ 2008**



5) 추진상황

- 2002. 7 : 경제특구지정 · 개발결정(한국토지공사 사업시행)
- 2003. 8 : 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재경부)
- 2003. 12 : 청라지구 조사설계 용역 착수(한국토지공사)
- 2003. 12 : 화훼단지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농림부)
- 2004. 6 : 화훼단지 타당성조사 완료
- 2005. 2 : 청라지구 실시계획승인 신청 (토지공사 → 인천시, 재경부)
- 2005. 4 : 청라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
- 2005. 8 : 실시계획 승인(재경부)

6) 추진계획

- 2005. 11 : 청라지구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 착수(토지공사)
 - 2006. 12 : 화훼단지실시계획 수립(농업기반공사)
- 2008. 12 :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 완료(화훼단지 : 2008)

7) 주요 개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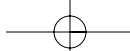
가) 국제금융 및 레저단지 개발사업

(1) 사업개요

- 면 적 : 480만평
- 수용인구 : 90천명 (31천 세대)
- 사 업 비 : 3조 7천억원
- 사업기간 : 2003 ~ 2008
- 시 행 자 : 한국토지공사
- 개발방향 : 국제금융, 스포츠 · 레저, 배후 주거단지 조성

(2) 추진사항

- 2003. 8 : 인천경제자유구역지정 · 고시(개발계획 승인)

**제2장 - IFEZ의 일반 현황 및 추진전략**

- 2003. 12 : 조사설계 용역 착수
- 2004. 5 : 토지소유권 이전 (농업기반공사 → 한국토지공사)
- 2005. 2 : 실시계획 승인 신청 (토지공사 → 재경부)
- 2005. 4 : 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 (인천시 → 재경부)
- 2005. 8 : 실시계획 승인 (재경부)
- 2005. 8 : 사유지(25만평) 토지보상 착수

(3)추진계획

- 2005. 11 :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공사 착수
- 2008. 12 :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공사 완료

나) 화훼단지 조성사업**(1) 사업개요**

- 규 모 : 41만평 (화훼생산단지 35만, 농업복합시설 8만)
- 사 업 비 : 1,988억원 (부지조성 552억, 토지원가 1436억원)
- 사업기간 : 2004 ~ 2008
- 시 행 자 : 농업기반공사

(2) 추진사항

- 2003. 8 : 경제자유구역 지정
- 2004. 8 : 화훼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농림부)

(3)추진계획

- 2005. 12 : 화훼단지 조성방안 수립 (농업기반공사)
- 2006. 1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06. 12 : 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공사 발주
- 2007. 1 ~ 2008. 12 : 화훼단지 조성공사 시행





다) GM대우자동차 주행시험장 건설사업

(1) 사업개요

- 면 적 : 17만평
- 개발내용 : GM대우 CTT 및 R&D
- 사 업 비 : 1,471억원(인천시 500억원, GM대우 971억원)
*부지조성비 : 546억원(인천시 494억원, GM대우 52억원)
- 사업기간 : 2004~2007
- 시 행 청 : 인천광역시(부지조성후 GM대우에 제공)

(2) 추진사항

- 2004. 12 : 청라지구내 GM대우 입지 결정 (재경부)
- 2004. 12 : MOU 체결 (사⇔ GM대우)
- 2005. 2 : 실시계획 작성 및 승인신청 (청라지구 일괄 신청)
- 2005. 3 : 농업기반공사 소유토지 매매계약 체결
- 2005. 6 : 투자유치 본계약 체결 (사⇔ GM대우)
- 2005. 6 : 부지조성공사 위·수탁 협약 (사⇔ 농기공)
- 2005. 8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재경부)
- 2005. 10 : 주행시험장 부지조성공사 착수

(3)추진계획

- 2006. 11 : 부지조성공사 완료 (CCT 및 R&D시설공사 병행시행)
- 2006. 7 : 주행시험장 운행개시

5. 주요 성과 및 향후 중점 추진 방향

- 경제자유구역 개발 4개년 전략(2005~2008) 로드맵을 작성해 물류, 비즈니스, 지식(IT, R&D), 관광산업 등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을 핵심기능으로 개발전략을 수립·시행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경영·생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 특히 동북아 경제권의 재편성이 예상되는 2008년에 1단계 완성을 위해 송도지구의 국방시설 이전, 영종지구의 공영개발과 관련해 지역주민 등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있던 집단민원을 협의해 나감으로써 개발과 투자유치의 속도를 내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컨벤션센터 등 핵심개발사업을 먼저 추진함으로써 투자분위기를 촉진하고, 유비쿼터스 적용으로 최첨단 정보화도시 기반의 근간을 마련했다.
- 한편 우리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MOU체결 등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경제자유구역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했다.
- 2005년은 투자유치 부지조성, 첨단정보시스템을 반영한 인프라 시공, 타깃 기업·핵심 앵커시설 중심의 전략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선도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효과를 가시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 도시의 모든 분야에 유비쿼터스 시스템 도입, 비즈니스, 생활, 교육, 문화 등 전반에 디지털화된 도시 패러다임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잠재투자로 선정된 타깃기업을 대상으로 관심분야, 투자성향, 투자전략, 한국에 대한 투자여부, 중국에 대한 시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맞춤형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외국인 투자자·기업에 투자행정(투자정보 및 절차), 개발행정, 생활환경 등 행정서비스를 최소시간 내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것은 성공을 담보한다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투자결정, 투자실현,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철저한 책임행정을 해 나아갈 것이다.





제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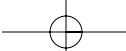
IFEZ의 경쟁력과 추진전략

1. 경쟁력 기반

먼저 인천의 경쟁력은 물류경쟁력이다. 최첨단시설을 자랑하는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주요 간선항로 선상에 위치해 있어 뛰어난 지리적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동북아·동남아와 북미를 연결하는 북태평양 항공노선과 유럽과 동북아를 연결하는 시베리아 항공노선의 최전방에 있어 유럽과 북미대륙을 논스톱으로 연결하는 길목으로 항공기의 논스톱 운항이 가능해 물류 거점으로서 빼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배후 시장측면에서도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시간 3시간 대 거리에 인구 100만명 도시가 51개, 15억명의 인구가 분포하고 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은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세계 수준의 공항 안전시설을 바탕으로 취항 항공사 47개, 취항 도시 수 119개의 네트워크를 갖추고, 2002년도 화물처리 실적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자유무역지역, 첨단물류산업단지 등 물류인프라 시설을 구축해 동북아의 물류지역센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둘째로 인천은 국제비즈니스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최첨단 정보화 인프라시설을 갖춘 국제비즈니스센터, 국제업무지구를 조성해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 경쟁력을 갖출 것이다. 특히 동북아에 투자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는 제조업 거점과 거대한 시장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물류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동북아 지역본부, R&D센터, 금융센터, Call센터는 인천에 둘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세계 최고의 IT인프라와 경쟁력 있는 고급 인력, 산업기반, R&D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또 하나, 발전 잠재력이다. 도시는 일단 건설되면 기본적인 구조를 변경하고, 새로운 시설물을 건설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설사 새롭게 건설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비용이 든다. 상해 푸둥, 싱가포르, 홍콩 등 동북아의 주요 경쟁도시들보다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새로운 개념의 경쟁력 있는 도시로서 개발이 가능한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 발전 잠재력은 경쟁도시보다 높다. 인천공항은 1,700만평, 송도지구는 1,611만평, 청라지구는 538만평의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고, 세계 최고의 정보화 인프라 시설을 구축해 비즈니스 경쟁력을 제공할 수가 있다.



2. 4대 허브전략

가. 추진전략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21세기 세계 최고의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종, 송도, 청라지구 등 3개 지구 6,336만평(209km²)에 글로벌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편하게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장 매력적인 비즈니스 환경과 생활환경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세계 최첨단 시설을 갖춘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허브 기반을 활용해 국제비즈니스, R&D, 관광 레저 허브 등 지식 창조형 복합모델로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1) 물류허브 전략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중심공항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송도신항만과 연계되는 해·공(Sea&Air)복합 물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물류거점으로서 관세자유지역과 첨단물류산업단지를 조성해 DHL, UPS, FedEx, TNT 등 빅4 메이저 물류기업을 유치하고 물류종합정보망을 구축함으로써 동북아 물류허브를 실현하게 된다.

2) 비즈니스 허브 전략

국제비즈니스 센터를 조성해 다국적 기업의 지역 본부, 금융센터, 기술 및 고급인력을 갖춘 동북아의 비즈니스 거점 역할 수행한다는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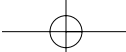
글로벌 스탠더드의 기업환경, 생활환경과 함께 송도국제비즈니스센터, 영종국제업무지구, 청라국제금융센터를 조성해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를 실현하게 된다.

3) R&D 허브 전략

최첨단 IT인프라, 고급인력, 튼튼한 산업기반을 활용해 R&D 중심의 IT, BT, 물류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세계 TOP 10 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지식정보산업단지, 첨단바이오단지, 다국적기업의 R&D센터를 2005년까지 지식정보산업단지를 완공해 지식정보산업 활성화 거점을 구축하게 된다.

4) 관광레저 허브 전략

용유·무의지역의 천혜의 자연 관광자원, 인천국제공항 및 국제비즈니스 활동에 따른 관광수요와 중국이 창출하는 관광 수요를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용유·무의 관광단지, 청라 관광레저단지, 인천 앞바다 150여



개의 섬과 연계되는 관광프로그램으로 연 800만명 이상의 동북아 관광수요를 흡수하게 된다.

3. 3대 차별화 전략

가. 최첨단 정보화 도시 건설(U-City 비전 수립)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편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위해 고도로 정보화되고 뛰어난 콘텐츠를 보유한 최첨단 정보화 신도시를 지향한다. 첨단정보통신기술을 비롯한 지식정보산업의 성과를 도시의 인프라와 생활 속에 적용하고, 최적의 문화 시설을 확보한다. 또한 24시간 실시간 세계 주요 도시와 비즈니스가 가능하며 최신의 정보 획득과 가공·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성된다.

특히 송도정보화신도시내 국제비즈니스센터의 주요 콘텐츠로서 e-물류비즈니스센터의 개발, 그리고 e-물류비즈니스 전문가 양성으로 구성된다. 물론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동북아 정보가 축적됨에 따라 네덜란드, 미국 등 지역별로 제휴가 가능해 질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와 솔루션이 확보되면 e-물류비즈니스센터 주변의 선사(船社)와 관련업체 그리고 거래가 자리잡게 된다. 물건은 홍콩이나 상해항에서 운반 선적되지만 거래는 송도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송도정보화 신도시의 기능은 충분히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된다. 이미 물건이 건네지는 곳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또한 텔레커뮤니케이션센터 건설로 위성 및 정보서비스를 바탕으로 국제 비즈니스 지원, 위성통신 및 위성방송 송수신 서비스(기지국 기능), 동북아 허브통신센터로서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설치 및 서비스, 정보통신 부가서비스 등을 수행함으로써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정보통신 인프라를 완벽하게 실현하게 된다.

• 미리보는 U-city

IFEZ U-City는 유비쿼터스 인프라를 기반으로 첨단 도시 서비스를 실행하며 이를 활용하여 첨단 IT기반의 산업 Cluster를 구성하여 세계 수준의 유비쿼터스 용·복합 허브를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함





1) 주거 부분 시나리오

주부 A씨는 유비쿼터스 홈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해서 음성, TV, home PDA, Wall PAD, PDA, PC, 통합 리모콘 등을 이용해 AV기기, 홈오피스 기기, 생활기기, 정보가전 기기를 원격제어할 수 있다. 또한 집에서 사용하는 전력, 가스, 수도, 난방비 등은 통합 검침되어 통합관리비에 포함되어 간단히 과금되며, 유아 보호 서비스를 통해 가사 일을 하면서 2명의 아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게 된다.

2) 물류/유통 비즈니스

인천통게이트를 통과하는 B씨는 지난 토요일에 이메일로 받아 무선 폴더에 저장해 두었던 '미국 U사에 보낼 적하목록'을 읽어 보고 포워드사 담당과장에게 전화를 한다. 담당과장은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한 주요 장면을 영상으로 전송한다. B씨의 휴대전화 화면에 세관직원과 컨테이너의 제품, 적하목록을 확인한 후 컨테이너 셔터를 닫고 전자실을 봉인하는 과정을 확인한다. 사무실에 도착한 B씨는 화물추적정보제공 시스템에 접속해 컨테이너의 목록을 선택하자 선적 대기 중인 컨테이너와 선박에 위치가 표시된다. 마우스로 미국 특정 해안을 선택하자, 지난달 수출한 제품이 실린 컨테이너가 표시된다. 아직 인도가 안 된 컨테이너가 3개가 남아 있다고 표시된다. 해당 컨테이너의 적하목록을 확인하고 주문업체 담당자에게 화상전화로 연결한다.

3) 교육/의료 부분

학생 김군은 전자칠판과 워크벤치가 갖춰진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다. 수업에 필요한 교재는 책이나 인쇄물 없이 각 학생의 단말기에 자동으로 다운로드되며 강의 내용은 모두 저장되어 학교나 집에서 언제든지 다시 참조해 볼 수 있다. 과학수업과 음악수업 모두 지능화된 장비를 활용하여 진행되며 모든 수업결과는 개인 학습 정보로 저장된다. 체육수업의 경우 각 학생별로 운동량을 측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자녀의 학습 내용과 성취도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즉시 확인하고 각종 학사정보 검색 및 교육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외국인 C씨는 IFEZ의 교육관련 사이트를 통해 송도에 와서 일하는 동안 자녀가 다닐 학교와 교과과정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적절한 학교를 찾아 이주날짜에 맞춰 전학과 입학 수속을 할 수 있었다.

송도국제도시에 사는 D씨는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서 용무를 보는 동안 측정된 당뇨수치, 몸무게 등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출근한다. 평소 혈압이 불안전했기 때문에 휴대전화에 부착된 측정기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받다가 활동 중 이상이 발생하는 즉시 응급의료 센터에 연락이 되어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신청해 두었다. 만약 병원으로 가야하는 상황이 되면 GPS를 통해 D씨의 위치가 자동으로 전송되며 동시에 관



련된 측정기록과 이력이 실시간으로 의료진에게 전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D씨는 마음 놓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당분간 요양을 해야 하는 E씨의 경우도 집에 설치된 장비를 통해 병원의료진의 검사와 진단을 받으며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외국인 F씨는 의료지원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예약하고 확인을 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4) 공공·사회 부분

회사원 G씨는 퇴근길에 지갑을 잃어버린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지갑 안에 현금은 거의 없었지만 신용카드와 운전면허증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낸 그는 운전면허 수령을 위해 직장부근의 경찰서를 지정했다. 3일 후 그는 휴대폰에 운전면허 재발급 완료라는 SMS메시지를 받고 주변 경찰서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마친 후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5) 교통부분

비즈니스맨 H씨는 운전을 하면서 최적 경로와 주차정보를 통해서 비즈니스 미팅 시간에 맞추어 미팅 장소에 도착한다. 비즈니스 업무를 보고 컨벤션 센터까지는 교통 혼잡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실시간 교통정보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대중 교통수단과 경로를 선택해 컨벤션 센터의 컨퍼런스 시간에 맞추어 도착한다. 다시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는 교통센터의 최적의 교통신호 제어에 의해서 신호등을 전혀 받지 않고 호텔로 돌아온다.



6) 통신·방송 부분

회사 업무의 대부분을 외부에서 처리하는 J씨는 항상 노트북을 휴대하여 업무보고를 작성한 후 인터넷을 접속 본사로 보낸다. 업무를 다 끝낸 후 귀가 중 DMB폰을 통해 생중계되는 축구경기를 시청한다. 집에 도착한 후 TV를 통해 피자를 주문하고 영화관에서 보지 못했던 영화를 주문해 시청한다.

7) 상업부분

주부 K씨는 자녀를 학교에 바라다 주고 집에 돌아오면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 전기·통신·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과금 사용내역과 월 납부액을 확인 한 뒤 온라인으로 결제한다. 오후에는 근처 쇼핑몰에 들러 저녁에 필요한 반찬거리와 필요물품을 구매한 뒤 결제는 간편하게 무인계산대를 통과하면서 모바일 기기를 리더기에 갖다대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8) 비즈니스 부분

송도국제도시에서 사업을 준비하는 L씨는 어떻게 회사 IT 시스템을 구축할까 망설이다가 근처 Utility Computing Center를 찾아갔다. 그곳은 마치 음식점처럼 업종별, 규모별, 기타 요구사항에 따라 경제적으로 패키지화된 IT 서비스를 쓴 만큼 매달 내는 임대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었다. 그는 필요한 IT시스템을 주문하고, 추가로 영업 직군은 언제 어디서나 업무가 가능 하도록 BP컨설팅을 받아 U-업무시스템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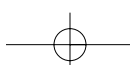
나. Water와 Green을 테마로 최고급의 환경친화 녹색도시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체 1,611만평 가운데 32%이상이 공원 등 녹지 공간으로 꾸며진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공원 녹지 사업은 살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최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첫째,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녹색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녹지 총량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녹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 또한 바람길 형성과 생물 이동이 가능한 공원 녹지 네트워크(Green Network System)를 갖추게 된다.

둘째, 생활권별로 균형있는 공원녹지를 배치하고 확충한다. 지구별로 공원 조성 면적을 균형 있게 하고, 신규 공원을 지정하고 조성한다.

셋째, 다양한 여가활용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질 높은 공원 녹지를 구현한다. 또한 생태 공원을 조성해 생물 서식과 생태 교육 공간을 확대한다. 그리고 도시 공원과 녹지, 역사 문화 유적지를 연계한 생태문화 탐방로와 자연 관찰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1) 지구별 계획

가) 송도지구

송도지구 기본계획의 4가지 기본방향 중의 하나로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설정하고 있다. 오픈스페이스 계획에서는 송도국제도시 내에서의 오픈스페이스 체계와 주요 구성요소인 공원의 이계적 배치 및 수변공간에 대한 유형별 개발방향, 그리고 녹지, 광장, 상징 도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송도지구의 공원면적은 2,943,629㎡로서 계획인구를 180,700명으로 설정해 도시공원법의 공유면적규정을 준용했다. 1인당 공원 최소면적인 6㎡를 적용한 기준면적 1,084,200㎡의 271%에 해당한다. 하지만 생태학적 요구에 따른 1인당 녹지소요량 40㎡를 적용할 경우, 공원과 녹지 외에 수로, 광장 등을 포함한 오픈스페이스 계획 면적은 녹지소요량의 96.5%를 유지하게 된다.

- 송도지구의 공원 중에서 신도시 이미지 및 수변공원을 대표할 수 있는 중심적 공원으로서 호수공원을 조성한다.
- 도시공간 내 인공 해수호와 아암도 등 주변공원의 대규모 자연적 요소를 활용해 도시민의 휴식과 교류의 상징적 공간으로 조성한다.
- 도보권 근린공원 및 수변광장과 연계된 녹지체계의 연속성을 확보하며, 경관의 동질성을 확보한다.
- 다양한 해양 레크리에이션 시설 및 문화활동 공간의 도입으로 송도지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나) 영종지구

동북아의 허브공항을 목표로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공항복합도시로서의 미래지향적,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전제로 하는 생태지향적인 공원·녹지가 계획되어 있다. 대상지 공원·녹지체계는 수변(바다), 산지(백운산, 송산등) 및 시가지를 연결하는 전체적인 공원·녹지축과 시가지 내의 주거, 상업, 업무, 물류 및 산업 용지를 적절하게 연결 하고 차단하는 지구적인 녹지축으로 구분되었다.

(1) 그린 네트워크 시스템(Green Network System)

- 도시공원이 지니고 있는 각기 다른 기능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를 체계화한다.
- 공원·녹지는 보행자전용도로에 의해 경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연결해 접근성, 연계성, 식별성을 제공한다.

(2) 내추럴 라이프 시스템(Natural Life System)

- 대상지가 보유하고 있는 자연환경을 생활 속의 공간으로 유도해 지속가능형 도시를 만든다.
- 공원·녹지의 독특한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옥외 활동 공간을 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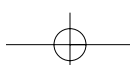
(3) 에코 커리도 시스템(Eco Corridor System)

- 대상지 및 주변의 산지, 구릉지를 거점으로 하천, 습지 등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생태축을 구성한다.
- 영종지구 전체를 대표하는 백운산을 중심으로 주릉지와 갯벌, 해양등 환경요소를 점적 요소와 선적 요소를 활용해 생태통로를 구축한다.
- 생태환경의 거점 요소인 산과 갯벌, 해양환경을 활용해 환경교육, 생태체험의 장소로 활용한다.

다) 청라지구

국제금융 중심도시의 위상에 적합한 도시경관 창출과 자연적 경관요소를 적극 활용한 환경친화적인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시각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경관요소 도입으로 거시적 관점의 미래지향적 도시경관을 조성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 근린공원 27개소, 어린이공원 14개소, 총면적 2,177,707㎡이며 남북방향의 중앙공원, 동서방향의 보행공원과 중생활권 중심부의 대규모 근린공원을 연계하며, 친수문화공간의 확보로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완충녹지 108개소, 경관녹지 46개소, 총 면적 1,563,957㎡이며, 통행량이 많은 중봉로 및 고속도로변





에는 B=30m 이상의 완충녹지를 설치하고 기타 간선기능의 도로변에 완충녹지(B=10m~25m)를 설치해 차량소음의 완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꾀한다.

- 서부산업단지 남측 구역 경계부는 B=50m의 녹지대를 조성해 시각적 차단 및 환경영향을 최소화한다.
- 지구 경계부 잔여부지, 하천변 친수공간 및 완충녹지를 제외한 기타 보조녹지대를 경관녹지로 만든다.

다. 첨단 신교통 시스템 도입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소음과 매연 배출, 교통 체증이 없는 친환경적 첨단 신교통시스템이 도입된다. 거의 모든 도시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는 교통지옥을 미리 예방하고 쾌적한 국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다.

어느 도시나 할 것 없이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교통 문제다. 빠르고 안전하게 운영되어야 할 교통수단이 문명의 이기에서 문명의 흉기로 바뀌어가고 있다. 하지만 IFEZ 국제도시는 신교통시스템을 도입해 기존 교통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게 된다.

신교통시스템은 독립된 전용주행로(Right of Way)를 따라 운행하는 교통 체계로써 기존 교통수단보다 기술적으로 진보된 환경 친화적인 요소가 강하며 제 시간에 출발하는 정시성(定時性), 쾌적성, 안전성, 적응성, 수송 능력이 뛰어난 저비용·고효율의 첨단 도시형 대중교통 수단이다.

신교통수단으로는 BRT(Bus Rapid Transit), LRT(Light Rapid Transit), 자기부상열차, 모노레일, 노면전차, PRT(Personal Rapid Transit), GRT(Group Rapid Transit) 등이 있다.

BRT는 빠르고, 정시성이 제대로 지켜지면서 기존 버스보다 많은 승객을 수송할 수 있는 버스 시스템이다. 쉽게 말해서 BRT 전용 차로를 따라 시내 버스를 지하철처럼 운행할 수 있는 '땅위를 굴러다니는 지하철'로 이해하면 빠를 듯싶다. 건설비는 적게 들어가며 일본 나고야 등 전 세계 41개 도시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LRT는 궤도 주행 열차로 100명~180명이 탈 수 있으며 여객 수요에 따라 차량수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시속 60~80km로 비교적 빠른 편이라 장거리 구간과 구역간 연결에 매우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와 오스트리아 빈 등 유럽 대다수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다.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는 자기부상시스템에 의해 차체가 궤도에 닿지 않고 달리는 무소음, 무공해의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안전성이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았고, 건설 비용이 고가라는 단점이 있다.



제2장 - IFEZ의 일반 현황 및 추진전략

모노레일은 1개의 레일 위를 달리는 철도 시스템으로 수송 수요가 많지 않은 도시 교통 수단으로 적합하다. 노면 전차는 도로 상에 설치된 궤도 위를 전기의 동력으로 주행하는 철도 시스템으로 세계적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철거되는 추세이다.

PRT는 택시와 같이 승객 인원이 4~6명 정도를 태운 소형 차량이 궤도를 통해 목적지까지 정차하지 않고 운행하는 시스템이다. PRT는 속도가 45~60km로 유동 인구나 상주인구가 밀집된 국제 업무 지역에 알맞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시카고 등에서 일정 구간을 정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상용 운행하는 나라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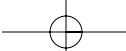
GRT는 출발지와 목적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10명~30명이 탈 수 있다. PRT 정원에 비해 규모가 조금 큰 10명~30명이 탈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차량이 연결되어 운행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영종, 청라 지구에 도입될 신교통시스템을 기존 도심과의 연계는 물론 지구간 지구 교통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첨단 버스 시스템 또는 도시형 첨단 궤도 시스템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신교통시스템이 도입되면 IFEZ 국제도시는 소음 없고, 공해 없고, 교통 지체가 없는 3무(無) 교통 천국이 된다.



〈주요차량시스템〉

구분	차량형태	차량특성	차량정원	최대속도	운행속도	운전형태	해외사례
A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장 보편화된 시스템- 국산화 시험 운행중	70~100 (인/량)	80~100 km/hr	30~40 km/hr	무인 운전	도쿄 유리카모네
LI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음 및 진동 경감- 공사비 고가	90~100 (인/량)	80~110 km/hr	40~50 km/hr	무인 운전	캐나다 벤쿠버
자기부상 (도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전도 자기 부상 방식- 국산화 시험 운전중	100~130 (인/량)	100~160 km/hr	30~40 km/hr	무인 운전	일본 나고야
자기부상 (광역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고속 자기 부상 방식- 초고속 열차	110~120 (인/량)	430 km/hr	225 km/hr	유인 운전	중국 상하이
P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용화 실적 없음- 대규모 노선 적용 곤란	3~5 (인/량)	40~80 km/hr	20~48 km/hr	무인 운전	미국 모건타운
L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면상의 궤도 주행- 건설비 저렴	100~180 (인/량)	60~100 km/hr	20 km/hr	1인 운전	유럽 다수 도시
B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면상의 궤도 주행- 건설비 저렴	100~180 (인/량)	60~100 km/hr	20 km/hr	1인 운전	유럽 다수 도시
모노레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점유 최소화- 공사비 저렴	40~100 (인/량)	70~80 km/hr	30~50 km/hr	1인 운전	미국 디즈니월드



4. 마케팅 전략

가. 투자유치 전담기구의 설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개발과 관련해 36개 인·허가를 일괄 의제 처리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으며, 구청(기초자치단체)의 업무, 시청의 업무, 개별 위임된 중앙정부의 업무까지 수행하는 원스톱 통합 행정 서비스 체제를 갖추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3국 11과 1 담당관 1사무소, 47개팀 26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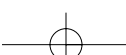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투자유치업무의 특성을 감안해 외부전문가 중심의 개방형 충원제도를 채택하면서 동북아 경제의 특성에 정통한 외국인 전문가와 민간인을 채용해 국제적 감각에 맞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유치를 전담할 투자유치국에는 투자유치국장과 3명의 과장을 개방직으로 해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고, 직원 70명 중 44명을 전문계약직으로 충원하도록 하고 조직운영에도 탄력적인 팀제 운영으로 행정 서비스의 신속성, 유연성을 확보해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국장 및 부서장에게 팀 구성 및 직원 배치 권한을 부여해 선 과업 결정 후 팀 구성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조직의 탄력성은 물론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했다.

또한 투자유치업무의 특성을 감안한 프로젝트별 전담제를 도입해 프로젝트 매니저가 상담, 가이드, 투자정보 제공, LOI 및 MOU, 계약, 투자실현 등 일괄 서비스를 수행하는 원 맨 서비스(One Man Service) 체제를 갖추었다. 이를 통해 잠재투자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정된 타깃기업 중 투자시기를 감안해서 잠재투자자를 재분류한 뒤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투자정보와 투자 및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외 전문잡지나 기업정보 관련 회사와 네트워크화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및 사업전략, 동북아 지역의 기업동향 등의 정보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서 비즈니스 거점으로서 동북아 지역의 기업 정보 집적지로 만들어 갈 것이다.

나.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의 전개

경제자유구역 개발 로드맵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선정, 초기 성공 가능성과 파급효과가 큰 메이저 물류기업의 물류센터, 외국학교, 테마파크, 골프장, 호텔 등 외국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투자 상품화해 우선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차세대 산업육성 전략에 따라 물류산업을 기반으로 R&D, 디자인, 품질관리, 컨설팅, 컨벤션, 법률·회계, 금융, 관광, 교육 등 고부가 가치 지식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국제교역, 지식, 정보, 금융, 고급인력 등의 측면에서 인천의 전략적 거점 역할 및 논리를 개발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전개하고 영종, 송도, 청라지구의 경쟁 우위적 요소에 따라 특성에 맞는 타겟 마케팅(Target Marketing)을 전개한다는 전략이다.

영종지구에는 인천공항지역을 중심으로 국제특송 빅4(FedEx, UPS, DHL, TNT)의 아·태지역본부를 우선적으로 유치하고, 국제업무지구와 공항배후도시를 건설해 경쟁력 있는 에어로폴리스로 건설할 계획이다. 운북지역에는 마리나, 습지생태원, 골프장, 테마파크 등 복합레저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송도지구에는 국제비즈니스센터, 지식정보산업단지 및 첨단바이오단지를 중심으로 Intel, HP, BioHeart 등 IT·BT 분야 세계적 기업의 R&D 센터, Cisco, GE 등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의 동북아 지역본부를 우선 유치할 계획이다. 투자 투자개발회사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제일사와 재단법인 IBC포럼과 공동으로 마케팅을 펼쳐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에 대한 외국인 관심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청라지구에는 MGM, 월트 디즈니(Walt Disney), 유니버설 픽처스(Universal Pictures) 등 세계적 대형 리조트 기업의 유치를 추진하고, 외국투자자(화교)에게 대규모 단지를 제공해 '차이나타운' 등을 자체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투자유치 자문단(재경부, 인천시, 부동산 투자회사, 토지공사 등으로 구성)을 구성해 국내외 IR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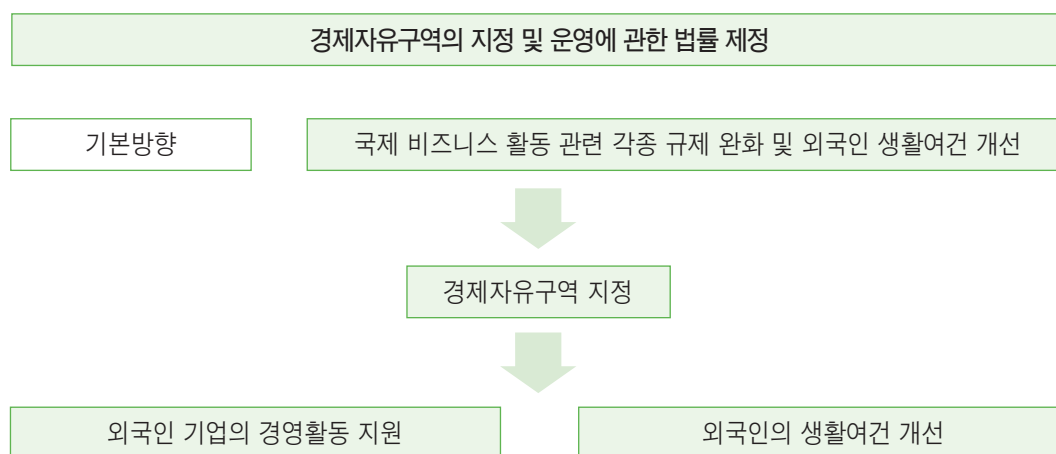


제3절 주요 제도개선 사항

1.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및 개정

2002년 12월 31일 제정된 경제자유구역법은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경영 및 생활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지원,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 등을 담고 있다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연 혁

- 2002. 12. 30 : 법률 제정·공포(제6835호)
- 2004. 12. 31 : 법률 개정(제7291호, 토양환경보전법)
- 2005. 1. 27 : 법률 개정(제7349호)
- 2005. 3. 31 : 법률 개정(제7476호,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2) 주요내용

가) 제정법률(2002.12.30)

-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4조).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의고유업종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 제한,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월차 유급휴가 및 유급생리휴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파견대상업종 및 파견기간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법 제17조).
-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법 제20조).
- 외국학교법인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법 제22조).
- 외국인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의 의사 또는 약사 면허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법 제23조).
-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두고, 이를 보좌하는 실무기구로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두도록 함(법 제25조 및 제26조).
- 경제자유구역법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중 일정한 사무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소속의 전담 행정기구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함(법 제27조).

나) 개정법률(2005.1.27)

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과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①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시설물의 설치 등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②건축허가 등 인·허가 의제사항을 추가하며, ③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내국인 이용을 허용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구의 자율성



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④행정기구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행정기구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및 인·허가 등의 의제 확대 (법 제8조제5호 및 제1조제1항)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대상을 확대하여 개발사업의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는 때에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인·허가 등의 절차가 간소화되어 개발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 보다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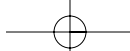
나)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규제의 완화 (법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을 완화하여 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의 국제도시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의2).
-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체육시설의 시설물 설치계획에 따라 그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의3).
- 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외국인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내국인 대상 의료업 허용(법 제23조)

-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적정한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선진외국병원을 유치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함.
- 선진외국병원의 유치를 통하여 외국투자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내국인의 해외진료가 국





내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행정기구의 사무의 범위 조정 (법 제27조제1항)

- 행정기구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일반 민원사무까지 수행하고 있어 개발사업 및 외국인투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행정기구는 개발사업 및 외국인투자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무를 수행하고, 주민생활·복리와 관련된 일반 민원사무는 시·군·구에서 수행하도록 경제자유구역 사무의 범위를 조정함.
- 행정기구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사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게 되어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외국인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마) 행정기구의 장의 자율성 및 독립성 강화 (법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신설)

- 행정기구의 장은 조직, 인사 및 예산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율성이 미약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에 필요한 인력 및 조직을 탄력적으로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구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행정기구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행정기구의 장이 개발사업 및 외국인투자 유치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을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인 학교유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1) 연 혁

- 2005. 5. 31 : 법률 제정 • 공포(제7533호)

2) 주요내용

가) 제정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에 설립하는 외국대학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켜 동북아 중심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제2장 - IFEZ의 일반 현황 및 추진전략

나) 주요내용

(1)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자격(제4조)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근거하여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 함.



(2)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제5조)

외국학교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경제자유구역 안의 행정기구의 장 또는 제주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3) 학생정원(제10조)

외국교육기관의 학생정원은 교원 및 의료인·약사·의료기사 등의 양성과 관련된 정원을 제외하고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되,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

(4) 학력인정(제11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초·중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 일정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교육기관을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졸업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한민국의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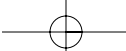
(5) 국·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제1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때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거나 임대시 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거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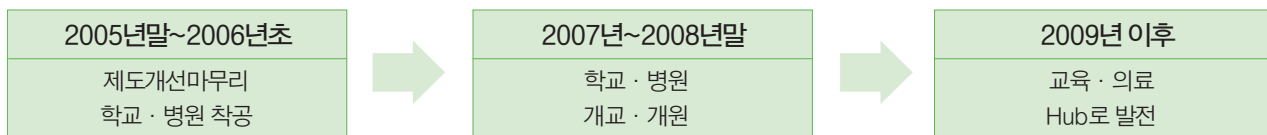
(6) 시정명령 및 설립승인 취소(제17조)

외국교육기관이 설립기준을 위반하거나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설립승인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금년 중 프로젝트 컴퍼니(Project Company)를 설립하여 2008년까지 개원(600명상 규모)
- 병원설립기준, 외국 의사 면허기준 제정 등 외국병원의 성공적인 설립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해외 우수 학교·병원 유치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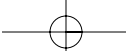


2.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 제도개선

외국의 유망기업의 그린 필드(Green Field)형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아무런 불편없이 공장을 설립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시, 자치구 사무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통합 수행하고 원스톱 통합행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례규정 중 세무, 청소, 주·정차 단속업무 등 일반 생활민원을 자치구로 환원시켰다. 또 전담제도(PM)를 운영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초기 상담에서부터 투자유치, 부지물색, 건물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해 줌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신뢰와 함께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3. 개발 관련 규제 완화

- 2005년 1월 27일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의제를 확대하여 개발사업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는 때에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및 인·허가 등의 의제를 확대하였다.
-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한도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을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체육시설의 시설물 설치계획에 따라 그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 외국인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계획법상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제한 완화(경구법 제9조의2)
 -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국토계획법 제77조 및 제78조의 범위에서 150%까지 완화
- 실시계획 승인으로 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경구법 제11조)
 - 의제대상 확대(33개 법률 → 36개 법률)로 개발절차 간소화
- 사업시행자에게 개발계획 변경 요청권 부여(경구법 제7조)
- 체육시설 내 시설물의 설치·부지면적 제한의 완화(경구법 제9조의3)
 - 골프장 등 체육시설 용지의 수익성을 높여 경제자유구역 내 관광·레저시설에 대한 외자유치 활성화 기대

※ 경구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주요 투자유치 활동

책임집필: 투자기획팀장 신중환

- 제1절 투자 유치 방향
- 제2절 주요투자유치 사례
- 제3절 적극적인 투자유치 홍보 활동 전개
- 제4절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제1절 투자유치 방향

1. 외국인 투자유치

2003년 8월 11일 지정·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지금까지 개발구도 및 제도 운영의 틀, 외자유치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왔다. 이와함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해외 홍보 활동을 해왔다.

1단계 사업 완료 시점인 2008년까지는 IT·BT, R&D, 물류 등 세계의 우수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해 국제업무지구, 주거단지, 관광단지를 완공하고 외국 학교·병원 등을 개설하며, 운영단계인 2009년 이후에는 자체적 도시기능 수행을 위한 최첨단 국제도시를 실현하게 된다.

앞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단계별로 투자가능성이 있는 잠재 고객을 중심으로 타깃기업 초청 IR 활동, 정보제공 등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실시하고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 토지공사, 게일(Gale)사 등 선도 투자자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집중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핵심 앵커시설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효과를 확산시켜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 집적화된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2. 지구별 투자유치

가. 송도지구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송도국제도시는 외국인 투자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부지확보를 추진해왔다. 현재 2·4공구 306만평, 1·3공구 국제비즈니스센터 부지 77만평 매립을 이미 완료했고, 5·7공구 198만평은 매립공사가 진행 중이다.

송도지구의 핵심 기능인 국제비즈니스 센터를 국제적인 감각의 첨단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선도사업인 컨벤션센터를 2004년 11월 착공해 건설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초의 U-City 건설로 차세대 디지털 도시 창출을 위한 구축사업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주요 유치대상으로는 국제업무단지에는 컨벤션센터(1단계 15,816평), 아시아 트레이드 타워(65층), 주상

복합 빌딩(64층, 4개동), 기타 중앙공원, 골프 코스, 학교, 병원 등을 유치하고, 지식정보산업단지에는 정보산업 서비스, 전자·정보기기, 신소재, 정밀기기, 생물 분야의 산업을 유치하며, 첨단 바이오 단지에는 바이오 신약 공장, R&D센터 등을 건설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를 실현하게 된다.

나. 영종지구

동북아의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개념의 공항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영종지구 570만 평을 개발, 조성하고 있으며, 물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63만평과 첨단물류산업단지 100만평 조성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용유·무의도의 천혜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리조트를 조성한다. 1단계로 39만평(총213만평 조성)에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과 운북 복합레저단지 82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유치대상으로는 공항주변 배후 물류단지에 세계적인 물류기업인 쉹커코리아, KW코리아, 로지텍, 범한, 하나로 등에 대한 입주 협약을 체결하거나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화물터미널 지역은 세계 4대 특송업체인 DHL, TNT, UPS, FEDEX 등의 유치를 추진하고, 그 외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 대중 골프장(클럽 폴라리스) 72홀(122만평) 및 아카데미 부대시설을 민간자본 방식(BOT)으로 유치하거나 현재 조성 중이다.

다. 청라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부지(538만평)를 확보해 2008년도까지 개발을 하게 된다. 국제금융, 스포츠 레저, 첨단화훼, 저밀도 주거단지 등 환경 친화적인 자족 기능을 갖춘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유치대상으로는 국제금융, 스포츠 레저단지 428만평에는 테마파크 등 스포츠 레저 시설 위주의 투자 유치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의 휴식 공간을 만들고, 첨단 화훼단지 41만평에는 생산 연구개발, 농업물류, 관광 산업이 복합된 원예산업 클러스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GM대우 주행시험장 및 R&D 센터(15만평) 사업이 투자유치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자동차 성능 시험장, 연구시설, 지원시설 등의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제2절

주요 투자유치 사례

1. 투자유치 계약체결

가. 국제업무지구 조성

1) 추진배경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로서 역할을 기대하며 국제 업무단지 조성사업이 시작되었다.

2001년 1월 인천광역시 관계자들이 게일 컴퍼니 인터내셔널(Gale Co. Int'l)의 사장으로 있던 존 하인즈(John Hynes)에게 국제업무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성을 설명하고 한국으로 초청했다. 존 하인즈 사장은 게일 사 회장인 스탠 게일(Stan Gale)과 함께 한국을 세 차례 방문한 뒤 국제업무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을 확신하고, 인천광역시와 수 차례의 협의를 거친 후 2001년 7월 27일자로 MOU를 작성했다. 이어 2002년 3월 20일 국제 업무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계약으로서 토지공급계약(Land Supply Agreement)을 체결했다.

2) 사업개요

- 사 업 자 : NSC(New Songdo City Development LLC,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의 7:3 합자회사)
- 사업기간 : 2004~2014
- 위 치 : 송도국제도시 1·3공구, 2·4공구 일부
- 부지규모 : 약 167만평(NSC 116만평, 인천시 51만평)
- 투자규모 : 12,700백만 달러

3) 진행사항

계약의 당사자인 인천광역시와 NSC는 시 소유 송도매립지 1,364 에이커 규모의 부지에 NSC가 총 127억 달러를 투자, 다국적기업 유치 및 국제 업무단지 조성을 위해 컨벤션센터·호텔·업무용 빌딩·백화점·국제 문화 시설·외국학교 및 병원 등을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국내 초유의 외자유치가 가미된 민자 섹터에 의한 대규모 단위의 도시개발일 뿐만 아니라 종합개발계획에 의해 체계적으로 개발되는 국제도시 프로젝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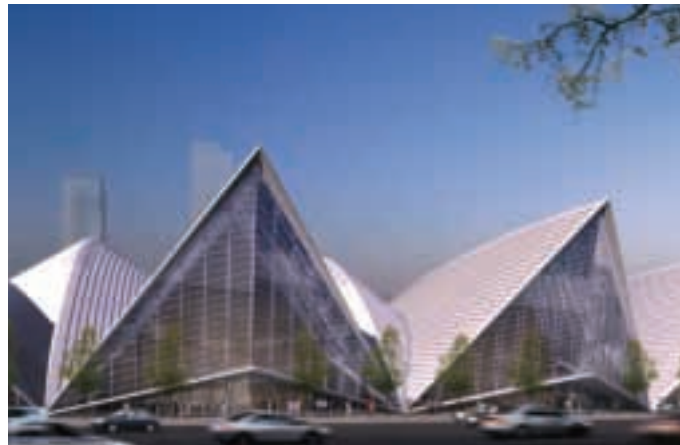
토지공급계약은 이 사업의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담아내고 있는 기본계약으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후속 조치로 조기종결계약, 컨벤션센터 계약 및 추가계약을 체결해 이에 근거한 실

질적인 개발이 현재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4) 향후 전망

후속 조치로 이 계약서들은 구체적인 개발에 관한 사항 이외에 개발일정의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어 인천광역시의 조기개발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다.

2014년 이 사업이 완공되면 인천의 지정학적 이점과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대교 등 각종 인프라 시설에 힘입어 다국적기업을 유치하면서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형성해 우리나라가 비즈니스 중심 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할 것이다. 나아가 비즈니스가 활성화 된 후에는 금융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송도 국제컨벤션센터가 2004년 11월 11일 기공식을 가졌다

국제업무단지가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동아시아의 경제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직도 법적, 제도적, 환경적으로 부족한 점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저력과 중앙정부의 관심을 고려할 때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송도바이오단지 조성 : (주)셀트리온

1) 유치경위 및 배경

2001년 2월 첨단 생명공학 업체인 백스젠(VaxGen)사에서 아시아 시장의 생산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 지역을 물색하던 중 한국의 입지적 조건과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계성 및 우수인력 확보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인천광역시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인천광역시는 두 차례의 미국 출장을 통해 현지 생산 및 R&D 시설을 확인하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사업 및 투자계획에 대해 설명을 받았으며 백스젠사의 기술자문단이 생산 및 R&D 시설이 들어설 현장을 방문했다.

당초 백스젠사에서는 싱가포르와 중국 그리고 대전시의 적극적 투자유치 제의를 받아 먼저 검토하고 있던

제3장 - 주요 투자유치 활동

상황이었다. 그러나 백스젠사는 인천국제공항과의 인접성, 인천 지역에 구축된 우수한 산업인프라, 중국시장 공략의 지리적 이점 및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천시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약속과 함께 인천시 담당 공무원들의 열의와 적극성을 높이 평가해 송도국제도시로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2001년 10월 19일 실시협약서를 체결했다.

백스젠사의 모회사인 제넨텍(Genentech)사는 1978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최초의 생명공학 벤처로 시작했으며 첨단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한 인슐린과 성장호르몬을 개발해 세계적인 성공을 거뒀다. 1984년부터 5천만 달러를 투자, AIDS백신기술을 연구해 임상실험 I, II 단계를 성공리에 마치고 1995년 자회사로 백스젠사를 설립했다. 백스젠사는 미국 FDA와 함께 임상Ⅲ단계를 1998년부터 진행했다. 백스젠사와 제넨텍사는 나스닥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기업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첨단생명공학업체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1호 기업인 (주)셀트리온의 전경

백스젠사는 실시협약 체결 후에 송도바이오단지 조성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백스젠사가 첨단 기술을 현물 출자하고 한국 투자자와 함께 자금을 유치해 2002년 2월 합작법인(Joint Venture Company) (주)셀트리온(CELLTRION)을 자본금 845억원으로 설립했다. 2002년 2월 26일 셀트리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외국인투자 기업으로 등록되면서 인천광역시와 약 2만 8천평

에 달하는 토지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송도 바이오단지 조성 프로젝트를 위해 셀트리온에서 약 1억 5천만 달러의 투자를 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셀트리온은 최첨단 생물산업 기반기술인 동물세포배양 대량생산 기술과 에이즈백신 생산권을 이전받아 에이즈백신 생산은 물론 다양한 세계적 바이오신약을 수주 생산할 수 있는 첨단의 동물세포배양 생산 기술을 보유한 회사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셀트리온은 대한민국 생명공학산업육성 전략의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을 것이며, 21세기 세계 생명공학산업 분야에서 선두 기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7년 셀트리온이 정상 가동하게 되면 연간매출액이 10억 달러(1조 3천억원)에 달해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에는 독자적인 R&D를 통해 단백질 중심의 생물신약 의약품을 개발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 인천광역시시는 각종 조세감면 등의 행정지원을 준비했으며, 특히 사업과 관련된 용지 28,000평을 준공업 지역으로 지정했다. 셀트리온의 성공적 유치를 계기로 시설 주변에 첨단 바이오단지 조성을 위한 주변 환경을 정비 중이다.

한편 셀트리온 유치과정에서는 관련 법 개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시행령과 관련,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내 외국인 투자 관련 공장 신규설립 한시규정을 기존 2001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지연됐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시가 그동안 산업자원부에 이 사업의 유치경위와 중요성을 알리고 이 시행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한 결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었다.

2) 사업개요

- 사업명 : 바이오신약 생산시설 및 R&D Center 조성사업
- 사업자 : (주) 셀트리온(Celltrion Inc.)
 - 주요출자자 : 미 백신젠(VaxGen)사 (Genentech의 자회사), (주)넥솔 바이오텍(Nexol Biotech), 한국담배인삼공사, 스테판 & 컴퍼니(Stephen & Company) 등
- 위치 : 송도국제도시 4공구 내(연수구 동춘동 1001번지)
- 분양규모 : 약 28,119평(92,957m²)
- 분양금액 : 약 145억원
- 주요설비 : Fermentation & Purification Plant, R&D Center (발효조 및 정제시설, 연구소)
 - 1단계 : 2002. 1 ~ 2005. 6
 - Fermentation & Purification Plant (12,000ℓ 4기), 연구 및 사무동 등
 - 2단계 : 2006. 1 ~ 2009.(예정)
 - 발효조 12,000ℓ 8기, R&D Center
- 주요생산물 : 관절염 치료제, 동물세포배양기술을 통한 항암치료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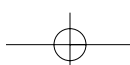
- 총사업비 및 투자규모 : 1.5억 달러(공장부지 매입비 별도)
 - 미 백스젠사 : 약 3,000만 달러 규모의 현물출자 (기술이전)
 - 국내 합작회사 : 약 1.2억만 달러 규모의 자금투자

3)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01. 2. 26 : (주)넥솔바이오텍과 백스젠사와 프로젝트(Project) 추진협의
5. 14 : 인천시 투자유치단 백스젠/제넨텍사 방문 및 투자의향서 접수
7. 12 : 백스젠사와 제넨텍사를 방문해 인천으로 투자유치 확정
10. 19 : 백스젠사와의 실시협약서 체결 (MOU절차 생략)
- 2002. 2. 25 : 백스젠사와의 토지공급 계약서 체결 및 국내합작법인 설립계약 체결
2. 26 : (주)셀트리온 설립등기 (자본금 : 747억 5천만원)
(공동대표자 : (주)넥솔바이오텍 서정진 사장,
백스젠사 수석 부사장 제임스 패넵 James P. Panek)
4. 19 : 준공업 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결
7. 5 : 용도지역(준공업 지역)변경 결정 고시
- 2003. 3. 25 : 바이오 신약생산시설 및 R&D 센터 착공
- 2004. 11. : (주)셀트리온 제2차 사업계획서 접수
- 2005. 5. : (주)셀트리온 공장 및 연구센터 완공
7. 25 : 바이오 의약시설 및 R&D센터 준공식
7 ~ 12 : 공정 Validation, Pilot 생산, FDA(미)승인 진행
- 2006. 6. : 공장 정상가동, 상업생산

4) 투자유치 기간 중 어려웠던 점

향후 상품으로 개발 될 AIDS 백신의 성능 검증이 필요했고, 인천광역시와 투자유치 협상 중인 2001년 7월 경 백스젠사가 싱가포르와 대전시 대덕단지를 방문하는 등 여기저기 투자지를 물색하고 있어 투자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셀트리온사의 토지가격 책정과 관련해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당초 감정가의 50%로 부지를 분양했으나 시민단체 및 각 단체로부터 토지가의 감면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을 받기도 하고, 감사를 받기도 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울대 약대(AIDS병리관련 자문), 서울대 수의대(동물세포 배양 관련 자문), 인하대 생물공학교실(동물세포 배양관련자문)을 방문해 긍정적인 자문을 받고, 특히 이 사업이 환경측면과 관련 무공해 산업임을 확신하게 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5) 기대효과

- 생물공학기술 등 첨단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 미 FDA승인 첨단기술 및 설비 건설능력 습득
 - 해외연수를 통한 관련 산업의 고급인력 양성
 - 생명공학 분야 중 동물세포배양 및 대량생산기술의 국제경쟁력 확보
 - 국내 BT산업 및 제약산업의 지위 향상
- 바이오 산업유치에 따른 관련 최첨단산업의 송도국제도시 유치
 - 바이오, 생물산업, 유전공학산업 등 관련 산업 입지 및 활성화로 첨단 BT단지 조성에 기여
- 수출증가 및 고용창출 기대
 -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량 독점 생산, 공급함으로써 연간 1.3조원 규모의 수출효과 기대
 - 300여명 이상의 고급인력 고용효과 예상
 - 관련 산업 유인으로 추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문화·교육수준 향상효과
 - 최첨단 산업유치에 따른 고급인력 유입에 따라 문화/교육 수준 향상, 국제화 도시로 조기 성장 가능
 - 고부가가치 산업의 유치에 따라 기업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참여 유도, 다양한 복지향상 정책 실현 가능

※ 이 협상과정은 「매경 ECONOMY」(2003. 3. 6)에 전문가 10인이 뽑은 협상 성공사례로 선정된 바 있음.

다. 인천대교 건설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인천대교는 인천공항과 송도국제도시 및 경인지역을 연계한 정부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전략'의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공항고속도로에 이은 제2의 육상 접근로를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인천대교 건설로 공항 접근 정시성 및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게 되어 제2경인고속도로, 영동, 서해안,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수도권 이남 지역의 공항 교통 수요를 충족하고 공항, 항만, 공단의 물류 집·배



송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해 송도국제도시 외자유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사업개요

- 투 자 자 : 코다(KODA)개발 (주)
- 사업기간 : 2003. 6 ~ 2009. 10
- 사업규모 : L=12.34km, 6차로 (주경간 폭 800m)
- 투자규모 : 1,096백만 달러

3) 추진과정

송도국제도시 계획이 추진되던 시기인 1999년 7월 6일, 김대중 대통령의 캐나다 순방 때 아그라(AGRA)사가 참여의사를 표명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같은 해 9월 8일 건설교통부와 캐나다 아그라사 간에 투자의향서가 체결됐고, 다음날인 9월 9일 인천시와 아그라사 간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인천대교 기공식이 2005년 6월 16일 노무현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그리고 1999년 11월 29일 인천시와 아그라사 간 공동협조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해 12월 23일 자본금 10억 5천만원 (인천시 10억원, 아그라사 5천만원) 규모로 민관합동법인 코다(KODA)개발(주)를 설립하게 되었다.

2000년 2월 28일 아그라사에서 민간부문 제안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으며, 그 이후 2000년 5월 15일 영국 아멕(AMEC)사에서 캐나다 아그라사를 인수합병하게 되었다.

2001년 3월 19일 건설교통부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인천대교 건설사업을 민간제안사업으로 선정하

게 되었으며, 2001년 7월 2일 아그라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하게 되었다.

2003년 6월 13일 건설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코다개발(주) 사이에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4) 참여업체 및 진행사항

인천대교 건설 추진을 위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2004년 5월 24일 삼성JV를 시공사로 선정했으며, 2004년 10월 14일 코다개발에서 삼성JV측으로 조건부 낙찰 통지서를 발행하게 되었다. 같은 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인천대교 건설 관련 관계부처 합의와 용역을 추진했으며, 주경간 폭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이견이 많이 제기되어 중앙부처, 국회의원, 인천시, 제2연륙교(현 인천대교)범시민대책위원회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해 2004년 12월 12일 중앙정부와 범시민대책위원회 간 합의를 도출했다.

2005년 6월 16일,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천대교 기공식을 갖게 되어 2009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라. 골프장 개발사업(Sky72 Golf Club)

1) 추진현황

인천국제공항의 공항이용객 편익증진 및 공항기능 활성화 지원, 용지활용을 통한 수익증대 그리고 공항주변 경관 개선 목적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해 골프장 개발 사업이 추진되었다.

2002년 7월 (주)클럽 폴라리스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했으며, 약 1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해 인천시 중구 운서동 4,029,621㎡(약 122만평)에 72홀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짓기로 하고 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1년간 교통영향 및 환경영향 평가를 완료하고, 2004년 2월 부지조성공사 실시계획 승인, 2004년 8월 골프장 시설조성공사 실시계획 승인, 2004년 9월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에 이어 2004년 10월 골프장 시설공사를 착공하게 되었다.

2005년 7월 체육시설(골프장) 등록을 통해 신불도 18홀이 오픈됐으며, 2005년 10월에는 잔여 54홀이 오픈될 예정이다.

이 골프장은 국내 일반 지역의 골프장 건설에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수 많은 건설규제 인허가 및 절차와 비교해 개발기간이 매우 단축된 모범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다.



2) 사업개요

- 사업자 : (주) 클럽 폴라리스(BOT 방식)
- 사업기간 : 2002. 7 ~ 2005. 10
-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 사업규모 : 대중골프장 72홀 및 부대시설 등 (약 122만평)
- 투자규모 : 130백만 달러

3) 향후 추진계획

이 골프장은 특히 외국 관광객 및 수도권 국내 골프 수요자에게 선택의 여유와 함께 여가생활의 공간으로 제공된다. 그리고 앞으로 송도지구에는 잭 니클라우스 설계의 18홀 골프장이 2008년 준공될 예정이고, 청라지구에는 54홀의 골프장이 테마파크와 함께 건설되며, 영종의 IBC-Ⅱ 에도 27홀의 유럽형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따라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1세기 국제문화도시의 모델로 성숙된 여가와 레저활동의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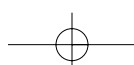
마. 쉐커 (독일) 공항물류단지

1) 추진배경

인천국제공항이 21세기 동북아 물류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항 배후단지에 위치한 자유무역지역 내 글로벌 물류기업의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쉐커(Schenker, 독일)는 1872년 설립된 유럽 최대의 종합물류회사로 전세계 1,100개 영업거점에 38,000명의 종업원이 근무하며 연간 매출액은 68억 유로(2003년)에 달하고 있다. 쉐커는 국내에서 20여년간 대리점을 통한 영업활동을 한 뒤, 1997년 쉐커코리아(국내 종업원수 100여명)를 설립해 국제 포워딩 및 종합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쉐커사 투자유치는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물류허브로 발돋움함에 있어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더불어 물동량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사업개요

- 투 자 자 : 쉥커(Schenker) / 독일
- 공사 기 간 : 2005. 3~2006. 7
- 위 치 : 인천공항물류단지 A-16블록
- 총토지면적 : 10,000m²(3,025평)
- 건축연면적 : 9,465m²(2,863평)
- 투 자 규 모 : 9백만 달러

3) 진행사항

2004년 2월부터 인천공항공사 투자상담을 시작해 2회에 걸친 사업 설명회, 입주 시 혜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같은 해 7월 투자의향서(LOI)를 접수하게 되었다.

2004년 10월 쉥커 본사 재무 CEO가 현장을 둘러보았으며 당시 추가로 조세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어 2005년 3월 15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4) 향후 추진계획

2005년에는 건설사업자 지정신청 및 입주허가 신청과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시설 건축에 들어가 2006년 7월 완공되면 본격적인 동북아 물류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바. UN 산하기구 APCICT

1) 투자유치 배경

UN APCICT는 ESCAP(아·태 경제사회 위원회)의 산하로 설립되는 IT 교육훈련센터로 독립법인격을 갖춘 국제기구로, 명실상부한 유엔 기구의 국내 유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996년 유치한 국제백신연구소(IVI)는 최초로 우리나라에 본부를 둔 정부 간 국제기구였지 유엔기구는 아니었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는 2004년 2월 정보통신부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고 정보통신부는 국내에서 송도지역을 대상 도시로 결정해 UN ESCAP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사안은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것이라 당시 일본과 인도의 반대 의견이 안전으로 상정되어 국내 유치가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UN ESCAP 타당성 조사차 송도를 방문한 존 우레(John Ure)교수는 활기차게 전개되고 있는 송도 개발현장에 감탄했으며, 현장방문 때 실시한 프레젠테이션에서 정보통신부의 송도 U-IT 클러스터와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유비쿼터스 도시 프로젝트에 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다국적 IT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DEC 프로젝트에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러나 훈련생들을 위한 숙박시설과 주변의 위락시설, 음식점 등이 가까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천광역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의 편의 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송도비치호텔에서 숙박, 음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다.

투자유치의 효율성을 위해 정보통신부는 외교통상부와 함께 반대 회원국인 일본과 인도를 방문해 설득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4월 UN ESCAP에 상주대표자 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UN ESCAP 총회설립 결의안 결정을 앞두고 일본에서는 센터 설립 반대를 위한 수정안 제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인천광역시, 정보통신부, 외교통상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은 일본에 대한 꾸준한 설득작업을 통해 ICT 개발 센터의 한국 내 유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유치노력에 힘입어 2005년 5월 18일 UN ENSCAP 총회시 ICT 개발 센터 설립 결의안이 채택되어 송도 내 설립이 확정되었다.

이번 일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IT 역량을 바탕으로 외교협상 전략을 편 외교통상부 및 정보통신부 그리고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 등 관계 부처간의 유기적 협조와 노력이 가져온 대표적인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자원사례

인천광역시는 갯벌타워 건물에 500평 규모의 사무실공간을 임차하여, 5년간의 정상운영비인 5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정보통신부는 250만 달러를 지원한다. 이는 62개 ESCAP회원 및 준회원 국가를 상대로 하는 훈련과정에 참가하는 인력이 자국으로 돌아가 전파할 우리나라의 IT 기술현황과 경제자유구역의 대외 홍보 등의 파급효과를 생각하면 그다지 큰 기회비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인천광역시는 특히 국내에 상주하고 있는 ESCAP회원국의 주한 대사를 송도로 초청해 센터가 들어설 테크노파크와 송도지역의 현장투어를 통해 자국 IT 인력이 향후 교육을 받게 될 지역의 환경을 보여주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국내 최초로 설립되는 UN 산하기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면 현재 추진 중인 U-IT 클러스터, U-City 구축을 위한 지원시설로서 교육기관의 역할을 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ICT분야의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센터를 위한 독립적인 건물을 제공해 각 회원국의 아시아지역 본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회원국간의 네트워크 구성 및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한 외국대사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 UN APCICT 유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있다.

3) UN APCICT 현황

- 위 치 : 송도국제도시 갯벌타워
- 교육대상 : 아·태지역 62개국(ESCAP 회원 및 준회원 국가)
IT 전문가(연간 120명 정도)
- 교육과정
 - 고위정책자 결정자 과정 : 고위직인사의 정보화 이해 및 마인드 확산
 - 관리자 과정 : ICT 분야 핵심관리자 대상
 - 강사양성 과정 : ICT 소양을 갖춘 핵심 관리자

사. GM대우자동차 CTT 및 R&D 센터 건설

1) 투자유치 배경 및 진행사항

GM대우자동차 R&D 시설 외자유치 사업은 인천 지역 혁신 5개년 전략사업 중 자동차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되고 있다.

인천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GM대우자동차는 인천광역시의 제조업 고용기준 약 11%, 매출의 18%, 수출의 20%나 차지하는 상당한 비중을 가진 기업이다. 또한 GM은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세계 완성차 점유율 15.1%의 1위 업체이다. 현재 인천에서 GM대우 협력사로 있는 중소기업들을 포함하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GM대우 R&D 센터설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GM측은 내부적으로 GM의 한국 내 자회사인 GM대우와 본사 기능을 묶어 인천에 둘 것이냐, 또는 제3의 지역을 선정해 이전을 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이전이 고려되었던 지역으로 전북의 군산과 충남의 해미지역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인상수 인천광역시장과 닉 라일리 GM대우 사장이 2004년 12월 30일 주행 성능시험장 및 연구시설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전북의 경우 본사 유치를 위해 도지사가 직접 GM대우 사장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관련 실·국장, 과장이 수차례 방문하는 상황이었다. 다국적 기업의 R&D센터 유치를 둘러싼 각 지방자치단체의 치열한 유치경쟁은 그 결과를 누구도 낙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였다. GM대우 본사가 있는 인천시라고 해서 R&D센터 유치를 낙관할 수 없었다.

게다가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등 중앙정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국정 모토인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워 수도권 내 기업체 R&D 센터 시설 신설에 반대 내지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인천시는 GM대우 부평 본사와 R&D 센터 기능 및 인력의 다른 지역유출 사전 예방, 인천지역의 자동차 산업의 공동화 방지를 위한 R&D 센터의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반드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설립을 목표로 일을 추진했다. 그 결과 인천지역 기업체 R&D 센터 유치사업에 미온적이었던 중앙정부의 동의를 얻어 내었으며 다른 지역을 고려 중이던 GM대우가 2004년 12월 30일 MOU체결과 함께 투자지역을 인천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특히 2005년 2월 외국인 투자금액(FDI) 5천만 달러 국내 도입에도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으며 그 결과 6월 14일 인천시와 GM대우가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2) 지원사례

인천시는 GM대우의 R&D 시설 외자유치의 당위성 설득을 위해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토지공사, 농업기반공사 등 사업관련 기관을 수차례 방문했다. 2004년 10월에는 GM 미국 본사를 인천시장이 직접 방문해 R&D 센터의 경제자유구역 내 유치의 당위성을 비롯해 투자할 경우 주어지는 각종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인천시는 GM대우 R&D센터 설립을 위한 부지임대를 위해 당초 농업기반공사 소유의 부지를 매입하는데 347.5억원, 성토 및 지반개량을 위해 152.5억원의 시 예산을 수립해 GM대우의 R&D센터를 위한 인센티브로 제공했다.

이에 따라 인천은 세계 최대 자동차 메이커인 GM의 전 세계 연구·개발 및 전략기지로 부상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꾸준히 추진되어 왔던 GM대우의 대우자동차 인천공장 인수선언과 함께 이번 R&D 센터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과 함께 중앙정부가 대외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실질적이고 성공적인 외자유치로 평가될 것이다.



3) GM대우 R&D 센터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10(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내)
- 부 지 : 167천평
- 사업기간 : 2004. 12 ~ 2006. 9
- 투자규모 : 1,471억원(인천시 500억원, GM대우 971억원)

4) 기대효과

CTT(Compact Test Track) 건설에 의해 6년 동안 투자되는 1,324억원이 인천지역 수송 장비 산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약 4천억원, 소득유발 513억원이 되며, 고용 증가는 10억원당 3.7명이 증가하므로, 총 485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또한 지역 내 다른 산업의 생산증대에 미치는 효과는 총 743억원, 인천지역과 국내 다른 광역 도시지역과의 교역량 증대는 총 358억원으로 추계된다.

구 분	추정결과(2010년까지)	비 고
매출 증가	86,240억원	141,940억원
협력업체 거래증가	55,700억원	
협력업체 고용증가	51,156명	52,906명
설비투자 고용증가	1,750명	
생산증가	약 20만대	

2. 투자유치 MOU체결

가. 로즈 하버 (Rose Harbor) 복합레저타운

1) 추진배경 및 진행사항

2004년 4월 인천국제공항의 제2국제업무지구 (IBC-Ⅱ) 약 130만평에 20억달러를 투자해 로즈 하버 복합 레저타운 조성 사업을 하기로 하고 영국의 아멕(AMEC)사와 MOU를 체결했다. 이곳에는 국제업무단지, 호텔, 공연장, 워터파크, 레저시설, 27홀 골프장, 외국인 학교 등 유럽형 국제도시가 세워지며 2010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사업규모 및 실시협약 체결을 위해 국내 유관기관 및 아멕사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아멕사는 현재 송도 및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약 2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대형공사인 인천대교의 사업시행자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 사업개요

- 사업시행 : 인천공항공사
- 투자자 : 영국 아멕(AMEC)사
- 위치 : 인천공항 제2국제업무지구(IBC-Ⅱ)
- 사업규모 : 130만평(유수지 42만평 및 인근 사유지 포함)
- 투자규모 : 20억 달러
- 주요시설 : 호텔, 공연장, 레저시설, 고급 주거시설, 국제학교 등

3) 진행사항

2004년 4월 26일 재정경제부와 영국 아멕사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법규 검토 및 기본 협의를 2004년 5월부터 12월까지 모두 마치고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공항공사, 아멕사 등이 실무협의를 거쳐 2005년 하반기부터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사업계획서 작성 및 관계기관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4) 향후 추진계획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아멕사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추진은 중앙정부와 아멕사 측이 계속 협의를 해 나아갈 방침이다.

나. 외국학교 유치 (Nord Anglia Education PLC Group)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영국에서 가장 큰 교육기관인 노드 앵글리아 교육 그룹(Nord Anglia Education PLC Group)을 타깃 학교로 선정해 외국학교 조기 유치를 추진하게 되었다.

노드 앵글리아 교육 그룹은 영국 내 12개의 사립학교와 유럽, 아시아 지역에 10개 이상의 국제학교를 설립, 운영 중에 있는 교육전문 기관이다.

2) 사업개요

- 사업시행 : 미정
- 투자자 : 노드 앵글리아 교육 그룹 (Nord Anglia Education PLC Group)
-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일원



제3장 - 주요 투자유치 활동

- 부지규모 : 약 2만여평(미확보)
- 투자규모 : 20백만 달러
- 주요시설 : 교실, 기숙사, 체육관 등 국제수준의 학교 시설

3) 진행사항

2004년 7월 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노드 앵글리아 교육 그룹이 보낸 LOI를 우편으로 접수하고 내용을 검토한 뒤 토지조달과 필요한 인허가의 획득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기로 하고, 2004년 8월 6일 노드 앵글리아 교육 그룹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설 외국인학교 실내 (조감도).

노드 앵글리아 상하이 영국국제학교는 최종 학교 설립 협약서가 체결된 시점부터 4년 이내에 2천만 달러를 투자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한국정부에 의해 지정된 기관이나 인천광역시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체결된 협약서 이행을 위해 '외국교육기관 토지 확보'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관계기관과 3~4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또

한 외국교육기관에 인천시 소유부지 무상임대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등을 요구했으며 현재 외국교육기관 조기 설립과 관련 부지 확보를 위해 국고보조금 등을 신청한 상황이다.

4) 향후 추진계획

학교 부지 제공조건에 따른 2차 회의를 2005년 7월 개최하고 2005년 하반기에 투융자 심사를 거친 후 2006년 예산(안)이 반영되면 2006년 상반기에 학교설립계획서 등 구체적인 학교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3. 양해각서 체결 후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사례

가. DEC그랜드 컨소시엄

1)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 경위

2004년 초부터 세계 다국적 IT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내 투자 의향을 타진한 결과, 당시 시점에선 인프라 미비, 인천광역시에 대한 낮은 인지도,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정적 입장 등 여러 조건상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투자 여력이 충분한 삼성그룹을 주축으로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클러스터(Digital Entertainment Cluster, DEC)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삼성그룹을 마스터 디벨로퍼(Master Developer)로 삼아 초기 협상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 초기에는 삼성이 DEC 개발에 매우 높은 관심을 보여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DEC 구축 전략을 수립했다. 이와 동시에 삼성과의 진행이 국내 대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 등 부정적인 여론에 휘말릴 경우를 대비해 비상 계획(Contingency Plan)의 일환으로 HP, 선 마이크로시스템스(SUN Microsystems)를 중심으로 그랜드 컨소시엄(Grand Consortium) 방식의 합작 회사 설립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2004년 5월 그룹 내부의 사정으로 더 이상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곤란한 상황이 되어 송도 DEC에 대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다.



송도 DEC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가 2004년 10월 체결됐다.

삼성전자의 사업 포기 후 그랜드 컨소시엄이라는 공동 사업 형태로 투자 유치를 전개하는 방향으로 DEC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그랜드 컨소시엄 참여 업체들은 송도 DEC 구축과 U-City 정보화 전략 계획(ISP :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프로젝트 모두에 관심이 있었다. 특히 U-City IT infra-structure 구축이 향후 한국과 동북아시아에서 진행될 각 기업의 미래 사업을 좌우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랜드 컨소시엄의 참여 목적은 DEC 구축을 통한 매출 증대와 U-City 프로젝트에서의 우위 확보 두 가지였다.

그랜드 컨소시엄 참여사 중 라살 인베스트먼트(LaSalle Investment)사가 LOI 조인식 직전에 담당자 변



경 등 내부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부동산 개발사로서는 영우 & 어소시에이츠(Youngwoo & Associates)사만 독자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2004년 8월 DEC 그랜드 컨소시엄 출범식을 갖고 같은 해 10월에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는 사실상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설립된 후 단독으로 수행한 최초의 행사로 국내외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홍보하는 큰 효과를 거두었다.

2) 그랜드 컨소시엄 진행 상황

양해각서 체결 후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안 모색을 위한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U-City 정보화 전략계획의 결과가 2005년 6월경 도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다시 참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2004년 12월경 영우&어소시에이츠사가 세계적인 투자 회사인 안젤로 고든(Angelo Gordon & Company)사의 공동 투자를 이끌어 내고, 총 투자 금액도 30억 달러 규모로 사업을 확장하여 DEC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영우 & 어소시에이츠사와 안젤로 고든사가 공동(YWAG)으로 사업 계획을 제출하여 2005년 4월 사업 발표회를 갖고 송도 DEC를 ‘사이버 시티(Cyber City)’로 개발, ‘생활과 일, 여가’가 어우러진 세계적인 IT 도시로 만들려는 청사진을 제시하여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그랜드 컨소시엄 MOU가 2005년 4월로 만료되어 구체적인 사안 없이 막연히 연장하기보다는 향후 기업별로 구체적인 투자 모델을 가지고 토지매매계약을 체결 하자는 내부 의견에 따라 공식적으로 DEC 그랜드 컨소시엄 MOU는 종료하게 되었다.

YWAG의 ‘사이버 시티’ 구축 계획은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의 기반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여서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기 곤란했고 토지매매가격과 사무실과 주거단지의 비율 문제 등 일부 의견차가 있어서 5·7공구에 투자 유치하는 쪽으로 결론을 맺게 되었다.

3) 향후 추진계획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구축 기본 계획을 유지하는 정도에서 소규모의 디지털엔터테인먼트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며, RFID/USN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발전시킬 예정으로 YWAG의 투자 계획은 계속 의견을 조율하며 5,7공구에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게일사와 LG CNS의 합작 회사인 '송도 u-Life 유한회사'와 협력해 디지털엔터테인먼트 클러스터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나. 송도신항건설

1) 추진 배경

인천신항 외자유치는 2002년 하반기에 게일사로부터 미국의 파인(Pyne)사를 소개받고 파인사를 통해 독일의 힌넨베르그(Hinneberg)사와 연결되면서 시작되었다. 2002년 12월에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이 독일 함부르크의 힌넨베르그를 방문해 인천신항 건설계획과 주변 여건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구체화되었다.

2003년 3월에 파인사가 아나톨리 호쉬타인(Anatoly Hochstein), 아이작 샤프란(Isaac Shafran) 등 항만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방문단을 인천에 보냈으며, 방문단은 인천항의 내항, 삼성/PSA건설 현장, 송도신항 예정지를 둘러보았다.

2) 진행과정

2003년 4월에는 안상수 인천시장과 시 관계자들이 힌넨베르그를 방문해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인천 신항건설 참여를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대형 정기선의 기항 의향이 투자유치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동으로 인식했다. 같은 해 4월 정부의 뉴욕 IR 기간 중 김진표 경제부총리와 파인사 관계자의 회동이 있었으며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인천신항 외자유치 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표명했다.

2003년 5월부터 2004년 2월까지 MOU 체결을 위한 협의를 위해 인천과 함부르크에서 여러 차례 회의가 있었으며 양해각서(MOU)에 대한 법률검토도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2004년 4월 27일 미국 뉴욕 소재 부동산 투자회사인 파인사와 독일 함부르크 소재 선박, 선주 중개업체인 힌넨베르그사로 구성된 PH 컨소시엄과 투자규모 15억 달러로 인천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04년 5월에는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용역결과에서 인천신항 18선석은 컨테이너 12선석, 잡화 6선



석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란 결론이 나와 인천신항 개발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게 된다.

2004년 6월에는 외국 투자에 대한 윈스톱 행정 서비스제공 등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인천신항 개발 업무가 인천 광역시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됐으며 2004년 8월, 9월, 12월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주관으로 재정경제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과 함께 유관기관회의를 개최하여 인천신항 개발을 위한 논의를 했다.

PHPC(Pyne Hinneberg Port Consortium)사는 국내법인 설립을 준비 2004년 7월에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대림건설 등 국내 9개 건설사와 JVA를 체결하였으며 2004년 12월 1일에는 'PH KOREA LLC' 명칭으로 국내 법인을 설립했다.

3) 인천항만공사(IPA) 출범과 향후 전망

2005년 4월 26일로 양해각서를 체결한지 1년이 되자 양해각서 연장에 대한 상호 의견교환이 있었다. 뉴욕의 PHPC사는 양해각서 연장을 희망했으나 인천항만공사(IPA) 출범 등 여건변화와 사업주체 및 관련법의 변경으로 양해각서 연장은 의미가 없음을 서신을 통해 양측이 확인했다.

양해각서 연장과 상관없이 PH Korea는 준비 작업을 거쳐 2005년 5월 27일 항만공사 시행허가신청서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접수했으나 2주 후 외국선사 유치계획 및 자본조달 방법 등 구체적 내용 미비로 반려되었다. 2005년 7월 11일 인천항만공사가 출범함에 따라 항만개발업무는 인천항만공사 (IPA)가 맡게 되었다.

앞으로의 진행은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사업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가 이루어지며 인천항만공사는 공개 경쟁 공모를 통해 사업 시행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신항 개발에 대한 스케줄을 마련하게 되며 PH Korea는 선사유치와 자금 조달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준비해 인천항만공사와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PH Korea가 사업수행에 대한 능력과 신뢰감 있는 개발계획을 다시 제시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PH Korea 간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현황〉

(2005. 8. 31 현재)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사 업 명	사 업 자	사 업 내 용	계 약 일	투자규모
총 계	17건				16,657.7
소 계	6건				14,232.2
계 약	국제업무지구 조성	NSC Gale+Posco	- 사 업 기 간 : 2004~2014 (1단계: 2008.7) - 위 치 : 송도국제도시 (167만평)	2002.03.20	12,700
	송도바이오단지 조성	Celltrion VaxGen+KT&G	- 사 업 기 간 : 2002~2005. 5(2009) - 위 치 : 송도(10.9만평) / 바이오 신약	2002.02.25	150
	인천대교 건설	KODA사 (영국 AMEC)	- 사 업 기 간 : 2003. 6~2009.10 - 사 업 규 모 : L=12.34km, 6차로 (폭 800m)	2003.06.13	1,096.1
	골프장 개발사업	클럽 폴라리스	- 사 업 기 간 : 2002.7~2005.10 - 위 치 : 영종 운서동(122만평)	2003.06.13	1,096.1
	공항물류 단지건설	헥커(독일)	- 사 업 기 간 : 2005.3~2006.7 - 위 치 : 공항물류단지(3,025평)	2005.03.15	9
	CTT 및 R&D	GM 대우자동차	- 사 업 기 간 : 2004.12~2006.9 - 위 치 : 청라지구(16만7천평)	2003.06.13	1,096.1
소 계	2건				2,020
MOU	Rose Harbor 복합레저타운	영국 AMEC	- 사 업 기 간 : 2004.4 ~ 2010.12 - 위 치 : 인천공항(120만평)	2004.04.26	2,000
	외국학교 유치	영국 노드앵글리아	- 개 교 목 표 : 2008.9월(개교목표) - 위 치 : 영종 구역내(2만평)	2004.08.06	20
소 계	9건				405.5
LOI	IT제조 및 R&D	BONANZA 04-001	- 제안서 제출 : 2004.5.13 - 위 치 : 송도지식단지(3,500평)	2004.05.13	10
	전산센터 설립	BONANZA 04-005	- 제안서 제출 : 2004.9.30 - 위 치 : 송도지식단지(2,200평)	2004.09.30	35
	DHL물류센터	DHL	- 제안서 제출 : 2003.6.13 - 위 치 : 화물터미널(약 6,000평)	2003.06.13	20
	TNT 물류센터	TNT	- 제안서 제출 : 2003.11.17 - 위 치 : 화물터미널(약 2,000평)	2003.11.17	8.5
	IT부품정밀 가공 및 R&D	BONANZA 05-001	- 제안서 제출 : 2005.3.8 - 위 치 : 송도(2,000평)	2005.03.08	12
	PGA 골프 테마파크 조성	BONANZA 05-002	- 제안서 제출 : 2005.3.30 - 위 치 : 영종지구(운북), 청라(유보지)	2005.03.30	300
	첨단전문병원	BONANZA 05-002	- 제안서 제출 : 2005.3.30 - 위 치 : 영종지구(운북), 청라(유보지)	2005.03.30	300
	RFID솔루션 개발 시험센터	BONANZA 05-005	- 제안서 제출 : 2005.7.05 - 위 치 : 송도(약 1,000평)	2005.07.05	5
	전기자동차 개발	BONANZA 05-006	- 제안서 제출 : 2005.7.14 - 위 치 : 송도(미정)	2005.07.14	10

※ 송도지구 : 9건 / 14,023.1백만 달러 (계약 3건 13,946.1, LOI 6건 77)

※ 영종지구 : 7건 / 2,487.5백만 달러 (계약 2건 139, MOU 2건 2,020, LOI 3건 328.5)

※ 청라지구 : 1건 / 147.1백만 달러 (계약 1건 147.1)



제3절

적극적인 투자유치 홍보 활동 전개

1. 홍보 기반 구축

가. 투자유치 IR활동 및 PR활동 준비

2003년 8월 인천이 전국에서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003년 12월부터 인력 구성을 하기 시작해 본격적인 IR활동 및 PR활동에 들어갔다. 전례에 없었던 새로운 개념의 도시를 일반 국민과 국내외 잠재 투자자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야 했다.

개정 이후 최초로 해외 기업홍보 활동을 나가는 시기가 2004년 3월 초로 결정되면서 서둘러 홍보물을 제작했다.

홍보물을 위한 제안서 공모를 준비하고, 일간지 및 지방지, 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모광고를 실시한 후 16개 업체의 제안서를 접수해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 제안서를 선택해 계약하고, 제작에 들어갔다.

투자홍보과 직원들과 계약 업체간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홍보물의 제작방향과 디자인, 인쇄, 교정 등의 과정을 논의한 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최초의 영문(5,000부)과 국문(5,000부) 홍보물(브로슈어)과 영중·송도·청라지역을 소개하는 리플렛(영문과 국문 각 2,000부)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지도와 각 지역별 소개, 브로슈어의 PDF파일이 들어있는 휴대 간편한 명함크기의 CD롬(2,000매)을 제작했다.

이들 홍보물은 「포춘(Fortune)」지가 선정한 해외 1,000대 기업과 각국 대사관, 재외 KOTRA 사무소, 한상(해외동포 경제인) 등에 발송돼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2004년 6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프레젠테이션이 제작되어 현재까지 마케팅 활동에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12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은 우선, 급증하는 동북아 경제 및 시장에 대한 소개, 동북아시아에서 비즈니스 하



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 소개, 인천 및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소개, 인천의 장점과 경제자유구역의 장점이 합해져 투자자들의 사업에 이익에 도움을 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각종 혜택을 소개했다.

텍스트가 중심이 되는 기존의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탈피해 시원한 비주얼 효과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장점을 논리적이고 단계적으로 설명한 프레젠테이션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하는 방문객과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각종 국제회의, 국제 세미나 등에 참가해 프레젠테이션을 한 후 파일을 얻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았을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2004년 9월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홍보 영상물 제작을 위해 영상전문 기획사의 제안서를 받아 최우수 업체를 선정하여 영상물 제작을 시작했다. 신문과 홈페이지의 공고를 통해 총 15개 업체가 1차 심사에 참여했다. 공모의 내용은 국내외 투자자에게 상영할 35mm, 7~8분 분량의 영상물 제안서였으며, 제 1차 심사를 통해 (주) 쿠프로의 제안서가 최우수 업체로 선정되었다.

영상물의 주 내용은 뉴욕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소개서를 받은 한 투자가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방문해 열정적으로 일하는 경제자유구역 사람들과 친절한 한국 국민, 비즈니스에 적합한 환경 등을 확인하고, 인천에 투자를 결정한다는 내용이었다. 인천의 이모저모를 아름다운 영상으로 표현하기 위해, 영종대교, 인천공항, 을왕리, 선녀바위 해변 등을 촬영했고, 비즈니스 장면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이 출연해 현실감을 높였다.

송도국제도시에 이미 투자해 국제 비즈니스 센터를 건설하고 있는 게일사의 사장 스탠 게일(Stan Gale)의 인터뷰와 투자자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인터뷰, 인천시장의 인터뷰 등이 포함된 총 8분 분량으로 제작된 영상물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국어로 제작되었다.

총 3개월의 기간 동안 제작된 영상물은 홍보관과 본청을 방문하는 잠재투자자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기 전 상영되어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국내 정부기관이 만든 영상물 중에 가장 수준이 높은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뉴욕타임즈」, 「파이낸셜 타임즈」 등 각종 해외 유명 신문에 게재된 경제자유구역의 기사들을 모아 「IFEZ 리포트(REPORT)」를 제작해 해외 출장 때나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인천 경제자유구역



을 소개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국내외에 알리는 뉴스레터 「IFEZ 저널」이 국문판, 영문판으로 2004년 10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격월로 발행하고 있다.

비주얼을 강조한 고품격 뉴스레터를 지향하고 있는 「IFEZ 저널」은 매호 평균 국문판 4천부, 영문판 2천부, 총 6천부를 기업과 언론에 배포해 IFEZ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나. 투자유치 광고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잠재 수요 고객을 위한 효과적 홍보를 위해 신문사 등의 잡지와 전문 경제지 등에 지면 광고를 실시했다

2003년 12월 세계적인 경제잡지 「이코노미스트(Economist)」지에 재정경제부와 함께 3페이지의 지면광고로 역동적인 한국 경제를 알리는 광고 한 페이지와 인천경제자유구역 (multi port Incheon)을 소개하는 두 페이지로 구성 제작·게재했다.

이 광고는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3차례에 거친 회의 끝에 카피와 디자인을 결정한 뒤 제작해 홍보 효과를 높여 광고 게재 이후 56건의 메일과 5건의 전화문의가 있었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 잡지를 구매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방문하는 투자자들에게 홍보물로 배부하기도 했다.

이후 광고 홍보활동이 강화되면서 외교관과 전 세계 해외공관에 배포되는 「디플로머시(Diplomacy)」와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발간하는 투자가이드북인 「저널(Journal)」, 한독 상공회의소에서 발간하는 「디렉토리(Directory)」, 서울외신기자 클럽의 회원지 등에 광고를 게재해 각 기관의 주 구독자층 및 각국의 외교관등을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영국에서 발간되는 「포린 디렉트 인베스트먼트(Foreign direct Investment)」라는 해외 직접 투자를 주제로 한 잡지가 해외금융권 등에서 각광을 받고 있어 이 잡지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소개하는 광고와 더불어 기사형식을 빌린 광고를 게재해 해외 잠재 투자자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또한 새로운 홍보 기법으로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소개하는 신문 커버를 디자인해 제작하고, 이 커버에 신문을 넣어 각종 국제회의 혹은 세미나 때 참가자 방에 배포하거나 회의장에 배포했으며 전세계 유력 인사들에게 DM (direct message)을 발송하는 형식의 홍보도 실시했다.

2004년 10월에는 공모를 통하여 CF 프로덕션을 선정해 인천경제자유구역 CF를 제작했다. 광고의 카피는 ‘프리즘 오브 인베스트먼트(Prism of Investment)’, 빛이 프리즘을 통해 다양한 색을 발산하듯이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면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영상으로는 외국 투자자 가족에게 인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것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되었다. 이 광고는 세계 최대의 뉴스채널인 CNN을 통해 아시아와유럽 전지역에 12월 한달간 집중방송되었다.

또한 국내에 진출해 있는 해외투자자들과 잠재 투자자, 해외 공관 종사자들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홍보를 위하여 영어로 진행되는 한국 최초의 케이블이자 해외 위성 방송인 아리랑 TV에도 석달간 CF 홍보를 방송했다



해외유수의 경제잡지에 실린 IFEZ 광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첫 해에는 경제자유구역을 소개하는 각종 광고 및 브로슈어 등의 홍보물을 작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였고 그 후, 이러한 홍보물을 적극적으로 IR에 사용해 투자유치 목표를 달성하는데 주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했으며 앞으로도 투자 유치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공동 홍보

2004년 10월 1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독자적인 홍보와 동시에,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의 3개 경제자유구역청과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토지공사는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공동 홍보를 통하여 투자유치를 극대화하고, 홍보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홍보협의체’를 구성해 각 기관별로 광고 및 홍보를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홍보협의체에서 합의한 주요 홍보 프로그램은 미주 지역과 유럽 지역의 IT·BT, 물류, 관광 레저 등 업종별로 전문화되고 분화된 잡지에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면 광고를 게재하고, 국내에서 발행되는 영자신문(Korea Herald와 Korea Times)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신문 광고를 담당해 2주 간격으로 3개월간 2개 신문에 광고를 게재했다. 이 광고는 단순광고 형식을 탈피해 특집 증보판 형식으로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3곳에 대한 집중적인 소개를 했으며, 여기에는 투자유치 성과 및 3개 경제구역청장의 인터뷰도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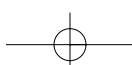
부산·진해경제청은 물류 전문잡지와 IT관련 잡지에 광고를 실시했으며, 토지공사는 골프 전문 잡지에, 광양만권경제청은 「이코노미스트」지에 각각 광고를 게재해 3개 경제자유구역 및 토지공사의 투자 유치 활동에 시너지 효과를 올리려고 했다.

라. 홍보물 제작

2004년 한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전반적인 개요 및 사업을 소개하는 자료들을 만드는데 주력하였다면 2005년에는 각 사업별 투자유치를 위한 ‘테마별 투자유치 홍보물’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기획해 실행했다.

브로슈어는 총 5종으로 바이오, 물류, 관광레저, 컨벤션 및 경제자유구역의 개요를 담아 영문과 국문으로 제작하고 각종 IR행사나 해외 출장 때 등 유용하게 사용될 지도 휘장 및 책자를 제작하기로 내부회의를 거쳐 전문 제작사의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바이오 브로슈어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식기반산업단지 내에 조성될 바이오 산업단지를 소개하는 내용과 최근 줄기세포 연구로 각광을 받고 있는 황우석 박사의 세계적 연구실적과 함께 한국노동력의 우수성을 강점으





로 내세웠으며, 경제자유구역이 바이오 기업들에게 줄 혜택을 소개했다.

2005년 6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바이오 엑스포에서 마케팅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홍보물을 서둘러 제작해 배포했는데 바이오 엑스포전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항공, 항만 물류 사업유치를 위한 자료로 사용될 브로슈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가진 항공, 항만, 대륙 네트워크에 대한 소개와 현재 개발 중인 신항만, 송도신항, 인천 국제공항 주변 배후지 상품, 공항·항만을 연계한 복합 화물운송 모델을 소개했고, 문화관광 분야의 브로슈어는 용유, 무의 관광단지 및 운북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송도 청라지역에 유치하게 될 관광산업에 대한 상품을 실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테마별 브로슈어 이외에도 송도 홍보관을 찾는 방문객이 올해 들어 급증함에 따라 2004년에 제작한 프레젠테이션에 성우 내레이션을 첨가해 자동으로 구동되는 플래쉬 버전으로 추가 제작해 홍보관을 찾는 방문객에게 상영할 예정이다.

총 18종에 달하는 홍보물 제작에 관련 업체와 각 사업팀 담당자의 의견을 조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담기 위한 자료 조사와 분석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으며 사업에 걸맞는 카피와 디자인 컨셉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해를 거듭하면서 제작된 다양한 홍보자료와 전년도 효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광고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국내외 투자가 및 일반에게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무엇보다도 투자 유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기초 자료가 되었다.

앞으로도 홍보물 한건 한건마다 경제자유구역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으로 직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비전과 청사진을 투자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광고와 홍보물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2. 국내 · 해외 투자유치 활동

가. 미핼(MIPIM) 2004 부동산 박람회 참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4년 3월, 프랑스 칸에서 개최되는 MIPIM(미핼) 부동산박람회에 전시참가하고 네덜란드의 스키폴 공항공사 및 로테르담 항만청, 영국의 투자개발청(IDA), 북아일랜드 산업개발청(INI) 등 해외 투자기관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주요 투자전략 틀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기로 했다.

미핼 부동산박람회는 규모면에서 유럽 최대를 기록하는 박람회 행사로 유럽 전역뿐만 아니라 미주,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등 각국에서 참여도가 가장 높으며 칸 영화제 못지않게 인지도가 큰 행사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초로 전시부스를 마련해 이 행사에 참가했으며, 단순히 참여만 하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외국 투자자를 상대로 한 적극적인 유치활동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 내 1.3공구의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투자한 게일사와 공동홍보활동을 펼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였으며, 세계적인 부동산 투자회사인 모건 스탠리(Morgen Stanley)와의 모임을 통해 부동산의 국제적인 트렌드 및 실제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조언을 경청하고 함께 토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행사기간 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 부스 방문객은 400여명(일일방문객 평균 70여명)이었으며, 약 100여명의 잠재투자자들과 투자상담을 진행했다.



1. 박람회 관계자들과 환담하는 이환균 청장(가운데).
2.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부스를 찾는 투자자들.
3. 컨퍼런스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소개 및 관광투자유치를 설명하는 안영도 국장.
4. 로테르담항만청 관계자 PT.
5. 아일랜드 투자개발청 IDA 관계자의 기관설명.

사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문을 연 후 처음으로 해외에서 진행된 행사라 참가자들에게 IFEZ(인천경제자유구역) 영문 이니셜을 소개하는 데만도 쉽지가 않았다. 다행히 관광 및 문화 관련 패널 토의에 투자유치국장이 직접 참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리적 이점 및 투자정책을 소개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네덜란드의 스키폴 공항공사 및 로테르담 항만청에서는 담당국장들의 설명을 통해 기관의 성격 및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알 수 있었다. 특히 로테르담 항만청의 인텍스식 프레젠테이션 기법은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적극 활용해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아일랜드투자개발청(IDA)에서는 아일랜드의 지리적 제약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타깃 기업(제약, 서비스)선정으로 투자유치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하나의 우수한 다국적 기업(IBM)을 유치하기 위해 5년간의 지속적인 접촉이 필요하다는 값진 교훈을 얻기도 했다.

북아일랜드 산업개발청(INI)은 제조업에 특화된 투자유치기관으로 산업단지 내 외국인 제조업 분야 유치를 위해 힘쓰고 있었다. 이들 기관을 방문한 뒤 인근산업단지에 있는 대우전자를 방문해 현지화에 성공한 기업전락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나. 2004 외신기자 초청 투자유치설명회



1. 외신기자설명회 개최.
2. 기조연설을 하는 안영도 국장.
3. PT를 경청하는 외신 기자들.
4. 셀트리온사 투자현황 브리핑.
5. 질문을 하고 있는 외신기자.



2004년 6월 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상반기 투자성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언론홍보를 통한 투자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서울외신기자클럽 소속 외신기자들을 초청해 7월 8일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가장 신경을 써야 했던 일은 한 자리에 모이기가 힘든 외신기자들을 모으는 일이었다. 우선 외신기자클럽에서 입수한 기자 디렉토리를 가지고 기자들을 각자 담당하기로 하고 일일이 전화로 참석여부를 물었다. 투자홍보과장까지 나선 일대일 전화상담은 효과가 있었다. 설명회에 전체 70여개사 가운데 32개사 44명(전체 등록기자수의 절반 이상)이 참석했는데 이 수치는 통상적인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인원치곤 적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투자유치설명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소개, 프레젠테이션, 홍보 영상물 상영 등에 이어 계일사, 셀트리온과 같은 실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기존 투자자의 사업소개 및 브리핑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가치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생생한 사례를 전달함으로써 외신기자들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었다.

행사 후 「파이낸셜 타임즈」 등 세계 유력 신문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취재와 기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다. 2004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건축전 참가

2004년 9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건축전에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공동으로 참가했다.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건축전은 26개국의 국제적인 도시가 대거 참여하여 각국의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자리였다. 이 행사를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도시계획 및 투자홍보, 건축학 등의 전문적인 분야를 포괄해 민간전문가(건축학 교수)도 참가하면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인천광역시 및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6,8공구의 수변공간을 활용한 개발 미래상을 보여주는 전시관은 베니스 비엔날레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김석철 교수(아키타칸건축도시연구원 대표)를 통해 'iCITY'라는 컨셉으로 형상화 했다.

우리 참가단이 사용한 전시장소는 과거 병기고로 사용되던 거대한 창고로 전시행사를 위해 특별한 장치나 설비가 필요하지 않는 역사적인 건물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관람객의 눈길을 더욱 사로잡았다.

최신식 시설을 갖춘 첨단 컨벤션센터가 줄 수 있는 장점도 무시할 순 없지만, 기존에 있는 환경을 최대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도 경쟁력 차원에서 앞설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아마도 역사적인 수상도시로 이름 높은 베니스에 최신 시설의 컨벤션센터를 지어 행사를 진행하였다면 오히려 그 효과가 반감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행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베니스 비엔날레 심사위원회로부터 에스파니아의 빌바오(Bilbao)시와 최종 경쟁한 끝에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머쥐었다.

수상도시 'iCITY'로 명명된 송도 6, 8공구는 비록 개발의 방향을 보여주는 컨셉형이지만 도시의 미적기능과 환경이 조화롭게 균형을 갖춘 지능형 도시라는 점에서 많은 점수를 받았다.

행사 기간 동안 40만 명이 넘는 세계 각국의 관람객 및 건축가, 도시계획가, 학자들이 'iCITY' 전시관을 찾아 세계 속의 인천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널리 알리고, 외자유치에 직간접적인 도움이 되는 효과를 올릴 수 있었다.



특별상 시상식에 참석중인 안상수 시장(오른쪽에서 두번째).



우리 전시관 앞에서 리본 커팅 행사를 하고 있다.



iCITY 컨셉의 송도지구 소개 패널.



IFEZ 내 송도지구의 iCITY 위치도.

라. 제3차 한상대회 전시참가 및 투자유치 설명회

‘세계의 공장’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한 집단을 꼽으라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화교를 들 수 있다.

유대인 자본에 버금가는 화교 자본의 중국 내 유입은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 교육을 받고 귀국한 중국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결합되어 정보산업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하게 만드는 바탕이 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정보산업의 파급력은 가전, 자동차, 철강, 우주, 통신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모든 산업을 뺄아들이는 블랙홀의 거대한 중국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이러한 화교의 인적, 자본적 네트워크에 버금가는 170여개국 700만 재외동포의 유기적 상호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한상네트워크를 통한 경제활성화와 국내의 기업간 정보, 기술, 인적교류를 통한 비즈니스 창출을 목적으로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하는 행사가 한상대회이다.



투자유치설명회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투자자와 상담 중인 직원들



투자홍보과장이 방송사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04년 10월 제3회 한상대회가 제주도에서 개최되어 성황을 이루었다.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방송공사 등이 후원한 이 행사에는 1,300여명의 전세계 재외동포 경제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103개 기업이 전시 행사에 참여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관을 포함한 8개 홍보전시관이 마련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부스홍보(인천도시개발공사 참여) 및 투자유치 설명회를 중심으로 이 행사에 참여했다.

한편 인천광역시에서는 리딩CEO포럼(인천시장 참가)행사와 비즈니스관(인천시 소재 10개사)전시 행사를 펼쳤다. 부스 홍보를 하는 동안 언론 및 방송사(YTN, SBS, KBS 등)에서 인터뷰 요청이 있었으며 일반 관



람객 외에 하루 평균 20여명의 잠재투자자들의 방문을 받는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용유·무의도에 조성되는 관광테마파크와 송도지구 외국 학교 및 병원설립에 관한 문의가 많았다. 자신의 고향을 인천이라고 밝힌 한 재외동포 경제인은 인천을 위해 민간외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해서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제주도 컨벤션센터 내에서 개최된 투자유치설명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 제주, 충북, 경북, 전라, 부산 등에서 여러 기관이 참여했으나 대부분의 참석자 및 방송사 취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설명회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한상대회 참여는 재외동포 경제인에게 고국에 대한 투자마인드를 고취시키고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관심을 크게 높여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는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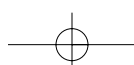
마. 미핼(MIPIM) 2005 부동산박람회 전시 참가 및 투자유치설명회

2004년도에 참가한 미핼(MIPIM) 부동산박람회는 일단 시간 면에서 촉박하게 준비하다보니 여러 가지 아쉬움 속에서 치른 행사였다. 이를 교훈 삼아 2005년도 투자홍보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해외에서 개최되는 각 행사에 대한 사전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하는 데 가장 큰 관심을 기울였다. 모든 행사마다사전준비에 최소한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미핼 2005 부동산박람회는 2005년 3월 8일부터 11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 관련된 각종 서류는 2004년 10월부터 받아볼 수 있었다. 충분한 준비기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참가 행사의 규모가 달라지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연히 느껴야 했다.

2004년 행사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해 서울의 DMC, 제주국제자유도시 등 3개 기관이 참석한데 비해, 2005년 행사에는 5차에 걸친 실무진 회의에 따라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주관하에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등 3개 경제자유구역청이 'Korea's FEZs' 라는 공동부스를 구성(한국토지공사 참여)해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3개 경제청 중 참가 경험이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홍보팀과 투자상담팀을 구성, 실무 절차와 상담 절차를 나누어 참가함으로써 전년도 대회 참가 때보다 질적, 양적으로 더 큰 효과를 기대했다. 투자홍보팀은





제3장 - 주요 투자유치 활동

전시관련 실무 및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투자상담팀은 현지에서 상담접촉 기회를 확대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했다. 투자유치1과의 서비스산업팀이 주축이 된 투자상담팀은 행사개최 두 달 전부터 잠재투자가 이메일 발송(2회 2,900명), 팩스 질의회신, 전화상담을 통해 현장의 상담 건수를 극대화했으며, 투자홍보팀은 IFEZ 인지도 제고 및 홍보효과를 위해 부스 구성, 홍보물 배포, 개별 컨퍼런스 준비에 집중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상담 건수 약 100여건(사전 약속된 일대일 미팅 12건 포함)에 달하는 상담 실적을 올렸다. 이와 함께 투자가의 인센티브 및 제도 문의, 토지구입절차, 게일사 및 아멕사 프로젝트의 참여 방안,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방문 약속 등 상담 내용에 있어서도 질적 향상을 이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투자가들의 눈길을 잡아끌 수 있는 홍보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다행히 홍보팀에서 만든 많은 홍보물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었다. 아래 표는 실제 행사장에서 소요된 각종 홍보물의 내역이다.

〈 배포 홍보물 리스트 〉

연 번	종 류	개 수	사 용 용 도
1	종합홍보 브로슈어	90부	컨퍼런스 및 일반배포용
2	IFEZ Journal	50부	컨퍼런스 및 일반배포용
3	DEC	10부	상담업체 배포용
4	Tourism	20부	상담업체 배포용
5	컨퍼런스 초대장	500부	컨퍼런스 및 카테일 리셉션 배포용
6	Mini-CD ROM	150매	컨퍼런스, 일반, 상담 배포용
7	IFEZ Report	250부	일반배포용
8	겔봉투	100매	일반배포용
9	사각봉투	20개	상담업체 배포용
10	기념품 CD Case	50개	컨퍼런스 및 일반 방문자 배포용
11	골프공 기념품	12개	상담업체 배포용
12	명함	각 100매	각자 준비, 일반적 활동 배포용
13	신문지면 광고	100매	일반배포용
14	총무과 지원 기념품	5매	보석함 3, 탈매듭 2(CEO면담 시 배포용)
15	IBC	150매	상담 및 일반배포용



또한 아래의 투자상담 일정표가 보여주듯 투자상담팀 역시 거의 매시간 새로운 투자가들과 상담하는 꽤 찬 일정으로 채워졌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외국인과 한두 시간 일상적인 대화를 해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그들의 자본을 끌어내기 위한 투자유치상담을 하루 내내 진행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상담팀은 국내에서의 완벽한 사전준비를 토대로 상담일정표를 무리없이 잘 소화해 냈다.

투자유치사절단의 단장은 그 누구보다도 투자유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중요한 투자가들의 경우,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과의 면담이 아니면 그저 명함을 교환하는 요식 행위에서 투자 상담을 끝내기 때문에 특히 단장의 적극적인 상담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환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역시 주어진 상담시간뿐만 아니라 부스를 방문하는 일반 투자가들을 상대로 일일이 답변에 응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주었다.

〈투자상담팀의 투자상담일정표〉

상담날짜	상담일시	상 담 업 체	상 담 장 소
3월8일(화)	10:00-10:30	Property Talks(Nicholas Brooke)	Auditorium Esterel 5층
	17:00-21:00	Property Talks: Mitsui Fudosan (Shuji Tomikawa)	Auditorium Esterel 5층
3월9일(수)	09:00-10:30	Private Conference(Korea's FEZs)	Auditorium K, 4층
	12:00-13:00	Tishman Speyer Properties Corp	인천 부스(R33.06)
	14:00-15:00	SBT JUUL	인천 부스(R33.06)
	15:00-16:00	EURO HYPO AG	업체 부스(R33.10)
	16:00-17:00	CREO-STUDIO	인천 부스(R33.06)
	17:30-21:00	AMB Property	Inter Continental Carlton Hote
13월10일(목)	08:30-9:30	Financial Times Group Seminar	Salon Galchat III Hotel Martines 73 La Croisette
	10:00-10:30	Hypo Real Estate Bank	인천 부스(R33.06)
	12:00-13:00	Professional Property Services	인천 부스(R33.06)
	14:00-15:00	Depepok SA	업체 부스(11.12)
	16:00-17:00	SADC	인천 부스(R33.06)

3개청이 주관이 된 개별 투자설명회는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약 30여명의 투자자가 참석해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담당국장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었으며 3개 경제청 및 재정경제부 관계자가 함께 질의응답 시간에 제기된 참석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했다.

설명회 및 홍보물 배포만으로는 부족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이번 행사는 전자바이올린 공연단을 추가하고,



제3장 - 주요 투자유치 활동



1. 한복을 곁게 입은 직원이 부스 방문객을 맞고 있다.
2. 3개 경제청 관계자들이 참가자들의 질문에 응답하고 있다.
3. 투자자와 상담 중인 이환균 청장.

행운의 과자 및 선물을 주는 이벤트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투자가의 관심이 부스에 머물도록 유도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서구인들의 비즈니스는 엔터테인먼트가 포함된 행사라는 점에서 자칫 진지하고 딱딱하기만한 투자유치상담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참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무엇보다도 2004년도에 처음 참여했던 두바이였다. 두바이는 대규모 부스 및 첨단 레이저 장치를 이용해 개발 프로젝트의 성장속도 및 성과를 보여줘 참석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일본 역시 공식 컨퍼런스를 주재하는 등 유럽 지역의 투자가들을 상대로 상당한 홍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였다.

〈상담결과 요약〉

업 종	상담 업체 수	상 담 결 과			비 고
		LOI가능성	투자가능성	계	
부 동 산 개 발 자	18		3		
투자자(투자은행)	30		4		
물 류 개 발	4		1		
공 공 기 관	15				
컨 설 팅	6		1		
디 자 인 , 설 계	11		1		
기 타	18		3		엔드유저, 제조, 컨벤션
총 계	102		13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인지도를 높이고, 투자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국제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사전 면담 준비를 강화하며 도시기반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경제청 직원들과 함께 벤치마킹 기능을 활성화하고 인천지역 유관 기관과의 행사를 공동 개최하는 등 제도개선과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바. 3개 경제청 국내 공동 투자설명회

미핍 행사가 끝나자마자 2005년 3월 29일 열리는 3개 경제자유구역청 및 토지공사 공동 국내 투자설명회 준비를 했다. 이 행사는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사전 업무협의를 통해 미핍 행사와 별도로 추진해 왔으나 역시 시간적인 제약은 피할 수 없었다. 특히 지난 해 개최한 외신기자 초청 투자설명회와 마찬가지로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 회원사들을 어떻게 행사장에 참가하게 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였다.

사실 한국에 이미 투자한 몇몇 주요 외국기업들의 경우 국내의 각종 투자유치 행사에 단골손님처럼 초대되는 경우가 많아 웬만한 투자설명회엔 관심조차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암참 회원사를 주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책 및 인센티브를 설명하고 경제자유구역청별로 유치 희망 기업과 상담하는 행사의 성격상 참가 인원이 적다면 행사 개최의 필요성이 적었기 때문이다.

외신기자 설명회 때와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매니저(PM)별로 타깃기업을 선정하고 참석 여부를 전화로 일일이 점검했다. 행사 당일 전날까지 최선을 다한 결과 15개사의 약속을 얻어낼 수 있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초청 설명회 참가기업 리스트〉

연 번	회 사 명	주 력 사 업	참 석 자	상 담 시 간
1	연세대학교	교육기관	교수 백선우	13:30 - 13:40
2	CB Richard Ellis Korea Co., Ltd.	부동산개발	이사 홍종호 부장 허진호	13:40 - 13:50
3	Danzas AEI Korea	물류	사장 추동화	13:50 - 14:00
4	Dow Jones International Korea	마케팅	지사장 이태호	14:00 - 14:10
5	Electronic Arts Korea LLC	게임개발	사장 한수정	
6	HSBC	은행	이사 조민제	
7	McKinsey & Company Seoul Office	컨설팅	컨설턴트 김용아	
8	Microsoft Korea, Inc.	소프트웨어	상무 홍경진	14:10 - 14:20
9	Oracle Korea, Ltd.	정보통신	차장 이경우	14:20 - 14:30
10	Sun Microsystems Korea, Ltd.	정보통신	이사 백성목	14:30 - 14:40
11	BHP Korea	부동산개발	상무 최준호	14:40 - 14:50
12	Egon Zehnder Intl.	컨설팅	Principal Kim Simon	
13	Korea Exchange Bank	은행	상무 박용진	
14	Pro Logis	물류	3명	
15	Citibank	은행	부사장 Kim Steve	

행사 전반부에 프레젠테이션과 각 경제자유구역청 소개가 끝나고 이어진 후속 상담회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총 10개사와 상담하고 그 중 LOI 체결가능성 업체와 투자유치가능성 업체 3개사를 확보하는 성과를 얻



제3장 - 주요 투자유치 활동

었다. 이 성과는 프로젝트 매니저(PM)가 열심히 활동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행사장에서 즉석 상담을 신청한 회사도 있어 행사 자체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덕택이기도 하다.

행사를 치르면서 국내 다국적 기업의 경우, 비슷비슷한 행사에 자주 초청되기 때문에 갈수록 좀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설명회에서는 투자와 관련해 최신 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행사 개최 자체도 불투명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담결과 요약〉

업 종	상담 업체 수	상 담 결 과			비 고
		LOI가능성	투자가능성	계	
부 동 산 개 발 자	2	1		1	PGA Design & Consulting
투자자(투자은행)	3				
호 텔	1		1	1	Lotte Hotel
IT / 바 이 오	3		1	1	Baxter
S e c u r i t y	1		1	1	Best Metaline
총 계	10	1	3	4	



1. 참가자로 붐빈 등록 테이블 주변.
2. VIP들이 오찬 테이블에서 환담을 하고 있다.
3. 투자설명회가 진행 되고 있다.
4. 3개 경제청장이 참가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5.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사. 세계경제포럼 주최 '2005 아시아라운드테이블' 참가

2005년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세계경제포럼(WEF)이 주최하는 '2005 아시아 라운드 테이블(Asia Round Table)' 행사가 개최됐다. 세계경제포럼은 '다보스 포럼' 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잘 알려져 있으며 세계 경제에 대한 토론 및 연구를 통해 세계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1971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창립됐다. 전 세계 1,200개의 기업체 및 단체를 회원으로 가지고 있으며 제네바에 본부를 둔 고급 사교 클럽이라 할 수 있다.

다보스 포럼은 스위스에서 열리는 연례 총회(Annual Meeting) 이외에 주요 지역마다 개최되는 권역별 총회(Summit)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별 모임을 통해 세계의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오고 있다. 올해 행사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아시아의 경제 및 정치적 파워가 세계질서에 미치는 영향력을 주제로 약 250명의 저명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한국 측 특별연사로 이환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참석해 세계 오피니언 리더와 CEO들을 상대로 '황해 경제권 허브로서의 한국(인천)' 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이환균 청장은 동아시아의 경제통합 논의는 초기단계라고 전제한 뒤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한국의 역할이 역동적인 중간자적 입장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임을 강조하면서 유럽 공동체 형성에서 베네룩스 국가들이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듯이 동아시아권에서 한국이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리적, 경제적, 과학기술적인 여건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얻었다.



1. 6개국 리더들이 개막식 발표를 하고 있다.



2. 요르단 압둘라 2세 국왕이 특별 연설을 하고 있다.



3. 개별 미팅(Private Meeting) 세션이 열리고 있다

4. 이환균 청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제3장 - 주요 투자유치 활동

이환균 청장 외 김현중 외교통상부 교섭본부장,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강찬수 서울증권 회장, 정보통신부 정책보좌관 최수만 박사 등 한국측 인사들은 글로벌 경쟁력, 에너지 위기, 아시아 지역 금융 이슈, 정보통신 등을 주제로 진행된 이틀간의 포럼 일정 가운데 한국과 관련한 주요 이슈가 제기되는 세션에 패널로 직접 참여해 중국 중심의 최근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한국의 경제적인 매력 요인을 소개해 국가 브랜드를 고양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한편, 아시아 라운드 테이블 개막식에서는 중국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최근 경제적으로 두드러진 성장을 보이고 있는 인도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친디아(Chindia)’로 불리는 이들 거대 국가에 대해 중간 규모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다른 아시아권 국가들의 성장 전략이 이슈로 제기되었다. 또한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은 중동권 국가와 아시아 국가 간의 경제협력을 주장해 높아진 아시아의 위상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기도 했다.

아. 홍콩 · 싱가포르 투자유치설명회

2005년 5월 9일부터 13일까지 투자유치국장을 단장으로 한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단(총 6명)은 홍콩, 싱가포르를 방문, 투자유치설명회를 갖고 주요 잠재투자자와 개별 면담을 실시했다.

〈홍콩 상담결과 요약표〉

업 종	상담 업체수	상담결과			비 고
		LOI가능성	투자가가능성	계	
I T	1		1	1	
B T	2		1	1	
Financial	2		2	2	
호텔 · 리조트	1		1	1	
물 류	-		-	-	
총 계	5		5	5	

- IT : Internet Gaming Entertainment Ltd.
- BT : Coloplast
- Financial : Fortis Bank, J.B. Heinrich Group
- 호텔 · 리조트 : Shun Tak Holdings



〈싱가포르 상담결과 요약표〉

업 종	상담 업체수	상담결과			비 고
		LOI가능성	투자가능성	계	
부 동 산 개 발	4		4	4	
대 학 원	1		1	1	
호텔 · 리조트	1		1	1	
물 류	1		1	1	
기 타	1		1	1	
총 계	8		8	8	

- 부동산 개발 : SembCorp Parks Management Pte Ltd, Keppel Land International, ASCOTT Group Ltd, GIC Real Estate
- 대학원 : Insead MBA Program
- 물류 : Flextronics Logistics
- 기타 : Federal International(2000) Ltd(변전소 및 에너지 공급 관련)

5월 10일 오전, 홍콩 콘라드호텔(Conrad Hotel)에서 개최한 투자유치설명회는 약 60여명의 다국적 기업 및 지사, 금융기관 등 관련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정책 및 정부 지원책, 3개 경제 자유구역 지구의 개발 방향 및 상품 등을 설명하고 후속 상담을 진행했다.

5월 11일 오전, 싱가포르 샹그리라 호텔(Shangri-La Hotel)에서 개최한 투자유치설명회는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 및 관련 기관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특히 질의응답 부분에서 많은 잠재 투자자가 질문을 제기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투자유치설명회에 이은 개별상담에서는 20개사와 상담을 해 IT, BT, 금융, 부동산 개발 등 다양한 업종에서 투자가능성 업체 12개사를 발굴했다.

한편, 기업체 방문을 통한 투자유치활동에서는 인시드(Insead, MBA 운영 대학원), IAXil(벤처지원기관), 케펠 랜드 인터내셔널(Keppel Land International Ltd, 부동산투자개발 회사), 셈코 파크스 홀딩스(SembCorp Parks Holdings,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 업체)와 같은 기관을 방문해 경제자유구역 내 소규모 프로젝트(특히 송도 2, 4공구 바이오벤처 빌딩 관련)에 대해 많은 관심을 이끌어내고 구체적인 후속 상담을 했다.

이번 행사는 KOTRA 현지 무역관이 사전 투자자 선별 및 장소 임차 등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해 투자유치단은 상담에 집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좀더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한국을 떠나기 전 준비기간에 PM 타깃을

제3장 - 주요 투자유치 활동

설정하고 그동안 꾸준히 접촉한 업체에 대한 긴밀한 사전 접촉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었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인지도가 어느 정도 확립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투자유치설명회와 병행해 프로젝트별로 구체적인 상품을 제시해 투자가의 단순 호기심을 투자프로젝트로 이끌어 내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한 행사였다.



인익성 팀장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안영도 국장이 개막 인사를 하고 있다.



주최측과 참가자들이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자. 2005 국제 세미나 개최

2005 국제세미나 행사는 지난 4월28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WEF(세계경제포럼) 주최 ‘아시아라운드테이블 2005’에서 다루어진 아시아 지역통합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정책분야를 전문적인 학자들의 식견을 통해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였다. 패널참가자 40여명, 일반 참가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16일과 17일에 걸쳐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무엇보다도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한 논리개발에 주안점을 두었고, 이를 위해 경제특구정책 분야에 일부 세션을 할애했다. 그밖에 아시아의 지역 통합, 국제화 교육과 경쟁력 및 다국적 기업의 역할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기간 중 주요행사(인천대교 기공식)가 개최되는 바람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했으나 청장의 만찬사 및 투자유치국장의 패널 참가, 투자정책과 직원들의 참여로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행사 첫날인 16일 오찬 행사에서 특별연사로 참여한 도널드 그레그(Donald P. Gregg) 미국 코리아 소사이어티 이사장(전 주한미국대사)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코리아 소사이어티(Korea Society) 활동 및 프로그램을 소개했으며, 17일 오찬행사에 참석한 조안 바론(Joan Baron) 주한 캐나다 상공회의소 회장은 한국과 캐나다 간 경제교류 협력 및 발전 방안을 내놓았다.

주요 세션이었던 ‘경제특구정책-인천과 외국의 사례’에서는 투자유치국장의 프레젠테이션, 게일사의 칼 시홀름(Carl Seaholm) 부사장의 송도국제도시 개발 프로젝트, 아주대학교의 박영무교수의 북한 에너지 특구 제안이 발표됐다. 토론에 나선 패널들은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 국내기업에 대한 우대혜택,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를 뛰어넘는 원맨 서비스(One-man service), 정부의 강력한 지원, 노동 관련 규제의 명확성을 요구하면서 문화적인 차이 및 북한 문제로 인한 제약에 대한 문제점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1. 참가자들의 환영 리셉션이 진행되고 있다.
2. 투자유치국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3. 세션 I 에서 발표자가 발제하고 있다.
4. 도널드 그레그 이사장이 오찬연설을 하고 있다.
5. 이환균 청장 만찬사.
6. 참가자들이 경제자유구역 홍보 동영상을 관람하고 있다.
7. 주요 행사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이 행사는 전반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인지도 제고 및 학계를 통한 경제자유구역 성공요인의 도출 등 일정한 효과를 거둔 세미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차. 일본 투자유치 IR

이 행사는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일본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홍보해 장기적인 투자유치 활동기반을 조성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계획과 비전에 호응하는 타깃 기업을 상대로 실질적인 투자유치가 성사될 수 있는 전략적인 협상기회를 마련할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먼저, 2005년 2월 16일부터 2월 21일까지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일본의 노무라 종합연구소와 공동협력을 통한 투자 가능 기업 네트워크화로 일본 내 잠재고객을 발굴했다. 부동산 개발 업체인 일본의 미쓰이(Mitsui)와 도쿄(Tokyu) 등 부동산 회사, 스타우드호텔(Star Wood Hotel)그룹, 미쓰비시(Mitsubishi) 은행 및 증권 그룹이 투자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어 타깃기업으로 선정했다. 일본 기업들은 버블경제 붕괴 후 해외투자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심을 보였다.

또한 이 행사를 통해 5월에 예정된 두 번째 일본 투자유치설명회를 준비할 수 있었다. 미리 참가할 수 있는 한인상공회의소 회원 교포 기업을 포함한 일본 기업들과 현지 사전상담을 통해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다. 여기에 일본의 제트로(JETRO), 삼성전자 일본 본사, KOTRA, 한국관광공사, 한인상공회의소 등에서 두 번째 투자설명회 참가 기업 모집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5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이환균 청장을 단장으로 한 일본 투자 유치 홍보단이 도쿄 및 오사카를 방문했다. 홍보단은 일본의 제트로, 한국관광공사, 삼성재팬, 노무라 종합연구소, 민단, 한인상공회의소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일본 내 잠재고객을 모집하고, 투자유치 설명회와 개별 기업 면담을 했다.

참가 기업으로 도쿄의 경우, 일본의 대표적 부동산 개발업체인 미쓰이 부동산, 도쿄 부동산, (주)모리(MORI) 빌딩, 미쓰비시 은행, (주)프라임 테크놀로지(Prime Technology), 삼성재팬 등이 있었으며 이들 회사에서 50명이 참가했다. 오사카의 경우, 약 31명의 일본 및 교포 기업인을 대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투자설명회 및 상담을 실시했다.



이환균 청장이 참석자들에게 IFEZ 투자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도쿄 투자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IFEZ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 행사의 성과로는 (주)프라임 테크놀러지의 R&D 센터 시설 투자와 관련해 2,000만 달러 LOI(투자의향서)를 접수하고, 한국 투자 가능성이 높은 약 80명의 타깃 고객을 포함한 타깃 기업에 대해서 담당 PM을 지정해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번 행사는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독립적인 기획을 통해 투자가를 사전 접촉하고 직접 모집해 비용을 크게 줄이고 실질적인 투자 유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혁신적인 투자 유치 행사의 모델로 평가되었다.

또한 일정 안에 요코하마의 미나토 미라이(Minato Mirai) 21, 도쿄 중심지인 룩본기 재개발 성공모델인 모리(Mori) 빌딩, 오사카의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방문해 도시 재개발 및 테마파크 건설의 각종 현안과 일본의 개발 사업 수행 방식,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집중적인 협의를 하면서 저비용 고효율의 행사 모델이 되는 투자설명회가 되었다.

3. 발전 방향 및 향후 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문을 연 뒤 의욕적으로 진행된 투자유치활동의 가시적 성과는 아직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의 큰 틀에서 보면 지금 가시적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성급한 자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08년까지 개발계획의 1단계가 완료되고, 그 후 12년이 더 걸리는 2020년에 본 계획이 완료되는 거대한 프로젝트이다. 그리고 이 계획을 진두지휘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불과 2년 조금 넘은 신생조직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그동안 투자전담을 위한 계약직 직원의 충원, PM제도, 옴부즈만 제도, 원스톱 행정 서비스 등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으나, 모든 제도가 그렇듯 시험 가동 기간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부터 향후



1~2년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조직력의 성장을 가져 올 수 있는 중대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만족할 만한 개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매니저(PM)제도의 효율적 활용과 일반 행정의 뒷받침 그리고 중앙정부의 제도적인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를 위한 국내의 기반여건 조성이 투자유치의 성과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올해 하반기 주요 행사로는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개최되는 ‘엑스포 리얼(Expo Real) 2005 부동산박람회’가 있다. ‘한국의 해’ 지정 및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베를린영화제 아·태주간 특별전, 테마국가 선정 등 50회 이상의 한국 관련 행사를 기회로 독일 내에서 일고 있는 한국 붐을 조성하면서 미뮌 2005 부동산박람회에서 이룩한 투자 성과를 더 높이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인지도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유럽 나라 중 가장 많은 한국 투자를 하고 있는 독일에서 개최되는 이 행사에 KOTRA와 공동으로 한국관을 구성해 행사에 참여할 계획이다.

4. 송도국제도시 홍보관 운영

가. 홍보관 개요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조성계획 및 현황 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2001년 4월 22일 송도국제도시 홍보관이 개관되었다. 이 홍보관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청사진 외에 인천이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간다는 미래의 비전과 기대 효과 등을 널리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홍보관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송도국제도시 홍보관과 별도로 2005년 6월 10일 ‘인천경제자유구역 비전21’이라는 새로운 홍보전시관이 개관됐다. 송도국제도시 홍보관이 일반인 및 단체 관람객 등을 대상으로 한 시정 홍보의 장으로 활용된다면, 새 “IFEZ VISION 21”은 기존 투자자와 잠재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홍보관은 새 “IFEZ VISION 21”의 개관에 따라 각종 전시물 및 시설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금년 하반기에 할 예정이다.



나. 홍보관 운영

1) 2003년 성과

송도국제도시가 투자 유망지로 급부상해 국내외 투자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투자 의향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홍보관 내에 투자상담실을 운영해 241회 656명을 상대로 투자상담을 실시했다. 또한 홍보관 방문객에게 기념품 2종 11,935개, 홍보물 5종 89,750매(부)를 배부해 송도정보화신도시 조성사업을 널리 알려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2) 2004년 성과

총 244회 676명을 상대로 투자상담을 했고, 홍보관 방문객에게 기념품 6종 9,653개, 홍보물 12종 89,329매(부)를 배부했으며, 송도국제도시를 방문하는 외국 투자가 및 주요인사와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총 117회 506명의 디지털 사진과 감사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와 더불어 홍보관 관람객 유치뿐만 아니라 유치대상의 폭을 넓히기 위해 교육기관, 국내기업, 외국공관, 국내 진출 금융기관 및 외신기자 등 1,427개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관에 대한 소개 및 관람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관람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3) 2005년 성과

홍보관 방문객에게 기념품 6종 2,189개, 홍보물 6종 12,683매(부)를 배부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홍보관에 시정소식지 등 각종 시정홍보물 20종을 비치,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시정홍보의 장으로 활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6월 10일에 개관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비전21’에는 국내외 잠재투자가 등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관람객들은 슬라이딩비전, PDA검색, VTT망원경 등 최신 홍보 전시물 등에 대해 높은 기대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 관람객 유형별 구분

〈관람객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계	일반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2005(7월)	32,121	27,799(86.5%)	2,497(7.8%)	1,184(3.7%)	85(0.3%)	44(0.1%)	516(1.6%)
2004	60,820	49,228(81.0%)	7,257(11.9%)	2,936(4.8%)	226(0.4%)	373(0.6%)	800(1.3%)
2003	60,375	44,446(73.6%)	10,737(17.7%)	2,754(4.6%)	402(0.7%)	763(1.3%)	1,273(2.1%)
합계	153,316	121,473	20,491	6,874	713	1,180	2,589

⇒ 개관 이후 방문객이 일반인으로 확대 추세



제3장 - 주요 투자유치 활동

〈일반인 관람객 현황〉

연도별	계	투자유치	문화교류	기업체	언론계	공공기관	연구소(대학)	단체	개인
2005(7월)	27,799	61	376	806	45	4,369	347	1,077	24,716
2004	49,228	326	1,674	1,748	97	7,136	328	1,222	36,697
2003	44,446	434	1,274	1,913	139	6,387	192	1,298	32,809
합계	121,473	821	3,324	4,467	281	17,892	867	3,597	94,222

⇒ 2005년도의 경우 투자유치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관람객수는 'IFEZ VISION 21' 홍보전시관의 개관으로 분담되는 경향

〈외국인 관람객 국가별 내역〉

연도별	계	중국	일본	미국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러시아	캐나다	기타
2005(7월)	442	223	34	36	·	1	1	8	3	108
2004	1,607	703	222	118	4	4	17	289	5	245
2003	1,279	530	291	126	1	10	6	4	2	309
합계	3,328	1,456	547	280	5	15	24	301	10	662

라. 향후 운영계획

송도국제도시 홍보관은 그동안 인천대교 건설과 관련해 양해각서 체결을 맺은 영국 아멕스와 127억 달러 규모의 외자유치에 성공하고 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하고 있는 제일사, 바이오신약 생산시설 및 연구개발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셀트리온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향후 투자의사를 갖고 있는 잠재 투자자들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조성사업을 홍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비전 21' 홍보전시관의 개관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이원적이면서 효과적인 홍보 차별화를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홍보관은 각각의 특색을 살려 최신 자료를 업데이트하면서 일반인들 및 잠재투자자들이 알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투자유치 홍보의 중요한 앵커 시설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5. 각종 자문위원회 통한 홍보

가. 투자유치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인, 교수, 변호사, KOTRA, 전경련 등 유관기관 관계자 총14명으로 구성된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05년 3월 30일 조선포털에서 개최됐다.



위원회 활동사항은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투자정보 및 동향 파악, 투자가 접촉 지원, 경제자유구역 홍보 등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자문활동과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수렴하게 된다.

제2차 회의는 2005년 7월 5일 자문위원들이 직접 인천을 방문해 새 홍보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 비전 21' 관람과 현장투어·산업유치계획 중간보고등 현안 사항에 대한 자문, 투자동향 등의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자문활동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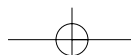


제1차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진행 장면

위원회는 실질적인 정보교류와 투자유치와 관련한 최근 동향 등을 파악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 인사와 전문가로 점차 구성인원을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

〈 투자유치자문위원회 명단 〉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CEO 컨설팅그룹	회장	강 석 진	위원장
P&G Korea	대표이사	김 상 현	위원
GM Daewoo	상무	박 재 열	"
HSBC증권	부대표	방 춘 호	"
KPMG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윤 성 복	"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이 승 철	"
법무법인 김신유	대표변호사	이 재 기	"
고려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장 세 진	"
외교통상부	아·태통상 심의관	전 비 호	"
삼성전자	전무	주 우 식	"
코아기업구조조정	부사장	최 성 호	"
KOTRA	처장	최 진 계	"
s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현 정 택	"
SK경영경제연구소	상무	왕 윤 종	"



나. 문화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본 위원회는 문화관광 관련 시설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자문 및 문화관광 네트워킹 그룹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덕망과 학식을 갖춘 교수, 기업인, 예술인 등을 중심으로 지난 2004년 2월 구성되었으며 그동안 4차례 회의가 개최됐다.

특히 문화관광 분야의 투자유치 방향 등을 보고하면서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문위원 개인 별로 의견 발표회를 갖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돼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문화관광정책 자문회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문화관광정책 회의를 가진 뒤 자문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 문화관광정책자문위원회 〉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KOTRA	인천무역관장	김 경 료	
KNTO	투자유치팀장	김 태 식	
KNTO	투자유치 전문위원	박 남 순	
KAL 호텔 네트워크	상무	구 태 경	
IMT인터내셔널	대표이사	김 진 배	
ENP컨설팅	사장	임 영 수	
인천발전연구원	관광정책 책임연구원	심 진 범	
인천발전연구원(문화정책)	실장	이 현 식	
인천문화재단(문화예술)	팀장	이 효 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관광수석	김 덕 기	
문화관광부	관광산업과 사무관	김 한 곤	
배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정 강 환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이 훈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사장	박 형 식	
노무라종합연구소	전략팀장	윤 재 남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강 신 겹	
롯데월드	대표이사	신 영 재	
한화국토개발	리조트개발 상무	고 병 욱	
세종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교수	조 용 현	



다. U-City정보화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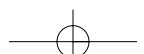
인천경제자유구역 U-City 구축을 위해 산·학·관·연의 전문가 16명이 참여한 U-City정보화자문위원회(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분과위원회)가 만들어져 2004년 9월 10일 제1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인천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 의거해 구성된 U-City정보화자문위원회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전체적인 정보화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경쟁국들과 차별된 정보화 사업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있다.

자문위원들은 비즈니스 관점과 정보화 기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전략 수립, 정보화 사업의 객관적인 검증, 정보화 전략 수립을 위한 인력 교육의 비용과 시간 절약을 통한 극대화된 효과 창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동안 1, 2차 자문위원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 U-City 정보화 전략 수립 용역수행을 위한 자문활동을, 3~6차 자문위원회는 용역이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전략과 비전, 비즈니스 모델과 이행 계획 등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앞으로도 인천경제자유구역 성공적인 U-City 구축을 위해 위원회의 활발한 자문활동이 요청된다.

〈 U-City 정보화 자문위원회 〉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코오롱그룹	고 문	이 상 철	위원장
삼성전자	부사장	천 경 준	위 원
KT (SI/NI 사업단)	단 장	임 덕 래	위 원
SK 텔레콤	부사장	이 방 형	위 원
(전)한국후지쓰	(전)대표이사	윤 재 철	위 원
정보통신부	국 장	김 원 식	위 원
경제자유구역청	국 장	방 종 설	위 원
한국전산원(정보화기반구축단)	단 장	신 상 철	위 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디지털방송연구단)	단 장	안 치 득	위 원
한국 RFID/USN 협회	전무이사	최 성 규	위 원
(재)유비쿼터스컴퓨팅사업단	단 장	조 위 덕	위 원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원 장	전 의 진	위 원
인하대학교(정보통신대학원)	교 수	김 재 명	위 원
인천대학교(정보기술대학)	학 장	이 원 웅	위 원
아주대학교(정보통신대학원)	교 수	유 승 화	위 원
고려대학교(전자컴퓨터공학과)	교 수	강 철 희	위 원





제4절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1.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제 도입

가. 외국인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

조세감면 대상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의 규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대 상	감 면 세 목		감면기간 및 감면율 (외국인투자비율×감면율)	감면요건(투자금액 등)
산업지원 서비스 및 고도기술 수반사업	국 세	관 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3년간 100%	수입자본재
		법 인 세 소 득 세	5년간 100%, 2년간 50% (사업양수 3년간 50%, 2년간 30%)	투자금액 제한 없음
	지방세	취 득 세 등 록 세 재 산 세	10년간100%, 3년간 50% (사업양수 7년간 50%, 3년간 30%)	
외국인투자 지역 입주 외국인투자 기업이 영위 하는 사업	국 세	관 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3년간 100%	수입자본재
		법 인 세 소 득 세	5년간100%, 2년간 50%	제조업 3천만 달러 이상 관광업 2천만 달러 이상 물류업 및 SOC사업 1천만 달러 이상 연구시설5백만 달러이상, 석사연구원 10명 이상
	지방세	취 득 세 등 록 세 재 산 세	10년간 100%, 3년간 50%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국 세	관 세	3년간 100%	수입자본재
		법 인 세 소 득 세	3년간 100%, 2년간 50%	제조업 1천만 달러 이상 관광업 1천만 달러 이상 물류업 5백만 달러 이상
	지방세	취 득 세 등 록 세 재 산 세	10년간 100%, 3년간 50%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인 외국인 투자 기업이 영위 하는 사업	국 세	관 세	3년간 100%	수입자본재
		법 인 세 소 득 세	3년간 100%, 2년간 50%	외화투자금액 3천만 달러 이상 또는 외투비율 50%이상, 총개발사업비 5억달러 이상
	지방세	취 득 세 등 록 세 재 산 세	10년간 100%, 3년간 50%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사업(인천국제 공항자유무역 지역)	국 세	관 세	3년간 100%	수입자본재
		법 인 세 소 득 세	3년간 100%, 2년간 50%	제조업 1천만 달러 이상 물류업 5백만 달러 이상
	지방세	취 득 세 등 록 세 재 산 세	10년간 100%, 3년간 50%	

※ 지방세 감면기간은 조례에 의한 기간임



2) 외국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지원

대 상	감면세목		감면요건(투자금액 등)
1. 산업자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 2. 산업자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 (사업양수방식에 의한 투자) 3. 개별지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4.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 하는 사업 5.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인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6.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사업 (인천국제공항자유무역지역)	국세	국세 배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 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의 비율에 따라 감면 -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 기간 및 감면비율은 당해투자 기업의 감면기 간 및 감면 비율과 동일.

3)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 상		과세특례	감면세목	감면요건(투자금액 등)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부담세액 (①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에 의하여 ②적용 가능)	①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조특법 제18조 의2제1항)	근로소득의 100분의30 비과세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 (일용근로자 제외)	산출세액 =[근로소득 - (근로소득 × 30%) - 비과세급여 - 각종소득공제] × 기본세율(8~35%)
	②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의 특례 (조특법제18조 의2제2항)	- 단일세율 적용신청 - 근로소득의 17% - 분리과세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 (일용근로자 제외)	산출세액 = 근로소득 × 17% - 소득세법 및 조특법에 의한 세액 감면 및 세액공제 적용배제 - 비과세근로소득 포함



제3장 - 주요 투자유치 활동

4) 외국인의 소득에 대한 감면 및 비과세

대 상		감면기간 감면을 또는 특례	감 면 요 건	비 고
조세특례 제한법상 과세특례 (제18조)	특정 외국인 기술자	최초 근로 제공일 (2006.12.31이전의 경우에 한함)부터 5년간,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외국인기술자의 범위 (조특법시행령제16조)면제대상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근로소득(갑,을)잉여금처분에 의한 상 여법인세법에 의하여 처 분된 인정상여퇴직소득 제외	감면대상기간이 경과된 후 결의된 상여는 감면 대상 소득에서 제외.
	외투법 규정의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외국인 기술자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 교부일부터 5년간,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면제대상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근로소득(갑,을)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인정상여퇴직소득 제외	기술도입대가에 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한함. 조세조약상 과세특례 비과세
조세조약상 과세특례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외국인교수 또는 외국 정부 직원근로소득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소득세법상 과세특례 (제13조)	근로소득의 비과세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 에 근무하는 자대한민국국민이 아닌자그 직무수행의 대가	상호주의
	소득세 감면	세액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정부간 협약에 의한 파견 외국인의 근로소득비거주자들이 선박과 항 공기의 외국항행 사업으 로 얻는 사업소득 (상호주의)	감면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 (세액감면 대상소득/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과세 표준 = 종합소득 금액 - 종합소득 공제

나. 송도지식정보화산업단지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

송도지식정보화산업단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은 조세 특례를 적용 받고 있다.



1) 신규업체의 조세 특례

대 상	감 면 세 목	감면요건(투자금액 등)
조특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세 또는 법인세 – 100분의50경감, 당해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 는 과세연도까지• 취득세 및 등록세 – 면제, 창업일부터 2년간• 재산세 – 100분의50경감, 창업일부터 5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6년 12월 31일 이전• 과밀억제권역(‘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이라 함)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일 것.
지방세법 제276조 (산업단지등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취득세 · 등록세 : 면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 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 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 술단지안일 것.• 산업용 건축물 · 연구시설 및 시험 생산용 건 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하고자 취득할 것.

2)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기업의 조세 특례

관 련 법	감면 및 인센티브 내용	적 용 요 건
조특법제60조 (공장의 대도시 외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도차익 과세이연 – 양도 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 종료일 이후 3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 에 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도시권(‘대도시’ 라함)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내국법인일 것.•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것.•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것.
조특법제61조 (법인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도차익 과세이연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 종료일 이후 3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 에 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 소를 둔 법인일 것.•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 할 것.•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것.
조특법제63조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5년간: 소득 세 또는 법인세의100분의 100• 그 다음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 의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2년이상 계속 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 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일 것.•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 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 지 사업을 개시할 것.•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 사무소도 함께 이전할 것.•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일 것



제3장 - 주요 투자유치 활동

관 련 법	감면 및 인센티브 내용	적 용 요 건
지방세법 제274조 (법인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부동산취득세 - 면제법인등기 및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일 것.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할 것.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할 것.
지방세법 제275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부동산취득세 · 등록세 -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일 것.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것.이전하는 지역이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일 것.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할 것.

3) 과밀억제권외 지역의 지방세 종과세 제외

관 련 법	감면 및 인센티브 내용	적 용 요 건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취득세 종과세 (3배)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과역제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 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 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종과)	등록세 종과세 (3배)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1.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 ·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 · 설치 · 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4.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



다. 임대료 매각 대금 관련 인센티브

임대료, 매각대금 감면 대상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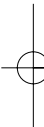
1) 임대료 감면

관 련 법	감면 및 인센티브 내용	적 용 요 건
외국인 투자촉진 법제13조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의계약 가능• 임대료 감면 : 50%~100%• 임대기간 : 50년범위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자에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 공장 그밖의 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사용, 수익 또는 대부 하거나 매각할 수 있음.•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소유 토지 : 국유재산관리청이 정함(100%).– 시소유토지 :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p>※ 감면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 감면<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이;t는 재경부장관 고시 사업부문 등으로서 1백만 달러 이상 사업· 미화 2천만 달러 이상 사업· 1일 평균 고용인원 3백명 이상– 75% 감면<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1일 평균 고용인원 2백명 이상 3백명 미만– 50% 감면<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1일 평균 고용인력 1백명 이상 2백명 미만인 사업

2) 매각대금 감면

관 련 법	감면 및 인센티브 내용	적 용 요 건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 20년 이내, 연4%이자• 임대료 감면 : 25%~100% <p>※ 국유재산은 해당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 건축물이 있을 경우 에는 건축비 포함)•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 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공유재산의 경우) <p>※ 감면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 감면<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조성하는 투자 장려지역 내의 재산· 투자금액이 미화 30억 달러 이상인 대형사업 및 동 부대시설내의 재산– 50% 감면<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도기술 수반사업으로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5% 감면<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2. 외국인 투자유치 흐름도



제4장

지구별 개발계획 및 추진 현황

책임집필: 총괄계획팀장 지창열
예산팀장 허도병

- 제1절 송도지구 개발계획과 추진현황
- 제2절 영종지구 개발계획과 추진현황
- 제3절 청라지구 개발계획과 추진현황
- 제4절 재정로드맵(공공부문 종합투자계획)



제1절

송도지구 개발계획과 추진현황

1. 개발 계획

송도지구는 매립 및 부지조성 등의 여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개발시기 및 단계를 안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분양가능 시기, 입주 시기 등은 공구별 분할계획에 따라 계획했다. 예측된 개발시기 및 단계는 수용인구 등 거시지표의 결정, 매립 및 기반시설의 공사시기 결정, 분양대금 등 개발수익의 발생시기를 예측하는데 사용되어 사업계획의 주요지표가 된다. 따라서 송도지구의 매립 추진 현황과 사업범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공구 분할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가. 상위 및 관련계획

1) 제4차 국토 종합계획 (2000~2020)

◎ 기본 목표 및 발전방향

- 국제정보·교역도시 조성을 위한 트라이포트 기능 강화
- 아·태지역 내 중추적 해양관광도시 건설
- 첨단산업 유치에 의한 선진 도시기능 강화
- 서해안 개발축의 지역간 교통망 및 물류시설 확충
- 환경친화 도시의 건설로 삶의 질 향상

2) 제2차 수도권 정비계획 (1997~2011)

◎ 기본 목표 및 발전방향

- 공간구조 개편
 - 서울~인천~영종도축의 국제업무 공간화 추진
 - 국제교역 기능 및 물류수송기반 강화
 - 경인축의 공간구조 고도화 및 서울 주변도시와의 연계기능 강화
- 권역별 정비방향(성장관리권역)
 - 수도권 입지 필수시설의 지역특성별 배치
 - 지역중심지의 자족기능 확충 다핵분산형 공간주거 형성



3) 인천도시 기본계획 (1993~2011)

◎ 기본 목표 및 발전방향

- 서해안 개발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해 국제도시로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국제교류존(Zone)을 조성한다.
- 남동공단, 시화공단 등 주변 공업단지와 연계해 산·학·연으로 구성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

4) 송도국제도시 기본계획 (1992~2020)

◎ 기본 목표 및 발전방향

- 정보통신산업의 메카, 국제업무·교류의 중심, 환경친화적 도시
- 생활권
도심생활권 환경조성 및 공동화 현상방지, 인천광역시 부도심으로서 중심지 체계를 감안한 생활권을 편성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단계별 도시개발을 감안해 생활권을 편성한다.
- 토지이용
CBD지구 내 국제금융·업무·전시·교류 등 국제적인 기능과 중심 산업, 첨단 정보·지식산업, 공공행정, 문화·레저 및 주상복합기능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통동선 계획과 오픈스페이스 배치계획을 감안해 연계배치를 꾀한다.
- 교통체계
송도지구 주변 교통현황과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효율의 복합수송체계를 구축한다.

나. 사업개요

- 1) 기본구상 : 국제자유도시 건설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실현
- 2) 사업규모 : 1,611만평(1단계 773만평)
- 3) 계획인구 : 253천명(1단계 180천명)
- 4) 총사업비 : 81,510억원(기반시설 조성비)
- 5) 사업기간 : 2003~2020년(1단계 2008년)
- 6) 주요사업 : 국제비즈니스센터, 지식정보산업단지, 첨단바이오단지, 송도신항만, 주거단지, IT클러스터 등

다. 개발방향



제4장 - 지구별 개발 계획 및 추진 현황

- 1) 공항·항만과 연계된 국제 업무·교류의 거점 국제도시 건설
- 2) IT, BT 등 미래 고부가가치 지식정보산업 R&D HUB 조성
- 3) 수변공간(Water Front)과 녹지 환경을 배려한 문화·생태도시 건설

라. 사업방식 및 시행자

- 1) 사업방식 : 공영개발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 등 민간개발 방식 병행
- 2)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NSC, KODA, 해양수산부 등

마. 송도지구 토지이용계획

1) 용도별 배치계획

가) 국제업무 및 상업용지

- (1) 주로 국제업무, 일반상업, 근린상업으로 구분. 국제업무에는 국제금융기능과 국제전시교류, 국제전시교류지원 기능이 포함되며, 일반 상업에는 중심상업, 일반상업, 지식기반산업지원 상업 기능을 포함 한다.
- (2) 중심상업 용지와 지식기반상업 용지를 지원하는 상업업무 용지 외에 송도지구의 지역주민 생활편의와 위락·서비스 및 대학·연구단지 종사자 등을 위한 일반상업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생활권 구성의 위계에 따라 적정 규모로 분산 확보한다.

나) 주거용지

- (1) 주거형태는 현대의 다양한 생활 패턴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전원형 주택, 도심주상복합, 독신자 주택, 저밀 공동주택 등 여러 형태를 배치한다.

다) 산업용지(지식기반산업, 연구시설, 테크노파크 등)

- (1) 지식기반산업, 연구시설, 테크노파크 등을 적절한 규모와 위치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지식정보산업단지와 관련되는 지역의 용도는 지식기반산업 즉, 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기업본사업무, 상업, 연구, 교육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토지 이용 공간을 창출한다.

라) 문화·교육 용지

- (1) 송도지구는 정보화 산업과 연구개발의 중심기능을 수용하게 됨으로 이를 위한 첨단 분야 기술연구의



주체로서 고급 인재를 배출하는 대학의 기능이 핵심적이다.

- (2) 이러한 상승효과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식기반산업구축과 테크노파크축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상에 주변 토지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대학교 용지를 배치한다.

마) 관광·레저용지

- (1) 송도지구의 관광·레저 용지는 음악 축제, 야외극장 등 대규모 야외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호수에는 수문을 설치해 호수의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항상 시민들이 친수활동을 즐길 수 있는 수변공간을 조성한다.

바) 공원·녹지 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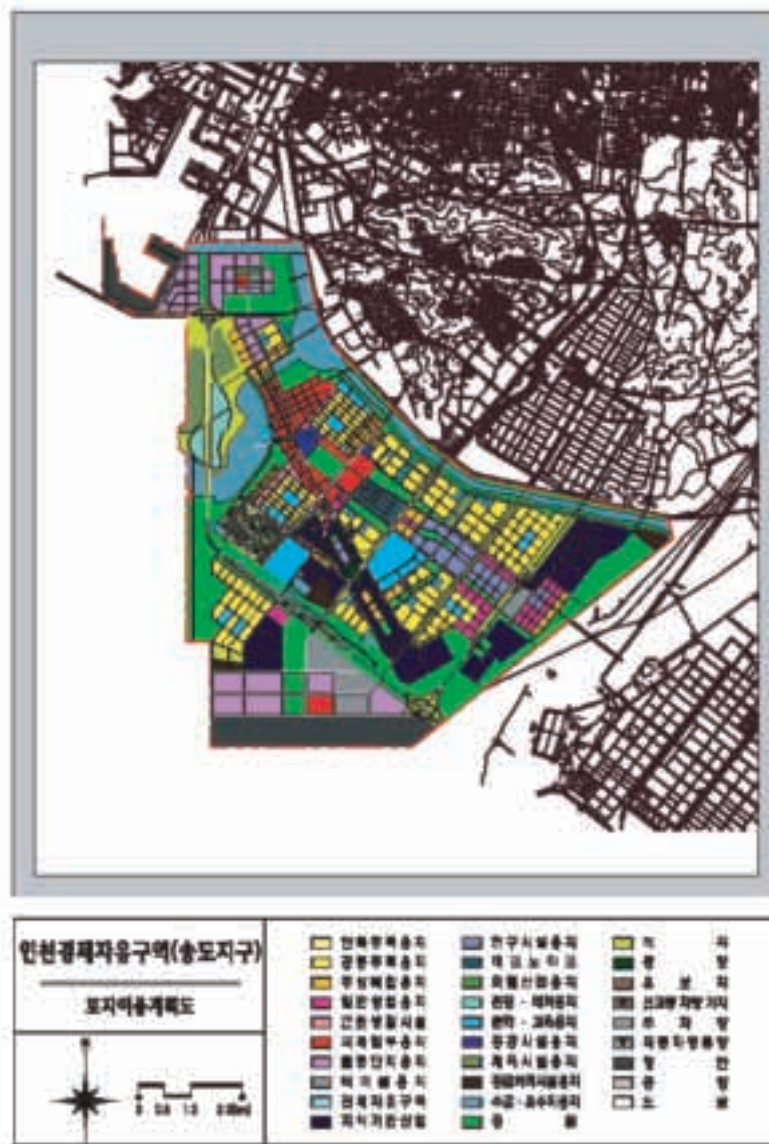
- (1)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변의 환경위해 시설과의 차단 및 관계기관 협의 내용 등을 감안해 오픈스페이스 비율을 지구 전체 40% 이상, 업무·주거단지내 공원·녹지율을 20%이상 확보한다.
- (2) 송도지구의 폭 300m의 수로에는 폭 100m 정도의 저수로를 설치하고 저수로 양측에 둔치공원을 조성하여 주거단지 가까이에서 쉽게 물과 접촉할 수 있거나 조명할 수 있는 쾌적한 녹지공간을 확보토록 계획한다.

사) 공공 용지

- (1) 공공용지의 면적 비율은 개발의 사업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필요한 공공용지는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 분석을 통해 적정 수준의 공공용지를 확보토록 하여 개발사업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 (2) 집단에너지 공급 및 오수처리를 위해 송도지구 등 외곽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용지와 하수종말처리장 용지를 확보한다.

구 분	면 적(만평)			비 율(%)
	합 계	1단계	2단계	
총 계	1,611	773	838	100
주거용지	202	139	63	12.5
상업용지	76	46	30	4.7
산업용지	160	65	95	10
물류용지	123	8	115	7.6
공원·녹지·수로	558	259	299	34.7
기타용지	492	259	233	30.5

〈 토지이용계획도 〉





2. 기반시설 조성공사

가. 공유수면 매립공사

1) 사업개요

동북아 주요 경쟁 도시와의 시간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부지 조성을 위한 송도지구 매립공사
조기 추진

2) 규모(1단계) : 매립 773만평(1~8공구), 호안 35.5km

3) 사업비 : 11,420억원, 사업기간 : 1994~2008년

4) 추진사항

가) 매립공사 완료 : 1, 2, 3, 4공구 383만평

나) 매립공사 추진

- 5 · 7공구 198만평(2,746억원, 매립공정 6.4%)
- 9공구 142만평(482억원, 2005. 7월 호안축조 완료)

(시행청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다) 매립공사 설계 : 6 · 8공구 192만평(3,634억원, 설계공정 62%)

5) 2005년도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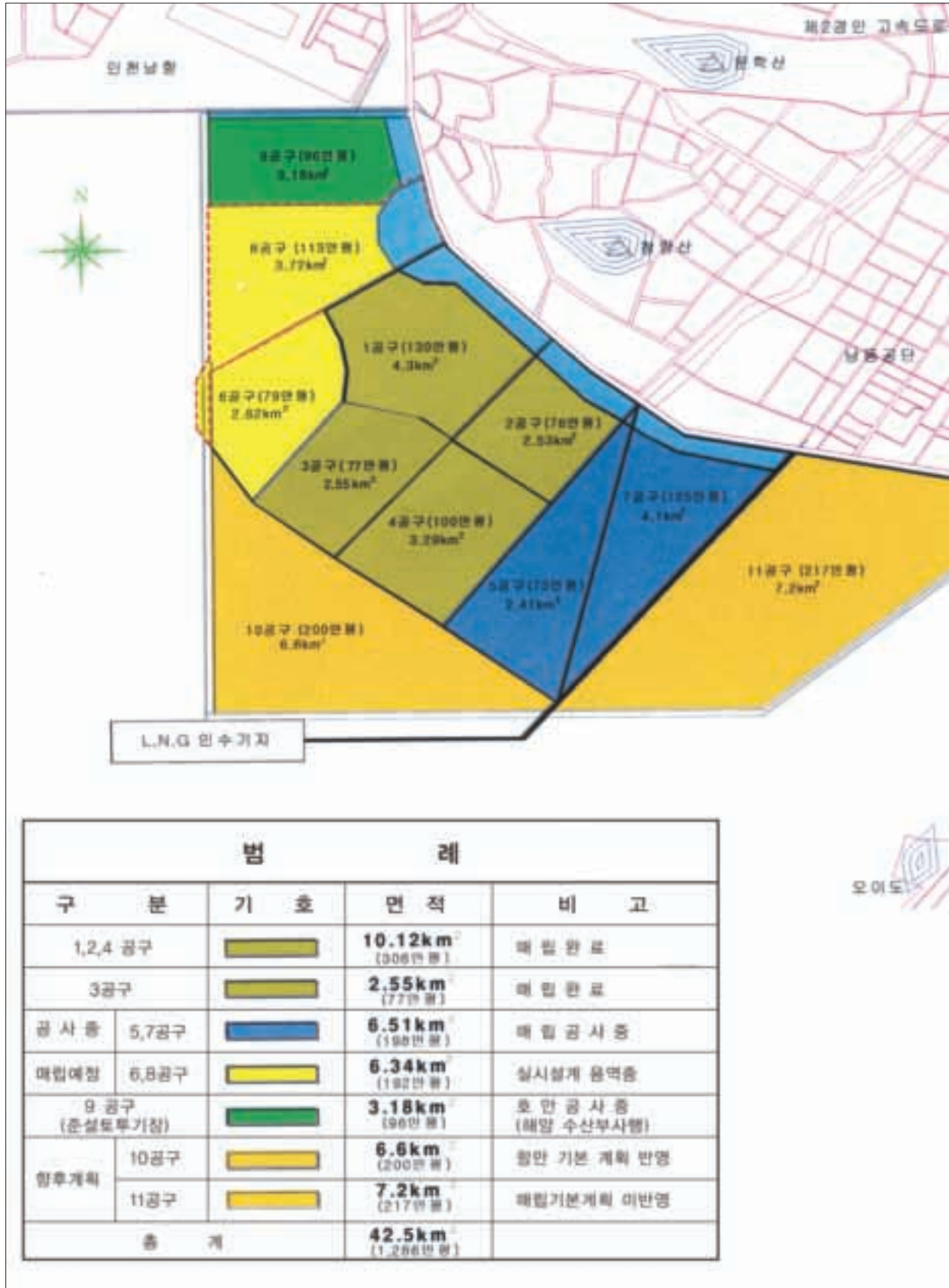
가) 3공구 매립공사 ⇒ 공정 100%

나) 5 · 7공구 매립공사 ⇒ 공정 20%

다) 6 · 8공구 매립공사 ⇒ 설계 100%

제4장 - 지구별 개발 계획 및 추진 현황

〈 송도 신도시 매립사업 현황도 〉





나. 기반시설 조성

1) 광역도로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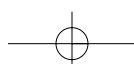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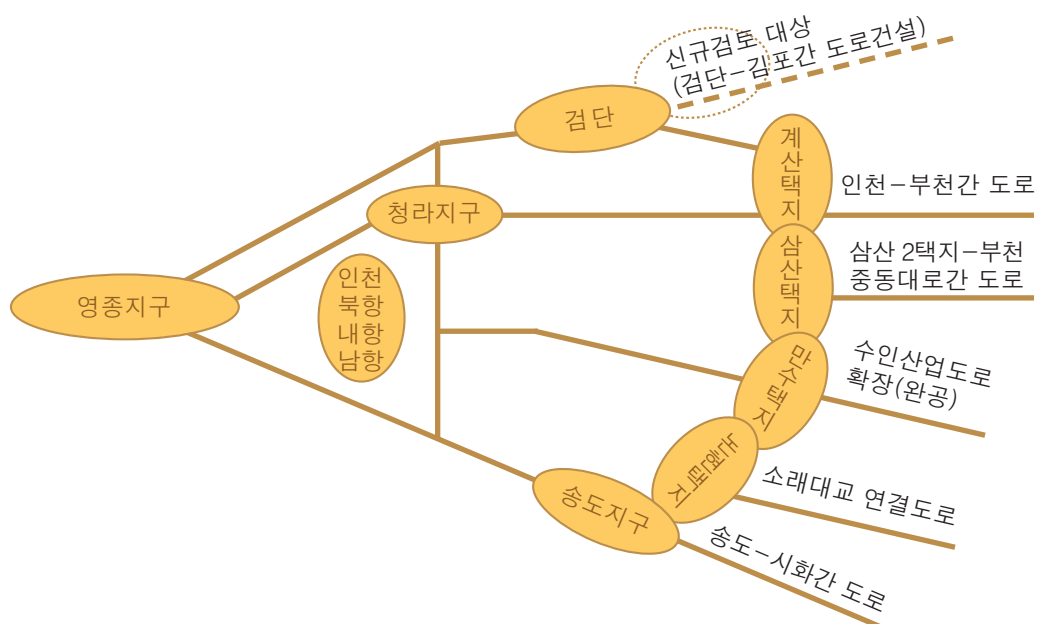
가) 기본방향

- (1) 인천광역시 도시성장거점을 지원하는 남북축 2개와 동서축 4개의 2×4 격자·순환 고속도로망 구축
- (2) 서북부(신개발지역)와 구도심부, 송도지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망 확충을 통한 도시의 균형발전 유도
- (3)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의 연계·우회 도로기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4) 인접 시·도 간 교통 정체구간, 광역적 차원의 효율적 해소 방안 모색

〈 인천광역시 고속도로망 구축 개념도 〉



〈 인천광역시 광역도로 구축 개념도 〉





나) 가로망계획

(1) 주간선도로

- (가) 주간선도로는 도심지 교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등의 하위도로 체계 및 기능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배치. 버스과 신교통수단 등 궤도교통수단이 장래 도입될 것을 고려해 계획
- (나) 배치간격은 1.5km 내외로 하고, 토지이용상 예상되는 교통량을 고려해 신축성 있게 배치
- (다) 계획지구의 주진입도로 및 그 연장선, 그리고 R&D축을 따라 북측의 CBD와 인천 국제유통단지를 동서방향으로 연결하는 도로 등을 주간선도로로 계획
- (라) 주간선도로는 8차로 내외의 폭원 40~50m 도로로 계획하고 중앙 분리대와 버스 정차대를 설치

(2) 보조간선도로

- (가) 주간선도로를 내부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하여 주간선도로 사이에 500m 내외의 간격으로 배치
- (나) 보조간선도로의 차로수는 4~6차로, 폭원은 35m 내외로 한다.

(3) 집산도로

- (가) 간선도로에 의해 구획되는 지역 중 국지도로만으로 지역 내에 발생교통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집산도로를 설치해 보조간선 도로에 접속시킴으로써 지역 내 발생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집·분산 처리
- (나) 집산도로의 차로수는 4차로, 폭원은 25m 내외로 한다.

(4) 국지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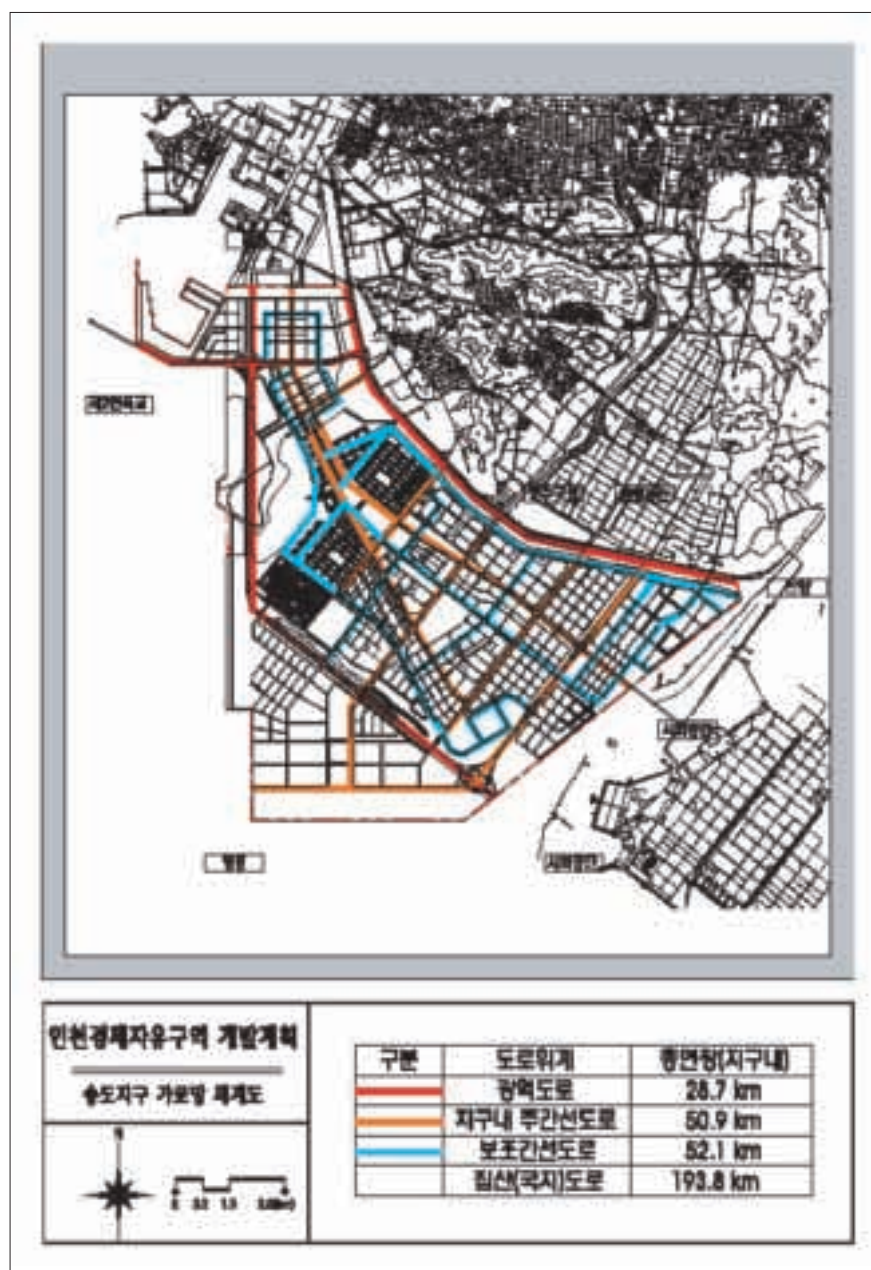
- (가) 주택 지구 내부는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와 연계를 감안해 배치
- (나) 기타의 경우는 이면도로로서의 성격을 갖도록 블록별 교통 진출입 동선을 감안해 배치
- (다) CBD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일방통행도로를 설치해 교통의 흐름이 연속되도록 계획
- (라) 국지도로의 차로수는 도심 일방도로를 제외하면 대개 2~4차로, 폭원은 15m 내외로 한다.



〈 송도지구 가로망 계획 〉

구 분	광역도로	주간선도로	보조주간선도로	집분산도로
폭	40 m	35~40 m	30 m	25m이하
연 장	28.7km	50.9km	52.1km	193.8km

〈 송도지구 가로망 체계도 〉





2) 상수도계획

가) 기본방향

- (1) 계획지구 내의 단계별 개발계획에 따른 상수도 공급계획 수립
- (2) 수요량은 지역특성 및 토지이용계획을 감안하여 상주, 상근, 이용 인구의 급수 원단위를 이용해 추정
- (3) 계획지구 내의 상수도 보급률은 100%로 설정

나) 송도지구 상수도계획

(1) 총수요 급수량

상주, 상근 및 이용인구로 구분하여 용수량 수요를 추정하면 송도지구의 총 수요급수량은 약 230,000 t /일 로 추정됨.

〈 송도지구 용수 수요량 〉

(단위 : t /일)

구 분	상주인구		상근인구		이용인구		합 계
	인 구	용수량	인 구	용수량	인 구	용수량	
합 계	252,500	81,450	462,600	48,573	2,232,400	66,972	229,675

(2) 계획급수량 산정

단계별 개발계획에 따른 상주, 상근, 이용인구를 이용한 단계별 용수수요량을 보면 2008년에 약 158,000 m³, 계획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약 230,000m³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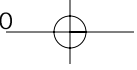
〈 송도지구 단계별 용수 수요량 〉

(단위 : t /일)

구 분	1단계(2008년)	2단계(2020년)	비 고
시설용량	157,781	229,675	

(3) 배수지 계획

2008년 이후 기존 시가지 상수 소요량은 변동이 없다고 보면 2008년 이후에 계획배수지 시설용량 (V=60,000m³)보다 소요량이 많아지고, 2020년에 필요 배수지 용량은 97,400m³이므로 푸른송도배수지 계획용량 60,000m³에 37,400m³를 추가 증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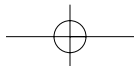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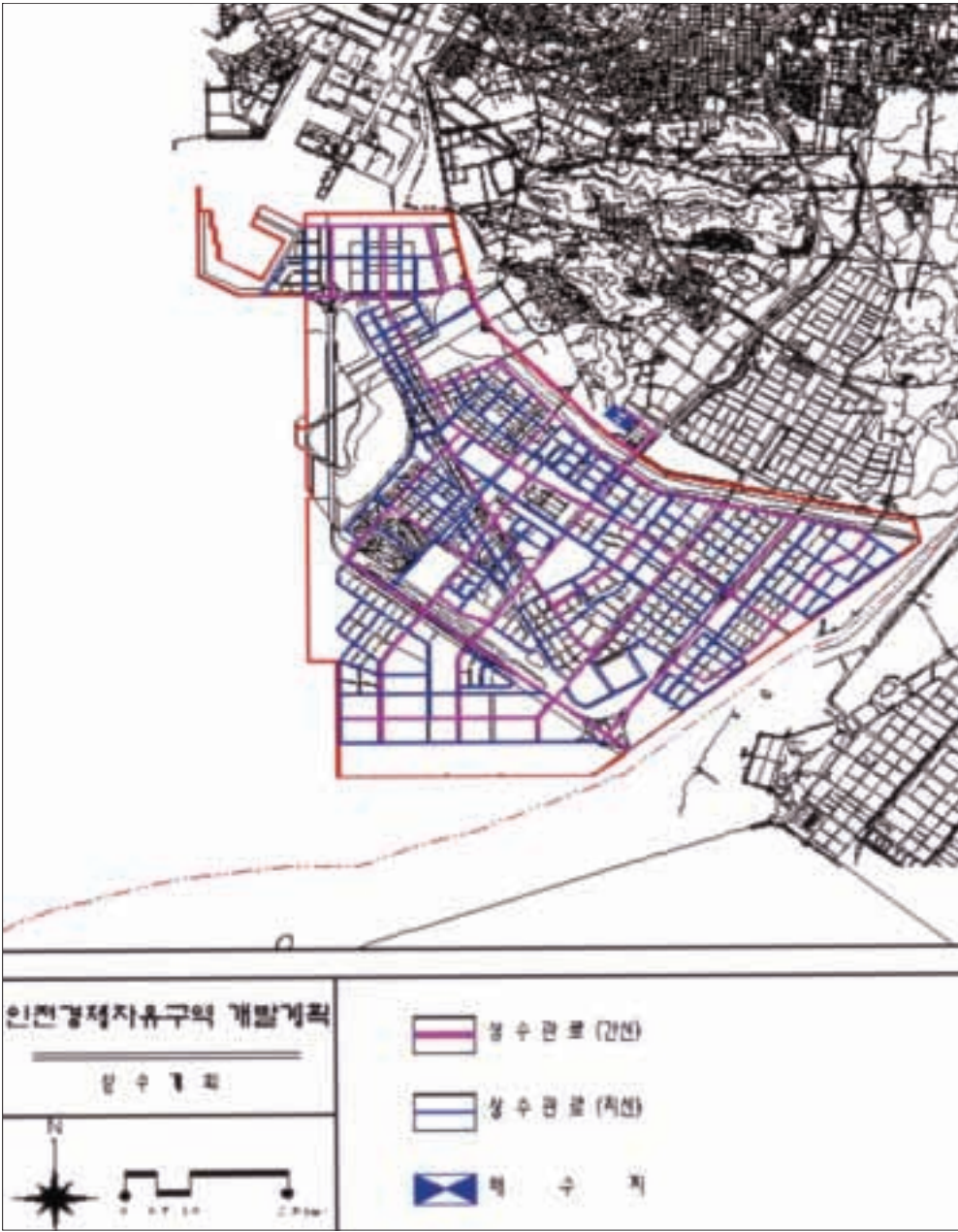


〈 푸른송도배수지 분담급수량 〉

(단위 : t /일)

구 분		1단계(2008)	2단계(2020)	비 고
급수량	기존 시가지	66,700	66,700	
	송도지구	157,781	229,675	
	계	224,481	296,357	
배수 지 소요용량		73,440	97,400	체류시간: 8시간 기준

〈 송도지구 상수도계획 〉





제4장 - 지구별 개발 계획 및 추진 현황

(4) 용수공급 계통

용수공급의 계통은 수도권 광역상수도를 통하여 수산정수장과 푸른송도배수지를 거쳐 계획지구에 단계적으로 공급하는 간접급수방식을 채택한다.

(5) 관거 계획

(가) 급·배수 관로는 자연유하 방식에 의한 공급을 원칙으로 계획한다.

(나) 배수관망은 장래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복식배수관망으로 구성한다.

(다) 최소 토피는 관경 D900m/m 이하는 120cm 이상, 관경 D1,000m/m 이상은 150cm 이상, 관경 D1,500m/m 이상은 토피를 해당관경 이상으로 한다.

(라) 도·송수관거 평균유속의 최소 및 최댓값은 0.3~3.0m/s로 한다.

(마) 관로 노선은 공도 또는 수도용지를 사용하고, 수평이나 수직방향의 급격한 굴곡을 피하며, 최소 동수경사선 이하가 되게 한다.

(바) 계획부지가 해안 매립지인 점을 감안해 염해환경하의 부식 및 차량하중 등의 상재하중에 의한 부등침하 때 접합부의 이완이나 탈리에 의한 누수 및 단수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폴리에틸렌 도복장 강관 등의 사용을 권장

3) 하수도계획

가) 기본방향

(1) 하수배제 방식은 계획적인 친환경적 도시의 건설이라는 개발취지와 해양도시로서 해역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한다.

(2) 우수는 자연유하에 의해 방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해양환경을 고려하여 해안으로 방류방법을 제시한다.

(3) 오수는 사업대상지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시설계획은 경제성과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5) 용수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중수도시설 도입을 검토한다.

(6) 사업대상지가 단계별, 지구별로 개발됨에 따라 단계별로 적절한 배수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송도지구

(1) 우수처리계획

(가) 유출량 산정

유출량 산정공식은 국내의 강우조건에서 주로 쓰이는 합리식, RRL, ILLUDAS 공식을 비교 검토결과 다음과 같다.

〈 유출량 산정식 〉

구 분	합리식	RRL	ILLUDAS
특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유역의 도달시간과 같은 지속시간을 가지는 설계강우로부터 유역유출량을 구하는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유역에 내린 강우 중 우수관거와 직접 연결된 지역에 내린 강우만을 유출에 기여함을 가정하고 시간-면적곡선을 산정하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RRL방법을 투수 및 불투수지역을 구분하여 손실량과 흐름상태를 구분 해석하는 방법
적용사례범위	도시하수관거 설계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	유수지, 우수배제시설
적용공식	$Q = 1/360 \cdot C \cdot I \cdot A$ Q : 유출량(m ³ /sec) C : 유출계수 I : 강우강도(mm/h) A : 유역면적(ha)	Qd : 유입=0.2778 $\sum_{i=0}^t A_{j+1-i} + R_i$ Qd : 유입수문곡선의 총거 (m ³ /sec) Ri : 우량주상도의 총거 A _{j+1-i} : 시간구분별면적(km)	유수지, 우수배제시설
적 용	부지내하수관거	유수지	
적용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인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신국제공항 분석 공식사례 : 전국유수지 및 배수펌프장 적용 공식		

(나) 통수량 산정

관거 계산을 위한 통수량 산식 : $Q = A \cdot V$

여기서, Q : 통수량(m³/sec), A : 관거의 통수 단면적(m²)

V : 관거의 평균 유속(m/sec)

Manning의 평균유속공식 : $V = \frac{1}{n} \cdot R^{\frac{2}{3}} \cdot I^{\frac{1}{2}}$

여기서, n: 조도계수, R: 경심(m), I: 동수구배

(다) 우수 배제계획

- ① 우수 배제방식은 자연유하 방식을 채택하고, 방사형의 지 · 간선 우수관거를 통해 방류하며, 외부로부터의 유입 우수는 복측 수로를 통해 해안으로 방류한다.



제4장 - 지구별 개발 계획 및 추진 현황

- ② 3, 4, 5공구 내에 우수지 또는 저류조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습지 등을 조성하고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우수 배제펌프장을 설치해 홍수 때 단계별, 공구별 배제계획을 수립한다.

(라) 관거 계획

- ① 우수 관거는 충분한 통수능력,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등을 고려해 계획한다.
- ② 계획 우수량에 대한 유속은 최소 0.8m/s, 최대 3.0m/s로 함
- ③ 유속은 하류방향의 흐름에 따라 점차로 커지고, 관거의 경사는 점차 작아지도록 계획한다.
- ④ 계획지구가 해안 매립지인 점을 감안하여 해수의 영향을 고려한 제품을 사용한다.
- ⑤ 최소관경은 유지관리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450mm이상을 사용한다.
- ⑥ 관거의 최소 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등을 고려하여 1.0m이상으로 한다.

(마) 배수위 계산

- ① 계획 외수위는 남북측 우수지의 최고 수위를 고려하여 배수위 계산을 한다.
- ② 홍수량은 계획우수 유출량을 적용해 계산한다.
- ③ 계획지반고는 배수위에 의한 최소 동수두보다 60cm이상으로 계획한다.

(2) 오수처리계획

(가) 오수발생량

상주, 상근, 이용인구로 구분하여 오수량 원단위를 이용해 오수발생량을 추정하면 약 189,500m³/일로 추정된다.

〈 송도지구 단계별 발생오수량(일일최대) 〉

구 분	1단계(2008년)	2단계(2020년)	비 고
합 계(m ³ /일)	118,366	172,268	
지 하 수(m ³ /일)	11,837	17,227	
계 획 오 수 량(m ³ /일)	130,203	189,495	

(나) 오수관거 계획

- ① 오수관거는 충분한 통수 능력, 경제성, 유지관리 등을 고려해 계획
- ② 오수관거 계획은 계획시간 최대 오수량으로 한다.
- ③ 계획 오수량에 대한 유속은 최소 0.6m/s, 최대 3.0m/s로 한다.

- ④ 유속은 하류 방향의 흐름에 따라 점차로 커지고, 관거의 경사는 점차 작아지도록 계획한다.
- ⑤ 최소관경은 유지관리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300mm이상을 사용
- ⑥ 관거의 최소 매설깊이는 동결심도 등을 고려하여 1.0m 이상으로 한다.
- ⑦ 관거단면 결정시 관내에 수밀성 및 침전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송도지구 오수관거 계획 〉





4). 기반시설 설치공사

가) 사업개요

- 국제비즈니스·지식정보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송도지구의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 차질없이 추진

나) 사업규모(2·4공구)

- 도로 45.15km, 교량 3, 상수도 64.38km, 방재시설 2, 하수종말처리장 등

다) 사 업 비

- 5,301억원

라) 사업기간

- 2001. 4 ~ 2007. 12

마) 추진사항

(1) 2·4공구 기반시설 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2001. 4 착공(공정 96%)

- 도로총연장 : 13.69km - 상수도관로 : 17.53km
- 우·오수관로 : 29.69km
- 교 량 : 본선교량 L=517M(폭 24.5M, Steel Box Girder교)
- 부 대 공 : 1식(배수갑문 1개소, 북측수로 준설)

(2) 2·4공구 기반시설 1-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2004. 11 준공

- 도로총연장 : 11.50km - 상수도관로 : 21.02km
- 우·오수관로 : 35.14km
- 교 량 : 본선교량 L = 486M(폭 24.5M, Steel Box Girder교)
- 부 대 공 : 1식(배수갑문 1개소, 오수중계 펌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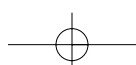
(3) 송도·만수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2005. 4 준공

(가) 송도하수종말처리장

- 부지면적 : 104,583m² - 설계용량 : 130,000m³/일

(나) 만수하수종말처리장

- 부지면적 : 112,273m² - 설계용량 : 140,000m³/일





(4) 지식정보산업단지 기반시설 건설공사⇒ 2002. 12 착공(공정 69%)

- 도로총연장 : 15.02km - 상수도관로 : 23.91km
- 우·오수관로 : 30.47km

(5) 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2004. 12 착공(공정 5%)

- 도로총연장 : 2.06km - 우수관로 : 2.64km
- 교량 : 2개소(770m) - 터널 : 2개소(505m)

(6) 송도5지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2005. 12 착공예정

- 도로총연장 : 2.88km - 상수도관로 : 1.92km
- 우·오수관로 : 5.09km

바) 추진계획

(1) 2·4공구 기반시설 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1,327억원)

- 사업기간 : 2001. 4~2005. 11

(2)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기반시설 건설공사 (451억원)

- 사업기간 : 2002. 12~2005. 12

(3)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1,018억원)

- 사업기간 : 2004 ~ 2007. 12

(4) 송도5지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169억원)

- 사업기간 : 2005. 10 ~ 2007. 12

다 생태도시 조성사업

1) 공원·녹지 조성공사

(가) 야조공원 조성공사 (5.8만평)

**제4장 - 지구별 개발 계획 및 추진 현황**

- 사업규모 : 관람객 센터(Visitor Center), 담수지, 인공섬, 기수지 등
- 사 업 비 : 50억원, 사업기간 : 2003. 12 ~ 2006. 8
- 2005. 6 현재 : 토공 및 수목식재공사 중 (공정25%)

(나) 송도1시가지 공원·녹지조성공사(43만평)

- 사업규모 : 근린공원5, 어린이공원6, 시설녹지, 미관광장 등
- 사 업 비 : 1,170억원, 사업기간 : 2004. 7 ~ 2007. 2
- 2005. 6 현재 : 공원조성 및 가로수 식재공사 중 (공정15%)

(다) 지식정보산업단지 공원·녹지조성공사(6.4만평)

- 사업규모 : 근린공원2, 어린이공원2, 시설녹지2, 미관광장1 등
- 사 업 비 : 198억원,
- 사업기간 : 2004. 6 ~ 2007. 2
- 2005. 6 현재 : 공원조성 및 수목식재 공사 중 (공정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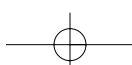
2) 환경친화시설 설치공사**(가) 2공구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 사업규모 : 투입구 129개소, 관로 3,440m, 집하장 1개소
- 사 업 비 : 86억원(시 부담 36억, 아파트 개발사업자 50억)
- 2005. 6 현재 : 집하장 및 투입구 설치 중 (공정89%), 2005. 11 완료

(나) 중수도공급시설공사

- 사업규모 : 중수57,500톤/일, 공급관망 60km
- 사 업 비 : 200억원, 사업기간 : 2006. 1 ~ 2008. 12
- 2005. 6 현재 : 설계공정 70%(2005. 10 완료)

※ 환경부 사업공모 당선 국비 60억 확보





라. 물류인프라 건설사업

1). 인천대교 건설사업

가) 사업개요

- 사업규모 : 21.48km(교량 12.34km, 연결도로 9.14km)
- 사 업 비 : 20,012억원(교량 10,961억, 연결도로 등 9,051억)
- 정부지원 : 12,128억원(교량건설보조 5,271억, 연결도로 6,857억)
- 시 부 담 : 2,643억원(서측연결도로 1,534억, 요금소 부지 400억, 시공기반시설 260억, 주경관 확장 449억)
- 민간부담 : 5,241억원(교량건설비)
- 사업기간 : 2004. 10 ~ 2009. 10(운영 30년)

나) 추진계획

- 2005. 6. 16 : 인천대교 건설공사 착공
- 2005. 11 : 인천대교 동·서측 연결도로 착공
- 2009. 10 : 인천대교 건설사업 준공

2) 송도신항 건설

가)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컨테이너 6선석, 잡화부두 6선석, 배후지 116만평
- 사 업 비 : 20,300억원(민자사업)
- 사업기간 : 2004 ~ 2010

나) 추진일정

- 2004. 4 : 인천광역시와 PHPC간 MOU 체결
- 2004. 5 :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기획예산처)
- 2005. 5 :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신청 (PHK→인천지방해양수산청)
- 2005. 7 : 인천항만공사(IPA) 출범 및 신항건설 협의(PHK↔IPA)



3. 주요 개발사업

- 송도국제도시는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서의 기능 확보와 외국인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최첨단의 주거, 상업, 물류, 산업용지를 조성하기 위해 1989년 6월 연수구 동춘동 일원 공유수면 535만평에 대해 매립 기본 계획을 수립한 뒤 1994년 7월 최초로 4공구 100만평에 대해 매립공사를 착수, 현재까지 1,2,3,4 공구 383만평에 대한 매립공사를 완료했다.
- 현재까지 매립 완료한 지역에 대한 주요개발사업은 국제업무단지 개발, 산업단지 조성, 2·4공구 내 주거단지 개발, 어민생활대책 용지 개발 등이 있다.

가. 국제업무단지 개발

1) 사업개요

가) 사업목표

- 정부의 국가 발전전략인 동북아시아의 경제적 허브 구축
- 21세기 동북아시아를 대표할 수 있는 국제업무중심지구 개발
- 외국인투자 및 외자유치 극대화
- 최고의 설계 및 시공으로 세계 수준의 업무 및 주거환경 구축

나) 사업주체

- 인천광역시
- 송도신도시개발 유한회사 (NSC Development, LLC)

다) 사업지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송도 매립지 1, 3 공구 (2, 4, 6 공구 일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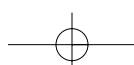
라) 사업 면적 : 약 173만평

마) 사업 기간 : 2005 ~ 2015

바) 총 사업비 : 약 24.3조원 예상 (인천 광역시 0.4조원, NSC 23.9조원)

2) 추진경위

- 2001. 7 : MOU 체결 (인천시/계일 & 포스코 건설)
- 2002. 3 : 토지공급계약체결 (인천시/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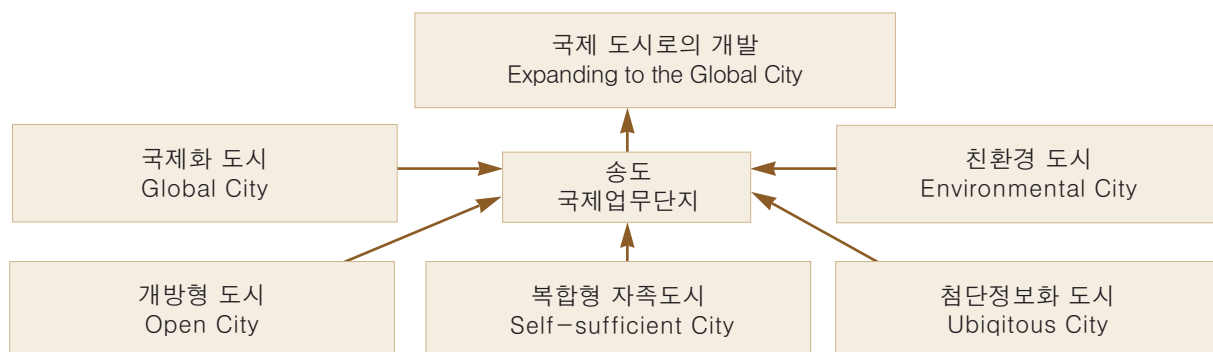
- 2003. 8 :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및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
- 2003. 10 : 1차 파이낸싱 완료 (9천만 달러) 및 1단계 토지매입
- 2004. 6 : 2차 파이낸싱 완료 (1억8천만 달러)
- 2004. 11 : 1단계 실시계획승인/컨벤션센터 기공식
- 2004. 12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및 내국인 진료 허용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통과)
- 2005. 5 : 외국교육기관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통과
- 2005. 6 : 건설자금 대출계약 조인식체결 (15억 달러/1조5천억원)
- 2005. 8 : 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 (재정부)

3) 개발방향 및 기본구상

가) 개발방향

- 국제화 도시(Global City)
 - 국제업무지원 기능을 충족 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을 통해 외국인에게 매력적인 공간 제공
- 개방형 도시(Open City)
 -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국내외 인적·물적자원의 자유로운 교류
- 복합형자족 도시(Self-Sufficient City)
 - 업무·주거·문화 및 위락기능이 복합된 자족형 정주공간조성 첨단정보화 도시(Ubiquitous City)
 - 멀티미디어 정보통신망 구축으로 최상의 비즈니스 환경조성
- 친환경 도시(Environmental City)
 - 지리적·자연적 여건을 활용한 도시내의 수로계획과 해변공원, 문화시설 등으로 풍부한 친수공간 제공

〈 개발 목표 개념도 〉



제4장 - 지구별 개발 계획 및 추진 현황

나) 토지이용계획상



업무용지



상업용지



단독주택 · 공동주택



주상복합

(1) 업무용지

-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항에 대한 접근성과 해안에 인접해 있는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송도국제도시의 앵커 (Anchor)기능을 수행
- 중심가로(Park Avenue)변의 업무용지와 중앙공원 (Central Park)과 인접한 컨벤션센터 부지로 구분되며, 특히 컨벤션센터 부지는 국제업무단지뿐만 아니라 송도국제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기능을 담당
- 도입시설은 국제업무전시 및교류 등 국제업무기능과 중심상업, 공공행정, 문화레저 및 주상복합기능 등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교통동선 및 스카이라인을 감안하여 연계 배치

(2) 상업용지

- 국제업무용지(CBD)의 배후지원기능과 상주 및 이용인구의 생활 편의시설 기능을 담당
- 호텔, 백화점, 대형쇼핑몰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계획
- 국제업무단지 내 상주인구 및 이용인구의 다양한 소비패턴 충족을 위해 백화점과 대형판매시설을 입지시킬 계획

(3) 주거용지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내외국인의 다양한 생활 및 주거형태를 수용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배치하고, 다양한 형태의 건축계획을 통해 다채로운 도시경관을 연출할 계획
- 주상복합
 - 도심공동화 방지 및 도심기능 활성화 유도를 위해 단지별로 다양한 건축계획으로 상업과 주거가 복합된 건물을 배치



- 도시경관 및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배치
- 해안과 인접한 워터프론트 파크(Waterfront Park) 및 중앙공원 (Central Park) 주변에 배치

(4) 공원 · 녹지용지

- 친환경 계획을 위해 대규모 공원(Central Park, Waterfront Park, Northwest Park)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
- Park Avenue 중앙부에 녹지와 보행자도로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바닷물을 이용한 수로 (Canal)를 계획하여 친수공간 및 교통수단(Water Taxi) 등으로 이용

(5) 공공 · 문화시설용지

-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 공공문화시설은 도시인구의 행정, 교육, 의료, 문화 등의 지원기능을 지니므로 각 시설의 기능 및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배치계획을 수립

다) 교통 및 녹지체계 구상

(1)광역교통체계 구상

◎ 동서축

- 제3경인고속도로(계획) : 인천남부지역 연결을 담당하고 서울외곽순환 도로와 연계
- 인천대교
 - 인천국제공항~송도국제도시~인천남부지역 간 교통연결(2009년 개통예정)
 - 제2, 제3경인고속도로와 연계

◎ 남북축

- 제2서울외곽순환도로(계획) : 수도권북부~송도국제도시~수도권남부를 연결함으로써 인천으로의 접근성 향상
- 인천지하철 1호선 : 동막~송도국제도시(6.5km) 연장계획(2008년 말 개통예정)

(2) 공원녹지 체계구상

- 수변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공원 · 녹지체계정립
- 근린공원의 네트워크 구축



제4장 - 지구별 개발 계획 및 추진 현황

- CBD와 다양한 기능축이 결절하는 지역에 중앙공원 조성
- 국제업무단지를 상징하는 중앙공원(Central Park)계획
- 공원녹지의 위계에 따라 네트워크 구축
- 주거단지, 녹도, 공원을 연결하는 그린네트워크 계획
- 국제업무단지의 특징인 수변공간을 적극 도입

라) 주요 유치시설 계획

(1) 국제컨벤션센터



- 송도국제업무단지에 국제컨벤션센터를 건설하여 국제회의 및 전시·교류 등을 통해 국제비즈니스 업무지원과 다국적 기업 유치기여 기능 수행
 - 주요시설 : 다양한 규모의 회의시설과 전시시설
- 국제회의의 산업육성에 관한법률에 적합하고 국제적 수준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1단계 목표연도인 2008년까지 설치

(2) 국제업무센터



-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 내 국제업무센터의 주 기능은 동북아 비즈니스의 거점기능이며, 이의 실현을 위해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 유치
-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지역 본부는 홍콩과 싱가포르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최근 상해(푸둥)로 이전하는 추세이며, 이를 다시 송도로 끌어들이어 송도신도시가 동북아 및 세계 업무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3) 비즈니스 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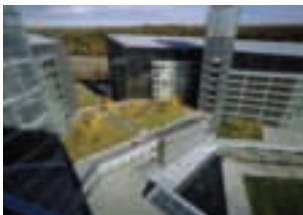


- 국제수준의 초고층, 초특급호텔의 입지로 국제업무지구내 상징성 부여
- 컨벤션센터와 연계한 국제교류의 장 역할 기대
- 중심상업·업무기능과의 연계개발로 컨벤션 및 국제업무센터 등의 상승효과 도모
- 국제업무지구의 스카이라인 및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고려한 상징적이고 차별화된 건축 계획



(4) 문화센터(Cultural Center)

- 종합문화센터로 독창성 있고 창조적인 상징구조물 계획
- 콘서트홀, 공연장, 갤러리, 도서관 등



(5) 종합의료시설

- 경제자유구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뿐만아니라 국내의 외국인 근로자 및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의료혜택을 제공
- 외국인 전용의료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외국어 서비스를 통하여 편리하게 의료시설을 이용하도록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이 단기 혹은 장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



(6) 외국인 학교

- 외국인학교를 통해 외국인 자녀가 자연스럽게 현지의 문화를 적응하도록 하며, 교육환경의 지원으로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한다.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영종지구 및 청라지구내 외국인 전용단지와 인접한 대지에 외국인 학교시설 부지를 마련하고 학교 기준면적을 20,000m² 이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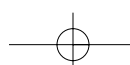
(7) 생태관

- 송도 중앙공원내 공공건축물의 하나로서 북측 주거단지에서 나오는 공원가로와 공원과 만나는 결절점에 입지
- 육지생물과 바다생물을 동시에 관람함으로써 생태계의 연결고리(먹이사슬과 공존상태 등)를 이해하도록 구성한다.
- 공공에 개발되는 야외 산책로는 건물을 가로질러 공원으로 연결되어 도시 - 공원- 수로를 잇는 연속성을 이끌어낸다.



(8) 골프장

- 송도 3공구 남측부지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여 일반인의 관광레저





제4장 - 지구별 개발 계획 및 추진 현황

활동은 물론 국제업무지구의 서비스인프라로 활용

- 영종지구내 제5활주로 예정지와 신불지역 유휴지에 골프장을 조성
 - 제5활주로 예정지는 유휴지가 넓게 조성되어 있고 평탄한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골프장 개발이 용이하여 이 지역을 한시적으로 54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으로 개발
 - 신불지역 유휴지는 토지 전체를 단일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골프연습장, 렌탈 하우스 등의 시설을 배치

나. 산업단지 조성

1) 지식정보산업단지

가) 인천광역시 동춘동 999번지 일원 2,655,143㎡에 대해 2000년 9월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해 2001년 11월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 2003년 12월 공사 착수.

나)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 등과 관련된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문화·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 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산업단지에서 파생되는 규모 경제효과와 복합기능입지에 따른 생산성향상효과에 의한 국토 및 도시균형 발전 유도를 목적으로 지정하는 단지를 일컫는다.

다) 송도국제도시 내 지식정보산업단지는 송도국제도시 기본계획을 최대한 수용하여 송도국제도시 전체의 개발목표를 달성하고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고하여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및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각 용지별로 개발계획 방향을 제시하여 시행중인 단지

2) 계획의 방향

가) 공동주택용지

- (1) 도시의 계획적인 스카이라인의 형성 및 주거단지의 개방감 확보
- (2) 변화 있는 층수의 도입 및 차별성 있는 건축물의 외관 도입
- (3) 도시 가로 환경의 제고를 위해 주거단지 경계부에 대한 계획적인 조정처리
- (4) 단지 내 보행환경을 위하여 단지 내의 보행자 통로를 적극적으로 조성 유도
- (5) 부대편익시설의 계획적인 배치를 통해 이용자 편의 도모

나) 근린생활시설

- (1)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해 지정용도, 불허용도 및 권장용도를 지정하여 개발 유도.
- (2) 쾌적한 가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간선도로에서의 차량 진출입 제한, 저층부 벽면 및 옥외광고물 등을 계획하여 개발 유도.

다) 주상복합용지

- (1) 상위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한 규모 및 용도의 도입
- (2) 간선가로변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주거부문에 대한 소음 등 환경을 고려한 배치 도모
- (3) 상업지역내에 위치한 입지특성을 고려한 공지 및 주차장의 계획적인 조성 유도

라) 국제전시교류 및 국제전시교류 자원용지

- (1) 대지규모 및 도입용도로 인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구체적인 개발의 발생시 이를 제어하고 공공을 위한 공간의 조성을 추구하는 특별계획구역의 도입 검토

마) 일반상업 및 지식기반자원상업용지

- (1) 중심기능으로서 블록별 성격부여 및 특성화방안 검토
- (2) 적정규모의 획지분할과 차량 및 보행동선 체계의 확립

바) 산업용지(지식기반서비스, R&D, 제조업)

- (1) 상위계획 및 기 승인된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 결과를 반영
- (2) 향후 분양성을 고려한 적정한 획지규모의 설정과 용도 및 기능별 획지활용의 극대화를 도모
- (3) 서비스 - R&D - 제조업용지간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기 위한 적정한 업종배치 검토

사) 교육시설 및 지식기반산업지원교육용지

- (1) 송도신도시 기본계획상 유치된 교육시설을 반영
- (2) 주변지역의 학교현황을 감안하여 적정거리 및 통학권을 고려
- (3) 지식기반산업과 산·학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원교육 용지 반영.



제4장 - 지구별 개발 계획 및 추진 현황

아) 공공시설용지

- (1) 주변 생활권에 필수적인 근린공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의 도입
- (2) 도입시설간 기능적인 체계 및 시설의 이용권을 고려한 시설입지 선정
- (3) 가로변 보행환경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및 공공용지의 일체화된 가로환경계획 수립

3) 계획지표 설정

〈 계획지표 〉

구 분		단 위	지 표	비 고
계획인구 및가구	인구	명	12,200	기본계획수용, 주상복합 포함
	가구	호	4,200	기본계획수용, 주상복합 포함
	가구당인구	명/호	2.9	기본계획수용
주택건설용지	공동주택용지	m ²	263,972	평균분양면적 32평/호
	근린생활시설	m ²	7,850	공동주택지 인근11개 획지
교육용지	초,중,고교	개소	3	각 1개소
	대학교	개소	1	카톨릭대 약 4,800평규모
	지원교육	m ²	57,964	지식기반지원교육시설, 대형2필지
공원녹지	근린공원	개소	3	규모 10,000m ² 이상
	어린이공원	개소	3	규모 1,500m ² 이상
	녹지	m ²	169,199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수용
	공공공지	개소	2	산업용지내 휴게시설기능 확보
공공업무시설	근린공공시설	개소	1	1블록 집단화
공급처리시설	상수도보급율	%	100	푸른송도배수지 공급
	하수도보급율	%	100	하수종말처리시설 처리

4) 토지이용계획

- 가) 주거, 주상복합용지 : 산업단지 종사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 주거 패턴의 공간으로 주거용지를 확보하고, 일부 상업 및 서비스 용 지내 주상복합용지를 배치
- 나) 근린생활용지 : 공동주택단지의 주출입구 초입부에 배치하여 접근성을 제고하고 거주민을 위한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근린생활 시설을 확보하여 고급 인력의 유입에 지장이 없도록 생활 기반 서비스시설을 갖춘
- 다) 상업업무용지 : 광역 접근이 용이하고 대중교통 및 보행 체계가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며 일반상업기능, 지식기반산업지원상업 기능 등을 수행하는 상업용지를 유치
- 라) 국제전시교류 및 국제전시교류지원용지 : 지식정보산업단지 및 내부 테크노파크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국제전시교류 및 지원 기능을 담당하며 공항과 수도권에서 접근하기 유리하도록 간선도로변에 위치
- 마) 산업용지(지식기반서비스, 지식기반R&D, 지식기반제조업) : 산업단지 특성상 지시기반 제조업을 중심



으로 지식기반서비스 기능과 지식기반 R&D기능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토록 하고 각 기능별로 집단화 배치

바) 테크노파크 용지 : 연구 지원 기능인 (재)송도테크노파크와 핵심 연구기능간의 인접 배치를 통해 상호 연계성을 높이며, 주변에 관련 기업용지를 배치

사) 교육용지 : 지식정보산업단지내 계획인구 및 주변 지역 인구를 고려, 교육 시설은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 대학 1개소로 주거지역 부근에 배치

아) 공공시설용지 : 근린공원을 주변 공원과 연계시킴으로써 녹지축을 형성하고 근린공원을 주택용지 북측에 1개소, 산업용지내에 2개소 를 계획하여 주택용지와 완충역할 및 산업용지내 녹지공간을 제공 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주차 수용의 발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역세권내와 각 용도별로 공공 주차장 분산배치

5) 기반시설계획

가) 가로망계획 : 주변간선도로망 및 도시철도(인천지하철1호선)와 송도신도시내 도로망과 연계하며 내부 도로망은 격자형 가로망과 지식기반산업 기능축을 기준으로 가로망 계획

나) 공원·녹지계획 : 주변 녹지공간과 송도국제도시의 공원녹지체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축

다) 공공시설계획 : 송도신도시 기본계획상 제시하고 있는 수요를 기준으로 시설별 이용 편익과 공공시설 계획 기준을 고려하여 시설 입지는 이용인구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공공 행정을 위한 시설 규모와 주변지역 및 송도 신도시의 공공기능 수용을 위한 여유있는 규모로 확보

6) 가구 및 획지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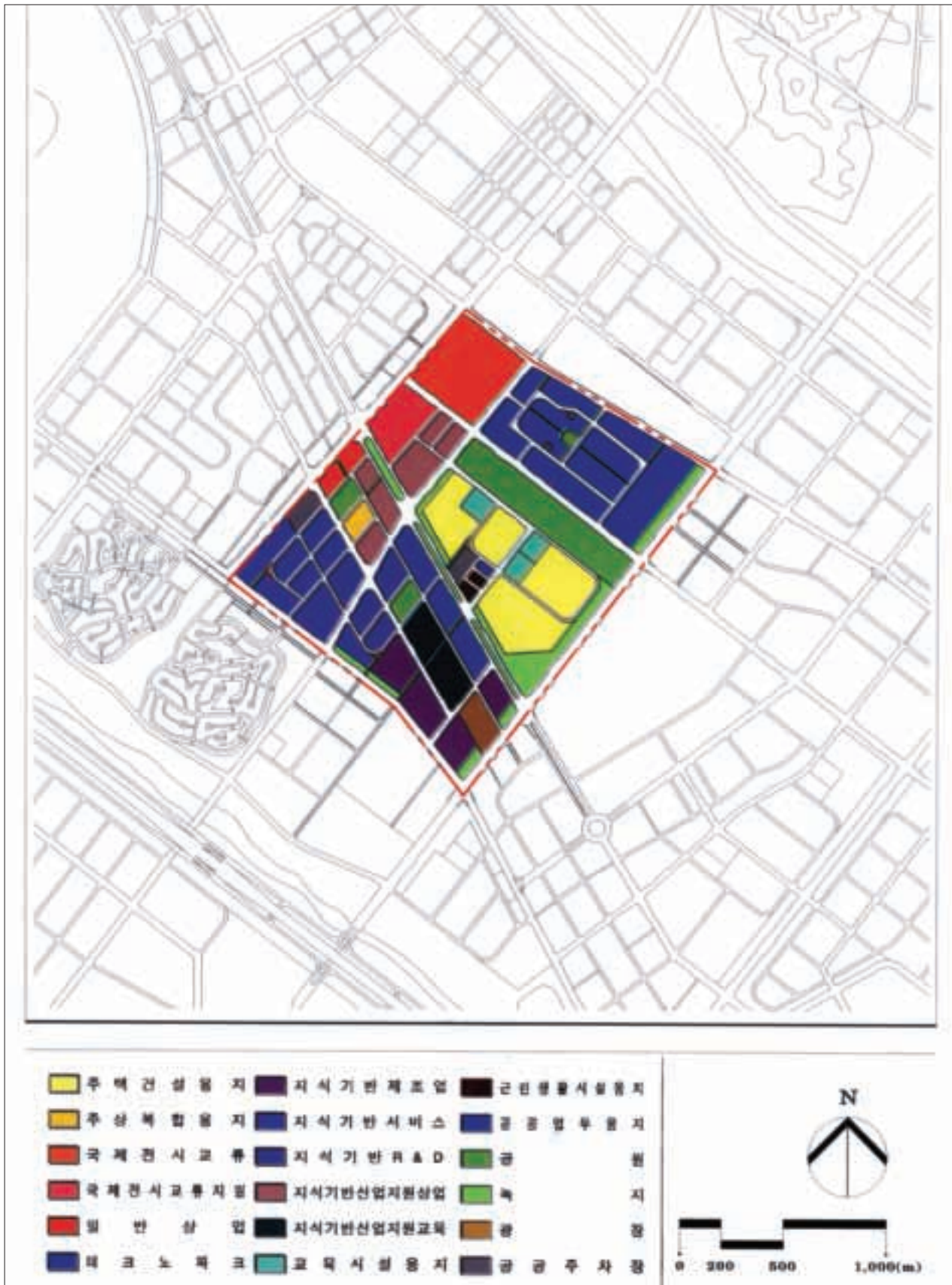
가) 가구의 길이나 크기는 가구내 수용 용도와 건축물의 특성, 주변가로의 교통특성, 보행자의 통행 및 차량 진출입 위치 등을 고려하여 가구의 길이가 긴 경우 등에는 보행자 편의 및 가로 활성화를 위해 보행자 전용도로가 가구를 관통하도록 계획.

나) 획지분할은 가급적 대규모 획지로 계획하였고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분할합병이 용이하도록 탄력있게 계획.

다) 건축물계획 : 지식정보산업단지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 타 단지와 유사하나 지식기반 R&D 용지에 대해서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로 지정 용도를 지정 운영

제4장 - 지구별 개발 계획 및 추진 현황

〈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토지이용 계획도 〉





다. 바이오 단지 조성 계획

1) 단지 현황

(단위 : 평)

구 분		총면적(A+B)	기존필지(A)	신규필지(B)	비 고
계		124,000			
바이오 단지 (관리기관 : 인천경제청)	소 계	109,000	62,000	47,000	
	BIO생산/연구단지	70,000	37,000	33,000	
	주상복합단지	14,000	—	14,000	
	열병합시설	25,000	25,000	—	
생물산업연구단지 (관리기관 : 송도테크노파크)	소 계	15,000	—	—	바이오 단지와 연계
	연구기관	6,000	—	—	
	대학연구소	4,000	—	—	
	기업부설연구소	3,788	—	—	
	벤처기업	1,212	—	—	

2) 바이오 단지

가) 기 준 : 62천평(셀트리온 28천평+열병합시설 25천평+잔여필지 9천평)

나) 신 규 : 47천평(BIO 생산단지 33천평+주상복합단지 14천평)

다) 위 치 : 송도 5지구내

라) 주 관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마) 사업내용

- 바이오 생산/연구 단지 조성

3) 생물산업 연구단지

가) 규 모 : 15천평(송도테크노파크 산업단지내)

나) 위 치 : 연수구 동춘동 994번지

다) 주 관 : (재)송도테크노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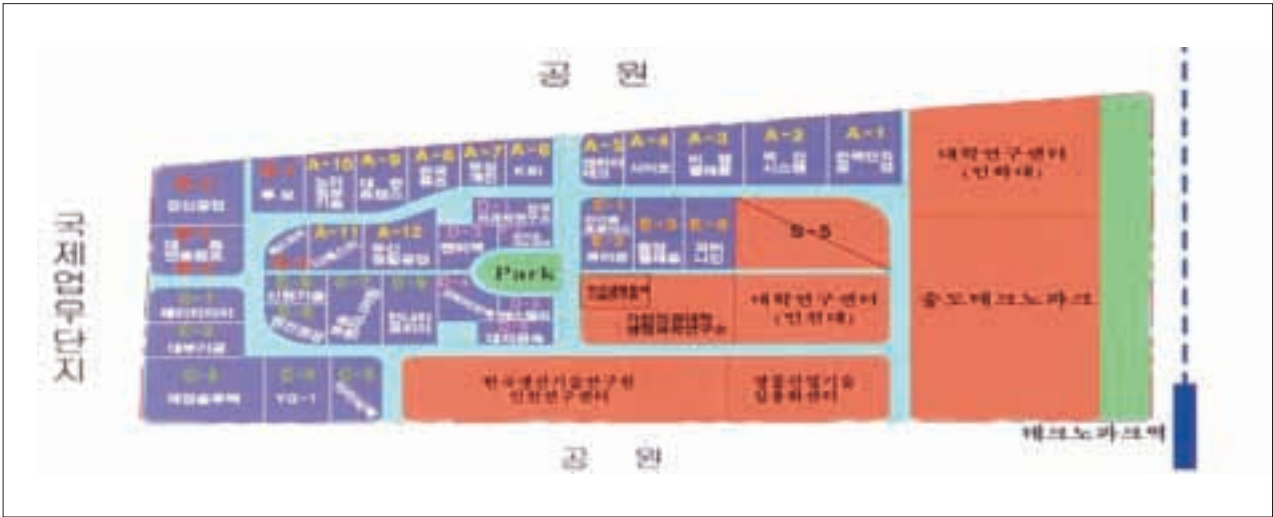
라) 사업내용

- 생물산업 관련 중소/벤처 기업연구소, 연구기관, 대학 유치로 연구기능 집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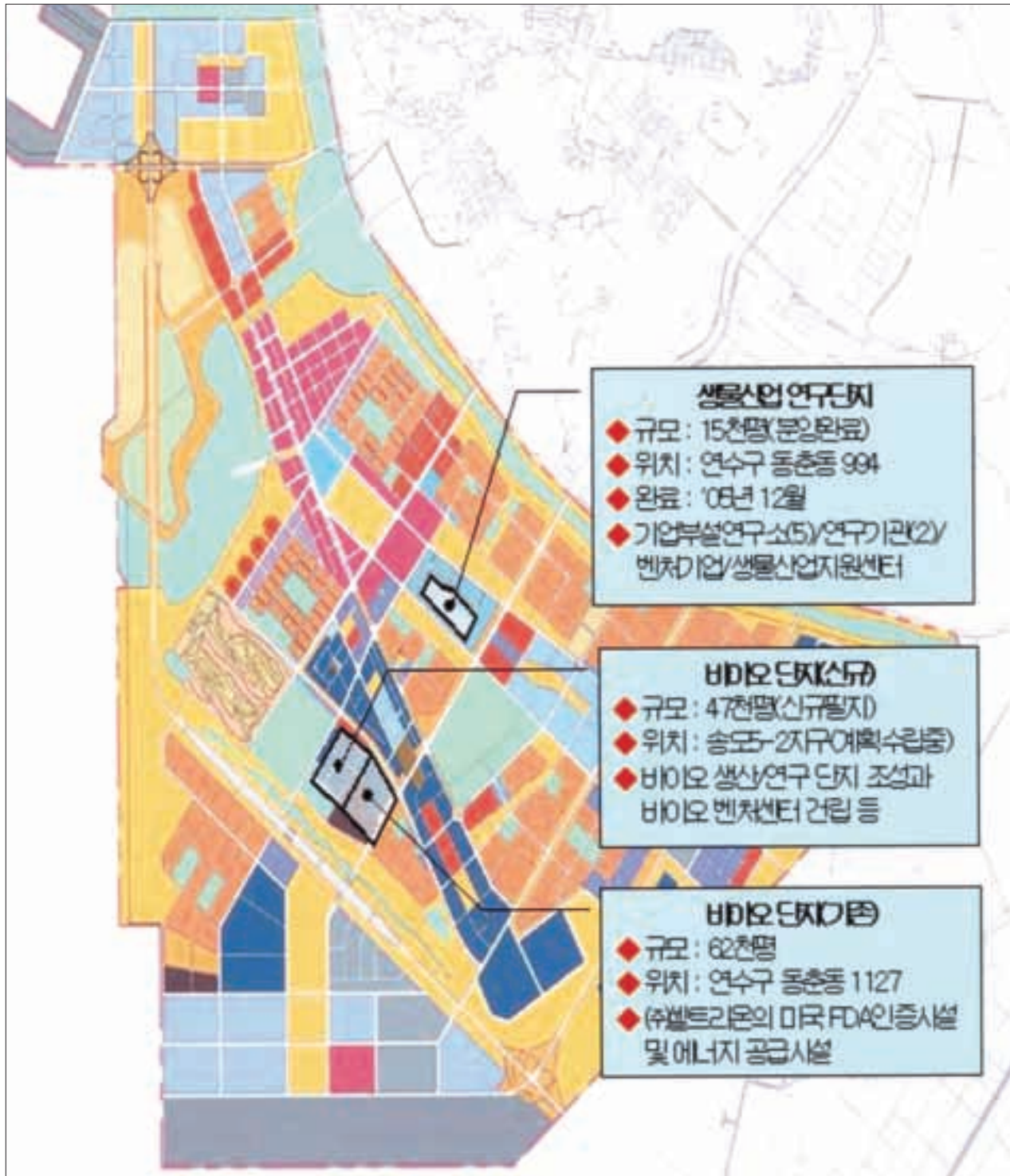
제4장 - 지구별 개발 계획 및 추진 현황

〈 생물산업 연구단지 현황 〉

기업(연구기관)명	규모(평)	형 태	주요사업내용	준 공	비 고
계	15,000				
생물산업실용화센터	5,000	정부출연연구원	국내기업 해외(미국) 진출을 위한 미국 FDA 승인 cGMP 시설	'05. 9	
한국생활환경실험연구원	1,000	정부출연	의료용구 생체적합성 시험 센터	'05. 3	
가천의대생명과학연구소	4,000	대학연구	소생명과학, 생체의약품, 신약 개발	'05. 12	
한국의과학연구소	945	기업연구소	파킨슨병, 장기능, 비만치료제 개발	'05. 9	
(주)엔비텍	1,123	기업연구소	생물고분자, 미생물제재 연구	'04. 11	
코바이오텍(주)	1,124	기업연구소	고지혈증 치료제 등 의약품 연구	'05. 상반기	
(주)바이오지노피아	596	기업연구소	백신 및 면역치료제 개발	'05. 상반기	
벤처기업 집적	1,112	송도테크노파크 벤처빌딩내	벤처빌딩내 기업연구소 5실 및 벤처기업 12실 공간 확보	수시모집	
생물산업지원센터	100	송도테크노파크 벤처빌딩내	기술지원, 공동실험실관리, 창업지원, 정보수집 및 제공 사무소	'05. 상반기	



〈 바이오 단지 위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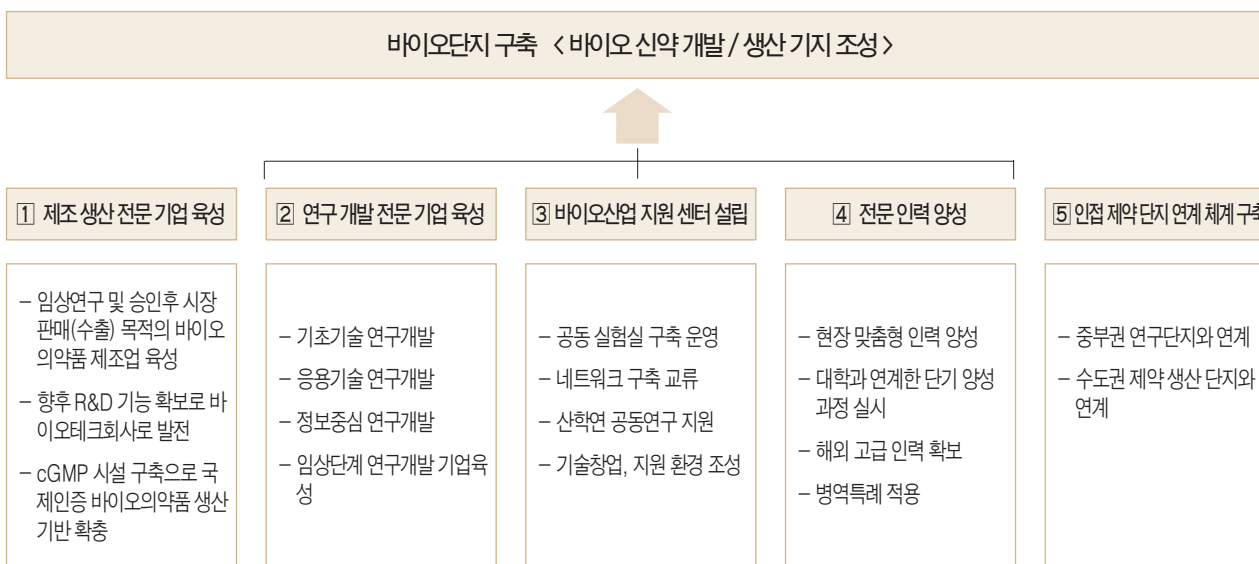
제4장 - 지구별 개발 계획 및 추진 현황

4) 바이오 단지 구축 추진 전략

〈 바이오단지 단계별 추진 방안 〉



5) 바이오단지 구축안





가) 제조생산 전문기업(CMO) 육성

(1) 선진 동물세포배양 CMO 설비 현황

- 현재 전세계 동물세포 생산 설비는 약 800,000ℓ 로써 향후 아웃소싱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동물세포 배양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ocedure)설비의 설치는 고비용과 전문가를 필요로 하므로 증설에 어려움이 있으며 치료용 단백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우수인력, GMP 등급의 설비가 필수적이나 계획에서 시설검증(Validation)까지 5년 이상의 오랜 건설기간이 소요된다.

(2) 국내 동물세포배양 CMO 사업 현황

- 국내 단백질 배양 생산 설비의 경우 (주)녹십자의 200ℓ 발효조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이며 식물세포 배양 발효장치의 경우 (주)삼양 제넥스가 항암치료제인 Taxol (Genexol)의 생산을 위한 35,000ℓ 의 발효조 설비 및 분리, 정제 설비를 포함한 식물세포배양 발효장치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FDA에서 cGMP 기준을 만족시키는 설비로 설계된 것은 생물산업 기술 실용화 센터와 셀트리온이 유일하다.

〈 선진 CMO시설 현황 〉

회사명	반응기 용량(ℓ)	생산품	증설계획(ℓ)
Amgen		Epogen	194,000ft2
Abbot Laboratories	2X6,000	D2E7	6,000
Baxterq		Factor VIII	
Biogen	6X2,000	Avonex	6X15,000(2002)
Boehringer Ingelheim	6X12,500	tPA, TNKase Enbrel(Immunex/AHP), Synagis(Medimmune), Zenapax(Roche), Campath(Millennium), Bexsar(Corixa)	6X12,500(2003)
Bristol Myers	5X2,000	CTLA4-IG	
Centocor	2,000	ReoPro	
Genentech	16X12,500	Herceptin, Rituxan, Xolair Pulmozyme, TPA	4X12,500(2007)
Genzyme	4X2,000	Cerezyme, Fabrizyme	
Glaxo SmithKline	2X5,000		AHP사에 대여중
Human Genome Science	2,000	Repifermin, Meristipem	2X10,000(2004)
IDEC Pharmaceuticals	2X3,000	Rituxan, Zevalin	8X15,000(2005)
Lonza	2X5,000	ABX-IL8(Abgenix), C225(Imclone)Zovant(Lilly), 5g1.1(Alexion)	2X20,000(2004)
Medarex	pilot scale	C225(Imclone)	
Medimmune	2X2,500	Synagis	
Roche		Rituxan, Herceptin, Zenapax	
American Home Product(AHP)		Enbrel	3X20,000 6X15,000(2002)
Imclone		C225	3X10,000(2002)

※ 자료, Industry Sources와 J.P Morgan Securities의 추정자료



제4장 - 지구별 개발 계획 및 추진 현황

(3) 셀트리온 사업 현황

(가) 사업 내용 : 동물세포 대량 배양 기술을 이용한 생물 의약품의 개발, 생산, 판매

(나) 핵심기술

- 동물 세포 주개발 및 대규모 배양기술
- 단백질 정제 및 최종 의약품 제조 기술
- 미국 FDA 승인 cGMP시설 확보 및 운용 기술

(다) 사업 현황

- 위 치 : 송도국제도시내 연수구 동춘동 1001-5
- 면 적 : 28천평
- 사업기간 : 2002 ~ 2005(생산설비 설립)
2006 ~ 2009(생산설비 증설 및 연구센터 건립)
- 투자규모 : 1억5천만 달러
- 주요설비 : 발효조 및 정제시설, R&D 연구소 건립

(4) 생물산업실용화센터 사업 현황

(가) 사업 내용 : 바이오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범용 플랜트 설치 운영과 이를 통한 국내 생물산업의 실용화기술 지원

(나) 핵심기술

- 500ℓ 규모의 발효·정제 및 완제품 생산시설
- 미국 FDA 승인 cGMP 시설 확보 및 운용 기술

(다) 사업 현황

- 위 치 : 송도테크노파크내
- 면 적 : 5천평
- 사업기간 : 2001 ~ 2005년(생산설비 설립)
- 사업비 : 350억원
- 주요설비 : 500ℓ 배양기, 1,500ℓ 추가 증설('2009)



(5) 추진 방향

- (가) 생물공정 산업화를 위한 대량 배양기술 및 분리정제기술개발 분야는 현재 2-3개 대기업의 경우 자체기술이 확보되어있으나 공유할 수 없는 상태이며 이러한 시점에서 바이오단지 내의 동물 세포 배양에 의한 단백질의약품 제조업의 유치 및 육성은 세포배양기술의 발전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 (나) 향후 R&D 기능 확보 축구로 자체 제품을 보유할 수 있는 바이오테크회사로 발전 유도하고 CMO 기업육성의 필수요건인 CRO 기업의 육성으로 미국 FDA 및 선진국이 요구하는 cGMP 시설 구축, 국제 인증 바이오 의약품 생산 기반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나) 연구개발 전문 기업(CRO) 육성

(1) CRO의 성장

- (가) 1992~2001년 10년 동안의 전임상·임상 관련 CRO의 성장규모를 보면 세계 시장 규모는 1992년 10억달러에서 2001년에는 79억 달러로 8배 확대되고 현재 전임상·임상 부문에 있어서는 미국 CRO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일본도 이 부문을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다.
- (나) 기업의 수만을 볼 때 미국과 유럽의 의약 관련 CRO는 2002년 미국이 390개, 유럽이 608개사이며 이중 세계 상위 20대 기업에 속하는 CRO는 미국이 16개인 반면 유럽이 3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 세계 연구개발 전문기업 시장 규모 〉

구 분	1992	2001
CRO 시장규모 (억달러)	10	79
상위 20대 CRO 수익 (억달러)	54	6
1억 달러 이상 매출 CRO 수	2	16
CRO 종사자 수 (명)	12,000	94,000
공공거래된 CRO 수	2	19
등록된 연구과제 수	약 700만	약 2,000만

※ 자료 : Hughes and O'Neil, European Pharmaceutical Contractor, Annual Review of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s, Spring

※ CRO는 연구개발을 위탁자(기업)로부터 수탁, 수행하는 사업적, 학술적, 기타 조직으로 정의되는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제4장 - 지구별 개발 계획 및 추진 현황

(2) 세계 제약 산업의 아웃소싱 추진

(가) 세계 제약 기업의 전체 R&D 지출 중 아웃소싱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

〈 세계 제약 기업의 R&D 지출 중 아웃소싱 비율 〉

(단위 : 억 달러)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4	2006	2008
총지출	436	464	516	560	725	869	1,052
자체연구개발	375	395	434	467	586	681	792
아웃소싱	61	70	82	93	139	188	260
아웃소싱비율	14.0%	15.1%	15.9%	16.6%	19.2%	21.7%	24.7%

(나) 플랫폼 기술 분야에 주력하던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신약개발 부문으로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R&D 아웃소싱이 점점 증대되는 추세이다. 비핵심 사업영역, 연구기관의 전문성 활용, 고정비의 변동비화가 필요할 경우에 CRO를 통한 아웃소싱을 고려한다(퀀타일<Quintile, 美> 등 CRO 기업이 크게 성장).

(3) 추진 방향

(가) 국내 CRO의 초기 단계인 임상 단계 연구개발 대행기관의 유치로 향후 CMO기업 및 제약회사의 임상 연구를 수행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선진 의료기관 및 세계적인 임상시험 R&D 센터 유치시 임상 단계 CRO와 연계하여 의료허브화 추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나) 주요 기술 보유 CRO 유치로 연구 기반 토대 확립

- 표적 유전자, 각종 스크리닝 기술 등을 가진 기초기술 관련 CRO
- 활성물질 발굴 및 특정질병 관련 표적분자 발굴 기술을 가진 응용기술 관련 CRO
- 가상 약물 디자인, 생물정보학 기술보유한 정보연구중심 CRO

다) 바이오 산업지원 센터 건립

(1) 필요성

(가) 기업(셀트리온), 연구기관(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의 GMO 기능과 대학연구센터(RRC, ERC, SRC 등)의 고가 장비 공동 이용 방안 필요

-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형성 및 인천 바이오산업 인프라 활용

(나) 국내외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지역 내 정착 유도

- 기술 보유 유망 바이오 기업의 유인시설로 바이오산업 활성화의 촉매제로 기능



(다) 수도권 및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민간기업간 연구개발 정보 네트워크 형성 촉진

(2) 주요 기능

(가) 공동실험실 구축·운영

- 활용성이 높은 범용 장비, 중소벤처기업이 단독으로 도입 곤란한 고가 장비를 기업 수요 조사를 통해 구매
- 기업, 연구소, 벤처기업 개발 기술 시험·분석 지원

(나)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 전문교육기관과 단기강좌 개설
- 시험, 분석 등 실용화 교육을 통한 산업체 인력 기술역량 증대
- 관련 기업들과 연계한 예비 취업자의 현장 실무양성 프로그램 개발

(다) 산·학·연 공동연구 지원

- 신제품 개발 및 기술 상업화 지원
- 선진 기술 이전, 도입 및 공동 프로젝트 지원
- 애로기술 지원

(라) 기술 창업 및 지원 환경 조성

- 국내외 유망 기술 보유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신기술 창업 지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산하 바이오인포메틱스센터와 연계한 최신 기술정보 제공
- 바이오산업 지원단 구성·운영을 통한 기업들의 니즈(Needs) 파악
- 바이오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풀(Pool) 구축 및 활용

(마) 건축 계획

- 건축 방법 : 민자유치를 통한 바이오벤처센터 건립
- 부 지 : 송도5지구 내 주상복합단지 2개 필지 14,000평 활용 예정

라) 전문인력 양성

(1)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가) FDA 또는 cGMP 관련 기술 교육

- 국내 관련 업체를 위한 제반 가이드라인 제공
- 미국 FDA 또는 cGMP 전문가 그룹과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제4장 - 지구별 개발 계획 및 추진 현황

(나) 현장 맞춤형 인력 공급 기반 확대

- 단기 양성 과정 실시

(다) 해외 고급 두뇌 유치를 통한 국내 인적 자원의 한계 보완

(라) 시장 수요와 인력 공급 간의 매칭(Matching) 도모

(2) 해외 관련 기관과 협력

(가) 해외 유사 클러스터 견학

- 미국 :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뉴욕 등
- 일본 : 기타큐슈시
- 영국 : 캠브리지, 옥스포드 등

(나) 우수 인력 교류 및 해외 연수 프로그램 개발, 전시회 참관 및 비즈니스 매칭 지원, 국제 공동 프로젝트 추진, 기술 정보 교류

마) 인접 제약 단지 연계 체계 구축

(1) 집적화 거점간 상호연계 체계 구축

〈국내 3개 권역 16개 바이오 클러스터 현황〉

권역	지역 및 특화분야
대전·충청권(5)	대전(의약), 오송(보건의료), 제천(한방), 영동(기능성식품), 논산(축산)
전라·제주권(4)	전주(천연물 신소재), 나주(식품), 화순(농업), 제주(식물,해양)
강원·경상권(7)	춘천(환경·공정), 강릉(수산), 울진(에너지), 안동(건강산업), 상주(기능성 물질), 진주(화학), 부산(해양생물)

※ 자료 :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산업자원부

(가)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간 정보 네트워크 형성 촉진을 위하여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 장비, 공동 D/B 구축, 인터넷 전자상거래 방식의 연구 장비 공동 구매를 활용하고 수도권 향남제약단지의 중소 바이오 벤처기업과의 연구 기반을 연계.

(나) 정보교환 및 상호연계를 위한 정기적인 토론회, 간담회에 참여하여 사업 기회 마련, 경인권 제약단지와의 연계 등 연구→생산→마케팅의 선순환 구조 형성(향남제약단지 등)을 통한 바이오 산업화 모델을 개발



라. 어민생활 대책용지 개발

1) 사업개요

- 가) 당초 매립 시 공유수면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인근 4개 어촌계 (송도, 척전, 동막, 고잔)주민들(1,265명)에게 어민생활 대책용지를 마련하여 세대별로 50평을 공급한다는 계획 하에 10년 무이자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2005년 3월 추첨 완료한 토지를 공급 매립에 따라 보상 실시.
- 나) 동 지역은 2003년 8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이해관계인의 공람 공고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2003년 12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지구 내 순수주거용은 불허하고 주상복합건물은 상업용 30%이상, 주거용 70%이하의 조건부 가결을 얻었다.
- 다) 어민생활대책용지의 계획 지표는 송도신도시기본계획 및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상구역의 지표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수립, 총사업비 28,123백만원을 투입하여 2005년부터 2008년 상반기를 준공으로 시행예정인 단지이다.

2) 계획지표

구 분		단 위	지 표	비 고
계획인구 및가구	인구	명	11,900	상주인구 11,900, 상근인구 5,500명, 이용인구 117,400명
	가구	호	4,400	인구 ÷ 가구당 인구
	가구당인구	명/호	2.7	
주택건설용지	주상복합	%	100	주택 평균규모 : 33.4평/호
교육용지	초·중·고교 등	개소	—	1공구내 국제업무지구내 반영 확보
공원녹지	공원, 녹지 등	개소, m ²	—	1공구내 국제업무지구내 반영 확보
	광 장	개소	3	규모 : 5,299.2m ²
주차장	주 차 장	개소	6	규모 : 8,929.3m ²
상수도	상수도 보급율	%	100	푸른송도배수지 공급
하수도	하수도 보급율	%	100	하수처리장 처리

3) 토지이용계획

- 가) 주상복합용지 : 소규모 필지는 내측으로 배치하되, 국제업무지구 와 조화로운 양호한 환경의 주거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어민생활용지의 공급 약정의 내용을 수용하여 계획
- 나) 공 공 시 설 : 각종 공공시설은 주민의 접근성, 업무수행 및 인지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학교등 주요 공공시설은 같은 생활권 내의 인근시설을 이용하도록 한다.
- 다) 획 지 계 획 : 획지 계획은 어민분양(50평/1인, 3인 이상 공동 공급) 여건 및 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적정 규모로 계획 분할가능성을 제시하여, 다양한 수요와 변화에 부응



라) 건축물 계획 : 기본적인 건축물의 권장 용도는 공동주택(주거가 70%미만으로 다른용도와 복합된 것에 한함), 제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요양소 제외), 운동시설(옥외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 시설 중 오피스텔 등이며 불허용도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주거가 70% 이상인 것, 공장 등이 있다.

4) 기반시설계획

- 가) 가로망계획 : 체계적인 가로망체계를 구축하여 대상지내 활성화 및 기능 간에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가로망체계 정립
- 나) 광 장 계 획 : 보행자의 진입 부를 이용하여 광장 2개소 조성 및 대상지 심의 보행자 우선도로 및 보행자도로의 접합부분을 광장으로 조성하여 대상지 상권 활성화를 도모
- 다) 주차장계획 : 공공주차장은 산업 기능과 연계하여 대형으로 2개 소 배치하고, 주민 편의 및 주차 수요를 감안해 4개소 분산 배치

마. 송도군사시설 이전사업

1) 사업목적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이 송도 인근 지역에 있는 군사시설로 인하여 사업개발에 저해요인으로 발생함에 따라 토지 이용제한 해소를 위해 군부대와 합의를 체결하여 2005년말 완료 목표로 추진

2) 사업개요

- 가) 사업규모 : 영종지구 금산84,404m², 예단포 115,307m²
- 나) 시설현황 : 군사시설 1식(건물 78동 등)
- 다) 사 업 비 : 885억원(공사비 545억원, 보상비 248억원, 조사·설계 등 48억원)
- 라) 사업기간 : 2000. 8 ~ 2005. 12 (현 공정 96%)



제2절

영종지구 개발계획과 추진현황

1. 개발계획

가. 사업개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역은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운서동, 중산동 570만평 일대에 2016년까지 동북아 허브공항 육성을 위한 첨단 공항 배후 지원 도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1년 영종지역개발 기본계획 및 사업화계획이 수립되고, 2002년 시가화조정구역으로 결정(495만평)되었으며 2003년 8월에 현재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앞으로 개발된 후에는 111,500명 44,480세대가 거주하는 국제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04년도에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공사(90%)와 인천도시개발공사(10%)로 지정하여 2005년 7월 18일 조사설계 용역에 착수해 현재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는 5조 8천억원 소요될 예정이다.

나. 개발방향

영종지역개발사업(570만평)은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국제공항·첨단도시를 건설하여 공항의 배후 지원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자족적 복합기능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거, 교육, 의료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변 수변공간을 활용한 관광레저,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들어서는 첨단 도시로 건설된다.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세계 중심 공항인 인천공항 배후지역에 부도심으로 육성되어 국가균형발전을 꾀한다는 기본 목표를 갖고 있다.

다. 사업방식 및 시행자

1) 사업방식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역(570만평) 개발사업 시행방식은 2001년 기본계획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검토해 2003년 8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 기본원칙을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으로 확정했다. 현재 조사설계 용역 추진 중인 용역사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사업대상 지역의 특성 또는 기능에 맞는 사업방식을 선정할 계획이다.



2) 사업시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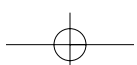
영종지역(570만평)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2003년 7월과 12월 인천광역시에서 각각 한국토지공사, 인천 도시개발공사 측에 사업 참여 검토 협의를 거쳐 2004년 5월에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고 2004년 6월 재정경제 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토지공사가 전체 사업의 90%인 약 513만평을 개발하고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10%인 57만평을 맡아 추진하고 있다.

〈 영종지구 토지이용 계획 〉

구 분	면 적	구 분	면 적
주거용지	1,430,600평(25.1%)	상업용지	167,080평(2.9%)
국제업무	87,600평(1.5%)	관광·문화	318,000평(5.6%)
물류·첨단	625,000평(8.3%)	기타공원 등	3,071,720평(53.9%)

다. 토지이용계획

- 1) 산업물류단지 : 공해없는 첨단 산업유치 및 항공물류 단지조성 등
- 2) 국제업무용지 : 공항인근에 집중배치하여 공항 및 산업단지 종사자 이용편리
- 3) 관광레저 및 수변공간 : 구읍나루 주변 해변가에 관광레저 시설 도입, 대형쇼핑몰 등 엔터테인먼트 시설
지구로 개발
- 4) 경인전철 연결 역세권 : 환승 주차시설과 상업용지를 연접 배치



〈 영종지구 개발사업 토지이용 계획도 〉





2. 기반시설 조성공사

가. 영종지구 기반시설공사

1) 사업규모 : 7개 노선 25.29km, 교량 6개소, 터널 2개소, 공항철도 역사 2개소

2) 사업비 : 3,182억원

3) 사업기간 : 2001. 4 ~ 2009. 12

4) 추진사항

가) 예단포~중산동 간 도로개설공사 ⇒ 2004. 9 착공 (공정 7%)

- 사업규모 : L=5.38km, B=35M
 - 교통광장조성 130,400m²
 - 금산하.C설치(교량6개소, L=1,280.5M, B=4,145~36M)
- 총사업비 : 1,071억원
- 사업기간 : 2004. 9 ~ 2007. 12
- 부 대 공 : 통로암거 238M/6개소, 수로암거 677M/10개소

나) 북측 유수지~남측 유수지간 도로개설공사

- 사업규모 : L=12.12km, B=20~30M(총 사업비 : 1,292억원)
 - 1구간(L=3.86KM, B=25~30M) ⇒ 2002. 10 착공(공정 36%)
- 사업비 : 438억원
- 사업기간 : 2002. 10 ~ 2006. 10
- 부 대 공 : 하수관 8,900M
- 2,3구간(L=8.26KM, B=20~30M) ⇒ 2005. 9 공사 착공
- 사업비 : 854억원
- 사업기간 : 2005. 10 ~ 2007. 12
- 부 대 공 : 파형강관터널 2개소(L=340M, B=30M)

다) 예단포~운북환경사업소 간 도로개설공사 ⇒ 2005. 실시설계 중

- 사업규모 : L=2.53KM, B=35M
- 총사업비 : 280억원





- 사업기간 : 2004. 7 ~ 2007. 12
- 부 대 공 : 하수관(D450~D1,200) L=4,330M

라) 예단포~공항고속도로 간 도로개설공사⇒ 2005. 10 보상열람 공고

- 사업규모 : L=1.96KM, B=11.5M
- 총사업비 : 97억원
- 사업기간 : 2004. 8 ~ 2006. 12
- 부 대 공 : 하수관(D450~D1,000) L=1,590M

마) 영종회주도로 확장공사⇒ 2003. 8 준공

- 사업규모 : 총 L=3.3KM, B=11.5M
 - 신설L=1.15KM, B=11.5M 확장 L=2.15KM, B=11.5M
- 총사업비 : 85억원
- 사업기간 : 2003. 6. 9 ~ 2005. 8. 31
- 부 대 공 : 하수관(D600~D1,000) L=2,513M,
옹벽 L=1,100M, H=2~3M

바) 공항철도 영종역사 건립

- 사업규모 : 기초시설(통로) 및 승강장(상대식)설치,
역사(1,890m²)설치, 광장조성(12,940m²)
- 총사업비 : 252억원
- 사업기간 : 2005. 1 ~ 2009. 12

사) 공항철도 용유역사 건립

- 사업규모 : 기초시설(통로) 및 승강장(섬식)설치, 역사(1,600m²)설치, 광장조성(9,600m²)
- 총사업비 : 104억원
- 사업기간 : 2005. 1 ~ 2008. 3

3. 주요개발사업

가. 운북 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

1) 개발방향

- 관광레저기능 중심의 자립도시형 복합단지 조성
 - 주거, 교육, 상업, 업무, 문화 등이 관광레저 기능과 연계된 부가가치가 높은 단지 조성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장잠재력을 강화
-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21세기 미래형 복합레저단지 조성
 - 관광 유인력 있는 단지로 기존 관광단지와 차별화된 미래형 복합레저단지 조성을 통해 국가정책목표 달성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

2) 사업의 개요

가) 공간적 범위

-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일원
- 면 적 : 2,707,212㎡ (약 82만평, 이주주택지 3만평 포함)

나)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04
- 목표연도 : 2010
- 개발기간 : 2005 ~ 2008

〈 운북 복합레저단지 위치도 〉



3) 대상지 현황

가) 위치 및 접근체계

- 대상지로의 진입이 가능한 도로로 폭 35m의 예단포~중산간 도로(대로 1-502호선)가 2007년말 개통 목표로 공사 중이며, 개통시 운남동, 영종구읍 등에서 접근 가능
- 또한, 공항신도시 I.C.를 거쳐 북측도로(25m, 대로1-501호)를 통해 대상지로 접근 가능하며, 인천국제 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제2공항철도 등으로 인하여 교통서비스의 정시성 확보가 쉽다.

나) 지형·지세

- 대상지가 포함된 영종도는 동북이 높고 서남의 경사가 완만하며, 전체적으로 중앙부가 높은 형상이다. 예단포~중산간도로 도시계획도로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공항철도금산 I.C/ 영종역신공항 I.C기존계획

〈 주변 지역 교통현황도 〉



- 대상지 동쪽에서 남서쪽으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가로지르며, 도로 북측으로는 금산(167m)이 남측으로는 백운산(254m)이 위치

다) 식 생

- 영종도 일대는 소나무, 상수리나무 군락이 군데군데 있고, 곰솔이나 소사나무 등 몇 종의 해안성 식물이

보이며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순비기나무, 통보리사초 등이 분포하고 있다.

- 녹지자연도상 7등급 이상 지역이 개발대상지의 24%를 차지하며, 특이한 야생식물은 없고 다람쥐, 산토끼 정도가 서식한다.

라) 경 관

- 운북지역은 전형적인 해안·도시 경관과 농어촌 풍경이 공존하는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다.
- 영종도 주변 공유수면에는 간조 때 광활한 갯벌 경관이 연출되고, 운남 해안 일부에 발달한 해식애 지대는 지형적으로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종합 분석도 〉



4)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가) 추진경위

- 2003. 8.11 :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9호)
- 2004. 3.31 : 인천광역시와 한국중화총상회간 차이나타운조성을 위한 양해 각서(MOU) 체결
[투자약정액 20억 달러]
- 2004. 4.22 : 운북 복합레저단지 내 건축허가 제한(2년)
- 2004. 7.12 : 기본설계용역 착수(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5. 4.18 : 운북 복합레저단지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 개최
- 2005. 5.19 : 운북 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변경(안) 승인신청(재정경제부)
- 2005. 8.24 : 운북 복합레저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재정경제부)

나) 향후 계획

- 2005.10 : 용지보상 착수
- 2005.11 : 운북 복합레저단지 실시계획승인 신청
- 2005.12 : 운북 복합레저단지 실시계획승인
- 2006. 6 : 공사 착공
- 2008.12 : 사업 준공

5) 토지이용계획

가) 기본방향

- 전체공간의 차별화 및 세부공간의 유기적인 결합
 - 인천지역의 문화적 성격과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특성있는 계획과 향후 추가 확장 기능성 등을 고려한 계획 수립
 - 접근성, 환경성 및 각 기능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업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국제 업무단지 배치
 -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를 위하여 이주·생활대책을 수립하여 계획에 반영
- 신문화의 21C 신공간 개념 도입
 - 입지적·위치적 성격에 따른 특성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자유치 및 민간투자를 통한 계획대상지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단계적 개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
-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 대상지의 기존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개발에 따른 자연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개발 가용지의 규모, 외부에서의 접근성 및 이용행태 등을 고려하여 조성사업이 균형있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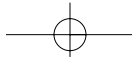


제4장 - 지구별 개발 계획 및 추진 현황

- 자연여건을 적극 활용하고, 남북축을 녹지 및 수변공간 등으로 연계한 그린네트워크 구축
- 외국인 정주환경 제고
 - 본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유입되는 외국인의 정주환경조성을 위하여 외국인 취향에 부합하는 주거 단지 조성을 위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배치 및 행정지원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 관련시설용지 계획
- 효율적이고 편리한 도시 조성
 - 주변 교통시설의 활용 및 확충으로 외부와의 원활한 연계성 확보 및 안전하고 효율적인 가로망 체계 구축
 - 자족기능을 위한 교육·문화·의료시설 및 각종 공공서비스시설 계획 및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생활권을 고려한 기능별 적정 배치

〈 토지이용 계획표 〉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	평		
합 계		2,707,212	818,932	100.00	
주택 건설 용지	공동주택용지	350,474	106,018	12.95	
	단독주택용지	206,096	62,344	7.61	
	근린생활시설용지	8,725	2,639	0.32	
	소계	565,295	171,002	20.88	
상업 · 업무 시설 용지	상업시설용지	162,415	49,131	6.00	
	업무시설용지	52,698	15,941	1.94	
	주상복합용지	86,371	26,127	3.19	
	준주거용지	6,999	2,117	0.26	
	소계	308,483	93,316	11.39	
관광 시설 용지	문화시설용지	15,750	4,764	0.58	
	숙박시설용지	78,742	23,819	2.91	
	위락시설용지	121,263	36,682	4.48	
	소계	215,755	65,266	7.97	
공공 시설 용지	도시기반시설	1,610,213	487,089	59.48	
	종교시설용지	1,330	402	0.05	
	주유소·충전소	6,136	1,856	0.23	
	소계	1,617,679	489,348	59.76	



〈 토지이용 계획도 〉



6) 주요 시설계획

가) 기본방향

- 토지이용과 지형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정된 시설물을 토대로 하여 각 시설지별 주제에 부합되도록 충분한 옥외공간을 확보, 공간이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시설배치계획을 수립
- 각 시설별 수요추정에 의해 적정규모의 시설을 설치하되 입지특성, 기능 등을 고려하여 독립성이 유지되면서 상호연계가 가능하도록 전체적인 조화 유도
- 각 시설은 기능 및 공간구상에 따라 배치하되 일조, 채광 및 전망을 고려하여 방향을 선택하며 건물의 형태 및 색채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시각 쾌적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계획

나) 지구별 계획

- 레지던스 차이나(Residence China)
 - 바다를 배경으로 한 삶의 공간
 - 지역주민의 정주권 보장 및 참여기회 제공
 - 지역주민, 아시아 지역민이 함께하는 생활공간



제4장 - 지구별 개발 계획 및 추진 현황

- 주거, 교육, 상업, 의료의 공간
- 콤플렉스 차이나(Complex China)
 - 단지 내의 핵심공간으로 물리적 장벽이 없는 삶의 공간
 - 중국과 교류의 장으로서 중국문화 및 중국기업의 한국·동북아 진출의 전진기지
 - 레저, 업무, 쇼핑, 주거, 교육 등의 복합 공간
- 파크 차이나(Park China)
 - 중국문화의 감동과 미래를 체험하는 공간
 - 젊은 층의 관광객 유도를 위한 유인 시설
 - 숙박, 위락, 식음, 쇼핑, 업무, 해양 체험의 공간

다) 시설지별 상세계획

(1) 주거시설지

- 이주단지는 대주민 사전협약시설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주민 및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노외주차장 및 근린상가, 종교시설 등을 적절하게 배치
- 주민의 쾌적한 정주환경조성을 위한 충분한 오픈 스페이스 제공
- 공동주택은 주변여건 및 Sky Line을 고려하여 바다가 조망되는 한 고급리조트형 고밀주거단지 및 중밀탑상형, 해양휴양을 중심으로 한 저밀주거단지로 조성
- 단독주택은 수도권 인근의 유일한 고급형 타운 하우스 개념의 단지로 필지당 150~200평의 고급 주거공간으로 조성
- 주상복합은 장기체류자 및 비즈니스맨을 위한 주거 시설로 인접건물과 층고를 고려하여 12~15층 규모로 조성

(2) 상업시설지

- 그룹화된 시설지의 초입이나 시설의 성격상 이용객의 집분산이 예상되는 결절부에는 광장을 계획하여 이벤트를 수용하고 동선의 흐름을 유도하여 다양한 문화활동을 수용하도록 조성
- 시설지 내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지정해 보행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독특한 컨셉의 거리로 특화해 거리 자체의 매력도를 높인다.



- 차이나몰

- 중국고유의 음식을 맛보고 전통식품, 기호품 등 제조과정 및 판매를 통해 중국의 식문화를 배우고 발견하는 곳
- 보행자 전용도로를 통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배치
- 단순한 식음료 외에도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도록 장터나 각종 음식이벤트를 개최하여 오락, 휴식 등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

- 라이프스타일 쇼핑몰

- 단순한 쇼핑공간이 아닌 테마를 가지고 연출된 공간
- 보행자 전용도로를 통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배치
- 커뮤니티 쇼핑몰과 테마형 쇼핑몰 중심의 다양한 형태의 문화체험과 상품구입을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위락공간으로 조성

- 씨맨스트리트(영문처리)

- 주민 참여 수익 시설로서 조성, 기존 어촌 시설의 활성화
-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충분한 오픈스페이스 확보로 식음료 외에도 이벤트, 퍼레이드, 오락, 휴식 등 다양한 이용행태가 수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조성

(3) 공공시설지

- 공원·녹지는 단지의 환경친화적 계획을 위해 해양과 산림생태계를 연결하는 생태녹지축을 형성하도록 한다.
- 공원은 생활권내 주거유형과 배치거리를 고려하여 계획, 거주민의 이용성을 높인다.
- 또한, 각 공원은 입지별 특성을 고려, 각각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부여하며 특히 해안별 공원은 기존 수로를 활용 기수생태공원으로 조성 학습, 체험의 기능을 갖추도록 한다.
- 공공지원시설은 방법 및 질서유지, 관리통제기능과 행정지원기능을 가지는 소방서, 파출소, 전화국, 우체국 등을 그룹화하고 주민의 의료 및 보건시설인 병원은 이용객의 접근이 양호한 곳에 조성
- 광장은 그룹화 된 시설지구의 초입이나 시설의 성격상 이용객의 집분산이 예상되는 곳에 광장을 계획하여 동선의 흐름을 유도하고, 각 시설지의 특화된 공간으로서 조성
- 광장은 진입광장 성격으로 계획하여 이용객의 집분산과 레저단지의 진입부로서 인지성을 높이고 보행자 도로와 연계되는 광장은 집산광장으로 계획하여 이용의 활성화와 편의를 제공

제4장 - 지구별 개발 계획 및 추진 현황

- 주차장은 시설규모 산정지표에 의해 계획하되 시설성격과 이용자의 행태를 고려하여 분산배치하며, 가급적 지형훼손이 없는 평탄한 곳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전면도로에서 법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배치형태를 조정하거나 조정계획, 차폐식재 개념을 도입

7) 공급처리시설에 관한 계획

가) 상수도시설계획

(1) 기본방향

- 상수도시설계획은 ‘인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상수도시설기준’에 의거하여 수립
- 용수 수요는 단지 이용객 및 종사자의 생활용수와 공공시설에 대한 공공용수를 확보토록 계획하고, 공급 시기는 부지개발 완료 후로 계획하되, 공공시설부지에 대하여 일부 우선 공급토록 계획
- 용수공급은 수질, 수량, 시공성, 공사비, 유지관리의 편의성 등 다각적인 측면을 비교 검토하여 계획하고 균등급수, 안정급수, 경제급수가 되도록 관망 계획을 수립

(2) 용수공급계획

- 용수공급계통



〈 상수 공급 계통도 〉





나) 하수도시설계획

(1) 기본방향

- 하수배제계획은 방류지역의 수질오염 방지, 배제시설의 안정성, 운영과 처리효과,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고, 기존배수 체계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계획
- 강우유출량 증가 및 하천 침투 유입시간 단축에 따른 하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지 내 하천 방류 구측에 저류지를 계획
- 우수 및 오수 배제는 계획대상지의 범위를 설정한 후 지형여건과 도로계획, 시설배치계획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수립

(2) 우수시설

- 계획우수량 산정
 - 우수유출량 산정공식
 - 합리식에 의한 계산방법은 유출곡선이나 최대 유출량 발생시간 등을 명확히 계산할 수 없는 한계와 유출계수 적용상의 주관성 문제가 있으나, 국내 설계에 주로 사용되어 그 적용성이 입증된 합리식으로 계획우수 유출량 산정

$$Q = \frac{C \cdot I \cdot A}{360}$$

여기서,
Q : 계획우수유출량 (m³/s)
C : 유출계수
I : 유달시간내의 평균 강우강도 (mm/hr)
A : 배수구역면적 (ha)

- 유출계수
 - 유역내의 토질 · 식생 · 건폐율 · 도로율 · 포장율 등을 감안하여 하수도시설 기준의 토지이용도별 기초유출 계수와 총괄유출계수 적용
- 강우강도
 - 합리식에 의한 유출량 계산에 사용되는 배수구역의 최상단에서 하류지점까지 우수가 유하하는 시간에 대응하는 계속 시간의 강우강도를 취해서 최대 유출량을 산정

제4장 - 지구별 개발 계획 및 추진 현황

(3) 오수시설

- 계획오수량 산정
 - 단지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은 공공시설지에서 발생하는 공공오수와 숙박시설지 및 주거단지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 상업시설지 및 업무·복합시설지에서 발생하는 영업오수 등으로 구별되며 다음과 같다.
- 오수배제계획
 - 오수배제는 자연유하식을 원칙으로 관거는 수밀구조로 계획
 - 시설지별 발생오수는 오수관로를 통해 기존도로에 계획 중인 신설 오수차집관로를 통해 운북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토록 계획
- 관로시설계획
 - 관중 선정
 - 유수성격상 수밀성을 확보하여 주변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지하수 유입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에 부담을 주지 않는 구조체를 선정

〈 오수 계통도 〉



- 지반침하에 대한 관체의 대응성, 내식·내화확성이 강한 구조체를 선정
-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에 비하여 공사비가 다소 고가이나 최근 오수관으로 많이 사용되고, 유동성이 있어 지반대응력이 우수하고, 내화확성과 수밀성이 우수한 이중벽 구조 폴리에틸렌 하수관을 적용
- 관경 결정
 - 오수본관은 최소 D400mm의 이중벽 PE관으로 하며, 오수연결관은 D150mm로 선정



다) 에너지공급 및 이용계획

(1) 기본방향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정연료의 사용과 열 및 전력공급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
- 경제자유구역 전체 지역난방 도입에 따라 에너지절감 및 대기환경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큰 집단에너지 방식 도입

8) 도시경관계획

가) 기본방향

(1) 기본방향

- 새로운 영종도 관광지 시대의 시작과 영종도 진입부로서의 입지적 중요성을 고려한 경관계획 수립
-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관광레저 중심의 복합단지 조성 목적에 부합되고, 주거지 위주의 신도시 경관과 차별화된 경관계획 수립
- 개발구역 내외의 자연경관과 신규 조성되는 인공경관이 어우러지는 경관계획 수립
- 개발개념(China City)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상업지역 가로경관 계획 수립
- 바닷가에 연접한 수변공간(Waterfront)과 그에 조화되는 건축을 위한 수변경관계획 수립
- 저층개발을 위주로 하면서 일부 중고층개발 시 우려되는 문제점을 적절히 해소함으로써 충분한 원경조망이 이루어지는 경관계획 수립

나) 경관계획

(1) 경관계획 목표

- 개별 구역별 성격에 부합되는 경관적 이미지 부여
- 차이나타운 조성지역에 적절한 가로이미지 구현
- 저층 위주의 스카й 라인과 랜드마크 건축물의 적절한 조화
- 수변관광지 등의 개성적 성격이 부각되는 경관 특성화
- 공원, 녹지 등의 자연적 환경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녹지경관 형성

(2) 기본구상

- 도시경관



제4장 - 지구별 개발 계획 및 추진 현황

- 도시 전체적으로 중고층 위주의 경관 형성 및 중요 지점과 남측 구릉지변으로 고층 유도
 - 중심부 상업지 보행로변으로 저층 상가를 유도하고, 간선도로변에 면한 업무시설 및 도시외곽부에 점적으로 입지한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의 중고층 배치를 통해 도시 스카인 라인의 변화 형성
- 남측 구릉지에서 바닷가로 이어지는 자연지형의 흐름에 순응
 - 지형 표고에 의한 자연적 스카이 라인의 흐름에 맞춰 인공적 스카이 라인 조성
- 가로경관
 - 동측 상업지역 중심 보행로를 차이나타운으로 조성
 - 차이나타운 구성에 적합한 건축물의 형태, 색채, 옥외광고물의 중국식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는 기준 도입
 - 중심 보행로변으로 1층 벽면지정선 또는 건축지정선 등의 지정을 통해 보행자의 접근성 제고
 - 공공부문에서 가로포장 패턴 및 진입부의 차이나타운 상징 조형물의 설립
 - 상업지역 내 내부도로는 보행자 위주의 동적인 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가로로 조성
 - 도로의 구조를 보행자 중심 및 안전에 중점을 두고 계획
 - 건축선 후퇴 또는 공동주차출입구를 통해 보행공간 확보 및 보차교차점을 최소화
 - 고급단독주택지내 가로경관
 - Woonerf(녹지가 있는 도로) 등과 같은 도로구조 및 포장패턴의 차별화로 보행자 위주의 도로 조성
 - 대상지 북동측 대규모 외국인학교에 인접한 단독주택지는 외국인학교 및 인근 중고등학교와 연계된 교육시설 지원용도로 조성
 - 간선도로변으로 탑상형 건물에 의한 가로벽 형성 방지
 - 고층건물의 경우 탑상형 건물을 유도하여 통경 공간 확보
 - 간선도로의 교차부 및 주요 진입부, 시설 등은 랜드마크화
 - 주요 지점 및 시설물은 건축물의 형태, 상징조형물의 설치로 위치성 강조
- 오픈스페이스 경관
 - 남측 구릉지에서 해변으로 이어지는 주요 녹지경관 유지
 - 남측 구릉지에서 북동측 수변으로 이어지는 주녹지축 유지
 - 대규모 외국인 학교가 들어서는 대상지 북동측 수변을 따라 공원을 조성하여 해안가를 따라 형성되는 오픈스페이스 경관 형성

나.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

1) 관광단지 지정 현황 및 대상지 여건

가) 지정현황

- (1)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도, 무의도 일원(서해 중부연안에 소재하며,
서울 도심에서 서쪽으로 반경 약 50km 거리에 위치)
- (2) 지정면적 : 7,030,000㎡(약 213만평)
 - 1999. 10. 20 : 관광단지 지정(189만평)
 - 2000. 2. 25 : 관광단지 변경 지정(213만평)

〈 용유·무의 관광단지 위치도 〉



나) 자원성

- (1) 용유도의 을왕리 해수욕장, 왕산 해수욕장, 마시안 해변과 무의도 실미 해수욕장, 하나개 해수욕장 등에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 (2) 왕산낙조, 비포장군바위, 선녀바위, 명사십리 해당화, 오성단풍, 잠진어화, 무의조무, 팔미귀범 등의 용



유8경을 비롯한 많은 비경으로 이름 높다.

2) 용유 · 무의 관광단지 조정계획(안)

가) 개발목적

(1) 인천 국제공항 배후의 동아시아 관광교류허브 조성

- 공항배후 해변에서 다양한 관광활동을 통해 상호간 교류와 문화접촉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

(2)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인천의 마케팅 포인트 육성

- 경제자유구역 내 유치를 목표로 하는 외국인 비즈니스 및 정주객에게 쾌적한 일상권 해변휴양 공간 제공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인천의 대표 브랜드이자 국제사회에 인천의 가치를 알리는 마케팅 포인트 역할

(3) 해양경제 전초기지 구축

- 용유 · 무의 지역을 서해안 해양경제효과를 흡수하는 기점으로 육성
- 산업 · 물류 중심의 항만경제시대에서 관광개발을 통해 ‘해양경제시대’ 를 여는 견인차 기능 부여
- 갯벌 등 해양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절한 활용으로 자연친화형 관광지 조성

나) 개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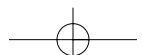
(1) 계획의 기본방향

(가) 지역 · 지구별 특성화 및 집적화

- 각 지구별 여건을 중시하여 테마를 설정하고, 특화된 각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관광단지군으로 조성
- 특화공간은 자연환경조건과 입지여건을 감안해 활동과 시설을 적정하게 도입하고 자연환경 훼손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시설을 집약적으로 배치
- 시설개발에 있어 부지조성에 따른 지형훼손의 최소화과 관광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은 집적화, 기능은 분산화해 배치

(나) 교통 및 동선체계의 고도화

- 교통접근 편의를 최대로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교통수단(유람선, 여객선, 신교통수단)을 개발하도록 하고,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는 외래 관광객의 접근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적인 교통체계를 구성
- 단지 내 이동은 파크 및 라이드 시스템(Park & Ride System)을 적극 도입해 차량 이동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





- 특히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는 이동의 목적이외에도 관광, 산책, 이벤트 등 휴양·문화의 목적으로 조성하여 매력적인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개발

(다) 토지의 적절한 이용

- 공간구성은 본 관광단지의 입지 및 개발부지의 여건을 감안하여 3지구 - 앨리스 랜드, 마린 월드, 드래곤 시티로 구분하여 기능 및 성격을 부여하고, 각 관광단지 지역별로 특화된 관광단지구로 개발하되 상호 연관성을 유지
- 시설별 토지이용은 각 공간별로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상관성, 이용자 상태, 관리의 용이성 등을 분석하여 단지 전체적으로 연계성을 유지

(라) 녹지 및 휴게공간의 최대한 확보

- 쾌적한 관광단지를 위해 전체 관광단지의 녹지율을 80%이상으로 유지하고 경관의 훼손을 방지
- 충분한 옥외공간을 확보하여 이용공간을 극대화하여 서비스 공간 및 휴식 공간을 충분히 계획하며 공원이 아닌 원형녹지에도 휴게공간을 적절히 배치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용유도 해변.

〈 용유 · 무의 관광단지 기본구상도 〉





3) 지구별 계획

□ 용 유 도

가) 기본방향

- 숙박·상업·운동오락 시설이 집중적으로 개발되는 대중적 관광지로 개발
- 유사 기능의 집적화를 통한 명소화 유도
 - 단지 내의 대중적 체류 기능: 호텔군, 콘도, 유스호스텔, 실버타운
 - 친수가능성 제고: 머드파크, 마리나, 해수위터파크 등
 - 쇼핑과 상업의 중심 스트리트 조성: 면세점, 식음, 쇼핑몰
- 수용여건 대폭 확충, 물리적 환경정비를 통한 해변휴양지 분위기 조성
- 마린월드와 드래곤시티로 지구 구분

나) 마린월드

(1) 선녀마을

- 자연경관이 뛰어난 해안지역에 입지한 미래지향적 실버타운으로 개발
- 실버타운 이용자를 위한 첨단시설의 도입과 최적의 자연환경 보전으로 실버타운의 수준 고도화
- 한국전통공예촌을 유치하여 해변과 문화적 소재 조화

(2) 용유플라자

- 4계절 유인력을 갖춘 해수위터파크, 실내 스키돔 등 운동오락시설을 한데 모음
- 일반 상가 및 호텔, 전시관람시설 건립

(3) 머드파크

- 전시, 학습, 운동, 오락, 감상 등 다양한 여가 기능이 복합된 '자연형 레크레이션 지구'로 조성
- 머드파크내 식물원, 화훼원 등을 조성하여 자생식물과 해안식물의 학습의 장으로 활용
- 유스호스텔을 조성해 동아시아지역 청소년과 국제 배낭여행객 수용
- 해안선 배후에 중심 상업지구 성격의 쇼핑스트리트를 조성하여 면세점, 식음시설, 쇼핑아울렛, 기념품점 등 조성

제4장 - 지구별 개발 계획 및 추진 현황

(4) 엔터테인먼트센터

- 용유무의 관광단지의 진입부로서 숙박, 상업, 활동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중심센터로 개발
- 외국인 체류의 거점으로 특급호텔군을 조성하며, 카지노를 비롯한 고급 쇼핑가와 유흥가를 복합적으로 개발하여 중국·일본 관광객 유치거점의 고급 위락전문 지구로 개발

(5) 마린파크

- 교통센터를 설치하여 교통의 구심적 역할 담당
- 선착장 시설은 기존시설을 확장하고 유희시설을 계획

〈 마린월드 토지이용 계획도 〉



다) 드래곤시티

(1) 왕산빌리지

- 주거, 쇼핑, 관광이 제공되는 도시지원 및 휴양기능을 겸비한 복합리조트 조성
- 공항근무자, 장기체류 관광객 등을 위한 숙박시설을 해변에 조성하여 대규모의 녹지를 확보하며 공공시설 등 근린생활지원시설 등을 확충하여 선진리조트 지향

- 수상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욕구 증가로 이용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므로 관광단지 내의 요트, 보트, 수상스키 등 해양수상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리나 설치

(2) 을왕 파크

- 을왕리 해수욕장은 한국의 토속적(재래적) 유원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현재의 개발상황을 유지하며, 지역주민의 시설 정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접근
- 해수욕장 주변의 공공지원 기능을 확충하고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보전

〈 드래곤시티 토지이용 계획도 〉



□ 무 의 도

가) 기본방향

- 용유지역 관광개발사업과의 보완성 및 차별성을 고려하여 위락 중심의 하드웨어 개발에서 탈피하여, 심미적 관광체험의 질을 보장하는 동북아의 대표적 에코리조트로서 매력물(attractions)을 확충
- 기존 지형 및 자연생태자원을 최대 활용한 식물원, 정원, 곤충원 등을 조성해 바다, 낙조, 생태상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복합적 에코파크로 개발
- 원칙적으로 자동차가 없는 사람과 자연 중심의 섬으로, 자연속의 휴식을 체험하며 일상생활로부터 탈출

제4장 - 지구별 개발 계획 및 추진 현황

한 요새와 같은 분위기를 형상화하여 오감의 만족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요람 같은 공간으로 개발

- 도로는 기존 도로 선형개량 차원적 접근을 취하고 일반 관광객의 자동차 진입은 원칙적으로 억제하도록 한다. 신교통수단, 전기자동차 등을 네트워크 수단으로 도입하고, 도보, 자전거, 승마 등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쾌적하고 특색있는 이동환경으로 조성
- 체류시설은 자연지형에 맞게 저층의 숙박시설만 조성하고 생태적 수용력을 고려하여 대규모 숙박시설 공급은 배제

나) 매직피아

- 해변 친수공간과 함께 가족형 휴양·문화시설을 개발
- 허브가든, 세계의 정원, 곤충관 등 자연생태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휴양문화시설을 자연지형에 맞게 다양하게 조성하여 독특한 관광경험을 제공하도록 한다.

다) 하나개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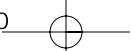
- 관광객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천혜의 자연 자원인 하나개 해수욕장의 접근 동선 및 편의시설을 재정비하고 수변 문화공간 및 펜션형 숙박시설을 설치해 고급 해변휴양지로 개발
- 지역주민들이 상업시설 운영을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
- 해안선 배후에 승마장을 계획하여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자연친화적 이동수단으로서 승마 활용

〈앨리스랜드 토지이용 계획도〉



라) 엔젤타운

- 전망포인트가 되는 무의도 남단에 저층의 콘도, 전망형 상업 등의 시설을 조성하여 가족형 테마 휴양지로 개발



〈 용유 · 무의 관광단지 토지이용 계획(조정) 총괄표 〉 (단위 : m²)

구 분		부지면적	연 면 적
계		6,952,980	965,910
숙 박	소계	738,550	446,700
	호텔	247,820	164,180
	고층형콘도	85,710	137,000
	저층형콘도	269,220	100,100
	펜션	61,030	20,420
	유스호스텔	74,770	25,000
상 업	소계	370,700	278,800
	일반상가	254,540	185,100
	복합상가	64,690	61,400
	전문상가	14,780	14,000
	쇼핑몰	36,690	18,300
운동 · 오락	소계	314,470	77,900
	해수욕장	47,220	700
	마리나	46,250	5,700
	스키돔	39,120	15,000
	해수 워터파크	56,040	25,000
	스포츠센터	14,030	7,000
	유흥시설	36,410	9,000
	카툰월드	68,160	14,500
	승마장	7,240	1,000
휴양 · 문화	소계	553,130	104,600
	조경녹지	123,570	1,800
	공예촌	227,130	29,500
	전시관람	14,270	37,500
	머드파크센터	34,360	9,000
	오토캠핑장	6,090	300
	곤충관	26,330	6,000
	테마식물원	64,160	12,000
	세계의 정원	46,630	3,000
	문화시설	10,590	5,500
공공 · 편의	소계	604,806	23,200
	도로	398,006	-
	오수처리장	38,770	2,100
	교통센터	31,750	13,700
	배수지	15,220	500
	선착장	2,400	500
	주차장	85,080	700
	폐기물처리장	19,170	300
	공공시설	14,410	7,000
기 타	소계	4,371,324	34,710
	녹지	4,308,970	-
	공유수면	15,114	-
	이주단지	47,240	34,710

주 : 경정장 시설 제외에 따른 관광단지 지정면적(7,030,000m²)과 토지이용계획상 부지면적의 차이 발생



4) 주요시설 도입 방향

가) 숙박시설

- 다양한 계층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계획하되 단기체재와 장기체재, 거주형 등 다양한 시설을 계획하고 지구별로 특성화
- 무의도 내 숙박시설은 지형 및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저층의 빌라형 콘도와 별장형 펜션만 건립
- 이하 시설은 조정 토지이용계획과 관련되는 예시 시설.
- 향후 법정 계획 수립 시 조정 · 변동 가능성.

(1) 호텔

- 시설집약형 개발구상으로 호텔 내에 카지노 등의 위락시설을 도입하여 호텔이용을 제고
- 카지노, 마리나 등 각종 관광시설의 이용객을 겨냥한 고급숙박 시설을 개발

(2) 휴양콘도미니엄

- 층고에 의하여 고층형과 저층형 등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며, 고층형은 5층 이상의 건물이고 저층형은 그 이하의 층고를 가진다.
- 저층형 콘도미니엄은 부지에 단독건물로 조성되는 ‘별장형’ 에서 2~3층 높이의 공동주택 형태의 건물로 조성되는 ‘빌라형’ 까지 다양한 종류로 조성

(3) 펜션

- 주로 무의도 내 조성되는 숙박시설로 주변 환경과 어울리며 바다를 향하도록 계획

(4) 유스호스텔

- 동북아 수학 여행객과 배낭 여행객, 가족 등 소규모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유스호스텔로 조성

나) 운동 · 오락시설

- 바다에 인접한 해양리조트인 점을 감안하여 수변을 활용한 시설을 도입하되 사계절이용이 가능한 시설로 계획
- 운동 · 오락시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지구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타 관광시설과 분리하여 배치

(1) 마리나

- 수상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욕구증가로 이용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므로 관광단지내의 요트,



보트, 수상스키 등 해양수상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리나를 설치

- 소형 선박의 계류 혹은 접안을 위해 설치하며 수상활동 중 단순히 생산, 운송을 제외하고는 여타의 활동이 낙후되어 있으므로 관광목적으로 운행되어지는 요트 등의 소형 선박용 마리로 조성한다.
- 시설입지의 적정성과 수역 확보 및 조류 문제, 운항의 안정성 등 다양한 검토 결과 용유도 북단에 위치하는 드래곤시티 내 왕산빌리지에 마리나를 짓는다.

(2) 해수위터파크

- 해수와 머드를 이용한 위터파크로서 실내에서 4계절 해양활동을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로 개발
- 시설의 고급화·규모화를 통해 중국관광객 등 국제관광객 적극 유치

(3) 실내 스키돔

- 4계절 스키강습과 실내스키를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운동오락시설로 조성

(4) 카툰월드

- 만화 속의 주인공을 소재로 한 관람 시설과 유희시설 등을 구비한 만화세계를 주제로 중규모 테마파크를 개발토록 해 가족단위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예: 레고랜드)

다) 휴양·문화시설

- 전시관 등은 시설의 특성상 지형에 의해 둘러싸인 곳에 배치하되, 숙박시설 및 상가시설 입지지역을 충분히 확보하여 이용의 편의를 도모
- 전망과 휴계를 위한 시설을 경관이 양호한 곳에 배치하며, 갯벌과 인접한 곳은 갯벌생태전시관 등을 배치

(1) 실버타운(가칭 '선녀마을')

- 노인계층을 위한 선진국형 휴양촌을 조성하여 노인의 주거, 건강관리 및 취미활동 등이 완비된 복합기능을 구비
- 숙박시설은 별장형 또는 빌라형의 저층형 콘도로 조성하되 규모는 35평형 이상으로 한다.

(2) 머드파크센터

- 지역별, 자원의 가치별로 등급을 구분하여 자연자원 보전 및 다양한 해양학습활동이 일어나도록 개발한다.
- 간조 시/만조 시, 계절별, 시간별 등 다양한 생태리듬에 부합하도록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 여가, 학습,

제4장 - 지구별 개발 계획 및 추진 현황

채취활동 등이 전문적인 가이드의 지도하에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계획하고 주요 시설은 관찰시설, 전망대, 편익시설 등을 조성한다.

(3) 정원 · 식물원

- 관광객에 심적 안정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 효과를 갖는 정적 관광시설로 조성한다.
- 다양한 계층의 내외국인에게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테마형 공간으로 개발한다.

(4) 해변관광녹도(가칭 'Shining Road')

- 용유 · 무의도의 해안과 주요 관광시설을 경유하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계획
- 도로 중간에 포켓을 두어 단시간 체류하며 이벤트나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계획

라) 기타시설

(1) 이주단지(가칭, 정다운 마을)

- 가칭, 정다운 마을은 국내 최고수준의 자연환경 속에 쾌적하게 조성되는 자연친화형 주거단지로 한 차원 높은 주거문화를 선보이는 장으로 조성
- 해변경관이 펼쳐진 평탄지에 둘러싸인 동 지구는 본 관광단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지역주민 관광단지 종사원 등을 대상으로 총 340세대 규모로 마린월드 내에 조성
- 주거환경의 고려없이 공동주택만을 조성하는 기존 이주단지계획과는 달리 지역주민의 거주생활환경을 신도시의 수준으로 높인 선진형 주거단지로 조성하도록 하고 단지 내 운동장, 소공원, 휴게시설, 주민회관 등 각종 근린시설과 편익시설 설치
- 단지와 인접한 관광단지 간선도로로 접근이 편리한 교통망을 확보하고 주민의 편익을 위한 공간을 단지 내 조성하며 해변 관광녹도의 경유지가 되도록 한다.

4. 인천국제공항

가. 공항건설 개요

인천국제공항은 면밀하게 수립된 마스터플랜에 따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의 인천국제공항 시설은 그 중 1단계에 해당된다. 공항의 시설이 얼마나 잘 갖추어졌느냐는 공항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인천국제공항은 계획단계에서부터 21세기 항공시장의 변화를 충분히 감안하여 미래지향적으로 건설되었다.

먼저, 인천국제공항은 지리적·경제적으로 천혜의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동북아 경제권역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어 거대한 잠재시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미주와 유럽지역 어느 곳이라도 항공기가 논스톱 운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내륙과 떨어진 해상에 위치하고 있어 현대의 공항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항공기 소음’ 으로부터 자유로울 뿐 아니라 해상매립을 통하여 1,700만평의 방대한 부지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향후 항공수요의 증가에 따라 공항시설을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다.

또한 해상에 건설된 공항임에도 타 공항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건설되어 주변 공항보다도 가격경쟁력의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실제로 인천국제공항의 공항사용료는 상하이의 푸둥공항이나 일본의 나리타, 간사이공항의 30 ~ 7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인천국제공항에는 차세대 초대형·초음속 항공기의 출현이나 각종 항행안전장비의 발전과 같은 미래 항공산업의 추세가 정확히 반영되어 있다. 활주로는 2008년경 취항 예정인 A380같은 초대형 항공기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며 악천후 하에서도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보장할 수 있는 세계 최고수준의 항행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1단계 시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355만평의 부지 위에 길이 1.06km에 63빌딩 3배에 달하는 연면적 15만평의 우리나라 최대의 단일 건축물인 초대형 여객터미널을 갖추고, 3,750미터의 활주로 2개가 장대하게 펼쳐져 있으며, 100.4미터 높이의 관제탑이 고대의 오벨리스크처럼 웅장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다. 이렇게 건설된 인천국제공항은 연간 3천만명의 여객(하루 82,000명)과 270만톤(하루 7,400톤)의 화물, 24만회(하루 660회)의 항공기 운항을 수용할 수 있다.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사업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급증하는 항공수요를 수용하고 경쟁우위를 위



제4장 - 지구별 개발 계획 및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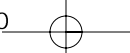
한 시설기반을 갖추기 위하여 이미 2002년부터 2단계 공항 확장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좀 더 다양한 지원능력의 확충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4조 7천억원이 투입되는 2단계 확장사업은 2008년까지 진행되며 이것이 마무리될 경우 인천국제공항은 연간 4,400만명의 여객과 450만톤의 화물, 41만회의 항공기 운항을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지금보다 약 50% 정도 확대된 시설용량을 갖추게 된다.

공항확장사업은 항공수요의 증가추세에 따라 2020년까지 계속될 계획인데 최종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여객 1억명, 화물 700만톤, 항공기 운항 53회를 수용할 수 있는 매머드급 공항으로 변모할 것이다. 다양한 고객의 Needs에 부응할 수 있는 복합적 다기능을 요구받고 있는 현대 공항의 흐름을 반영하여 인천국제공항은 공항시설의 확충과 함께, 물류·비즈니스·오락·숙박·쇼핑·오피스·문화 기능을 망라하는 국제적 항공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공항이 들어선 영종도 일원이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공항 인근에는 2006년 운영 예정인 30만평 규모의 자유무역지역이 건설 중이며 72홀 규모의 대규모 골프장도 조만간 완공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공항 주변에는 5만평 규모의 국제비즈니스센터와 함께 3만명의 상주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배후도시도 그 모습을 갖추어 나아가고 있으며, 2007년에는 인천국제공항과 서울도심을 잇는 전용철도가, 2010년에는 수도권 남부지역을 연결하는 인천대교도 완공되어 인천국제공항의 접근교통망은 한층 더 다양해 질 것이다.

나. 공항건설사업

- 1단계 : 1992~2001(총사업비 5조 6,323억원, 국고 40%)
- 2단계 : 2002~2008(총사업비 4조 7,032억원, 국고 50% 이상)
- 3단계 이후는 항공수요와 재정여건을 감안 탄력적으로 실시



1) 시설규모(총괄표)

구 분	1단계(04. 현재)	2단계(추가분)	최종(종합)
부지면적(천평)	3,550	2,500	14,350
활주로(본)	2본 (3,750×60m)	1본 (4,000×60m)	4본
여객터미널	150	－ (내부시설 확장)	216 (2터미널 신축)
탑승동(천평)	－	48 (1동)	191 (4동)
여객계류장(천평)	383	330	1,134
화물터미널(천평)	40	30	127
화물계류장(천평)	130	35	462
제빙계류장(Pad)	12	8	30
항공기정비고(Bay)	3	4	10
국제업무단지(천평)	50	100	454
자유무역지역(천평)	－	300	600
교통센터(천평)	76	－	151
고속도로	6~8선(40.2km)	인천대교	영종대교, 인천대교
전용철도		복선 40.3km	복선 61.0km

1) 화물터미널, 기내식, 항공기정비고, 교통부문은 민자사업자 시행

2) 활주로

구 분	1단계	2단계	최종단계	비고
운영시기	2001년도	2008년도	2020년도	
부지면적(㎡)	11,724	8,250	47,428	
수 량	2본	1본	4본	
처리능력	24만회/년	41만회/년	48만회/년	
운영등급	CATⅢa	CATⅢb	CATⅢb	
규 격	3,750×60m 3,750×60m	4,000×60m	3,750×60m 3,750×60m 4,000×60m 4,000×60m	

제4장 - 지구별 개발 계획 및 추진 현황

3) 계류장시설

구 분			주기능력(대표기종)			비 고
			E급	D급	C급	
여객계류장 (44개)	탑승교	국제선	32	8	1	• 주기능력은 주기능력의 최상위 등급으로 분류 • 동일 등급의 다수 기종중, 주기 가능할 경우 해당 등급으로 분류
	주기장	국내선		1	2	
일반주기장(원격)			16		2	
소계			48	9	5	
화물계류장			24			F급 수용 주기장(3대 포함)
정비계류장			11			
제빙계류장			10	2		
격리계류장			1			
합계			94	11	5	

주) 대표기종 : F급-A380, E급-B747, D급-B767, C급-B737

4) 화물터미널 현황

〈 화물처리시설 현황 〉

구 분		면 적(m ²)	처리능력(만톤/년)
화물터미널	대한항공(A)	54,600	150
	아시아나(B)	50,400	111
	외 항 사(C)	50,400	52
합 계		155,400	283

주) 처리능력은 순화물(수하물 제외) 기준. 수하물 포함시 336만톤

주) 최근 대한항공 7,800㎡, 아시아나항공 18,000㎡ 증축 완료(2004.12, 2005.6)하여 화물 처리능력 증가<개항 당시 226만톤(수하물 포함시 270만톤) → 283만톤(수하물 포함시 336만톤)>

〈 화물터미널 확장 계획 〉

구 분	확장계획	
	신축면적(m ²)	사업비(사업기간)
대한항공	27,300(130×210)	420억원(2004.8~2006.7)
DHL	20,000(100×200)	2,000만불(2005.9 사업신청 예정)
TNT	6,000(100×60)	700만 유로(2005.10 사업신청 예정)
제2외항사	50,400(120×420)	투자자 모집 중
합 계	103,700	

다. 2004년도 추진성과

지난해 인천공항은 고유가, 이라크 전쟁, 내수부진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2003년의 사스(SARS) 영향에서 완전히 회복하여 개항이후 공항운영 제 분야에서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연간 운송실적을 보면 전년도에 비하여 항공기 운항은 15%, 여객 22% 그리고 화물의 경우 16%가 각각 증가하여 개항이후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항공수요가 이와 같이 큰 폭으로 반등한 것은 '주2일 휴무제'의 확대 시행과 한류열풍 등으로 아시아권 단거리 해외여행객이 급증하고, 내수 침체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휴대단말기 등 수출경기 호황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성매매 금지법'이 발효되면서 동남아 노선이 좌석난을 겪을 정도로 이용객이 증가한 부분은 특기할만한 사항이라 하겠다.

2004년 인천공항은 운송실적이라는 정량적 부분 외에 질적으로 더욱 내실 있는 성장을 하였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담보하는 항행안전시설은 개항이후 현재까지 3만 2천 시간 무중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IATA와 ACI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세계 주요공항에 대한 서비스 평가에서는 종합 2위를 획득하여 "시설은 우수하나 서비스는 보통이다"라는 그 동안의 평가를 무색하게 했다. 지난해 인천공항이 이룩한 성과중 가장 값진 부분은 무엇보다도 재무적 성과이다. 인천공항은 당초 2008년경에나 당기순이익의 시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약 1,20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당초 예상을 4년 앞당긴 것이다.

그 밖에도 지난 2002년부터 총사업비 4.7조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2단계 건설사업도 모래 파동이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획 공정율 12.8%를 상회하는 12.9%의 종합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 1월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도 순조롭게 진행중인 가운데 물류기업 등의 입주율도 약 40%를 상회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성공적 운영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호텔1동, 오피스텔 4동, 상업시설 1동, 9홀 골프연습장 등이 들어선 국제업무지역(IBC-Ⅰ)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2단계 건설공사의 근로자 캠프 유치를 비롯한 각종 활성화 조치로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4월 재정경제부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영국의 아멕사는 약 20억 달러를 투자하여 국제업무지역(Ⅱ)에 비즈니스센터 및 호텔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조만간 확정·제출할 예정으로 있다. 아울러 제5활주로 예정지역의 경관 개선 및 수익원 확보 등의 차원에서 삼목·신불지구에 조성중인 72홀 골프장 건설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르면 2005년 9월경 일부시설(18 홀)은 운영을 개시



제4장 - 지구별 개발 계획 및 추진 현황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은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중심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질적·양적으로 확실한 기반을 다진 한 해 였다고 자평해 보며, 부문별 운영성과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 운송실적 및 항공사 유치

가) 운송실적

2004년도 항공운송 실적은 고유가, 이라크전쟁, 내수부진 이라는 3중고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의 사스 영향에서 완전히 회복하여 큰 폭의 성장세로 반등하였다. 항공기 운항은 전년대비 15%가 증가한 15만회(하루 평균 410편), 여객은 22%가 증가한 24백만명(하루 평균 66,000명), 화물은 16%가 증가한 213만톤(하루 평균 584톤)을 처리했다. 이와 같이 항공수요 증가율이 큰 폭으로 나타난 것은 2003년 실적이 사스 여파 등으로 크게 저조한 것도 있지만, 2004년 7월부터 확대 시행된 ‘주2일 휴무제’와 온사마로 대표되는 한류 열풍 등으로 아시아권 단거리 해외여행객이 급증하고, 내수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휴대단말기 등 사상 유례가 없었던 수출경기 호황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최근 3개년간 인천공항 운송실적 〉

구 분		2002	2003	2004
운 항(회)	실 적	126,094	130,185	149,776
	증가율(%)	10.5	3.2	15.0
여 객(천명)	실 적	20,924	19,924	24,084
	증가율(%)	11.1	△5.4	21.7
화 물(천톤)	실 적	1,706	1,843	2,133
	증가율(%)	9.0	8.0	15.8

• 항공사 유치

2004년말 현재 인천공항에는 총 55개 항공사가 세계 127개 도시를 취항하고 있다. 이는 2003년 중국항공사들의 합병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하여 5개 항공사, 9개 노선이 증가한 것이며, 개항전과 비교해 보면 무려 20개 항공사 32개 노선이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주요 국가들과의 공격적 항공회담 등 정부가 추진한 항공자유화 정책과 신규 취항항공사, 증편 및 야간운행 항공편에 대한 착륙료 감면(50%) 등 개항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마케팅 활동이 가시적 성과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 연도별 인천공항 취항항공사 및 취항도시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취항항공사	35	45	52	50	55
취 항 도 시	95	109	119	118	127

나) 공항안전 및 보안체제 강화

9.11 테러 이후의 항공운송산업 환경 중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 항공안전 및 보안의 강화이다. ICAO, FAA, TSA 등의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국제기준은 더욱 엄격해 지고 있으며 법령 및 제도개선 요구와 이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2004년 공사는 보다 안전한 공항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수행했다. 공사, 국정원 등 상주기관, 군, 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 대테러 훈련을 실시하고, 보안요원의 처우개선과 전문화를 위하여 전문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검색 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건설현장 및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다. 그 결과 CAT-Ⅲb 착륙등급 운영(2003. 9.)이후 2004년 인천공항의 안개로 인한 회항은 연간 약 55% 감소하였으며, ICAO가 실시한 정기 보안감사(2004.11. 1~2004.11.10) 결과 공항안전 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항행안전시설의 무중단 운영과 재해율 '0'의 사업장을 구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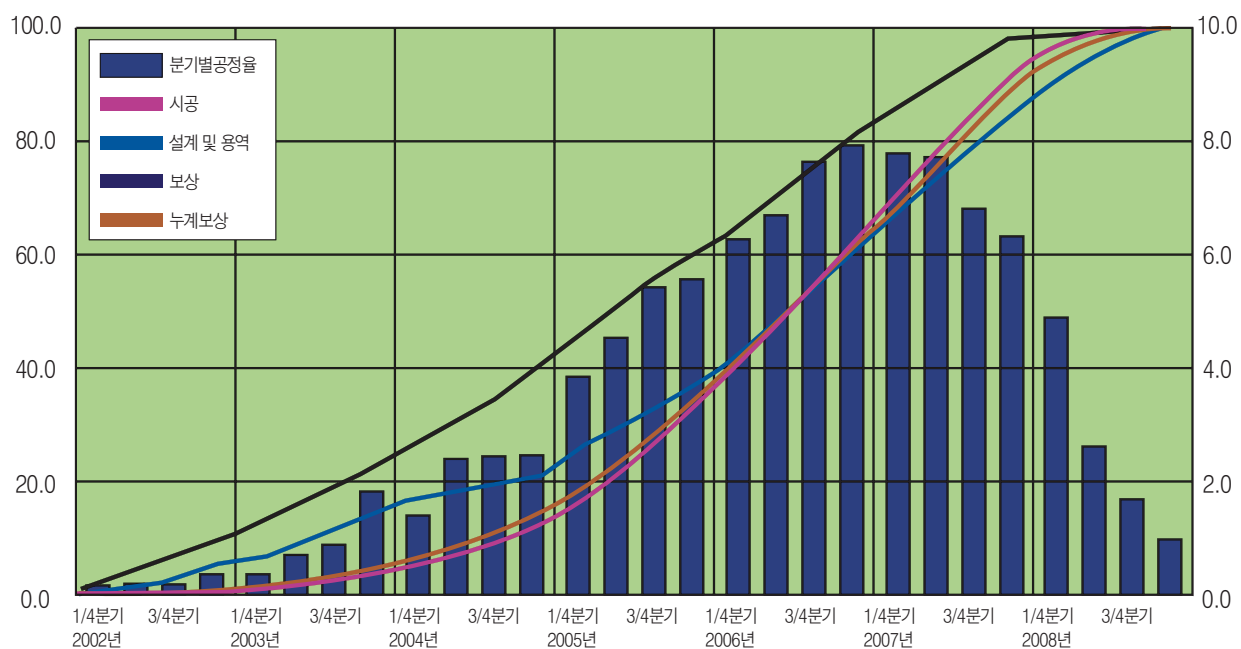
다) 공항인프라 및 배후지원기능 확충

개항 이후 공항인프라와 배후지원기능 확충을 위하여 공사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2단계 건설사업과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그리고 국제업무지역(Ⅰ, Ⅱ)을 포함한 주변지역 개발사업이다. 먼저 2단계 사업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모래 파동으로 인하여 종합공정이 다소 영향을 받았으나 공법을 변경하고, 철저한 공정관리와 만회대책을 통하여 계획공정을 무난히 소화했다. 현재 주요시설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고 2005년부터는 탑승동 및 계류장 확장공사 등이 본격 착수단계에 돌입하게 되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제4장 - 지구별 개발 계획 및 추진 현황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도 2006년 1월 운영개시를 목표로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04년말 54%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입주업체의 경우 1,2차 모집을 통하여 13개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 약 40%의 입주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제3차 입주업체 모집을 공고하였다. 아울러 2004년 6월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화터미널 지역에 세계적인 물류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터미널 부지 확장(20만평, 2003.10.~2006.12.)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2003년 1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투자유치 컨설팅(부즈알렌&헤밀턴社)을 시행하고 투자유치 지원단을 구성하여 타깃 기업별(Fedex, UPS 등) 유치전략을 수립하였다. 현재 DHL이 6,000평 규모 2,000만 달러, TNT가 2,000평 규모 약 700만 유로를 투자하는 사업계획을 2005년 초 제출할 예정으로 수립 중에 있으며, 루프트산자(Lufthansa) 및 폴라(Pola) 항공사는 투자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2단계 건설사업 연도별 공정계획〉



유휴지 등 주변지역 개발사업은 공항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경관을 개선하는 한편 미래의 안정적 수익원 확보라는 3가지 큰 목표를 가지고 공사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핵심 사업이다. 내수부진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업무지역(I)의 유입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해 말 유휴지 개발 마스터플랜이 마련됨에 따라 2005년부터 한층 추진동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가 추진하는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간략히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유희지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현황 〉

구 분		내 용	비 고
IBC - I	기존 지역 (5만평)	- 호텔2동, 오피스텔 4동	· 기 운영 중
		- 복합쇼핑몰 1동(에어조이)	· 2005. 3월 오픈예정
		- 호텔 1동, 업무용시설 1동	· 투자자 유치 중
		- 대골프장(9홀), 세차장	· 운영중
	추가개발 (10만평)	- 호텔 1동, 업무용시설 9동, 상업시설 2동, 컨벤TUS 1동 등	· 기반시설 설계(2005. 1.) · 투자유치 중
		- 9홀 골프장 추가 개발	· 2005년 사업자선정, 착공
제5활주로 지역		- 72홀 대중골프장 및 부대시설	· 2005. 9월부터 일부 조기운영
IBC - II (80만평)		- 정부와 AMEC(영)사간 MOU체결	(현 공정율 57%)
		· 미화 20억 달러 투자	
		· 국제비즈니스센터, 레저 · 위락	· 현재 사업계획서 작성 중
		교육시설 등	
공항철도 제2역사 (11.7만평)		- 호텔 · 쇼핑몰 · 명품아울렛 및 환승시설	· 다올부동산신탁, 신세계 명품 아울렛등고 투자협의 중

라. 주요건설산업

1) 2단계 공항건설 사업

가) 추진배경

- 2단계 공항건설 사업은 2015년까지 항공수요에 대비하고 주변국 공항과의 허브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지난 2002년부터 총 사업비 4조 7천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로서 2005년 말까지 종합공정 32.2%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공항시설의 적기 완공 지연 시 이미 시설을 확장중인 다른 공항에 대한 물류 허브로서의 경쟁우위 상실로 지역공항으로 전략 우려

* 확장 현황 : 싱가포르 창이(2006년), 중국 북경 · 홍콩 첵렙콕 · 일본 간사이(2007년)

나)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02~2008 (7년)
- 총사업비 : 4조 7,032억원 (민자 포함시 5조 901억원)



제4장 - 지구별 개발 계획 및 추진 현황

• 주요 사업내용

구 분	1 단 계	2 단 계
부지조성	11,724천㎡ (355만평)	8,250천㎡ (250만평)
활 주 로	2본(3,750×60m)	1본(본4,000급×60m)
여객계류장	1,267천㎡ (38만평)	1,089천㎡ (33만평)
탑 승 등	-	1동(158천㎡, 4.8만평)
화물터미널	129천㎡ (4만평)	100천㎡ (3.03만평)

• 사업효과

구 분	1 단 계	2 단 계
운 항	24만회	41만회
여 객	3,000만명	4,400만명
화 물	270만톤	450만톤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 01	' 02	' 03	' 04	' 05	' 06~ ' 08	계
사업비 (억원)	설계비	-	295	146	203	38	702	1,384
	보상비	40	150	110	-	12	508	820
	공사비	-	59	1,217	2,394	5,248	33,317	42,235
	감리비 등	-	14	74	150	248	2,107	2,593
	계	40	518	1,547	2,747	5,546	36,634	47,032
자금조달	정부출자	40	327	685	1,374	2,273	18,817	23,516
	자체조달	-	191	862	1,373	3,373	17,817	23,516

• 공정 현황(2005년 8월말 기준)

(단위 : %)

구 분	' 04년까지 실적	' 05년 목표	계 획 (A)	실 적 (B)	B/A
보 상	43.4	68.5	46.2	46.2	100.0
설 계	22.2	37.0	32.1	30.7	95.6
공 사	10.8	30.6	22.9	22.8	99.5
발 주	54.2	91.1	86.4	77.4	89.6
종합공정율	12.9	32.2	24.9	24.7	99.2





- 기본 공정
 - 2002 : 설계착수(2월), 부지조성 공사 착수(11월)
 - 2003. 11 : IAT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 12 : 제3활주로 부지조성공사 착수(2006.12 완료예정)
 - 2004. 6 : 탑승동A 굴토 및 파일공사 착수
 - 8 : 급유시설공사 착수, 탑승동 계류장 시설공사 착수
 - 12 : 수하물처리 시설사업 착수
 - 2005. 3 : 탑승교 제작 및 설치사업 착수
 - 4 : 탑승동A 골조, 마감 및 부대설비공사 착수
 - 9 : 제3활주로 시설공사 착수
 - 2006 : 보상 및 제3활주로 부지조성 완료(12월)
 - 2007 : 비행점검 착수(12월)
 - 2008 : 계통연동시험 및 시험운영 착수(1월), 운영개시(7월)

2) 국제업무지역(IBC-1) 개발사업 : 15만평

가) 개발현황

- 사업위치 : 여객터미널 남측지역 5만평
- 유치업종 : 호텔3동, 업무시설 5동, 상업시설 1동
- 투자유치조건

나) 개발방식 : BOOT(건설-소유-운영-귀속)방식

다) 토지사용기간 : 50년 이내에서 투자자가 자율제시

라) 연간토지사용료 : 공시지가의 50/1000이상 자율제시

(호텔은 공시지가 50/1000+연간 객실수입의 일정부분 자율제시)



제4장 - 지구별 개발 계획 및 추진 현황

마) 시설별 사업추진현황

대상시설	사업시행자	준공일	주요시설현황
호텔	(주) KAL 호텔 네트워크	2003. 8. 20	• 지하 2층, 지상 11층 • 총연면적 22,624평(534실)
	-	-	투자자 모집 중
	(주)허브빌	2004. 2. 16	• 지하1층, 지상 10층 • 총연면적 6,323평(301실)
업무용	삼성물산 / 금호산업	2002. 12. 16	• 지하 2층, 지상 12층 • 총연면적 10,295평(461실)
	(주)대우건설	2004. 5. 29	• 지하 2층, 지상 12층 • 총연면적 7,682평(401실)
	(주)열성오피스텔	2003. 7. 24	• 지하 2층, 지상 11층 • 총연면적 10,779평(515실)
	(주)대우건설	2004. 8. 21	• 지하 2층, 지상 12층 • 총연면적 12,191평(553실)
	-	-	투자자 모집 중
상업시설	(주)에어조이	2005. 4. 6	• 지하 3층, 지상 9층 • 총연면적 19,205평

바) 국제업무지역(IBC-I) 확장계획

- 사업위치 : IBC-I 인근지역 10만평
- 유치시설 : 호텔 1, 업무시설 9, 상업시설 2, 컨벤션센터 1 기타

3) 국제업무지역(IBC-II) 개발사업 :130만평

- 2004. 4월 MOU체결(영 AMEC)
- 유럽풍 국제휴양도시 건설
- 호텔 레저시설, 고급주거시설, 국제학교 등

4) 자유무역지역 개발사업

인천공항내 배후 물류단지 등 63만평이 2005년 4월 6일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으로 지정되었으며, 자유무역지역은 조립·가공 등 제조과정을 거쳐 생산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원자재 수입에 따른 관세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게 되며,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500만 달러 이상 투자한 물류기업이나 100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제조업체는 일정기간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받고, 토지사용료 감면혜택이 주어



지는 등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보장과 관세상의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인천공항내 자유무역지역은 ‘공항물류단지’ 30만평과 ‘화물터미널지역’ 33만평으로 분리, 건설·운영되는데 공항물류단지는 제조업, 물류업,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화물터미널지역’은 세계 유수의 항공사와 다국적 물류업을 중심으로 입주업체를 유치, 2006년 상반기 중 운영할 계획이다.

〈 국제업무지역 전경 〉



〈 자유무역지역 위치도 〉





5)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개요

가) 공항물류단지 (ALP) : Airport Logispark

- 위 치 : 화물터미널 동측 제5활주로 예정지 인근
- 규 모 : 1단계 30만평(최종단계 60만평)
- 사업기간 : 2002 ~ 2005
- 임대면적 : 37개 필지(129,941평)
- 물류시설 : 17필지(58,431평), 생산시설 : 20필지(71,510평)
- 입주자격 : 제조업, 물류업, 도매업
 - 토지임대료 : 연간 10,500원/㎡(35,000원/평)
 - 토지임대기간 : 30년(20년 연장 가능)
 - 개발방식 : B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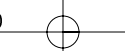
나) 화물터미널지역(CTA) : Cargo Termini Area

- 위 치 : 현재 운영중인 화물터미널 지역
- 규 모 : 1단계 33만평(최종단계 65만평)
- 입주자격 : 항공운송업, 항공기취급업, 복합운송주선업
- 개발방식 : BTO

〈 시설운영현황 〉

구 분		면 적	규 모	처리능력	실적(' 04)	용량대비
터미널	대한항공	54,600㎡	420×130m	120만톤	101만톤	85%
	아시아나	50,400㎡	420×120m	111만톤	43만톤	39%
	외 항 사	50,400㎡	420×120m	52만톤	68만톤	132%
합 계		155,400㎡	—	283만톤	213만톤	75%

* 외항사의 경우 국적사에 비해 물류처리설비의 자동화 정도가 낮고 다수기업이 입주해 있어 단위면적당 화물처리능력이 떨어짐.



6) 자유무역지역 외자 유치 현황

구 분		시설종류	유치금액	규 모
특송업체	DHL	화물터미널	2천만달러	6,800평
	TNT	화물터미널	700백만유로	2,000평
물류 및 제조업체	KWE	항공물류창고	47억원	1,400평
	셱크	항공물류창고	84억원	2,800평
	한국생명자원	제조시설	7억원	400평

7) 공항물류단지 입주자 현황

연 번	구 분	시설종류	유치금액	규 모
물 류 지 구	(주)KWE코리아	9,060㎡ (2,741평)	4,607.11 (1,450평)	47.24억원
	범한종합물류(주)	16,013㎡ (4,844평)	10,087.16 (2,606평)	100억원
	삼성전자로지텍(주)	8,892 (2,690평)	4,986.4㎡ (1,434평)	46.8억원
	(주)인천국제물류센터	79,083㎡ (23,922평)	49,240.91㎡ (12,662평)	313억원
	조양국제종합물류(주)	6,666㎡ (2,016평)	6,142.08㎡ (1,600평)	45억원
	인천에어카고센터(주)	9,580㎡ (2,898평)	5,708.79㎡ (2,030평)	48억원
	(주)하나로티엔에스	6,531㎡ (1,976평)	3,817㎡ (1,115평)	34억원
	(주)단석산업	14,961㎡ (4,526평)	4,774㎡ (1,400평)	30억원
	(주)백마화물	9,464㎡ (2,863평)	6,097.2㎡ (1,074평)	35억원
	(주)셱커코리아	10,000㎡ (3,025평)	9,465㎡ (2,863평)	84억원
	범한종합물류	9,290㎡ (2,810평)	8,063㎡ (2,439평)	92억원
소 계		179,540㎡ (54,311평)	112,992㎡ (34,180평)	875억원
생산 지구	한국생명자원산업(주)	5,378㎡ (1,627평)	1,264.65㎡ (383평)	7억원
소 계		5,378㎡ (1,627평)	1,264.65㎡ (383평)	7억원
합 계		184,918㎡ (55,937평)	114,256㎡ (34,562평)	882억원

**제4장 - 지구별 개발 계획 및 추진 현황****8) 대중 골프장 개발사업****가) 사업개요**

구 분	규모 및 시설	사용료(영업요율)	공사비
사업권 I (신불지역)	29만평 (골프장 18홀, 부대시설)	550억원 (9.46%)	364억원
사업권 II (제5활주로)	92만평 ①골프장 54홀, 골프아카데미, 부대시설 ②경관개선지역(9만평) 포함	925억원 (9.11%)	1,115억원
계	121만평 (골프장 72홀 및 부대시설)	1,475억원	1,479억원

※ 사용료는 최소보장액과 매출액에 영업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중 높은 금액 적용

- 개발방식 : BOT 방식
 - 투자자가 부지조성 및 시설물을 건설하여, 2020년까지 소유·운영후 공사에 시설물 무상귀속
(토지는 공사 소유)
- 건설기간 : 2002. 7. ~ 2005.10.
- 사업시행자 (제 I , II 사업권) : 클럽 폴라리스(주)

나)추진현황

- 2002. 7.24 : 실시협약 체결
- 2002. 8. 5 : 건설사업시행자 지정 (건교부)
- 2004. 2.21 : 부지조성공사 실시계획 승인
- 2004. 8.27 : 골프장시설 조성공사 실시계획 승인
- 2005. 7.16 : 신불지역(18홀) 골프장 영업개시

제3절

청라지구 개발계획 및 추진현황

1. 개발계획

가. 개발방향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사업은 국제금융업무단지, 스포츠·레저단지, 첨단화훼 단지를 조성하여 인근의 국제적 수준의 교통인프라와 물류시설을 이용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수반하여 업무와 주거, 문화와 레저가 복합된 비즈니스 도시를 건설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나. 사업개요

청라지구는 2003년 8월 11일, 송도지구, 영종지구와 같이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고 토지공사(금융업무·주거단지), 농업기반공사(화훼단지), 인천광역시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여, 서구 경서동, 원창동, 연희동 일원에 538만평의 부지를 2008년 12월까지 단계별로 개발할 예정이다. 개발한 뒤에는 인구 9만명에 3만1천세대가 거주하는 도시로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으로 통하는 항로와 인천항과 북항으로 거점으로 하는 해상로에 인접해 2100만의 수도권 배후시장과 연계되어 동북아의 중심도시이자 수도권 서부지역의 요충지로 탈바꿈할 것이다.

다. 토지이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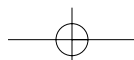
국제업무 용지는 국제업무의 중심성을 강조하고자 집중형으로 배치하고, 상업 용지 및 주상복합 용지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동서방향의 중심노선형에 배치했으며, 관광, 위락, 레저, 교육, 의료 등 투자유치 용지를 그 주변에 두어 업무와 레저의 복합도시의 효용성을 강조했다.

또한 북측과 남측의 경계구역에 첨단 화훼단지를 조성해 화훼산업을 활성화하고, 청라지구 안팎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쾌적한 거주환경을 만들고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제4장 - 지구별 개발 계획 및 추진 현황

〈 청라지구 토지이용 계획도 〉



< 토지이용 계획 >

구 분		면 적		구성비(%)
		m ²	평	
합 계		17,771,448.7	5,375,863	100.00
투자유치용지(관광·위락·레저,교육·의료·사회복지·주차시설 등)		4,670,515	1,412,831	26.3
상업업무시설용지		961,877	290,968	5.4
화 화 단 지		1,364,678	412,815	7.6
GM대우 R&D시설		508,228	153,739	2.9
주 택 용 지		2,448,428	740,649	13.8
공 공 시 설 용 지	계	7,817,722.7	2,364,861	44.0
	공 원	2,138,661	646,945	12.0
	녹 지	1,566,871	473,979	8.8
	광 장	31,806	9,621	0.2
	공 공 공 지	61,760	18,682	0.4
	전 기 공 급 설 비	16,500	4,991	0.1
	학 교	247,671	74,921	1.4
	공 용 시 설	126,693	38,325	0.7

※ 상기계획은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광역교통계획

청라지구 안팎으로 이미 개설된 서울과 인천공항 간 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해 경기도 북부와 송도지구, 경기도 남부를 연결하는 제2외곽순환도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에 의한 경인고속도로 등의 주요도로들이 개설 되거나 개설될 예정이다. 또한 인근에 서구 오류동에서 남동구 서창동 간의 도시철도 2호선과 공항고속도로 철도가 공사 중이거나 공사 예정으로 향후 주변의 예정된 도로와 철도건설공사가 완료되면 수도권 내에서 가장 편리하고 광역화된 교통인프라가 구성될 것이다.

-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계획 중)
-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시행(2008)
- 굴포천 남측 제방도로 건설(2008)
- 가좌동-경서동간 도로 건설(2008)
- 봉수대길 연장도로 건설(2008)
- 사업지-서곶로 연결도로 건설(2008)
- 인천-부천 간 연결도로 건설(2008)
- 대1-17호선(도시계획도로) 건설(계획 중)



제4장 - 지구별 개발 계획 및 추진 현황

- 굴포천 제방도로 연결도로 건설(2008년)
-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2011년)

마. 공원녹지계획

- 지구 중앙공원(폭 350m, 연장 2km)와 지구 동서를 연결하는 중심 가로 공원(폭 50m, 연장 4km)을 계획해 그린네트워크(Green Network) 조성
- 주변하천과 녹지축을 연결하는 환경친화적 공원 및 녹지 조성
- 주거단지 및 학교시설과 연계한 어린이공원 조성
- 구역내 및 도로변 녹지 설치로 환경영향 최소화

바. 공공 편익시설계획

- 학 교 : 초등학교 8, 중학교 4, 고등학교 4, 외국인학교 1
- 공공업무시설 : 외국인지원센터, 경찰서 등
- 근린공공시설 : 동사무소, 경찰파출소, 소방파출소, 보건지소, 우체국 분국
- 기타편익시설 : 종교(2개), 문화, 의료, 연구, 교육시설 등

사. 공급처리시설계획

- 상수도 : 공촌정수장을 확장 공급, 동측 청라배수지 신설
- 하수도 : 우·오수 분류식 배제방식
 - 오수 : 공촌하수종말처리장 확장
 - 우수 : 공촌천, 심곡천을 통한 서해로 방류
- 폐기물 : 청라광역생활폐기물소각장에서 처리
- 에너지
 - 변전소(3개소) 신설해 전력 공급,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통한 열공급, 도시가스 공급계획

아.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 계획

국제도시 위상에 적합한 수준 높은 인프라를 구성하고 외국인이 선호하는 주거환경, 교육 및 의료 서비스





등의 각종 편의시설 및 레저·휴식·문화공간 마련으로 살기 좋은 외국인의 정주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

- 주거시설은 중앙공원 및 심곡천변 친수공간과 인접해 환경적으로 양호하고 국제업무단지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단독주택 형태의 주거 단지를 배치하고 외국인이 선호하는 블록형으로 공급해 주택의 형태 및 배치 등 수요자 취향에 맞는 주거단지개발 유도
- 교육시설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중심부에 초·중·고등학교 과정이 통합된 외국인학교 배치
- 의료시설은 적정규모의 종합의료시설을 배치하고 주변 주택건설용지로부터 이어진 보행축과 연계하도록 해 양호한 접근성 확보
- 기타 시설로 국제업무단지 중심부에 행정지원센터 성격의 경제자유구역청사무소를배치하고 레저, 휴식 등의 여가활용을 위한 공간 마련 및 이용의 편리성 제고

2. 주요 개발사업

가. 국제금융업무단지

10년 이내 동북아는 금융서비스가 세계 경제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청라지구에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정보통신기술 및 인프라를 구축한 금융단지를 건설해 외국인 주거단지, 엔터테인먼트시설 및 편리하고 흥미로운 지원시설을 설치·제공할 계획이다.

- 개발면적은 29만평은 역외금융센터, 종합금융컨설팅회사, 은행, 오피스 빌딩 등

나. 스포츠·레저단지

국제업무지역 및 공원·녹지체계와 연계한 관광·레저시설, 체육시설 및 외국대학 등의 유치하고 수려한 녹지와 수변경관으로 레저 시설 이용객 및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 개발면적은 141만평으로 관광, 위락, 스포츠·레저, 교육, 의료, 주차, 사회복지시설 등을 유치

다. 첨단화훼단지

청라지구 북측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접지 및 심곡천 남측지역에 배치해 농업기반공사를 사업주체로 환경친화적 첨단화훼단지 조성해 농업체험 기능, 레저기능 및 전시·판매 기능을 복합적으로 설치하고 수도권 화훼산업의 생산·유통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개발면적은 41만평으로 농업클러스터, 원예수목원, 생태체험공원, 농업기술센터 등을 유치



라. GM대우의 R&D시설 건설사업

GM대우의 청라지구 유치는 세계적 기업의 직접적인 지역 내 투자로 다른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GMDAT의 생산 및 R&D시설 확충을 통한 직간접적인 고용 증대(R&D인력1,700명→2,000명확대)와 신차 개발 시 연관업계의 기술혁신과 매출증대 등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협력업체:8,145업체)에 기여할 것이다.

GM대우의 유치시설로는 자동차성능시험 관련 연구소, 연수원, 자동차박물관 등으로 시가화지역과 떨어진 남측 화훼단지에 인접 배치할 계획이다.

- GM대우의 R&D시설 투자개요
 - 사업명 : GMDAT Compact Test Track 및 R&D시설 건설
 - 사업기간 : 2004~ 2006
 - 총사업비 : 1,471억원
 - 1단계 : 주행시험로를 건설
 - 2단계 : 첨단R&D시설 설치(446억원 예정, 연구인력 200명 추가)
 - 면적 : 17만평

3. 사업 추진 상황

2003년 2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해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해 8월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되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각종 제반 절차를 일정대로 처리하고 올해 하반기 중 공사 착공을 목표로 개발사업추진에 매진하고 있다.

가. 추진실적

- | | |
|-----------------------|---------------|
| • 개발계획 수립 완료 | ⇒ 2003. 2. 6. |
|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 ⇒ 2003. 8.11. |
| • 화훼단지 타당성조사 완료 | ⇒ 2004. 6. |
| • 사업추진 보고회 개최 | ⇒ 2004.12.22. |
| • 실시계획 승인 신청(토공→재정부) | ⇒ 2005. 2. 1. |



- 개발계획변경 승인 신청(경제청→재경부) ⇒ 2005. 4.13.
- 개발계획 변경 및 1-①단계 실시 계획 승인 ⇒ 2005. 8.12.

나. 향후 추진계획

-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 착수 ⇒ 2005. 11.
- 화훼단지 실시계획 수립(농업기반공사) ⇒ 2006. 12.
-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 완료 ⇒ 2008. 12.



제4절 재정로드맵(공공부문 종합투자계획)

1. 개 요

가. 추진배경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2003. 8)이 수립된 이후 각종 개발계획의 변경으로 원활한 자원조달과 대단위 사업의 종합관리를 위해 현실에 부합되는 구체적 사업계획(재정로드맵)이 필요

나. 계획기간

- 1단계 : 2003 ~ 2008(6년)
- 2단계 : 2009 ~ 2020(12년)

다. 계획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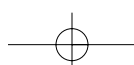
- 매년 예산 확정 후 계획의 수정 연동화 계획(Rolling Plan)으로 운영
- 계획 수정시기
 - 매년 3월 : 당초예산 편성결과 반영, 국고보조 신청
 - 매년 9월 : 추경예산 편성결과, 익년도 예산편성자료

라. 연관계획과의 관계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2003. 8. 인천발전연구원)
 - 본 계획을 참고하되 확정된 사업은 변경조치
 - 구체적 사업계획 미수립사업은 제외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2005. 1. 로드맵 추진현황)
 - 기 작성된 개발사업 현황을 재정적으로 구체화

마. 투자재원의 구분

- 국 고 : 국고직접투자 또는 국고 보조사업
- 지 방 비 : 인천시 자체 재원 투자





- 일반회계 : 일반회계 재원(영종, 청라지구)
- 특별회계 : 도시개발사업(송도), 상수도사업
- 공공사업시행자 및 민자 : 외자 및 토지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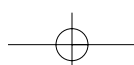
바. 사업의 분류

- 기반시설사업 : 경제자유구역내 각종 도로, 하수도, 기반시설 등 도시개발사업
- 광역교통사업 : 지구간 연결 또는 기존 시가지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진입시설, 인천대교, 철도와 공항 등 교통시설
- 주요관련사업 : 경제자유구역과 관련이 있는 관광시설, U-City사업 등

2. 총괄개요

가. 개 설

- 본 계획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투자할 사업을 종합하였으며 기반시설을 이용한 순수 민간투자사업은 제외.
 - 송도·영종·청라 3개 구역 기반시설사업에 14조 7,020억원
 - 인천대교, 인천공항확장 등 광역교통사업에 14조 3,784억원
 - 용유·무의관광단지개발, U-City 등 주요관련사업에 8조 934억원 등 총 37조 1,738억원의 투자가 필요.
- 이를 사업 추진 주체별로 파악하면
 - 총 86개 사업에 인천광역시 72건, 토공등 사업시행자 6건, 민자 8건등으로 인천광역시가 전체의 84%를 추진하고 있음.
- 사업진도는 재정투자율 기준
 - 2008년까지 전체 사업의 74%가 진행되었으며 기반시설사업은 75%, 광역교통사업은 90%, 주요관련사업은 41%가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 이미 운영 중인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2003. 8)과 비교하면 사업의 분류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기반시설사업을 기준으로
 - 총 사업비는 인천발전 연구원 보고서 14조 7,610억원에서 14조 7,020억원(590억원 감액)
 - 국비는 3조 1,610억원에서 4,883억원(2조 6,727억원 감액)



제4장 - 지구별 개발 계획 및 추진 현황

- 시비 6조 7,420억원에서 4조 7,156억원(2조 264억원 감액)
- 민자 4조 8,580억원에서 9조 4,981억원(4조 6,401억원 증액)으로 국·시비 부담이 축소되고 사업시행자(민자) 부담이 크게 증가되고 있음.

이는 당초 영종개발방식이 민간조합 방식이었으나 토지공사 등 공공사업 시행자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종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시공함으로써 재정부담 부분이 경감됐기 때문임.

나. 총 사업비 현황(공공부분)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건수	총 사업비 현황				비 고
		계	국 비	지방비	기타(민자등)	
계	84	371,738	58,983	61,342	251,413	
기반시설사업	57	147,020	4,883	47,156	94,981	
송 도 지 구	39	43,019	2,155	40,864	-	
영 종 지 구	14	63,238	2,728	5,471	55,039	
청 라 지 구	4	40,763	-	821	39,942	
광역교통사업	16	143,784	49,261	9,609	84,914	
주요관련사업	13	80,934	4,839	4,577	71,518	

다. 사업추진 주체별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건수	재 원 별 부 담 규 모				비 고
		계	국 비	지방비	기타(민자등)	
총 계	86	371,738	58,983	61,342	251,413	
인천광역시	74	81,127	20,873	60,089	165	
일반	32	32,815	15,475	17,175	165	
특별	42	48,312	5,398	42,914	-	
한국토지공사	2	91,981	-	-	91,981	
농업기반공사	1	2,890	-	-	2,890	
도시개발공사	2	28,817	802	804	27,211	
공항공사	1	47,032	23,516	-	23,516	
민자유치 등	6	119,891	13,792	449	105,650	



라. 연도별 투자계획

• 재정투자율

(단위 : %)

구 분	1 단 계						2 단 계			
	'03	'04	'05	'06	'07	'08	'09	'10	'11-'15	'16-'20
총 계	4/4	6/10	8/18	20/38	21/59	15/74	9/83	6/89	11/100	0/100
기반시설사업	5/5	9/14	6/20	25/45	17/62	13/75	13/87	7/94	5/99	1/100
송도지구	13/13	6/19	7/26	10/36	9/45	15/60	13/73	12/85	14/99	1/100
영종지구	1/1	1/2	3/5	38/43	21/64	12/76	13/89	9/98	1/99	1/100
청라지구	3/3	24/27	8/35	22/57	19/76	12/88	12/100	0/100	0/100	0/100
광역교통사업	2/2	4/6	10/16	22/38	31/69	21/90	6/96	4/100	0/100	0/100
주요관련사업	1/1	1/2	5/7	7/14	16/30	11/41	7/48	8/56	44/100	0/100

주1) 연도별 재원배분율 / 연도별 재원누적율

• 투자액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기 반 시 설 산 업				광역교통 지 구	주요관련 사 업
		계	송도지구	영종지구	청라지구		
계	371,738	147,020	43,019	63,238	40,763	143,784	80,934
2003년 이전	15,159	7,456	5,711	353	1,392	7,148	555
2004	20,803	12,757	2,491	741	9,525	7,487	559
2005	28,333	8,268	2,991	2,057	3,220	16,034	4,031
2006	74,011	37,312	4,217	24,072	9,023	31,351	5,348
2007	76,462	24,634	3,710	13,299	7,625	39,048	12,780
2008	56,177	19,015	6,242	7,804	4,969	27,941	9,221
2009	35,524	18,803	5,675	8,119	5,009	10,788	5,933
2010	21,187	10,924	5,269	5,655	-	3,987	6,276
2011~2015	43,223	6,992	6,235	757	-	-	36,231
2016~2020	859	859	478	381	-	-	-

• 재원별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국 비	지 방 비			사업시행자	민 자
			계	일 반	특 별		
계	371,738	58,983	61,342	18,428	42,914	145,599	105,814
2003년 이전	15,159	2,434	6,822	1,268	5,554	2,124	3,779
2004	20,803	3,280	3,970	2,064	1,906	11,070	2,483
2005	28,333	6,246	4,566	2,194	2,372	10,635	6,886
2006	74,011	13,941	8,787	4,211	4,576	40,280	11,003
2007	76,462	17,603	8,293	4,030	4,263	28,696	21,870
2008	56,177	12,048	9,386	2,688	6,698	17,417	17,326
2009	35,524	1,738	6,491	904	5,587	12,251	15,044
2010	21,187	760	5,514	414	5,100	4,920	9,993
2011~2015	43,223	742	6,845	465	6,380	18,206	17,430
2016~2020	859	191	668	190	478	-	-

3. 분야별 투자계획

가. 기반시설(도시개발)사업

1) 송도지구

- 사업규모 : 1,611만평 (1단계 773만평)
- 사 업 비 : 81,500억원(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비)
- 계획인구 : 253천명
- 시 행 자 :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개발공사, NSC
- 사업기간 : 1989~2020(1단계 2008년)
- 주요사업 : 국제비즈니스센터 조성(167만평)
지식정보산업단지(80만평), IT클러스터(198만평)
송도신항만(34선석, 배후 82만평)

• 주요사업(1단계 기준) (단위 : 억원)

사 업 명	위 치	사 업 규 모	사 업 건 수	재 원 별				비 고
				계	국 비	지 방 비	기 타	
계			40	43,019	2,155(1,802)	40,864(6,268)	-	
1·3공구 매립 및 기반	1·3공구	207만평	9	7,151	390(390)	6,761(1,810)	-	
2·4공구 매립 및 기반	2·4공구	176만평	16	10,297	747(558)	9,550		
5·7공구 매립 및 기반	5·7공구	198만평	5	9,358	-	9,358(1,923)	-	
6·8공구 매립 및 기반	6·8공구	192만평	5	13,587	-	13,587(2,505)	-	
공공시설 등			5	2,626	1,018(854)	1,608(30)	-	

※ 국비의 ()는 국비확정액, 지방비의 ()는 채무부담행위사업

• 사업추진 주체별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건수	재 원 별 부 담 규 모				비 고
		계	국 비	지방비	민자등	
총 계	40	43,019	2,155	40,864	-	
인천광역시	40	43,019	2,155	40,864	-	남부생활폐기물처리시설, 남부음식물자원화시설
일반회계 (지방채)	2	1,430(250)	555	875(250)	-	
특별회계(채무부담)	38	41,589(6,268)	1,600	39,989(6,268)	-	

회계별 재원부담

(단위 : 억원)

구 분	재 원 별 부 담 규 모				비 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	기타	
계	43,019	2,155	40,864	-	
국 고	2,155	2,155	-	-	
지 방 비	40,864	-	40,864	-	
일반회계	1,430	-	875	-	
특별회계	39,989	-	39,989	-	
민 자	-	-	-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03	'04	'05	'06	'07	'08	'09	'10	'11~15	'16~20
송도지구	소계	43,019	5,711	2,491	2,991	4,217	3,710	6,242	5,675	5,269	6,235	478
	국 비 (확 정)	2,155 (1,802)	310 (276)	130 (107)	418 (377)	566 (540)	187 (133)	193 (143)	88 (38)	169 (94)	94 (94)	-
	지 방 비	40,864	5,401	2,361	2,573	3,651	3,523	6,049	5,587	5,100	6,141	478
	일반회계 (지방채)	875 (250)	169	456 (250)	213	37	-	-	-	-	-	-
	특별회계 (채무부담)	39,989 (6,268)	5,232 (1,122)	1,905 (89)	2,360 (362)	3,614 (209)	3,523 (58)	6,049 (1,487)	5,587 (1,547)	5,100 (1,394)	6,141	478

※ 국비의 ()는 국비확정액



송도국제도시 5,7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현장

2) 영종지구

- 사업규모 : 4,184만평 (공항 1,700만평 포함)
- 사 업 비 : 63,238억원(공항지역을 제외한 기반시설비)
- 계획인구 : 145천명
- 시 행 자 : 한국토지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 사업기간 : 2002~2020 (1단계 2008)
- 주요사업 : 공항, 자유무역지역(1,700만평),
물류·첨단산업단지(120만평)
용유·무의 관광단지(213만평)
운북 복합레저단지 (82만평)

• 주요사업 (단위 : 억원)

사업명	위 치	사 업 규 모	사업 건 수	재 원 별				비 고
				계	국 비	지방비	기 타	
계			14	65,238	2,728(1,313)	5,471(1,003)	55,039	
영종지역개발사업	영종지역	570만평	1	54,981	-	-	54,981	토지공사
공항C~영종C 도로(광-3)	운서동	L=2.4km	1	1,934	-	1,934(967)	-	
예단포~중산동간 도로(대-1)	중산동	L=7.56km	1	1,071	467(467)	604	-	
예단포~운북환경 사업소도로(대-1)	운북동	L=2.5km	1	281	-	223	58	
예단포~공항고속도로 간도로(대-1)	영종	L=1.9km	1	98	-	98(36)	-	
구읍벤틀터~예단포 도로(대-1)	영종	L=7.8km	1	979	490	489	-	
북측~남측유수지 도로(대-2)	을왕, 덕교	L=12.12km	1	1,692	846(846)	846	-	
덕교삼거리~무의 도로(대-3)	용유, 무의	L=2.8km	1	1,054	527	527	-	
북측~용유초교 도로(대-2)	을왕동	L=4km	1	465	233	232	-	
큰무리~광명항입구 도로외(중, 소로)	용유	L=4.5km	5	683	165	518	-	

※ 국비의 ()는 국비확정액, 지방비의 ()는 지방채사업



• 사업추진 주체별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 건수	재원별 부담규모				비 고
		계	국 비	지방비	민자등	
총 계	14	63,238	2,728	5,471	55,039	
인천광역시	13	8,257	2,728	5,471	58	
일반회계 (지방채)	13	8,257 (1,003)	2,728 -	5,471 (1,003)	58 -	
한국토지공사 (도시개발공사)	1	54,981 (5,498)	-	-	54,981 (5,498)	도시개발공사 10%수준

※ 국비의 ()는 국비확정액, 지방비의 ()는 지방채사업

• 회계별 재원부담

(단위 : 억원)

구 분	재원별 부담규모				비 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	기 타	
계	63,238	2,728	5,471	55,039	
국 고	2,728	2,728	-	-	
지 방 비	5,471	2,728	5,471	-	
일반회계 특별회계	5,471 -	2,728 -	5,471 (1,003)	- -	
민 자	55,039	-	-	55,039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03	04	05	06	07	08	09	10	11-15	16-20
영종 지구	소계	65,238	353	741	2,057	24,072	13,299	7,804	8,119	5,655	757	381
	국비 (확정)	2,728 (1,313)	0	150 (150)	238 (238)	309 (309)	638 (616)	178	324	341	359	191
	지방비 (지방채)	5,471 (1,003)	353	491 (11)	433 (193)	1,402 (456)	792 (240)	465 (38)	553 (65)	394	398	190
	사업 시행자	55,039	-	100	1,386	22,361	11,869	7,161	7,242	4,920	-	-





제4장 - 지구별 개발 계획 및 추진 현황

3) 청라지구

- 사업규모 : 538만평(국유지 483, 사유지 30, 사유지 25)
- 사업비 : 40, 763억 원(부지매입 및 기반시설 조성비)
- 계획인구 : 90천 명
- 시 행 자 : 인천광역시, 한국토지공사, 농업기반공사
- 사업기간 : 2003 ~ 2008
- 주요사업 : 투자유치 용지 (141만평)

산업시설 (57만평)

주택용지 (73만평)

공공시설용지 (238만평)

- 주요사업

(단위 : 억원)

사 업 명	위 치	사업 규모	사업 건수	재 원 별				비 고
				계	국 비	지방비	기 타	
계			4	40,763	-	821	39,942	
청라지구조성	청라1지역	138만평	1	37,000	-	-	37,000	
청라지구화훼단지조성	"	41만평	1	2,890	-	-	2,890	
청라공유수면매립	청라2지역	29만평	1	327	-	327	-	
GM대우 주행시험장 및 R&D센터조성	"	15만평	1	546	-	494	52	

- 사업추진 주체별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 건수	재원별 부담규모				비 고
		계	국 비	지방비	민자등	
총계	4	40,763	-	821	39,942	
인천광역시	2	873	-	821	52	
한국토지공사	1	37,000	-	-	37,000	
농업기반공사	1	2,890	-	-	2,890	



• 회계별 재원부담

(단위 : 억원)

구 분	재원별 부담규모				비 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	기 타	
계	40,763	—	821	39,942	
지방비	821	—	821		청리공유수면매립
일반회계	494	—	494		
특별회계	327	—	327		
민 자	39,942			39,942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03	04	05	06	07	08	09	10	11-15	16-20
청 라 지 구	소 계	40,763	1,392	9,525	3,220	9,023	7,625	4,969	5,009	—	—	—
	지방비	821	322	1	201	149	148	—	—	—	—	—
	사업 시행자	39,890	1,070	9,524	2,966	8,874	7,477	4,969	5,009	—	—	—
	민 자	52	—	—	52	—	—	—	—	—	—	—

나. 광역교통사업

• 사업규모

- 고속도로(인천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 26.63km
- 철도 (인천지하철송도연장선) : 6.5km
- 도로 (경인고속도로직선화 등 진입로 8개소) : 23.1km
- 송도신항 : 12선석

• 사업비 : 143,784억원

• 시행자 : 인천광역시, 인천항공사, AMEC, Pyne, Hinnenberg사 등

• 사업기간 : 2003~2020

• 주요사업 : 인천대교, 제3인고속도로, 인천지하철송도연장, 인천국제공항철도, 인천국제공항2단계, 송도신항,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청라지구진입로 등



제4장 - 지구별 개발 계획 및 추진 현황

• 주요사업

(단위 : 억원)

사업명	위치	사업규모	사업건수	재원별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기타	
계			16	143,784	49,261 (48,332)	9,609 (3,548)	84,914	
인천대교건설 및 기반시설	공항~송도	L=12.33km	2	11,221	5,271 (5,271)	709 (148)	52,241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서구~청라	L=6.7km	1	7,007	3,504 (3,504)	3,503 (1,864)		
송도해안도로확장공사	송도	L=5.6km	1	2,576	1,288 (1,288)	1,288 (700)	-	
제3경인고속도로건설	고잔~시흥	L=14.27km	1	4,809	-	-	4,809	
청라~쓰레기수송로간 도로건설	청라	L=3.5km	1	2,261	2,092 (2,092)	169 (70)	-	
인천지하철송도연장	동춘동	L=6.5km	1	7,045	4,140 (4,140)	2,905 (765)	-	
인천국제공항2단계	영종	L=61.7km	1	47,032	23,516 (23,516)	-	23,516	
인천국제공항철도	영종	L=61.7km	1	39,490	8,458 (8,458)	-	31,032	
송도신항	송도	12선석	1	20,379	63 (63)	-	20,316	
기타 청라진입도로(6개사업)	청라		6	1,964	929	1,035	-	

※ 국비의 ()는 국비확정액, 지방비의 ()는 지방채사업

• 사업추진 주체별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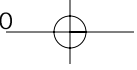
구분	사업건수	총사업비현황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총계	16	143,784	49,261	9,609	84,914	
인천광역시	11	21,113	11,953	9,160	-	
인천공항공사	1	47,032	23,516	-	23,516	
민자유치등	4	75,639	13,792	449	61,398	

• 회계별 자원부담

(단위 : 억원)

구분	재원별 부담규모				비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	기타	
계	143,784	49,261	9,609	84,914	
국고	49,261	49,261	-	-	
지방비	9,609	-	9,609	-	
일반회계	9,609	-	9,609	-	
특별회계	-	-	-	-	
민자	84,914	-	-	84,914	

※ 국비의 ()는 국비확정액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03	04	05	06	07	08	09	10	11~15	16~20
광역 교통 사업	소계	143,784	7,148	7,487	16,034	31,351	39,048	27,941	10,788	3,987	0	0
	국 비 (확 정)	49,261 (48,332)	2,123 (2,123)	2,951 (2,951)	5,477 (5,417)	12,389 (12,137)	14,696 (14,310)	10,694 (10,463)	931 (931)	-	-	-
	지방비 (지방채)	9,609 (3,548)	194	679 (268)	961 (687)	2,438 (958)	2,875 (993)	2,143 (593)	319 (49)	-	-	-
	기타	84,914	4,831	3,857	9,596	16,524	21,477	15,104	9,538	3,987	-	-

※ 국비의 ()는 국비확정액

다. 주요 관련사업

- 사업규모
 - 관광레저단지(용유·무의, 운북) : 299 만평
 - U-City 사업 : U-Traffic, U-Air Cargo, IFEZ 통합관제센터구축, 체험관 등
 - 송도 U-IT클러스터 조성 : 24,634평
- 사업비 : 80,934억원
- 시행자 :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등
- 사업기간 : 2003 ~ 2020
- 주요사업 : 용유·무의관광단지조성, 운북복합레저단지,
U-City, 송도 U-IT클러스터 조성 등

주요사업

(단위 : 억원)

구 분	위 치	사 업 규 모	사 업 건 수	구 분				구 분
				계	국 비	지방비	기 타	
계			13	80,934	4,839 (2,974)	4,577 (496)	71,518	
• 용유, 무의 관광단지 개발	용유, 무의동	213만평	1	21,200	802	802	19,596	
• 운북복합레저단지 개발	운북동		1	7,617	-	2	7,615	
• U-City관련산업(9)	경제자유구역	89만평	9	47,238	1,603	1,868	44,307	
• 송도 U-IT클러스터 조성	송도	2.5만평	1	3,994	2,974 (2,974)	1,020	-	
• 국방군사시설이전공사	영종	1식	1	885	-	885 (496)	-	

※ 국비의 ()는 국비확정액, 지방비 ()는 지방채사업



제4장 - 지구별 개발 계획 및 추진 현황

• 사업추진 주체별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 건 수	자원별 부담 규모				비 고
		계	국 비	지방비	민자등	
총 계	13	80,934	4,839	4,577	71,518	
인천광역시	7	7,865	4,037	3,773	55	
도시개발공사	2	28,817	802	804	27,211	
민자유치 등	4	44,252	-	-	44,252	

• 회계별 자원부담

(단위 : 억원)

구 분	자원별 부담 규모				비 고
	계	국 비	지방비	민자등	
계	80,934	4,839	4,577	71,518	
국 고	4,839	4,839	-	-	
지방비	4,577	-	4,577	-	
일반회계	1,979	-	1,979	-	
특별회계	2,598	-	2,598	-	IFEZ통합관제센터, U-City 체험관, 송도U-IT클러스터조성
민 자	71,518	-	-	71,518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03	04	05	06	07	08	09	10	11~15	16~20
주요 관련 사업	소계	80,934	555	559	4,031	5,348	12,780	9,221	5,933	6,276	36,231	0
	국 비 (확 정)	4,839 (2,974)	-	50	112	678 (326)	2,082 (1,352)	983 (701)	395 (365)	250 (230)	289	-
	지방비	4,577	553	436	398	1,149	956	730	32	20	306	-
	일반회계 (지방채)	1,979 (496)	553	436 (254)	390 (242)	184	216	81	32	20	67	
	특별회계	2,598	-	-	8	963	740	649	-	-	239	
	기타(민자)	71,518	2	73	3,521	3,524	9,742	7,508	5,506	6,006	35,636	

※ 국비 ()는 국비확정액



4. 재원대책

가. 총괄

- 전반적인 재원소요는 2006~2008년도에 전체재원의 56%가 집중되어 있음
 - 전체 사업기준 총 37조 1,738억원 중 기준 3년(2006~2008)간 총 20조 6,650억원(55.6%)가 집중되어 있고
 - 기반시설기준 총사업비 14조 7,020억원 중 동기간 (2006~2008)에 8조 961억원(55.1%)이 투자되는 등 사업비 조달이 1단계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 주요 재원인 국고보조는 국고의 예비타당성조사, 선별적 지원등으로 규모 축소가 예상됨.
 - 개발계획상 국고부담 3조 1,610억원에서 본 계획상 기반시설사업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4,883억원으로 2조 6,727억원 감소.
 - 이 중 3,115억원(63.8%)의 지원이 확정되어 있고 전체사업기준으로 총 5조 8,983억원이 필요하나 이 중 5조 4,421억원(92.3%)가 지원 중이거나 확정단계에 있음.
 - 당초 개발계획에서 포괄적으로 기반시설의 50%를 국고로 분류하였으나, 실제 국고보조 시 선별적 보조지원
- 지방비 부담, 특히 일반회계 투자소요 증가가 예상됨.
 - 2006~2008년도 일반회계 부담은 1조 929억원(일반회계전체의 59.3%)로 재원의 분담을 위한 조치로 지방채, 채무부담과 사업시기 조정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 일반회계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종사업 중 일부를 시(경제청)에서 시행하는 방안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 국고사업

1) 주요대상사업

- 기반시설사업
 - 송도지구 : 송도 1·3공구기반시설, 공원녹지조성(1·3, 5·7, 6·8공구, 1시가지, 지산단지), 송도국제도시 중앙대로 건설사업 등 15개 사업
 - 영종지구 :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등 9개 도로사업



제4장 - 지구별 개발 계획 및 추진 현황

• 광역교통사업

- 도로사업 : 인천대교 건설사업, 경인고속도로직선화, 송도해안도로확장, 청라지구진입도로 등 9개 사업
- 철도사업 등 : 인천지하철송도연장, 공항철도역사신설, 인천국제공항2단계, 인천국제공항철도, 송도신항 등 4개 사업

- 주요 관련 사업 : 용유·무의관광단지개발, U-City, 송도U-IT클러스터 등 7개사업

2) 연도별 부담규모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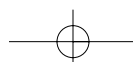
구 분		총사업비	'03	'04	'05	'06	'07	'08	'09	'10	'11-15	'16-20
계 (확 정)		58,983 (54,421)	2,434 (2,399)	3,280 (3,208)	6,246 (6,032)	13,941 (13,312)	17,603 (16,411)	12,048 (11,307)	1,738 (1,334)	760 (324)	742 (94)	191
기 반 시 설 사 업	계	4,883 (3,115)	310 (276)	280 (257)	656 (615)	875 (849)	825 (749)	371 (143)	412 (38)	510 (94)	453 (94)	191
	송 도	2,155 (1,802)	310 (276)	130 (107)	418 (377)	566 (540)	187 (133)	193 (143)	88 (38)	169 (94)	94 (94)	
	영 종	2,728 (1,313)	-	150 (150)	238 (238)	309 (309)	638 (616)	178	324	341	359	191
	청 라	-	-	-	-	-	-	-	-	-	-	-
광역교통사업		49,261 (48,332)	2,123 (2,123)	2,951 (2,951)	5,477 (5,417)	12,389 (12,137)	14,696 (14,310)	10,694 (10,463)	931 (931)	-	-	-
주요관련사업		4,839 (2,974)	-	50	112	678 (326)	2,082 (1,352)	983 (701)	395 (365)	250 (230)	289	

※ ()는 국비확정액

3) 인천광역시 시행 국고보조사업

가) 주요 대상사업

- 대상사업 : 인천광역시 또는 시 산하기관에서 국고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
- 주요사업
 - 기반시설사업
 - 송도지구 : 송도1공구(1-1,1-2)기반시설, 송도3공구기반시설, 중수공급시설 건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송도국제도시 중앙대로, 남부광역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남부음식물 자원화시설, 푸른송도배수지 건설, 푸른송도배수지 송배수관
 - 영종지구 : 예단포~중산동간도로, 구읍벤티~예단포도로, 북측~남측유수지간도로, 덕교삼거리~무의도로, 큰무리~광명향도로, 무의초교~하나개도로, 광명향선착장간도로, 북측~용유초교도로





– 광역교통사업

- 도로사업 : 경인고속도로직선화, 송도해안도로확장, 청라지구진입도로(6)
- 철도사업 등 : 인천지하철송도연장선, 공항철도역사신설

– 주요 관련사업

- 정보화사업 : U-Traffic, U-foreign Admin, U-wallet, IFEZ통합관제센터, 송도U-IT클러스터 조성

나) 연도별 부담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03	'04	'05	'06	'07	'08	'09	'10	'11-15	'16-20
계		20,873 (17,113)	335 (301)	551 (528)	1,808 (1,699)	4,411 (3,959)	6,720 (5,998)	4,256 (3,515)	1,099 (695)	760 (324)	742 (94)	191
기 반 사 설 사 업	계	4,883 (3,115)	310 (276)	280 (257)	656 (615)	875 (849)	825 (749)	371 (143)	412 (38)	510 (94)	453 (94)	191
	송 도	2,155 (1,802)	310 (276)	130 (107)	418 (377)	566 (540)	187 (133)	193 (143)	88 (38)	169 (94)	94 (94)	
	영 종	2,728 (1,313)	—	150 (150)	238 (238)	309 (309)	638 (616)	178	324	341	359	191
	청 라	—	—	—	—	—	—	—	—	—	—	—
광역교통사업		11,953 (11,024)	25 (25)	271 (271)	1,144 (1,084)	3,036 (2,784)	4,283 (3,897)	2,902 (2,671)	292 (292)	—	—	—
주요관련사업		4,037 (2,974)	—	—	8	500 (326)	1,612 (1,352)	983 (701)	395 (365)	250 (230)	289	

※ ()는 국비확정액

4) 공공사업자 또는 민자 시행 국고보조사업

가) 주요 대상사업

- 대상사업 : 국고 직접투자 또는 민간사업자 지원사업
- 주요 사업
 - 광역교통사업유형
 - 도 로 사 업 : 인천대교건설
 - 철도사업 등 : 인천국제공항2단계, 인천국제공항철도, 송도신항
 - 주요 관련사업
 - 관광단지조성 : 용유 · 무의 관광단지 개발사업



제4장 - 지구별 개발 계획 및 추진 현황

나) 연도별 부담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03	04	05	06	07	08	09	10	11~15	16~20
계		38,110 (37,308)	2,098 (2,098)	2,730 (2,680)	4,437 (4,333)	9,531 (9,353)	10,883 (10,413)	7,792 (7,792)	639 (639)	0	0	0
광역 교통 사업	계	37,308 (37,308)	2,098 (2,098)	2,680 (2,680)	4,333 (4,333)	9,353 (9,353)	10,413 (10,413)	7,792 (7,792)	639 (639)	0	0	0
	인천대교	5,271 (5,271)	-	-	166 (166)	1,226 (1,226)	1,577 (1,577)	1,663 (11,663)	639 (639)	-	-	-
	공항2단계	23,516 (23,516)	1,052	1,374 (1,374)	2,773 (2,773)	6,434 (6,434)	7,320 (7,320)	4,563 (4,563)	-	-	-	-
	공항철도	8,458 (23,516)	1,046 (1,046)	1,306 (1,306)	1,331 (1,331)	1,693 (1,693)	1,516 (1,516)	1,566 (1,566)	-	-	-	-
	송도신항	63 (63)	-	-	63 (63)	-	-	-	-	-	-	-
주요관련사업 (용유무의관광단지)		802	-	50	104	178	470					

※ ()는 국비확정액

다. 지방비사업

1) 일반회계

가) 주요 대상사업

- 기반시설사업
 - 송도지구 : 남부광역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국방·군사시설
 - 영종지구 : 영종지구 전도로사업,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 청라지구 : GM대우 주행시험장 및 R&D센터 조성사업
- 광역교통사업
 - 도로사업 : 인천대교 건설사업,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송도해안도로 확장, 청라지구 진입도로 등 9개 사업
 - 철도사업 : 인천지하철송도연장, 공항철도역사신설등 2개사업
- 주요관련사업 : 용유·무의관광단지 및 운북복합레저사업,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등 5개사업





나) 연도별 부담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03	'04	'05	'06	'07	'08	'09	'10	'11~15	'16~20
계		18,428 (5,297)	1,268	2,064 (783)	2,194 (1,122)	4,211 (1,414)	4,030 (1,233)	2,688 (631)	904 (114)	414	465	190
기 반 사 설 사 업	계	6,840 (1,253)	522	947 (261)	843 (193)	1,588 (456)	940 (240)	465 (38)	553 (65)	394	398	190
	송 도	875 (250)	169	456 (250)	213	37	—	—	—	—	—	—
	영 종	5,471 (1,003)	353	491 (11)	433 (193)	1,402 (456)	792 (240)	465 (38)	553 (65)	394	398	190
	청 라	494	—	—	197	149	148	—	—	—	—	—
광역교통사업		9,609 (3,548)	194	679 (268)	961 (687)	2,438 (958)	2,875 (993)	2,143 (593)	319 (49)	—	—	—
주요관련사업		1,979 (496)	553	436 (254)	390 (242)	184	216	81	32	20	67	—

※ ()는 지방채사업

다) 경제자유구역내 세원추정

• 세원분석 추정 기준

- 총 세 원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2003. 8)상의 토지이용계획
- 단계별세원 : 실제 세원포착은 기반시설 공급후 2~3년후 세수예상
 - 1단계(2008)까지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 2단계(2020)까지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 세원추계 : 전체 세원은 비교적 안정적 추계
 - 주택구분 : 공동주택(저층, 고층), 단독주택, 주상복합으로 구분
 - 대상세원 : 취득세와 등록세만 계상

※ 공동주택 기준시세 평당 750만원기준, 단독 및 주상복합은 세대당 2억원 기준

제4장 - 지구별 개발 계획 및 추진 현황

• 연도별 세원추정

(단위 : 억원)

구 분	계	1단계(2008)								2단계(2020)		
		소 계	'04	'05	'06	'07	'08	'09	'10	소 계	'11~15	'16~20
계	35,375	21,609	625	1,354	1,196	1,200	1,663	7,784	7,787	13,766	6,882	6,884
송 도	16,576	9,056	37	822	592	514	882	3,104	3,105	7,520	9,760	3,760
영 종	13,740	13,740	585	531	603	685	779	2,155	2,156	6,246	3,122	3,124
청 라	5,059	5,059	3	1	1	1	2	2,525	2,526	-		

※ 2004~2008 당초추계에 NSC(2008년 준공 739억원), 도시개발공사(2007년 준공 169억원), 성지·한진(2006년 준공 191억원) 공급분 추가

• 수지분석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03	'04	'05	'06	'07	'08	'09	'10	'11~15	'16~20
수입 추정	35,375	-	625	1,354	1,196	1,200	1,663	7,784	7,787	6,882	6,884
세출 수요	18,428	1,268	2,064	2,194	4,211	4,030	2,688	904	414	465	190
증 감	16,947	-1,268	-1,439	-840	-3,015	-3,830	-1,025	6,880	7,373	6,417	6,694

• 주택 유형별 용지면적

(단위 : 천㎡)

구 분	계	송도지구			영종지구			청라지구		
		소 계	1단계 (2008)	2단계 (2020)	소 계	1단계 (2008)	2단계 (2020)	소 계	1단계 (2008)	2단계 (2020)
계	18,0235	6,544	4,586	1,958	5,975	2,381	3,594	5,506	5,506	-
저 총 공동주택	3,595	1,375	200	1,175	1,857	626	1,231	363	363	-
고 총 공동주택	7,808	3,690	3,026	664	2,759	892	1,867	1,359	1,359	-
단독주택	2,517	346	346	-	1,295	799	496	876	876	-
주상복합	4,105	1,133	1,014	119	64	64	-	2,908	2,908	-

• 세원추정 산출내역

- 분양공고된 공동주택(성지, 한진, 도개공, NSC 등)

· 분양가에 세대수, 거래세(취득세, 등록세)의 세율 적용

· 건설업체 및 입주자의 취득분 계상

- 분양 미공고 공동주택

· 평당 7.5백만원에 평형 및 세대수, 분양원가비율,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세율 적용

· 건설업체 및 입주자의 취득분 계상



– 단독주택 및 주상복합

- 주거시설 조성계획상의 세대수 및 중개업소의 단독주택시세에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세율 적용

– 상업·산업용지

- 개별공시지가 1백만원(/㎡)기준, 면적 및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세율 적용

– 승계 취득부분의 처리

-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거래가 부진하지만 장래 경기호전으로 보유 부동산의 25%정도 승계취득으로 거래세 증가 예상
- 향후 실거래가 과세 예정으로 실거래가 산출이 곤란하여 기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일괄산출

2) 특별회계

가) 주요 대상사업

-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송도지구: 일반회계부담분을 제외한 전 사업
 - 1·3공구: 매립 및 기반시설공사, 공원녹지조성공사등
 - 2·4공구: 매립 및 기반시설공사, 1시가지 공원녹지조성공사등
 - 5·7공구: 매립 및 기반시설공사, 공원녹지조성공사등
 - 6·8공구: 매립 및 기반시설공사, 공원녹지조성공사
 - 공통시설: 송도신도시 중앙대로
 - 청라지구: 청라공유수면매립사업
 - 주요관련사업: IFEZ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U-City체험관 건립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푸른송도배수지 건설 및 송·배수관부설공사



제4장 - 지구별 개발 계획 및 추진 현황

나) 연도별 부담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03	'04	'05	'06	'07	'08	'09	'10	'11-15	'16-20
계	42,914	5,554	1,906	2,372	4,576	4,263	6,698	5,587	5,100	6,380	478
송도지구	39,989 (6,268)	5,232 (1,122)	1,905 (89)	2,360 (362)	3,614 (209)	3,523 (58)	6,049 (1,487)	5,587 (1,547)	5,100 (1,394)	6,141	478
1•3공구	6,761 (1,810)	1,174 (1,122)	159 (89)	638 (362)	1,703 (209)	1,473 (28)	962	652	-	-	-
2•4공구	9,551	3,915	1,603	1,000	1,075	167	450	494	759	88	-
5•7공구	9,359 (1,923)	-	52	240	379	1,448	1,971 (655)	2,040 (714)	2,100 (554)	1,129	-
6•8공구	13,586 (2,505)	-	27	369	369	368	2,635 (833)	2,363 (833)	2,147 (839)	4,830	478
공통시설 등	732 (30)	143	64	113	88	67 (30)	31	38	94	94	-
청라지구	327	322	1	4	-	-	-	-	-	-	-
주요 관련 사업	2,598	-	-	8	962	740	649	-	-	239	-

※ ()는 채무부담행위사업

다) 특별회계 수입추정

- 추정기준
 - 대상토지 : 송도유상매각대상 토지 전량 매각
 - 가 격 : 용도별 용지매각 기준에 의한 매각금액 및 추정액

추정액

(단위 : 억원)

구 분	계	'03까지	'04	'05	'06	'07	'08	'09	'10	'11-15	'16-20
합 계	74,899	4,182	813	2,851	4,144	6,972	10,555	17,674	12,022	7,843	7,843
1•3공구	12,076	-	-	2,455	2,808	2,080	2,080	1,171	80	201	201
2•4공구	15,531	4,182	813	396	1,336	4,892	1,640	977	669	313	313
5•7공구	32,373	-	-	-	-	-	6,835	9,611	6,612	4,658	4,657
6•8공구	14,919	-	-	-	-	-	-	4,915	4,661	2,672	2,671





• 수지분석

(단위 : 억원)

구 분	계	'03까지	'04	'05	'06	'07	'08	'09	'10	'11-15	'16-20
수입 추정	74,899	4,182	813	2,851	4,144	6,972	10,555	17,674	12,022	7,843	7,843
세출 수요	42,914	5,554	1,906	2,372	4,576	4,263	6,698	5,587	5,100	6,380	478
증 감	31,985	-1,372	-1,093	479	-432	2,709	3,857	12,087	6,922	1,463	7,365

라. 공공사업 시행자 및 민자사업

가) 주요대상사업

- 한국토지공사 : 영종지역개발사업, 청라지구 조성사업
- 농업기반공사 : 청라지구 화훼단지조성
- 도시개발공사 : 영종지역개발사업, 용유 · 무의관광단지, 운북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 인천공항공사 : 인천국제공항 2단계건설,
- 민 자 : 인천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철도, 송도신항, U-City사업 등

• 연도별 부담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03	'04	'05	'06	'07	'08	'09	'10	'11-15	'16-20
계		251,413	5,903	13,554	17,521	51,283	51,565	39,132	22,906	14,913	35,636	-
기 단 기 사 업	계	94,981	1,070	9,624	4,404	31,235	19,346	16,520	7,862	4,920	-	-
	송 도	-	-	-	-	-	-	-	-	-	-	-
	영 종	55,039	-	100	1,386	22,361	11,869	7,161	7,242	4,920	-	-
	청 라	39,942	1,070	9,524	3,018	8,874	7,477	9,359	620	-	-	-
광역교통사업		84,914	4,831	3,857	9,596	16,524	21,477	15,104	9,538	3,987	-	-
주요관련사업		71,518	2	73	3,521	3,524	9,742	7,508	5,506	6,006	35,636	-



5. 개발계획 비교

가.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과 비교

(1) 개발계획

- 계 획 명 :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 작성년도 : 2003. 8
- 기반시설 : 14조 7,610억원
- 주요 대상지구
 - 송도지구 : 전체면적(1공구 ~ 11공구)
 - 영종 · 청라지구 : 전지역

(2) 종합기반시설 투자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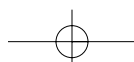
- 기반시설사업비 14조 7,020억원(종합투자비 37조 1,738억원)
- 주요 대상지구
 - 송도지구 : 1단계(1 ~ 8공구)
 - 영종 · 청라지구 : 전지역

(3) 계획간 사업비 비교

- 개발계획과 종합기반시설 투자계획간 사업비의 단순비교는 사업비 분류 사업대상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외형적 투자 재원별로 비교

(단위 : 억원)

구 분	개발계획 (기반시설)	종 합 기 반 시 설 투 자 계 획				비 고
		기반시설	증 감	종합투자	증 감	
계	147,610	147,020	△590	371,738	224,128	
국 고	31,610	4,883	△26,727	58,983	27,373	
지 방비	67,420	47,156	△20,264	61,342	△6,078	
일 반	15,390	6,540	△8,550	18,428	3,038	
특 별	52,030	40,316	△11,714	42,914	△9,116	
민자유치 등	48,580	94,981	46,401	251,413	202,833	





나. 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비교

구 분		인 천	부산 · 진해	광양만권
위 치		송도, 영종, 청라 총3개지구	부산강서, 경남진해 총5개지구	전남여수, 순천, 광양, 경남하동 총5개지구
지 정 일		2003. 8. 6	2003. 10. 27	2003. 10. 27
면 적		총 209km ² (6,336만평) · 송 도 53.3 (1,611) · 영 종 138.3(4,184) · 청 라 17.9 (538)	총 104.1km ² (3,171만평) · 신탄만 10.7(324) · 명 지 10.9(331) · 지 사 40.2(1,220) · 두 동 20.6(623) · 웅 동 21.7(656)	총 88.98km ² (2,691만평) · 광 양 12.9 (391) · 울 촌 28.15(852) · 신 덕 25.47(770) · 하 동 12.56(380) · 화 양 9.9 (299)
사 업 비	총	37조 1,738억원	27조 1)	16조 5,033억원 2)
	기반 3)	14조 7,610	7조 6,371	8조 1,000
	기 타 (광역 교통등)	22조 4,128	19조 3,629	8조 4,053
사업기간		2020년 완료 (1단계 2008년)	2020년 완료 (1-1단계 2006년)	2020년 완료 (1-1단계 2006년)
개발컨셉		국제업무, 항공물류, IT, BT, 레저	물류, 해사, 소재 · 부품	물류, 화학, 부품, 해양레저

〈 참조 〉

- 1) BJFEZ 운영성과와 개선과제(2005.9.1)
- 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홈페이지)
- 3) 경제자유구역지정시 사업비



6. 세부사업 내역

가) 총 사업 : 86개 사업 37조 173,798백만원

- 기반시설사업 : 57개사업 14조 702,044백만원
- 광역교통사업 : 16개사업 14조 378,362백만원
- 주요관련사업 : 13개사업 8조 93,392백만원

나) 세부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재 원 별 부 담 규 모				비 고
		계	국 비	지방비	민자(기타)	
	총 계	37,173,798	5,898,306 (5,442,078)	6,134,254 (1,156,388)	25,141,238	
I	기반시설사업	14,702,044	488,300 (311,507)	4,715,654 (752,060)	9,498,090	
A	《송도지구》	4,301,945	215,500 (180,207)	4,086,445 (651,760)	-	
	〈1·3공구〉	715,130	39,050 (39,050)	676,080 (181,011)	-	
1	1·3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186,414	-	186,414 (181,011)	-	인천광역시 (특별)
2	송도 1공구 기반시설공사(1-1)	116,220	15,825 (15,825)	100,395	-	”
3	송도 1공구 기반시설공사(1-2)	130,036	15,825 (15,825)	114,211	-	”
4	송도 3공구 기반시설공사	178,075	7,400 (7,400)	170,675	-	”
5	송도 1공구 어민보상용지 기반시설공사	28,123	-	28,123	-	”
6	송도 1·3 공구 공원녹지 조성공사	49,776	-	49,776	-	”
7	송도 1·3 공구 배전선로 설치공사	20,782	-	20,782	-	”
8	송도 6·8공구 가로등 설치공사	5,704	-	5,704	-	”
9	송도 6·8공구 공동구 설치공사	-	-	-	-	”





• 재원별 부담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재 원 별 부 담 규 모				비 고
		계	국 비	지방비	민자(기타)	
	〈2·4공구〉	1,029,656	74,680 (55,780)	954,976	-	
10	2·4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174,979	-	174,979	-	인천광역시 (특별)
11	송도 2·4공구 기반 시설 건설공사(1-1)	137,304	-	137,304	-	"
12	송도 2·4공구기반 시설 건설공사(1-2)	117,204	-	117,204	-	"
13	송도 2·4공구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	19,315	-	19,315	-	"
14	중수공급시설 건설사업	20,070	6,021 (6,021)	14,049	-	"
15	송도 5지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4공구)	16,861	-	16,861	-	"
16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204,200	18,900	185,300	-	"
17	송도 1가지 공원 녹지조성공사	117,026	-	117,026	-	"
18	야조(새)공원조성 공사 (2,4)	5,013	-	5,013	-	"
19	송도5지구 공원녹지 조성공사(2,4)	21,991	-	21,991	-	"
20	송도 2·4공구 배전선로 공사	21,462	-	21,462	-	"
21	송도 2·4공구 가로등 설치 공사	3,765	-	3,765	-	"
22	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 도로 개설 공사	101,759	49,759 (49,759)	52,000	-	"
23	지식정보산업단지 기반시설 건설공사	45,098	-	45,098	-	"
24	지식정보산업단지 공원녹지 조성공사	19,580	-	19,580	-	"
25	지식정보산업단지 배전선로 설치공사	4,029	-	4,029	-	"



제4장 - 지구별 개발 계획 및 추진 현황

• 재원별 부담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재 원 별 부 담 규 모				비 고
		계	국 비	지방비	민자(기타)	
	〈5•7공구〉	935,861	-	935,861 (192,290)	-	
26	5•7공구 공유 수면 매립공사	272,312	-	272,312 (192,290)	-	인천광역시 (특별)
27	송도 5•7공구 기반 시설공사	509,068	-	509,068	-	인천광역시 (특별)
28	송도 5•7공구 공원 녹지 조성공사	129,321	-	129,321	-	인천광역시 (특별)
29	송도 5•7공구 배전 선로 설치공사	19,750	-	19,750	-	인천광역시 (특별)
30	송도 5•7공구 가로등 공사	5,410	-	5,410	-	인천광역시 (특별)
	〈6•8공구〉	1,358,749	-	1,358,749 (250,459)	-	
31	6•8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399,957	-	399,957 (250,459)	-	인천광역시 (특별)
32	송도 6•8공구 기반 시설 건설공사	721,718	-	721,718	-	인천광역시 (특별)
33	송도 6•8공구 공원녹지 조성공사	210,312	-	210,312	-	인천광역시 (특별)
34	송도 6•8공구 배전선로 설치공사	20,996	-	20,996	-	인천광역시 (특별)
35	송도 6•8공구 가로등 설치공사	5,766	-	5,766	-	인천광역시 (특별)
	〈공통시설등〉	262,549	101,770 (85,377)	160,779 (28,000)	-	
36	송도신도시 중앙대로	84,500	35,577 (35,577)	48,923	-	인천광역시 (특별)
37	남부광역생활 폐기물처리시설 건설	121,500	49,800 (49,800)	71,700 (20,000)	-	인천광역시 (일반)
38	남부음식물 자원화 시설건설	21,494	5,682	15,812	-	
39	푸른송도배수지건설	27,982	8,944	19,038 (3,000)	-	인천광역시 (특별)
40	푸른송도배수지 송배수관 부설	7,073	1,767	5,306	-	



시민의 힘 하나로 인천의 힘 세게로

• 재원별 부담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재 원 별 부 담 규 모				비 고
		계	국 비	지방비	민자(기타)	
B	《영종지구》	6,323,747	272,800 (131,300)	547,081 (100,300)	5,503,866	
	〈종합개발사업〉	5,498,100	—	—	5,498,100	
1	영종지역개발사업	5,498,100	—	—	5,498,100	한국토지공사 도시개발공사
	〈도로사업〉	825,647	272,800	547,081 (100,300)	5,766	
2	공항신도시IC~영종IC간 도로(광-3)	193,400	—	193,400 (96,700)	—	인천광역시 (특별)
3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대-1)	107,100	46,700 (46,700)	60,400	—	인천광역시 (특별)
4	예단포~운북환경사업소간 도로개설 (대-1)	28,019	—	22,253	5,766	인천광역시 (특별)
5	예단포~고항고속도로간 도로개설 (대-1)	9,828	—	9,828 (3,600)	—	인천광역시 (특별)
6	구읍벤틀터~예단포간 도로개설(대-1)	97,900	48,950	48,950	—	인천광역시 (특별)
7	북측~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대-2)	169,200	84,600 (84,600)	84,600	—	인천광역시 (특별)
8	덕교 삼거리~무의간 도로개설(대-3)	105,400	52,700	52,700	—	인천광역시 (특별)
9	큰무리~광명항입구간 도로개설(중-1)	27,000	13,500	13,500	—	인천광역시 (특별)
10	무의초교~하나개 해수욕장간 도로 (중-1)	3,600	1,800	1,800	—	인천광역시 (특별)
11	광명항선착장간도로(중-2)	2,600	1,300	1,300	—	인천광역시 (특별)
12	북측유수지~용유초교간 도로개설 (대-2)	46,500	23,250	23,250	—	인천광역시 (특별)
13	영종회주도로확장(소-1)	11,100	—	11,100	—	인천광역시 (특별)
14	늘목입구~덕교삼거리 간도로개설 (중-1)	24,000	—	24,000	—	인천광역시 (특별)
C	《청라지구》	4,076,352	—	82,128	3,994,224	
1	청라공유수면매립	32,728	—	32,728	—	인천광역시 (특별)
2	청라지구조성사업	3,700,024	—	—	3,700,024	한국토지공사
3	청라지구 화훼단지조성	289,000	—	—	289,000	농업기반공사
4	GM대우 주행시험장 및 R&D센터조성	54,600	—	49,400	5,200	인천광역시 (일반)



제4장 - 지구별 개발 계획 및 추진 현황

• 재원별 부담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재 원 별 부 담 규 모				비 고
		계	국 비	지방비	민자(기타)	
II	광역교통사업	14,378,362	926,121 (131,300)	960,893 (354,773)	8,491,348	
	〈도로사업〉	2,931,314	1,282,165 (1,215,465)	644,149 (278,241)	1,005,000	
1	인천대교 건설사업	1,096,100	527,100 (527,100)	44,900	524,100	민 자
2	인천대교기반시설공사	26,030	—	26,030 (14,800)	—	인천광역시 (일반)
3	경인고속도로직선화(광-1)	700,730	350,365 (350,365)	350,365 (186,441)	—	인천광역시 (일반)
4	송도해안도로확장공사(광-1)	257,600	128,800 (128,800)	128,800 (70,000)	—	인천광역시 (일반)
5	제3인경인고속도로건설	480,900	—	—	480,900	인천광역시 (일반)
6	청라지구~쓰레기수송도로간 도로 (광-2)	226,100	209,200 (209,200)	16,900 (7,000)	—	인천광역시 (일반)
7	청라지구 ~ 검단우회도로간 도로 (대-1)	106,254	47,900	58,354	—	인천광역시 (일반)
8	청라지구 ~ 중봉로간 도로 (대1-16)	18,900	9,450	9,450	—	인천광역시 (일반)
9	청라지구 ~ 북항간도로개설	5,300	2,650	2,650	—	인천광역시 (일반)
10	청라지구 ~ 서곶로도로개설	9,600	4,800	4,800	—	인천광역시 (일반)
11	청라지구 ~ 경인운하 도로개설	3,800	1,900	1,900	—	인천광역시 (일반)
	〈철도사업등〉	11,447,048	3,643,956 (3,617,706)	316,744 (76,532)	7,486,348	
12	인천지하철송도연장선	704,500	414,006 (414,006)	290,494 (76,532)	—	인천광역시 (일반)
13	공항철도 역사신설(영종, 용유, 청라)	52,500	26,250	26,250	—	인천광역시 (일반)
14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	4,703,200	2,351,600 (2,351,600)	—	2,351,600	인천공항공사
15	인천국제공항철도	3,949,000	845,800 (845,800)	—	3,103,200	민 자
16	송도신항건설	2,037,848	6,300 (6,300)	—	2,031,548	민 자



• 재원별 부담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재 원 별 부 담 규 모				비 고
		계	국 비	지방비	민자(기타)	
Ⅲ	주요관련사업	8,093,392	483,885 (297,400)	457,707 (49,555)	7,151,800	
	《관광단지조성》	2,881,700	80,200	80,400	2,721,100	
1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사업	2,120,000	80,200	80,200	1,959,600	도시개발공사
2	운북 복합레저단지 개발사업	761,700	—	200	761,500	도시개발공사
	《정보화사업》	5,123,185	403,685	288,800	4,430,700	
3	U_Traffic(U-ITS)	36,858	14,299	17,079	5,480	인천광역시 (일반)
4	U-Air Cargo	4,734	—	—	4,734	민자
5	U-Container	4,162	—	—	4,162	민자
6	U-Foreign Admin	11,432	5,716	5,716	—	인천광역시 (일반)
7	U-Wallet	10,107	3,900	6,207	—	인천광역시 (일반)
8	U-Biz Support(UCC)	69,124	—	—	69,124	민자
9	U-Network 구축사업	4,347,200	—	—	4,347,200	민자
10	IFEZ 통합관제센터	164,740	82,370	82,370	—	인천광역시 (특별)
11	체험관	75,428	—	75,428	—	인천광역시 (특별)
12	송도U-IT클러스터조성	399,400	297,400 (297,400)	102,000	—	인천광역시 (특별)
	《기 타》	88,507	—	88,507 (49,555)	—	
13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	88,507	—	88,507 (49,555)	—	인천광역시 (일반)

※ 국비의 ()는 국비확정액, 지방비의 ()는 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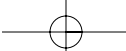
제5장

민원 및 갈등 해결 모범사례

제1절 인천대교 건설사업

제2절 미사일 기지 이전사업

제3절 관광포장마차 조성사업



제1절 인천대교 건설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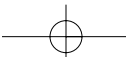
1. 인천대교 건설사업

가. 사업 개요

- 위 치 : 인천국제공항~송도국제도시~제2경인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 연 장 : 21.48km(민자 구간 12.3km, 연결도로 9.14km)
- 사 업 비 : 20,012억원(민자 구간 10,961억, 연결도로 등 9,051억원)
 - * 민자사업 구간 : 1조961억원(국비 5,271억원, 시비 449억원, 민자 5,241억원)
 - * 동측 연결도로 : 6,857억원(국비), 서측 연결도로 : 1,534억원(인천시)
- 사 업 기 간 : 2004. 10 ~ 2009.10(운영 30년)
- 사업시행자 : KODA개발(민자), 한국도로공사(연결도로)
- 교 량 형 식 : 사장교
 - 주경간 800m, 주탑 높이 230.5m, 선박통과 높이 74m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인천대교 조감도





2. 추진 현황

가. 해저터널 구상으로부터 인천대교 건설수립과정까지

인천국제공항 건설이 계획되기 시작한 것은 1988년 말 청와대 주도로 사회간접자본 확충 장기계획이 수립될 때부터였다. 김포공항으로는 더 이상의 항공수요를 감내하지 못해 수도권 신공항 건설이 필요한 상황에서 1989년 가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영종도 상공을 직접 시찰하고 부지로 확정했다.

한편 송도 연안을 매립해 새로운 형태의 신도시를 구상하던 당시 인천직할시는 공항과 신도시를 연결할 새로운 교통망 확충을 구상하게 된다. 수도권 신공항 건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공항고속도로와 철도가 서울과 연계되어 동시에 건설된다는 계획은 마련되어 있었지만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남부와 연결하는 교통망은 제대로 대책이 수립되지 못했다. 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를 이용할 경우 추가적인 물류 비용과 시간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 과정에서 인천직할시는 수도권 신공항과 인천, 서울 강남과 수도권 남부를 연결하는 교통망에 대한 구상을 하게 된다. 해저터널 구상이 진행된 것은 이때부터이다. 인천직할시는 1992년 6월 1일부터 1994년 2월까지 (주)대우엔지니어링과 ‘인천해저터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해 해상지층탐사, 토질조사, 경제성 분석 등을 의뢰했다. 해저터널 시공은 안보 문제, 선박 통항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용역이 실시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관련 계획 검토부터 시작해서 교통수요예측, 예비기술검토, 노선 대안의 설정, 해상지층 탐사 및 지반조사, 최적 노선 선정 및 단계별 연륙방안, 기본계획, 경제성분석, 집행 계획 등이 실려 있다. 해저터널 시공을 전제하고 가장 적절한 노선과 시공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총 5개의 노선을 검토해 영종도의 단계별 연륙 교통 수요와 광역 교통 체계를 분석해 요구되는 통행 특성, 경제성 및 시공법 등을 바탕으로 최적이라고 판단되는 노선 대안을 검토했다.

이렇게 계획된 해저터널은 실제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치고 여러 조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교량 형식으로 바뀌게 된다. 해저 터널을 뚫을 때 드는 막대한 시공비와 공기 연장(교량보다 1.5배), 시공 중 일부 항로의 폐쇄, 연약한 지반층, 고가의 유지 관리비, 교량 자체가 지닌 상징성과 관광 효과 등의 문제로 교량 건설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되는 것이다. 또한 1995년 11월 21일자 「경인일보」에서는 해저터널 특집을 다루고 있는데 막대한 공사비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어 지역 여론도 현수교식이 더 경제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제5장 - 민원 및 갈등 해결 모범사례

결국 해저터널 구상이 폐기되고 인천대교 건설이 구상된 것은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송도국제도시 조성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96년 7월이다. 이때만 하더라도 인천시 도로과에서 지방정부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매립되고 있던 송도국제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과 직접 연결되는 다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이때의 구간은 인천항 개항백주년기념탑(현재 철거)에서 영종운남JC를 연결하는 것이었으며 왕복 6차선의 총 길이 11.8km 였다. 예상 사업비는 8,500억원이었으며 공사기간을 약 6년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계획을 수립하고 97년 2월 인천해양수산청과 해양경찰청, 해군 2함대와 의견을 조화했고, 몇 차례의 협의 끝에 1997년 4월 7일 당시 재정경제원 고시 97-14호로 민자유치기본계획이 확정된다.

〈 공항연결 교통로로 초기에 구상된 해저터널 및 교량 노선도 〉





인천대교 총 길이 11.8km 중 현수교 구간은 1.6km이고, 사업비는 5,200억원으로 결정되었다. 중앙정부는 인천대교 건설 필요성을 인정하되 민자유치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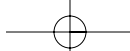
이때부터 인천광역시는 인천대교 건설에 따른 제반 협의에 들어간다. 1997년 5월 인천대교 건설계획을 국방부, 해양수산부와 협의하기 시작했으며 1997년 6월 9일 당시 내무부에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중앙투자심사분석을 받았다. 이때 인천공항 1단계 개항 이후 이용 추이를 보아가면서 추진한다는 잠정적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인천광역시는 1997년 6월 13일 인천대교 건설계획 방침을 변경하게 된다. 송도국제도시와 국제공항의 배후 지원 단지를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 인천대교의 효율성을 높이고 규모도 총 길이 14.6km(현수교 구간 2.3km)로 늘어나게 된다. 당연히 사업비도 증가되어 총 1조 5,200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 무렵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부는 인천대교가 운항 선박의 시야를 차단하고 레이더 판독을 방해해 선박 안전 운항에 지장이 예상됨을 지적했고, 국방부는 인천대교가 전쟁 발생 시 피폭되면 항로가 차단되는 문제가 생겨 군 작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차 해저터널로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국방부와 해양수산부가 제기된 문제는 1998년에 이르기까지도 명확히 타결을 보지 못하다가 1998년 12월 31일 민간투자법이 개정되고 1999년 2월 제10회 수도권 행정협의회의의 안건으로 인천대교 조기건설을 건의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됐다.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이 인천을 방문할 때 인천대교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해달라는 인천광역시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1999년 6월 타당성 조사 용역비 10억원을 확보하면서 인천대교 건설이 가시권에 들어서게 된다. 아울러 송도신항만 건설 지역에 해군기지를 건설해 이전한다는 중재안으로 국방부와도 협의가 완료되고 1999년 7월 김대중 대통령 캐나다 순방 때 캐나다 아그라(AGRA)사가 투자의향을 표명하면서 중앙정부 사업으로 추진되는 계기를 맞았다.

1999년 9월 캐나다의 아그라시는 건설교통부, 인천광역시와 차례로 투자의향서를 서명하고 체결한다. 인천광역시는 민관합동법인을 설립할 때 지분을 참여하기로 약속했다. 같은 해 11월 9일 인천광역시 지분출자에 따른 인천광역시 의회의 의결이 이루어지면서 지분의 10% 참여가 확정됐다.

**제5장 - 민원 및 갈등해결 모범사례**

비로소 인천대교가 구체화된 계획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연계 교통망의 확충 문제, 교량 건설 형식의 문제 등이 인천광역시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인천광역시는 1999년 11월 29일 인천대교 건설에 10억원을 출자해 주주협약서를 체결하고 캐나다 아그라사와 민관합동 법인으로 코다개발(주)을 설립한다.

그런데 건설교통부는 해양수산부와 협의에서 교량 건설 형식을 두고 이견을 빚게 되었다. 건설교통부가 주경간 550m와 450m로 했을 때를 상정해 비교 검토하도록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는데 해양수산부는 회신에서 선박 안전운행을 위해 주경간 폭 700m에서 1,000m 이상의 확보, 측경간 250m를 확보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2000년 2월 아그라사는 우리 정부에 민간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주경간 675m, 좌·우측 경간 285m의 사장교를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아그라사가 영국 아멕(AMEC)사에 합병되면서 사업자가 영국의 아멕사로 변경된다.

여러 협의 과정 끝에 2001년 3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됐다. 같은 해 4월 한국해양연구원이 맡아 제출한 선박운항안전성평가보고서는 교량 위치를 남측으로 이전하고 교각 폭이 675m일 경우 선박 운항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2001년 7월 2일 아멕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고 건설교통부에서는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심의센터(PICKO)에 협상을 의뢰하면서 쟁점 사항을 관계 기관들과 협의하게 된다. 이때 인천광역시는 접속도로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공사용 도로와 작업장, 작업부대를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으며 국방부는 부대 이전을 요구했고 해양수산부는 노선의 남측으로의 이전, 사장교의 주경간 폭을 675m에서 1,000m로 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인천대교 건설에 따른 선박 운항 안전성 문제가 이때부터 대두되기는 하나 아직 그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아니었다. 이어 2002년 7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실현 방안 모색을 위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인천대교의 주경간을 700m 내외로 하고 기본 설계를 진행하면서 안전성을 검증하자는 제안이 받아들여졌다. 안전성 검증 문제는 신뢰할 수 있는 해외기관에 의뢰하고 검증결과에 따라 안전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쪽으로 논의의 가닥이 잡혔다.

2003년 6월 사업시행자로 코다(KODA)개발이 지정되어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며, 2003년 10월 재정경제



부 주관으로 인천대교 조기완공을 위한 관계 기관 실무자협의회에서 잠정적으로 주경간을 700m로 하고 안전 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2004년 2월 사업시행자인 코다개발은 JMS(일본해양과학)로부터 선박운항안전성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이때 JMS측은 주경간을 700m로 설정하고 약 22회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곳에서부터 주경간 폭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 인천항 계획평면도 〉





나. 인천대교 주경간 폭 문제를 둘러싼 쟁점들

2004년 2월 24일 JMS의 선박운항안전성평가보고서가 제출됐다. 주경간폭의 문제가 본격화되는 것은 2004년 4월 도선사협회에서 JMS의 용역결과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면서부터이다.

JMS는 2003년 9월 3일부터 2004년 2월 24일까지 인천대교 주경간 폭을 700m로 했을 때 선박 운항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22차례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한다. 이때 선박은 각각 3,000TEU, 5,000TEU, 6,000TEU급으로 하고 일방통행 시, 양방통행 시, 비상시의 선박통행이 안전한지를 실험했다. 여기에 인천항 도선사가 각 1회 참여했다. 그 결과 JMS는 선박운항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12가지의 안전조치를 권고했다.

〈 JMS의 평가보고서 결과 개요 〉

- 용역기간 : 2003. 9. 3 ~ 2004. 2. 24
 - 용역내용
 - 주경간 : 700m
 - 선 박 : 3,000TEU(218.5m), 5,000TEU(285m), 6,000TEU(318m)
 - 시뮬레이션(22회) : 22Case(일방, 양방, 비상시), 2인 도선사(인천항) 각1회
 - 용역결과 : 선박운항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12가지 안전조치 권고
- * 도선사(해수부) 의견 반영 : 안전성 향상을 위해, 당초 제시한 교량 위치보다 남측으로 약 1km 이동
(공사비 1,200억원 증가)

그러나 인천항 도선사협회는 모의실험의 풍속 자료와 주경간 700m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안전 권고 이행 조치에 대해서도 해석을 달리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700m가 몇 가지 안전조치를 이행하면 충분히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나 그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요인도 있었기 때문이다.

도선사협회에서는 인천대교의 주경간 폭 700m는 인천항의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를 확장하고 추가 사업비를 국고로 충당할 것을 요청했다. 도선사협회의 이 같은 문제제기는 선박통항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며 그에 따라 인천항의 기능도 저하될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예컨대 선박운행의 안전성을 위해 체선비용이 추가로 부담될 경우 물류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 인천항 이용료 증가로 이어져 인천항의 경쟁력이 낮아질 것





이라는 이유였다. 이런 지적이 인천대교 주경간 폭에 대한 이견으로 발전되게 된 것이다.

한편 2004년 5월 시공사 입찰 제안서에 대한 심의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삼성 JV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다.

같은 해 6월 인천대교 주경간 폭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회의에서는 용역 결과 12가지의 안전조치 권고안을 준수할 것은 물론 2가지 보완사항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 선박 운항 안전에 대한 최종입장을 확정하기 전까지 실시설계 등의 착수를 중지하고 그에 대한 최종입장을 통보할 때까지 사업 진행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다. 중앙부처 간에서도 이견이 노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7월 5일 인천대교 현안 조정과 관련해 관계 기관 1급 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주경간은 700m로 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실무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안이 검토됐다. 이어 2004년 7월 12일 인천항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주경간 폭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또한 7월 14일 해양수산부는 건설교통부에 주경간 폭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언급하고 안전대책 비용 및 인천항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한 이후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통보할 계획임을 제시했다.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면서 이 문제는 인천 지역 전체의 문제로 확장됐다. 여기에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증폭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여기에 인천항도선사협회 등 인천항만 관련 업계에서도 인천항의 경쟁력을 문제로 들고 나와 사태는 더욱 복잡하게 얽혀들어갈 조짐을 보였다. 결국 인천 지역 시민사회와 항만 관련 업자들이 연대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단계에 들어간다.

2004년 7월 19일 인천대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 남세종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이기상 인천항발전협의회 회장, 이하 범대위)가 결성되어 인천광역시청에서 기자회견 후 활동에 돌입하면서 이제 인천대교 주경간 폭의 문제는 지역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다. 이때부터 지역 일간지는 물론 중앙일간지에서도 인천대교 주경간 폭의 문제를 중요하게 보도하기 시작했다.

해양수산부는 건설교통부와 협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인천대교 선박통항



제5장 - 민원 및 갈등해결 프로그램 사례

안전성 확보 및 인천항 항만기능 유지방안 연구용역(기간 2004. 7.19~9.18)」을 의뢰해 선박통행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절차에 들어갔다. 용역 결과, 선박통행을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200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된다는 내용이 제출됐다.

한편, 7월 22일에는 범대위 주관으로 인천대교 주경간 폭 관련 토론회가 개최되어 박창호 인천광역시 물류 특보와 이귀복 도선사협회 회장이 발표자로 나서는데, 여기에서도 이견은 조정되지 않고 견해가 맞서게 됐다. 결국 이견이 조정되지 않자 범대위는 8월 9일 청와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용역을 수행하자고 제안했다. 8월 19일 인천광역시의회 역시 공동용역 추진을 건의하고 8월 24일 건설교통부 장관이 인천을 방문하여 범대위 측 인사와 면담을 했다. 이때부터 범대위, 중앙정부, 인천광역시 간 인천대교 주경간 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화가 진행되게 되고 이 문제를 둘러싼 언론보도 역시 활발하게 이어졌다. 인천대교 주경간 폭의 문제가 인천 시민은 물론 국가적 관심사로 대두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 범대위, 인천광역시 사이의 견해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고 시간이 지체되면서 범대위는 8월 31일 자체 용역을 별도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범대위 측은 한국항해항만학회와 한국해양대학교 부설

〈 한국항해항만학회 연구결과 개요 〉

- 용역기간 : 2004. 9. 1 ~ 10. 30
- 용역내용
 - 주경간 : 1,000m(항로폭 : 825m, 입·출항 각 400m, 분리구역 25m)
 - 선 박 : 6,000TEU(304m), 8만G/T 유조선(265m)
 - 시뮬레이션(48회) : 8Case(양방) × 6인 도선사(인천항)
- ※ 소요 교각 폭 : 924m(2011년), 1,005m(2020년)

마린 시뮬레이션센터에 「인천항 인천대교 주경간의 적정 교각폭 결정에 관한 연구 및 인천항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연구책임 구자운 교수)를 의뢰하여 연구결과를 제출받았다.

그러나 이 용역 결과 정부나 인천광역시 측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범대위의 입장에서만 용역이 진행되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주경간 폭이 700m일 때 왜 위험한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담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9월 17일 경제 관련 장관 간담회에서 인천대교 주경간 폭을 700m로 하되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단서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이는 정부안을 그대로 관철한 것이었으므로 범대위 측은 즉각 반발했다.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꼬이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급기야 9월 19일 범대위는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9월 21일 중앙부처의 실무책임자급과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이 참여하는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그러나 대화는 지속되어 상호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모색하는 과정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9월 22일 범대위 공동대표진이 인천광역시장과 정무부시장을 면담하고 때맞춰 해양수산부의 연구용역결과로 앞에서 언급한 2,200여억 원 이상의 안전 조치 이행비용이 소요된다는 의견이 제출됐다. 9월 29일 범대위의 이기상 대표가 안상수 인천시장을 면담하고 10월 6일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 해양수산부 기획관리실장, 인천시 정무부시장,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참여하는 대책회의가 다시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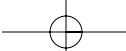
한편 2004년 10월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에 대한 정기 국정감사에서 국회 의원들에 의해 이 문제가 지적되고 이 무렵 해양수산부 장관이 범대위 측 인사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 문제는 2004년 10월 12일 국무총리 주재 당정 간담회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 핵심 내용은 인천광역시 주관으로 2004년 11월 말까지 인천대교 주경간 폭 관련 용역을 완료해 그 결과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해양수산부는 그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 무렵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는 것이 정부로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 돼 있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영국 순방 일정이 12월로 잡혀있었는데, 영국 방문 때 아벡사와 인천대교 건립이 확정되도록 계획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영국 방문 이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가적 신뢰도에도 금이 갈 수 있는 처지였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 그리고 범대위 측도 신속하게 움직였다. 국무총리가 주재한 당정협의회 바로 다음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1급 회의가 개최되고 용역추진협의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범대위, 중앙부처, 인천광역시가 합의했다.

다. 인천대교 주경간 폭 합의 과정

국무총리가 주재한 당정협의회회의 중재안에 따라 인천시 주도로 인천대교 적정 주경간 폭 합의를 위한 용역이



제5장 - 민원 및 갈등해결 프로그램 사례

추진되고 여기에는 중앙정부의 관련 부서와 인천광역시, 범대위가 공동으로 참여해 협의하고 논의했다. 결국 연구용역이라는 형태를 통해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것이다.

용역은 선박운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외국 기관에 의뢰하고 인천항의 효율성 문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천발전연구원이 선정되었고 인천발전연구원은 인천광역시, 범대위 등과 협조하면서 전체적인 용역을 관리, 주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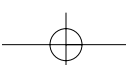
초기의 핵심적인 문제는 주경간 폭 문제와 관련해 신뢰할 수 있는 용역기관을 선정하는 문제였다. 이에 대해 영국의 BMT와 일본의 JMS가 검토되었는데 BMT는 범대위 측의 거부로 JMS가 최종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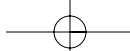
〈 주경간폭 합의를 위한 용역추진 내용 〉

- 2004. 10. 18 : 용역추진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 · 운영(총 7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위원장),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인천시, KODA,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전문가 등
 - 용역기관 선정, 과업내용 및 시뮬레이션 조건 등 협의
- 용역 개요
 - 용역기간 : 2004. 10. 21. ~ 11. 25.
 - 용역명 : 인천대교 안전성 및 인천항 효율성 등 검토용역
 - 용역기관 : 인천발전연구원(총괄)
 - 안전성 및 효율성 : 일본해양과학(JMS)
 - 효율성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 건설비용 및 건설기간 : 건설교통부

JMS가 선정된 이후에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그것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횟수와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때의 기상, 조류 등의 시나리오 조건에 대한 합의 때문이었다. 상호 합의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해야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합의 역시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결국 총 35회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기로 합의가 됐다. 11월 5일부터 6일에 걸쳐 일본 JMS에서 총 35회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여기에 인천광역시와 범대위, 인천발전연구원 측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시뮬레이션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았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정리 발표하는 용역보고회가 11월 10일, 11월 20일 2차에 걸쳐 실시된다. 1차 보고회 때는 중앙부처에서는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1급 관계자들과 인천광역시, KODA 대표, 범대위 상임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2차 보고회는 용역추진협의회에서 이루어졌는데 다시 시뮬레이션 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2차 시뮬레이션에 대한 요구가 대두됐다. 시뮬레이션 조건에 대해 실험 결과에 대해 일부 이견을 보였던 것이다. 결국 11월 23일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차관,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장,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이 참여한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주경간 폭 700m에 대한 일부 시뮬레이션을 재실시하기로 하고 최종 용역 기한을 11월 25일에서 12월 10일로 연장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2004년 11월 25일 관계 부처 차관회의가 개최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게 됐다. 국무조정실장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차관,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장, 인천광역시장이 참여한 회의에서 인천광역시는 주경간 폭을 800m로 할 경우 비용을 일부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내놓은 것이다. 사실 범대위 역시 주경간 폭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추가비용이 늘어날 경우 이에 대한 문제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비용 부담을 무조건 국비로 하기에는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중앙정부도 자신들의 안인 700m를 계속 주장하기에는 명분도 없고, 범대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명확했다. 그렇다고 범대위에서 1,000m를 계속 주장하는 것 역시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힘든 측면이 있었다. 결국 주경간 폭을 800m로 하고 비용의 일부를 인천시가 부담한다는 중재안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소지가 많았다. 이런 가운데 12월 7일 다시 일본 JMS에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합의한 조건을 토대로 4차례의 시뮬레이션을 추가로 실시했다.

용역이 마무리된 2004년 12월 12일 인천대교 주경간 폭 관련 간담회가 개최되는데 이 간담회가 주경간 폭 문제에 대한 결정적인 해결의 계기가 된다. 건설교통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발전연구원장, 국회의 이호웅, 이운성, 유필우 의원, 범대위의 지용택, 남세중, 이기상 등 공동 대표와 범대위 측 인사인 심정구, 이정욱 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가 주경간 폭을 800m 이상으로 결정하는 경우 범대위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합의안이 도출됐다. 결국 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다음과 같은 건의사항이 확정됐다.



〈 건 의 사 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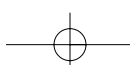
- 인천대교의 주경간 폭은 800m 이상으로 결정
- 주경간 폭 확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50%이상 국고지원
- 인천항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조속히 수립·시행하여 개성공단 및 중국북부권 개발에 대비한 서해안 및 수도권 중심항으로서 인천항의 역할과 기능 제고

드디어 2004년 12월 17일 오전 10시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인천대교 관련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재정경제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인천광역시장의 합의해 서명한 합의서가 만들어지게 되고 인천대교 주경간 폭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게 됐다.



정부, 인천시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인천대교 중앙 교각 사이 폭에 대해 논의, 800m로 극적 합의를 이뤘다.

2004년 12월 21일 범대위 결산 간담회가 개최되고 12월 23일 재정경제부는 합의사항을 건설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인천시장에게 통보하면서 주경간 폭과 관련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주경간 폭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제2연륙교로 잠정적으로 불리던 교량의 명칭을 제정하는 과정에 들어갔다. 2005년 3월 7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명칭공모 등 절차를 이행한 후 복수 안을 선정해 건교부에 건의하라는 명칭제정 추진방안이 통보되고 2005년 3월 25일부터 4월 6일까지 명칭 공모에 들어갔다. 4월 12일과 4월 15일 명칭심사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다시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였다. 여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05년 5월 27일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를 개최해 5월 30일 건설교통부에 인천대교를 건의안, 송도대교와 황해대교를 후보안으로 제출했다. 2005년 6월 3일 건교부에서 인천대교로 명칭을 확정해 통보했고, 드디어 2005년 6월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대교 기공식’이 개최됐다.

라. 시사점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인천대교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기반시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인천대교 건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주경간 폭에 대한 이견이 인천 시민사회로부터 제기되었고, 그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주경간 폭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포함해 용역이 시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토론되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거쳤다.

인천대교의 주경간 폭이 결정되는 데에는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중앙부처, 인천광역시, 그리고 인천항 관계자와 시민 사회 등이 모두 관심을 갖고 참여했다. 그만큼 인천대교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과 인천광역시의 발전,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데에 핵심적인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주경간 폭이 800m로 결정되기까지 여러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인천대교 주경간 폭의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여러 논란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사회 개발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때 어떤 수준의 사회적 합의점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의제를 던져주었다.

인천대교 주경간 폭의 문제는 선박 통항의 안전성을 둘러싼 이견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이러한 이견을 해소하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끝없는 논쟁이 되고 때로는 사업이 표류하게 된다. 인천대교 주경간 폭의 문제는 바로 그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었다.

둘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함께 찾아가고 이에 대해 서로 승복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건이었다. 인천대교 주경간 폭의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문제 해결의 결정적 계기는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용역이라는 사업 형태를 구성해 용역추진협의회를



제5장 - 민원 및 갈등해결 모범사례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끌어나간 것이었다. 여기에서 실질적인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언젠가 어디에서라도 문제 해결의 길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런 틀을 비교적 빠르게 발견하고 거기에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어 그 결과를 서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말 그대로 상생의 길을 함께 만들어 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용역을 주도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용역추진협의회에 적극 참여한 범대위 모두 승자가 될 수에 있었던 것은 그 때문이다.

셋째, 정책 수립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 협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대로 중요한 정책을 수립, 결정할 때에 정책의 파급 효과, 정책이 미치는 다양한 영향과 그로 인한 결과 등을 충분히 연구 검토해야 한다.

인천대교의 주경간 폭 문제는 선박운항의 안정성과 밀접히 관련이 있고 그것은 당연히 인천항의 경쟁력과도 연결되는 문제이다. 인천항의 경쟁력은 곧바로 국가의 경쟁력과도 연관된다. 선박 운항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한다거나 효율적인 선박운항을 저해하는 문제는 직접적으로 인천항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교각의 건설 비용 문제나 건설 기간의 문제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교각 폭을 충분히 넓혀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겠지만 교각 폭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며 건설 기간 역시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때에 따라서는 시민과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외자 유치를 통해 이루어진 사업이므로 대외적 신뢰도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따라서 이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연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안이 포함하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정책 결정과정에서 충분히 토론되고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특정한 사안에 대해 이견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럴 때에 관련된 여러 집단의 협력과 토론 등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정책의 집행력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인천대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천광역시와 중앙정부, 그리고 범대위 측이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상호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나가 결국 결론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용역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결국은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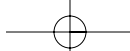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인천광역시의 여러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시민사회 역시 경제자유구역과 인천대교의 중요성, 인천항의 역할 등에 대해서 재인식하는 기회를 얻었다. 또한 중앙부처 간의 이견을 좁히는 계기도 되었다. 또한 인천광역시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이해를 구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성과를 거두었다. 비록 정책 결정과정에 비용과 시간이 들기는 했지만 오히려 이는 향후 정책이 집행되고 여러 사업이 추진되는 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광역시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에 어떻게 정책의 신뢰를 쌓아가는가 하는 문제는 향후 정책 집행의 효율성에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의 신뢰를 꾸준히 높여나갈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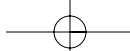
노무현대통령과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등이 인천대교 기공식에서 레버를 당기고 있다.

다섯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사회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창출이 중요하다. 오늘날 지방분권 시대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의 틀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가 여기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를 이번 합의과정은 잘 보여주고 있다. 인천대교 주경간 폭 문제는 인천광역시로는 물론 중앙정부와 이해 당사자인 인천항 관계자, 시민 사회 모두가 서로 이견을 보이고 그 이견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중앙정부도 부처간의 이견을 적절하게 조화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그렇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대화의 통로를 만들어감으로써 지방분권시대에 걸맞는 협력의 틀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소중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제5장** - 민원 및 갈등해결 프로그램 사례

이번 합의 과정이 밑거름이 되어 앞으로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핵심적인 주요 사업과 현안이 중앙정부의 이해와 협조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면서 다른 한편으로 인천 지역의 시민 사회로부터도 동의를 얻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은 궁극적으로 인천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끌어가는 견인차이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지름길이므로 그런 협조와 동의는 더욱 중요한 것이다. 중앙정부의 협조와 시민사회로부터의 동의를 바탕으로 할 때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이 훨씬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미사일 기지 이전사업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송도국제도시와 주변 도심지 개발 저해 시설인 국방, 군사시설을 이전해 송도지구 토지이용 제한 해소

나. 사업개요

- 사업 규모 : 영종지구 금산 84,404㎡, 예단포 115,307㎡
- 시설 현황 : 군사시설물 1식 (건물 78동 등)
- 사 업 비 : 841억원
- 사업 기간 : 2000. 8 ~ 2005.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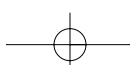
2.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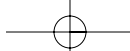
가. 추진배경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을 꿈꾸며 추진 중인 송도국제도시 조성 과정에서 송도에 위치한 미사일 기지가 도시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드러나면서 미사일 기지 이전이 불가피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나. 주요 추진사항

- 송도신도시 매립사업 착공 : 1994. 7. 9
- 매립공사 착공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 (1994. 8.31, 인천시 ↔ 17사단)
 - 유도탄 추진체 피해 예상지역 재협의(주거 · 상업 ⇒ 공원 · 녹지)
- 홍보관건립 등을 위한 기본합의 체결 (1999.10.30, 인천시 ↔ 공군본부)
- 군사시설 이전공사 추진 합의각서 체결 (1900. 6.21, 본부 ↔ 방포사)
 - 위치결정및 사업추진 등
- 공사착공 : 2002. 5. 6
- 공사중지 : 2002. 5.31 (집단민원으로 공사중지)





- 위치변경 및 공사추진 합의서 변경 체결 (2003. 5.19, 본부 ↔ 방포사)
 - 단순한 위치변경(영종 백운산, 금산 ⇒ 금산, 예단포) 결정
- 공사 재착공 : 2003.10.23
- 주민합의(시 ↔ 운북동 주민대표 10명) : 2004. 1

다. 주민과의 갈등 과정

1) 송도미사일 기지 문제점의 대두

1998년 12월 4일 송도신도시 연수구 동춘1동 산42번지 공군 제0000부대에서 일상적인 대비태세 통합점검 훈련 중 미사일이 오발되어 공중폭발되었다. 이로 인해 주민 12명 부상, 건물피해 75건, 차량파손 176대에 이르렀고 주민들과 연수구 의회 등은 도시계획상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며 청와대 및 국회 등에 군사시설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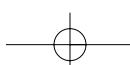
또한, 인천광역시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송도국제도시 조성계획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서도 토지이용제한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2) 미사일 기지 이전사업 추진

인천광역시는 송도국제도시의 원활한 개발과 오발사고에 대한 연수구 지역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미사일 기지 이전을 계획하고 후보지를 물색, 2000년 6월 21일 군부대와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그 결과 군사시설 이전을 인천시가 주관하게 되었고, 후보지 지역주민들의 큰 반발이 예상되었지만 이전 지역이 군사비밀사항이라는 제약 때문에 비밀리에 설계용역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2002년 5월 지역주민들에게 미사일 기지 이전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주민들의 대규모적인 반발 및 시위 등이 전개되었고, 이로 인해 이전사업은 계속 지연되었으며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송도국제도시 개발의 난항이 계속되었다.

3) 계속되는 갈등과 공사 착수

군당국이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사전 이전은 있을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1년 8월 30일 이후 시청 앞 광장에서는 매일 100여명이 참석해 이전 반대 릴레이 집회를 개최하는 등 반대여론이 비등했다. 이렇듯 주민들의 반대시위가 점차 거세어져 가자, 당장 2002년 5월 단지 세부 시설 설계완료를 앞둔 167만평의 송도국제도시 2,4공구의 건축물 시공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이런 급박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인천광역시 주민대표와의 면담과 공개설명 및 시장명의를 서한문 등을 통해 이전지역 설명 및 주민피해 최소화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반대 가두시위는 계속되었고 인천광역시 의회에서도 이전에 필요한 시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의회 및 주민들에게 미사일부대의 영종 이전 불가피성을 알리는 본격적인 설득작업을 시도하면서 부대이전사업 착수를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군 당국과 영종 주민과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4) 미사일 기지 이전사업의 재검토

주민들과의 충돌이 있을 후 국방부가, 인천광역시의 요청이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이전지역의 재검토가 화두로 떠올랐다. 또한 2002년 4월 정부의 경제특구 기본계획이 밝혀지자 기지이전 추진이 경제특구 기본계획의 추진에 지장을 줄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시되었다.

보상작업과 공사가 전면 중단되었으며 또 다른 이전 후보지가 새로 선정되어 국방부에 적합성 여부를 의뢰하게 되었으나, 국방부가 이에 대해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고, 기존 후보지를 최적지로 결정함에 따라 주민들의 반대시위가 더욱 격렬해지는 가운데 이전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또한, 이로 인해 송도신도시 건설에 제동이 걸리면서 계획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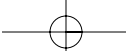
5) 미사일 기지 이전지 결정

민(民)과 관(官), 관(官)과 군(軍)간의 불신이 계속되면서 관계를 회복하려는 인천광역시의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3의 이전 대상 지역 22개소에 대한 검토가 이어졌다. 그 결과 미사일 기지 이전지가 최종 결정되었으나 지역주민들을 이해 설득시키기 위한 주민과의 설명회는 무산되었다. 주민들은 대규모 반대집회를 개최하면서 동시에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 결사저지에 나섰다.

한편 인천광역시는 송도미사일 기지 이전사업의 전분야에 대한 감사원의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받으면서 또다시 그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6)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공사재개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3개 지역이 국내 처음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인천이 동북아 경제중심

**제5장 - 민원 및 갈등해결 프로그램 사례**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됨에 따라 장기간 끌여온 송도 미사일 기지 이전은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의 하나였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시는 이전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하고 최종 확정안 이전안에 대한 착수를 시도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는 여전히 완강했다. 주민들은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문제와 영종 공영개발 백지화 등이 이슈화 되면서 미사일 기지 이전 문제와 함께 공동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미사일 기지의 토지보상협의도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인천광역시시는 진입로 착공을 시작으로 공사를 재개하게 되었다.

한편, 합의각서 위반이라며 건축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등 강력 반발해온 공군 방포사령부에서 송도국제도시 내의 건축허가를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송도국제도시 개발은 점차 활기를 찾아갔다.

7) 주민 조건부 수용 움직임

미사일 기지에 대해 2년여 동안 결사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주민들 사이에 ‘조건부 수용’ 움직임이 일어났다. 주민들은 인천광역시시가 해당지역에 관광단지 조성과 환지를 통한 주민 이주단지 제공, 지역 수혜사업 지원 등의 약속을 지킨다면 미사일 기지 이전을 수용할 수 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시가 불가피하게 공사를 강행하는 상황에서 주민 수혜사업이 보장된다면 명분도 쌓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되었고, 주민반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서서히 보상문제 협상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8) 주민들의 반대투쟁 재개

미사일 기지 이전 논란은 절대불가 입장에서 공사 강행에 따른 보상문제 제시까지 접근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시가 지역주민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원칙을 밝히면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전적 보상이나 주변 토지 전부 수요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유보하고 개발 방식 등과 관련해서는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다시 거센 반발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시는 대규모 관광레저단지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등 보상협의 진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9) 완전합의에 이르기까지

인천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송도 미사일 기지 이전 문제가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안상수 인천광역시장과 영종도 주민대표들은 2004년 1월 27일 송도국제도시 미사일기지의 영종도 이전 내용을 담은 미사일 기지 이전 합의서에 전격 서명했다. 이 합의서는 기지 이전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최소화



및 시의 보호구역내 토지 수용, 주민 이주 및 생계 대책 수립, 어시장 조성 등 10개 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대체로 인천시가 주민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기지 이전 반대 등으로 차질을 빚었던 영종도와 송도국제도시 개발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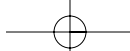
10) 미사일기지 이전사업의 교훈

공공성이 강한 국책사업이면서 동시에 비선호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장기간의 갈등과 설득, 합의의 과정을 거쳐 정상적인 착수에 이르게 된 미사일 기지 이전사업은, 국책사업과 관련한 유사한 갈등이 점차 빈번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상황에서 그 자체로 많은 교훈이 되고 있다.

미사일 기지 이전사업이 착수되면서 추진되기까지의 과정은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한계점에서 시작해서 그 한계를 인식하고 극복해나가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국가방위와 관련된 사업의 특성상 갈등의 사전예방장치나 충분한 합의의 활성화가 불가능했으며 주민들이 느끼는 비용과 편익의 불공정성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큰 것이었고, 비선호시설로서 공익가치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업내용에 대한 공개의 범위가 넓어지고 주민참여와 협의의 장이 넓어지면서 이전사업의 불가피성과 지역발전 및 국가발전이라는 공익가치에 대해 공유해 나가면서 이견을 좁혀갈 수 있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수용가능한 보상을 책정하는데 주력함으로써 협의의 진전을 이룰 수가 있었으며, 유관기관과의 상호이해를 통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사업이 진척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주민과 인천광역시, 군부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함께 이루어낸 이러한 결실은 송도와 영종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이며 살기 좋은 미래를 위한 값진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제3절 관광포장마차 조성사업

1. 사업개요

- 위 치 : 용유도 거잠포 해변 외 3개소(용유, 마시안, 왕산해변)
- 조성기간 : 2005. 3. ~ 7. 30
- 조성규모 : 75개동
- 점포 등 허용 범위
 - 건 물 : 2평 이하, 파리솔 : 3개, 토지사용면적(전용) : 10평 이하
 - 토지임대 및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 1년(단, 개발 시까지 연장 가능)

2. 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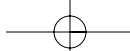
가. 추진배경

환경오염과 각종 민원발생 등 사회문제화 되어있는 영종·용유지역 해변가 포장마차 일제정비와 관련하여 해변을 찾는 관광객에게 먹거리 제공과 철거민에 대한 대책마련의 불가피성이 대두됐다.

나. 주요 추진사항

- 불법 포장마차 정비계획수립 : 2004. 4. 1
- 철거용역업자와 계약체결 : 2004. 11. 4
- 대집행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 : 2004. 12. 3
- ※ 회의 결과 철거민에 대한 대책수립 후 대집행
- 관광포장마차 조성계획수립 : 2005. 2. 11
- 경찰병력동원 협조요청 : 2005. 2. 11
- 관광포장마차 조성에 따른 안내문 공고 : 2005. 2. 28
- 관광포장마차 입주대상자 신청마감 : 2005. 3. 3
 - 총 154건 신청(단독 : 83건, 3인 공동 : 23건, 2인 공동 : 1건)
- 불법포장마차 대집행 : 2005. 3. 4 ~ 3. 7
 - 총 213동(포장마차 159개동, 비건물·다람쥐통·좌판 포함) 중 95동 행정대집행





- 118동은 소유주 자진철거 완료(2005. 3. 3)
- 입주대상자 확정 공고 : 2005. 3. 25
- 점포 위치 지정 : 2005. 4. 8
- 건축허가처리 및 사용승인 : 2005. 5. 9 ~ 8. 4

3. 불법포장마차 난립 및 관광포장마차 조성

가. 불법포장마차 난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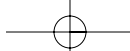
영종·용유지역 불법포장마차는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이 생계를 목적으로 주말에만 소규모로 운영하다 공항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차량을 이용한 외지인 관광객들의 유입증가로 대규모 불법포장마차 집단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2003년 2월 거잠포 및 덕교동 일부 포장마차 상인들이 전국노점상연합회 가입한 후 수차례 강경한 집회를 하고, 지역정서를 감안해 주말에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극적인 대처를 하면서 불법포장마차가 크게 늘어났다.

나. 불법포장마차 정비 필요성 대두

2003년 10월 1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되어 불법건축물 정비업무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되었다. 그런데 영종·용유지역 불법포장마차로 인해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불법영업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불법포장마차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언론에서도 연일 보도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어 일제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다. 정비사업의 추진

영종·용유 해변가 불법포장마차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2억 4천만원을 확보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일제정비 전 사전관리 업무를 개시했다. 불법포장마차 점포주에게 자진 시정 지시를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실시하고자 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원활한 대집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대책회의 결과 원활한 대집행 및 철거민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대책을 마련한 후 일제정비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서 관광포장마차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라. 관광포장마차 조성사업 추진

관광포장마차는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철거민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대책으로서 정비효과를 감안하여 규모를 최소화하고 존치기간을 정한 가설 건축물로서 추진했다. 조성원칙으로는 바닷가 자연을 만끽하며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자연환경 보존형 먹거리 공간으로 조성하며, 특색 있는 건축물과 관광명소화가 될 수 있는 이동식 건축물, 합법 상점들의 영업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상점을 배치한다는 것이었다.

〈 관광포장마차 조성계획 주요내용 〉

위 치	동 수	1개동 허용범위	비 고
덕교동 103-8,19	26	건물2평 파라솔3개	거잠포해변
덕교동928-22외2필지	33	"	용유해변
을왕동 810-97	2	"	왕산해변
덕교동산77-15외2필지	14	"	마시안해변
	합계(75)		

마. 불법포장마차 일제정비

관광포장마차 조성계획에 의해 자진철거 시한을 2005년 3월 3일 18:00 시까지로 하고 자진 철거자에 대해서는 점포위치 선정 우선권을 부여했다. 입주대상자 신청일은 2005년 2월 28일 16:00시부터 3월 3일 18시까지 하고 입주대상자 자격기준과 선정방법 및 향후추진계획 등의 안내문을 작성하여 2월 28일 공고한 결과 총154건이 접수되었다. 포장마차, 비건물, 다람쥐통, 좌판 등 총 213개 중 118동은 점포주 스스로 철거하고 나머지 95동은 점포주와 경찰의 협조로 3월 3일 오전 6시~ 3월 5일 18시까지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대집행을 완료했다.

〈 불법포장마차 정비현황 〉

지역 별	합 계	용 유	영 종	비 고
동수	213	175	38	

4. 주민, 점포주와의 갈등

가. 전국노점상연합회 가입 점포주와의 갈등

자진철거를 거부하는 자 중 조직적이며 중앙 전국노점상연합회(이하 전노련)의 지원을 받아 저항이 가장 크다고 예상되는 전노련 가입 점포주(12인)를 사전에 협의 사항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원활한 대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대집행전인 2005년 2월 15일(화) 19:00시- 21:00시까지 전노련 중앙수석부의장,



인천지역장, 용유지부장과 인천자유구역청 관계공무원, 중부경찰서 정보담당 형사와 면담을 실시했다. 면담 결과 전노련측은 전노련과 사전협의 없는 관광포장마차 조성은 불가하며 1개당 점포규모 확대와 전노련 단체로 12개를 배정하여 달라는 요구사항을 내놓았고 이에 대해 경제청측은 조성부지 내 점포 운영자는 추첨없이 배정할 계획이며 관광포장마차 조성은 전노련 개념이 아닌 개개인 생계대책이므로 단체배정은 불가하다고 했다. 양측은 12개 점포 배정 및 점포 위치는 협의해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나. 계속되는 전노련 가입 점포주와의 갈등

2005년 2월 22일 전노련 가입 점포주 2차 대책 회의 개최 결과 전노련측은 점포길이 6.9m 횡배치, 철탑 부근 점포 이격, 화장실 12개 사이로 배치, 건축비 800만원 저소득층 융자 알선을 요구했다. 요구사항 중 융자 알선을 제외한 3개안이 합의돼 2월 23일 14:00시 약정서를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2월 23일 전노련 대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전노련 단체명의로 12개 점포 배정을 요구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단체명의로 건축허가는 불가능하며, 관광포장마차 조성은 단체개념이 아닌 개개인의 생계대책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약정서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5년 3월 2일 전노련 가입 점포주 12명 중 4명이 자진 철거자에게 점포 위치 선정권을 우선 부여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확인하고 전노련을 탈퇴했다. 3월 3일 관광포장마차 입주대상자 신청 마감일, 나머지 전노련 가입 점포주 8인은 자진 철거하지 않고 철거동의자로 접수하였으며 계속적으로 전노련 단체 명의로 배정을 요구하여 협상이 결렬됐다. 그러나 타 지역 점포주의 철거로 인한 동요 내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확고한 불가방침에 의해 3월 3일 야간에 자진철거했다.

그 뒤 3월 25일 전노련 명의 신청자 중 황○○은 이의신청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결정되어 전노련 측 7개로 최종 대상자 확정공고(3월 25일)를 했다. 이에 전노련 용유지부장, 인천지역장, 중앙수석부의장 등이 전노련 몫으로 8개를 배정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으며 급기야는 4월 2일부터 거점포 현장에서 농성용 텐트 2동을 설치하고 시위를 시작했다. 4월 4일부터는 경제자유구역청사 앞에서 각종 구호를 적은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전노련 단체 명의로 배정과 당초 약속했다는 것을 이유로 전노련 탈락자 몫까지 포함한 12개 점포 배정을 요구하며 5월 21일까지 40여일간 집단시위를 계속했다.



다. 기타 부녀회, 마시안상인회, 주민과의 갈등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광포장마차는 철거민의 최소한의 생계대책으로서 규모 및 동수를 최소화하고자 계획했다. 그러나 각 통 부녀회에서는 부녀회 단체로 30여명이 운영했기 때문에 1개동의 규모를 확대하고 영업인원수에 비례해 점포수를 배정하되 점포 위치도 자기 동네에 배치하고 다른 동네 주민은 자기 동네에서 영업하게 하지 말아달라는 집단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마시안상인회는 3명이 관광포장마차 2평 짜리 1동에서 공동으로 영업하면 생계가 어렵고 기존 영업장소에서 계속 영업하게 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덕교 8통 주민은 거잠포에 관광포장마차를 조성할 경우 교통혼잡 및 원주민을 배제하는 전노련을 위한 조성계획에 반대하며 3월 21일에서 28일까지 자유구역청사 앞에서 집단시위를 계속하는 등 관광포장마차 조성과 관련해 집단민원과 집단시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5. 주민, 점포주와의 갈등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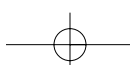
가. 관광포장마차 조성계획 변경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교통 혼잡 문제, 전노련 중심의 관광포장마차 조성계획에 대한 원주민들의 반대, 각 통 부녀회의 인원비례 배정요구와 분산배치 요구 민원을 검토한 결과 민원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4월 4일 당초 설치 장소 1개소에서 3개소로, 배정 점포수 65개에서 71개로 관광포장마차 조성계획변경을 변경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전노련 집단시위 및 덕교 8통 민원 등 종합적인 민원해결을 위해 관계기관 민원 대책회의 결과 전노련 이의신청 탈락분 1개 점포를 추가배정하고, 점포수를 71개에서 76개로, 당초 선녀바위 해변 배정자를 마시안해변(14개)과 용유해변(13개)으로 분산배치 하는 등의 관광포장마차 조성계획을 5월 31일 최종 확정했다.

나. 민원 및 갈등해결을 위한 이해설득 및 합의

민원내용 요구 중 공통사항인 1개동 점포규모 확대와 영업 인원수에 비례한 점포 배정 민원에 대해서는 점포 규모를 확대할 때 일제정비한 성과가 없고 최소한의 생계대책으로 마련된 관광포장마차임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이해시켰다. 다만, 부녀회 등 단체에 대해서는 수십명이 영업한 것을 감안해 단체별 1동씩을 추가 배정하는데 합의했으며, 기존 위치에서 영업허용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효과를 최대한 살리면서 민원인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분산배치함으로써 민원갈등을 해소했다.

전노련 가입 점포주 요구사항인 전노련 탈퇴자 배정분까지 추가배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합의





에서 전노련 탈퇴자를 예상하지 않고 12개 배정을 약속한 것이며, 탈퇴자는 이미 1동씩 배정받았으므로 이미 탈퇴자수를 포함해 12개 점포를 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없고 타 점포주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이해시켰다. 다만 전노련 가입 점포주는 단체임을 감안해 1동을 추가 배정했고, 위치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 위치 범위에서 원만히 조정해 합의했다.

덕교 8통 주민이 제기한 자기 동네로 들어오는 포장마차조성 반대 민원내용에 대해서는, 거잠포 1개소로 관광포장마차를 조성하는 것은 교통혼잡과 전노련 가입 점포주와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고려한 배치계획을 세워 당초 1개소에서 4개소로 분산 배치하고 주민단체임을 감안 부녀회에 2개 점포를 배정 합의해 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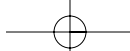
6. 불법포장마차 정비 및 관광포장마차 조성사업의 교훈

불법포장마차 정비 및 관광포장마차 조성사업은 점포주의 생계와 직결 된 것으로 철거민으로서의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조직적이고 극렬하게 대항할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지역이기주의와 맞물려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예견했다. 그러나 객관적이지 못하고 타당성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설득시키고 수용 가능한 사항은 적극 수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213개동이나 되는 불법포장마차를 사건사고 없이 정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행정의 가감없는 공개와 이의신청 등 주민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참여의 기회를 충분히 준 결과였다. 포장마차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가 행정에 참여해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수용불가능한 것은 수없이 대화하고 협의한 결과였다.

그러나 사업계획 결정 과정에서 미흡한 점도 많았다. 수십명이 단체로 운영하는 점포주에게도 1명이 운영하는 것과 동일한 점포수를 배정했고, 충분한 협의없이 산림청 소유의 토지에 조성계획을 수립했다. 관광포장마차 조성의 다양한 민원 특성상 사업 결정 과정에서 주민과의 사전협의를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위치 변경 시에도 사전에 주민과 충분한 협의 없이 결정하여 또 다른 상대 민원이 연쇄적으로 발생해 상대 민원을 해결하느라 많은 행정력을 낭비했다.

따라서 특히 민원인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민원 발생 예상 문제와 그것이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사업결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와 토론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주민 요구 사항을 최대한으로 수용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제5장 - 민원 및 갈등해결 모범사례

또한 형평타당성이 없는 민원이라 할지라도 행정관청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언제, 어디서라도 귀찮아하지 않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듣고 나서 요구사항이 수용 불가할 경우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는 과정이 중요하다. 민원인을 도와주려는 노력을 충분히 보이고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설명하면 오히려 고맙다고 하면서 돌아서는 민원인도 있다

이번 불법포장마차 정비와 관광포장마차 조성사업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주민에 대한 열린 행정과 인내심을 가지고 주민과 대화 설득으로 행정을 추진한다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동북아의 중심도시로서 앞당겨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거잠포 불법포장마차 철거 전 현장



거잠포 불법포장마차 철거 후 현장



무의도 불법포장마차 철거 전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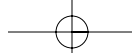
무의도 불법포장마차 철거 후 현장



물량장 불법포장마차 철거 전 현장



물량장 불법포장마차 철거 후 현장



마시안 불법포장마차 철거 전 현장



마시안 불법포장마차 철거 후 현장



마시안 관광포장마차 조성 I



마시안 관광포장마차 조성 II



용유해변 관광포장마차 조성 I



용유해변 관광포장마차 조성 II

제6장

오피니언 리더와
언론이 본 IFEZ

책임집필: 공보담당관 박영식

제1절 오피니언 리더가 본 경제자유구역

제2절 투자가 인터뷰 및 기고문

제3절 주요 언론 보도내용



제1절

오피니언 리더가 본 경제자유구역

“ IFEZ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일어선다 ”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명예회장은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가 살길은 새로운 성장 모델 창출을 위한 최초의 Test Bed인 IFEZ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명예회장)

꺼져가고 있는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

5천년 한국 역사를 말할 때 꼭 거론되는 것이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미국 등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다. 그 때문에 한국 역사의 상당 부분이 비극으로 얼룩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 지정학적 위치가 이제 21세기에 접어들면서는 ‘기회’와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북아의 절대 우위에 있는 지리적 위치를 적극 활용해 20세기의 싱가포르와 홍콩을 능가하는 ‘21세기의 국제자유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는 인천경제자유구역(Incheon Free Economic Zone, 이하 IFEZ)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요즘 한국 경제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있다. 바닥을 기는 내수부진과 투자위축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이 꺼져가고 있으며, 경제의 활력도 저하되고 있다. 대안은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의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엔진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만든 돌파구가 바로 ‘대한민국 대표 특구’ IFEZ다. IFEZ가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가늠하는 21세기 한국경제의 선도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올해 초 청년 실업자수가 38만 명을 육박할 무렵, 누군가 나에게 지금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수가 몇 명인지 아느냐고 물어왔다. 그는 청년 실업자수와 외국인 노동자수가 수치상으로 엇비슷한 40만 명이라면서, 3D (Difficult, Dirty, Dangerous)업종을 기피하는 한국 젊은층의 빈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워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기성세대들에 대한 불만을 토해냈다. 젊은이들이 원하는 깨끗하고, 안전하며, 부가가치가 높은 21세기형 새로운 일자리를 못 만드는 기성세대들이 무능하다고 질타했다. 젊은이들의 안일함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어야 진짜 선진국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과거처럼 더 이상 중저가 범용상품에 초점을 맞춘 제조업이 아닌 물류산업, IT 및 BT, 관광레저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고, 청년 실업률을 해소하는 것이 지금 기성세대들의 의무요, 책임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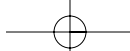
21세기 한국 경제가 새로운 경쟁력을 가지려면

나는 그의 지적에 상당부분 동의하고 싶다. 이제 한국은 과거 70~80년대 방식의 노동집약적 성장모델과 제조업으로는 4,800만 명이 먹고 살 수가 없는 처지다. 오늘날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있는 ‘내수침체- 투자부진- 제조업 공동화- 청년실업률 그리고 고용없는 성장’과 같은 용어들은 나에게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전환과 새로운 성장모델을 강요하는 구호처럼 들린다.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가 살 길은 새로운 성장 모델 창출을 위한 최초의 Test Bed인 IFEZ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IFEZ라는 명칭의 국제자유도시 실험이 성공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한반도 전체로 퍼져나가, 21세기 한국 경제가 새로운 경쟁력을 갖는 첫 계기가 될 것이다.

새로운 성장 모델 구축을 위한 첫 번째 실험은 ‘IFEZ의 동북아 물류기지화’에서 시작할 수 있다. 이미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잠재대국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인도까지 아우르는 ‘IFEZ의 아웃소싱센터화’가 그것이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을 중심으로 ‘21세기 잠재시장’인 러시아와 인도의 경제 성장을 적극 활용한 ‘동북아의 물류기지화 - R&D중심화 - 금융센터화 - 관광허브화’에 성공한다면, 21세기 한국 경제는 새로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첫걸음이 바로 IFEZ 프로젝트이며, 주인공은 인천 시민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통해 21세기 대한민국의 희망을 밝혀라”



홍승용 총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핵심 과제는 투자 유치, 특히 외국인 직접 투자에 의한 눈덩이 효과(snow-ball effect)를 추구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홍승용
(인하대 총장, 경영학 박사,
동북아시아위원회 인천특위 위원장)

인천항은 19세기 말 정치외교적 외압에 의해 제1의 개항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면, 21세기 초 자주·자조에 의한 국부 창출의 허브 기지 건설을 목표로 제2의 개항이 전개되고 있다.

요즈음 인천은 시오노 나나미의 ‘바다의 도시 이야기’에 나오는 베네치아와 흡사하다. 갯벌에 말뚝을 박고, 해상 도시를 건설하고 지중해권의 물류·금융·무역·과학 기술의 중심지로 천년의 영화를 아무지게 누렸던 그 정신, 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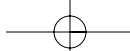
선택과 집중에 의한 Pentaport 전략 펼쳐야

경제 특구의 개념은 글로벌 시장 경제와 투자승수 이론에 기반하고 있다. IMF 외환 위기 극복 이후, 잃어버린 국제 경쟁력을 되찾고 세계 제조업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이웃효과를 극대화하고, 꺾어진 근로 의욕을 진작시키기 위한 타개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경제자유구역을 육성하는 것이다. 생존을 위한 목표가 분명하고 성공에 대한 각오가 비장한 만큼 경제자유구역청에 거는 우리의 기대 또한 클 수밖에 없다.

한 줌의 눈덩이를 만들고 이를 계속 굴려야만 눈사람을 만들 수 있듯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핵심 과제는 투자유치, 특히 FDI라는 외국인 직접 투자에 의한 눈덩이 효과(snow-ball effect)를 추구하는데 있다.

공항(Airport)과 항만(Seaport), 비즈니스(Businessport)와 레저(Lesureport), 그리고 기술집약적 산





업단지(Technoport)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보다 앞선 홍콩, 싱가포르, 로테르담, 상해도 각각 우리와 유사한 Pentaport 건설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차별화된 첨단 산업 단지의 조성, 원스톱 서비스 등 속도 행정, 주관 기구로서의 독립적 역할 및 중앙 정부의 전폭적 권한 이양이 따르지 않으면 여타 경쟁 국가나 도시와 경쟁 우위를 갖지 못하는 명목상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글로벌 기업과 금융 기관의 유치, 북중국 시장의 관문으로서 인천항 및 동북아의 허브 공항을 지향하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기대와 함께 추진 주체로서의 권능(權能: empowerment)이 결여되어 있다는 세간의 비판적 목소리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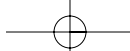
첫째는 정책적 이슈로서, 2010년까지 25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이 시설 인프라 위주로 투입되는 계획 내에는 비현실적인 프로젝트도 일부 포함된 것 같으며 또한 중앙정부에 너무 의존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조직적 이슈로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공식적 지위와 역할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특구 내 사업과 행정 업무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는 말 그대로 경제자유구역의 총괄기구로 발족하였지만 대부분의 부서 활동이 광역시의 기존 구청 행정 업무가 상당하며, 특화된 임무·특화된 거버넌스가 재정립돼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실천적 이슈로서, 대부분의 업무가 충청시야의 중앙부처와 연계되어 ‘아직도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중앙 부처의 서랍 속 계획으로 잠자고 있는 서류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또한 내부 역량적 이슈로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특성화된 산업클러스터 조성의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와 투자효과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 재정립 필요

외자유치와 다국적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에 성공한 아일랜드나 네덜란드는 물론 중국도 20여 년 전부터 10개 이상이나 되는 중국의 주요 연안 항만지역을 경제 특구로 지정하고 특정 산업 단지 개발은 물론 원스톱 서비스 행정을 우리보다 앞서 실천해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첨단 국제공항과 ICT 수준 및 수도권 배후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동북아 시대를 주도하는 물류와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국과는 차별화된 하이테크 중심의 특정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역할과 함께 법제도적 규제 완화와 통합기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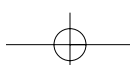
서 자율적 전권을 행사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마디로 외부기관에 흔들리는 조직이 아니라 외부기관을 흔들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 2만 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첫 단계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즉,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인천시 등에 분산된 관련 업무를 규제 완화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완전 이양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정부는 지시자가 아니라 지원자의 역할만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다음 단계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 섹터로부터 다양한 전문가를 유입하고, 또한 이들 민간 전문가에 의해 특별 규정이 보완되도록 해야 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은 단순히 인천 지역의 도시 개발 차원에서 지역 이기주의와 결부되어 추진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동북아 시대라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하고 국가적 산업 공동화라는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선봉장으로서의 임무 수행에 매진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주어진 기회와 보유한 강점을 결합한 실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는 생산 활동 차원으로, 우리는 아직 중국보다 부품 개발에 있어서는 확실히 한 수 위에 있다. 참여정부에서도 중시하고 있는 R & D 개발과 함께 경인 지역 중소기업의 강점인 자동차·기계 금속·정보 통신 등 부품 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는 물류 활동 차원으로, 인천지역의 지정학적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되, 중국 대비 경쟁 우위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과 Sea & Air와 같은 복합 운송 산업의 활성화에 역점을 둘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마지막 사항은 바로 과학 기술과 물류 산업을 주도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공항이나 항만의 시설이 거대하다고 고객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다. 글로벌 대학 육성을 통한 인적 자원 확보 전략은 한 돌맞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미래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의 21세기를 보장해 줄 우리의 강점 강화 전략으로 다시금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누가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묻거든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보라”고 하기 위해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고 땀을 흘릴 때이다.





“IFEZ는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국가 핵심 전략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바라보는 유필우 의원의 마음은 한결같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인천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 생활을 하면서도 IFEZ의 일이라면 그 누구보다 소매를 걷어 붙이고 나서고 있다.

유필우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인천남구갑)

외국병원·학교 유치는 IFEZ 성공 위해 반드시 필요

2004년 12월 31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에서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 개정안은 유 의원이 소속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찬성의견을 기초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그 과정에서 유 의원의 숨은 노력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회는 물론 사회 일각에서 반대가 많았어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역균형발전 또는 사회적 형평을 저해하는 일종의 특혜로 보는 시각이 가장 큰 반대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국병원에 국내 환자들의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로 인해 저소득 계층이 의료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4조원의 재원을 공공의료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의료재원이 인천지역에 우선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국 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과 함께 외국 학교의 내국인 진학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로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한 논란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조기에 개발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핵심 앵커시설의 선도 입주 및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여기에는 연구센터(IT, 물류 등), 대학(전문대학원), 공공기관(정



부출연 기관), 경제단체(산업별 협회, 금융기관 등)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수도권 지역에 대한 대학신축, 공공청사 신축, 공업지역지정을 제한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프랑스나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수도권을 규제하기 보다는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도권 개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있어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각종 기반시설구축에 국가차원의 획기적 지원이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그는 IFEZ가 성공하려면 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먼저 IFEZ가 인천 지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국가적 핵심전략이라는 점, 둘째 중국 등 인근 외국과의 치열한 경제전쟁의 전진기지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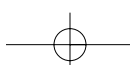
그의 인천항에 대한 관심은 각별하다.

“21세기 인천항은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으로서 한국경제의 활로를 개척할 책임과 인천국제공항의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시대적 소명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건설이 경제개발의 동력을 제공했고, 1990년대는 인천국제공항건설이 국가의 비전을 제시했듯이 이제는 인천항에 대한 국가적인 집중투자를 통해 동북아물류를 선점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을 IFEZ로 유치해야

유 의원은 황해도 연백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 가족이 인천으로 피난 내려와 정착하게 되었다. 초중고를 인천에서 다녔고, 30여년의 공직 생활에서 상당기간 인천광역시의 구청장, 경제국장, 부시장으로 보냈다.

부시장 시절 크게 두 가지 부분에 관심을 갖고 노력했다. 하나는 살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좋은 학교가 있는 교육도시가 되기를 원했다. 다른 하나는 기존 시가지의 재생, 새로운 도시의 품격 있는 조성, 시민의 애향심을 높이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인천의 지정학적 우위를 살리고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도약하도록 하는 문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외로 뛰어다녔다. 부시장시절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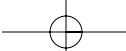


미국 굴지의 회사 회장이 “인천이 너무나 중요한 도시”라며 식사대접을 할 때 인천의 중요성을 실감했던 기억이 아직도 뚜렷이 남아 있다.

“인천은 전국 어디서나 모여 지역색깔 없이 잘 어울리며 지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도시입니다. 함께 살되 인천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타 지역에서 인천을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평생 목표를 두고 변화시켜야 할 고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올 해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성공적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외국인학교설립을 위한 관련법의 국회통과, 정보통신부의 유비쿼터스IT허브 지정, 세계적인 BT연구시설과 첨단산업 등의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특히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배아연구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황 교수를 만나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한다.

유 의원의 좌우명은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변함없는 사람’ 말은 10분의 1로 줄이고 행동은 10배로 늘리는 실천하는 사람’ 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해 규제 위주의 국내 법제를 과감히 철폐해야합니다”



황우여 의원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인연은 각별하다. 인천이 고향인 그의 지역구 연수구에 송도국제도시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최근 IFEZ의 성공을 위해 국내 법제의 과감한 규제완화와 외국병원과 교육기관 유치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를 2005년 4월초에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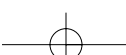
황우여
(국회의원 · 한나라당 인천 연수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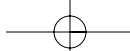
국가가 나서고, 여야를 떠나 모두 IFEZ 지원해야

“한국은 4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는데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한국은 대륙과 해양을 연계하는 길목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자본주의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인천은 이러한 한반도의 중심항이며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인천 지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리적 탁월성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첨단 산업을 적극유치 지원하고 세계 각국의 경제인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자유로운 경제 여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황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단순히 인천지역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및 국가발전과 직결되어 있는 핵심 국책사업”이라며 “따라서 국가가 직접 나서서 걸림돌을 풀고 여야를 떠나 국회에서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 모든 뒷받침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FEZ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져 한다. 특히 법적 뒷받침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 황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국내적인 시각에서 마련된 수도권정비법의 제한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경제자유구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면서 “이에 따라 외국기업들이 경제적 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철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규제철폐 및 완화가 국내기업에게 역차별이 되거나 다른 지역의 경제 활동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의원은 특히 송도 신항 건설과 송도 매립지 해양생태공원 및 생태 공원 조성, 아쿠아리움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앞으로 매년 1억명 이상이 동북아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을 출입해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돌아간다면 한국은 관광사업을 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문화선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적 측면에서 갯벌이 세계적으로 귀중한 자원인 서해안 특유의 해양생태공원과 아쿠아리움의 조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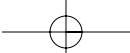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에 버금가는 세계적으로 빼어난 건축물, 가칭 제2국립예술의 전당을 제2연륙교가 끝나는 송도국제도시에 지으면 이곳을 찾는 1억 방문객들이 한국문화와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돌아갈 것으로 봅니다. 건설 비용이 당장 2~3천억원 정도 소요되겠지만 5만 명의 일자리 창출할 뿐 아니라 반드시 큰 부가가치를 재생산할 것으로 믿어요.”

IFEZ 발전 위한 외국학교 유치 방안 모색

IFEZ 개발과 관련, 외국 병원의 내국인 진료 문제는 관련 법 통과로 해결이 되었지만 외국 학교 설립 관련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는 황 의원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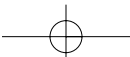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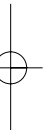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업무기능 외에도 주거와 업무가 함께 공존하는 총체적인 생활이 가능한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 병원과 교육기관의 유치는 필요합니다. 일각에서 외국병원과 외국학교의 유치로 인해 의료와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병원과 외국학교의 유치를 통해 우리의 의료시스템과 교육시스템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만, 외국학교에 의무교육대상자들인 초·중·고학생들을 보낼 수 있는냐는 문제는 헌법상 의무교육의 법적 개념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겠지요.”

황 의원은 얼마 전 국회 교육위원들과 함께 상해와 싱가포르 외국학교 실태를 조사하고 왔다. 그는 “OECD 국가는 물론 상해나 싱가포르에서도 의무교육대상자들은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학교에 입학할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위해 외국 학교 유치와 관련, 재정 지원을 하는 등 나름대로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6장 - 오피니언 리더와 언론이 본 IFEZ

황우여 의원은 법조계 출신으로 연수구에서 내리 세 차례 당선된 3선 국회의원이다. 1969년 사법시험(10회)에 합격한 뒤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등 23년 여 동안 법조계에서 지냈고, 3년간 감사원에서 활동하다 1996년 정계에 입문한 뒤 현재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견 정치인이다.





IFEZ를 국가 대표급 특구로 육성하라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동북아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
박재현 매일경제신문 금융부장은 “평준화와 지역 균형 발전 논리를 과감히 깨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재현
(매일경제신문 금융부장 겸 기획취재총괄)

선수 능력에 따라 비행기 좌석 등급 다른 첼시 구단

영국의 명문 축구구단 첼시가 2005년 5월 중순 한국의 삼성 수원팀과 친선경기를 위해 방한을 했다. 그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선수 중에 아주 잘하는 A급 선수는 1등석. 보통 선수는 비즈니스석, 후보 선수는 이코노미석을 타고 서울에 왔다고 한다. 선수의 능력차에 따라서 비행기 좌석을 다르게 해서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

정말 한국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우승을 해도 기여도에 관계없이 상금을 나눠 갖고 실력에 관계없이 해외전지훈련을 가도 똑같은 등급의 비행기표를 타는 데 우리는 더 익숙하다. 지금 한국은 지나칠 정도로 평준화를 고집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이 당초 기대만큼 외자유치성과를 못 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준화 탓에 빠졌기 때문이다. IFEZ는 동북아 허브를 지향하는 국가대표급 특구이다. 전국을 모두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가 어려우니 서울에 가깝고, 공항 항만 등 물류여건이 좋은 인천경제자유구역부터 먼저 만드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좁은 국토에 부산, 광양 등에도 특구를 만들고 기업도시와 혁신클러스터도시 조성, 서남해안 개발 등 국토개조 프로젝트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시다발로 이루어지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개발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느낌이 든다. 평준화와 지역균형 발전논리를 IFEZ에 들이대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고만고만한 특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스타급 글로벌 기업 유치해야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아시아 경쟁국 특구보다 눈높이를 높여라. 중국 푸둥이나 싱가포르보다 후발 주자인 만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천천히 따라가는 전략은 안 되고 눈높이를 더 높여야 할 것이다. 주변국 특구와 비교해 토지가격, 임대조건, 세율 등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스타급 글로벌기업을 유치하라. 스타특구답게 세계 산업을 선도하는 스타기업을 끌고 와야 한다. 그래서 범정부 차원에서 핵심기업 유치에 승부를 걸어야 할 것이다. 대표기업을 유치함으로써 IFEZ의 대외이미지를 높이고 홍보효과도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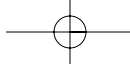
셋째, 세계적 한국 기업이 IFEZ에 오도록 하라. 세계적 기업으로 부상한 삼성그룹과 LG그룹이 해외진출보다 IFEZ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등이 IFEZ에 진출하면 이와 관련된 해외부품업체들이 들어오게 된다.

넷째,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장점으로 바꾸자. 외국기업이 한국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과격한 노조문화와 파업 때문이다. 따라서 IFEZ에 진출한 기업의 노·사와 정부가 한데 모여 노·사·정 평화협력을 선언하면 외자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최근 외국자본에 대한 배타적인 시각도 버려야 할 것이다. 외국자본에 감정적인 대응으로 맞설 일이 아니다.

다섯째, 장점을 적극 알려라. 어떻게 보면 IFEZ는 물류나 인재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 특히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만큼 인력확보가 쉽다. 그런 장점을 십분 알려야 한다. IFEZ의 장점인 허브공항과 연계한 외자 유치 마케팅도 고려해 볼만하다. 공항을 이용하는 IFEZ 내 입주업체 기업인한테 입출국 때 특별대우를 해주는 것도 검토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IFEZ 개발계획이 지나치게 미국자본유치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데 유럽 일본 러시아 등으로 자본유치 국가를 다변화 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자칫하면 미국 자본의 농간에 놀아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IFEZ는 영국의 첼시구단의 A급 선수와 같다. 잘하는 유망한 특구는 더 과감한 지원과 상응한 대우를 해야 다른 나라의 글로벌 특구와 제대로 싸울 수 있을 것이다.





“인천 시민 모두가 함께 하는 IFEZ가 되어야 합니다”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

인천 시민운동의 ‘대부’ 인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을 만나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함께 인천 발전 방향에 대한 지론을 들었다. 그는 “인천이 황해권의 중심이 되는 황해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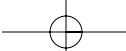
중앙정부가 인천의 교육과 항만 발전에 집중투자해야

“해방된 지 60년 동안 인천은 죽은 도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항구가 제 역할을 못해 황해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제 인천은 황해가 살아나면서 한반도의 중심 지역으로 새로 태어나고 있어요. 중국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고, 개성 가는 길이 열리고 있어요. 인천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천 시와 인천시민들도 노력해야겠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인천 발전의 밑알이 되기 위해 새얼문화재단을 만든 뒤 30여 년 동안 인천 사랑을 몸으로 실천해온 지용택 이사장. 그는 “이제 인천이 황해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며 “황해권의 중심, 인천이 되려면 몇 가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하는 인천 발전의 큰 틀은 교육, 항만 발전, 인천경제자유지역 개발로 구성돼 있다.

“우선, 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라 중앙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중앙의 공공기관을 인천으로 옮기기 어렵다면 2~3개의 대학을 더 세울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인천이 발전하려면 우수한 인재를 육성해야 하는데 현재의 대학 규모로는 안 되고 더 늘려야 합니다.”

두 번째, 항만 정책 분야. 지 이사장은 “인천항은 황해권의 중심항만으로 대륙에 25개 노선을 갖고 있으며 매주 10개 노선이 운항하고 있다”며 “이러한 인천항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지 이사장은 무엇보다 송도국제도시가 바람직한 성공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패는 외자 유치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해외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풀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특히 중국에 진출하기 꺼려하는 해외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중국 자본을 끌어들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인천에 차이나타운을 만들어 중국 돈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도시와 구도시의 발전 병행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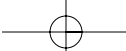
그러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국제도시 개발과 함께 반드시 구도시의 발전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충고를 잊지 않았다. 그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바라지 않은 인천 시민은 없겠지만 전체 인천 시민들의 성원과 관심이 없다면 경제자유구역이 크게 발전하기 어렵지 않겠는가”라며 “신구도시의 균형발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 이사장은 운동권 1세대이자 노동운동의 원로로서 인천지역 시민운동의 선구자로 명망이 높다. 대학시절에서는 인천지역 4.19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5.16 혁명검찰청에 잡혀가 옥살이를 했으며 1년여의 수형생활을 마친 뒤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는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지내기도 했다.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새얼문화재단은 1975년 초기 근로자 자녀들을 위한 장학회로 출범했지만 1983년 지역 사회와 문화발전을 위한 현재의 체제로 확대재편되었다. 새얼문화재단은 우리나라 유일의 시민문화재단으로 회원들이 계좌당 5,000원씩 내는 후원비만으로 운영되는데 현재 9,00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기금은 문화사업과 교육사업에 쓰이는데 계간지 ‘황해문화’를 11년 동안 내고 있고, 해마다 ‘전국 학생 어머니 백일장’ 대회를 열어 올해로 20회를 맞았다. 또한 86년부터 각계 명사들을 매달 한명씩 초청해 강연을 갖고 토론을 하는 ‘새얼아침대회’를 거르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하면서 ‘진보’가 그의 화두였다면 시민운동을 하면서는 ‘황해’가 화두가 되었다고 할 만큼 그의 관심사는 인천의 황해 시대에 쏠려 있다. 여기에는 인천의 기상이 인천의 앞바다를 넘어 황해를 건너 아시아, 세계로 뻗어나가야 한다는 염원이 담겨 있다.





제2절

투자가 인터뷰 및 기고문

“인천은 최적의 환경을 갖춘 21세기 동북아 허브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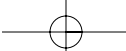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지구에 국제비즈니스 지구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04년 9월 이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존 하인즈 (John B. Hynes) 사장을 서울 종로구 운니동 게일인터내셔널 사무실에서 만났다.

존 하인즈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 사장)

–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고려한 사항은 어떤 것이었는지요?

“우리 회사는 3년 반 전에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 합작 개발 파트너를 찾고 있던 포스코 임원들에게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할 기회를 소개받았습니다. 2001년 여름 스탠 게일 사장과 제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발견한 사실은, 이곳이 일차적으로 국제 비즈니스 센터를 만들기 위한 다목적 개발 프로젝트용 물류 기회가 매우 뛰어나다는 점이었습니다. 개발 지역의 위치와 동북아 내부의 송도 국제도시의 위치 선정을 고려할 때, 이 프로젝트가 우리 회사의 기술을 펼치기 위한 굉장한 개발 잠재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곳이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 도시 역할을 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을 갖추고 보았습니다.”

–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국제비즈니스 센터 프로젝트에 대해 많은 국내외 기업인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관심이 지대합니다. 국제비즈니스 센터의 주요 추진 사업, 투자 비용 및 규모, 그리고 현재 (2004년 10월) 개발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우리의 개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회사는 전혀 다른 독특한 무언가를 창조하고 싶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다른 그 어떤 도시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것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첫 단계는 송도 국제도시에 화려한 국제적 이미지를 제공하고, 이 국제도시 안팎으로 외국 기업을 끌어들이 아름답고 상징적인 건축 시설을 제공할 컨벤션 복합 건물을 건설하는 일입니다.

백화점, 상점들, 레스토랑 등과 함께 컨벤션 상단부에는 주택 복합시설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컨벤션 센터는 거의 1억 2천 5백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컨벤션센터는 2004년 11월 착공했다).

2005년 12월부터는 65층 규모의 국제 무역 센터의 건설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1단계 프로젝트입니다. 2번째 단계 역시 지금 설계되고 있는 중인데, 1억 달러의 비용을 들여서 2006년 3월 국제 학교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2006년 3월에 6,500만 달러를 들여서 잭 니클러스 골프 코스 커뮤니티 건설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송도 국제도시와 필라델피아 국제 의료팀이 공동개발 중인 국제 병원 건설은 그 규모와 비용이 결정되면 2006년 6월에 시작될 것이며, 현재 그 실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트럴 파크와 운하 시스템 건설은 2006년 6월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개발에 총 20억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합니다. “

- 인천자유구역이 명실상부한 동북아 경제 중심지의 핵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회사가 판단하기에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인천대교에 대한 지원, 약속, 완성입니다. 인천대교의 건설로 송도 국제도시가 공항과 직접 연결되게 되면 이는 다국적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회사가 제안한대로 송도 신도시에 국제 학교를 설립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송도 국제도시에 국제 병원 및 의료 연구 시설을 설립하는 일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사항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좀더 간단한 승인 절차를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 회사를 포함해서 미래의 파트너들이 목표를 좀더 빨리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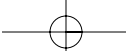
–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가 궁극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 주목할만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지만 사장님은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가 한국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지요?

“3년 후에 우리 회사가 이미 한국 경제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거나, 적어도 한국 신경제의 미래에 열정과 신선한 자신감을 창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여기 한국에서 우리 회사가 성공하면 한국에서 사업하기를 원하는 다른 국제적 사업체들에게 자신감을 부여하고 용기를 제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치 호랑이의 꼬리를 쥐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 매우 열의에 차 있고 흥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곳은 아시아의 다른 어떤 도시와도 다릅니다. 이는 아시아의 일부이며, 미국의 일부이기도 하고, 유럽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도시의 개발이 한국인들에게 잘 수용되기를 바랍니다.”

– 사장님은 이번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참여하면서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의 경영 철학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꾸준한 노력과 학습이 개개인들을 위해 그 다음에는 단체, 즉 시민들을 위한 훌륭한 기회를 창조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매우 흥미롭게 여기며 부동산 사업가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산업은 우리의 환경을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통찰력 있고 판단력이 있으며 환경을 잘 고려한 개발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한국 기업도 납득 못하는 불필요한 규제부터 철폐해야”



서정진
(셀트리온 대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계 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규제가 얹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공서가 합리성보다는 그들만의 편의성에 치우쳐 논리에도 안 맞는 기존의 복잡하고 낡은 잣대로 규제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출범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송도 경제 특구의 외국인 투자 유치 1호 기업체 대표 이사로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두 돌은 저와 저희 회사로 하여금 남다른 감회를 느끼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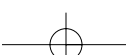
2년 전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한 가운데 셀트리온의 부지를 선정하고, 그 곳에 쇠말뚝을 박으며 느낀 감회와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렘은 셀트리온이나 인천경제자유구역 모두 같았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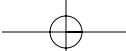
황무지나 다름없는 국내 바이오 제약업에 제 나름대로의 소신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설립한 우리 회사와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과 한국 경제의 위기라는 상반된 양면성을 바탕으로 추진된 경제자유구역!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시작된 셀트리온과 경제자유구역이 차츰 본연의 모습에 다가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더욱욱 충만되는 듯합니다.

지난 40여 년간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부단한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한강의 기적’으로 상징되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일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우리 민족의 저력을 세계에 보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다시 한 번 우리의 저력을 보여줘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산업의 공동화 등으로 국가의 성장 동력이 힘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강점인 인력과 지적 자원 등을 활용한 경제자유구역의 설립은 새로운 성장 엔진 마련을 위해 긴요하고 시의적절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 기업인으로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 특별한 의견보다는 개인적 소





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도 잘 아는 사실이지만 지금은 글로벌 경쟁 시대입니다. 세계 각국, 특히 한국 주변국들 또한 나름대로의 외자유치와 이를 통한 자국 경제력 강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글머리에서 밝혔듯이 새로운 선진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 차원에서 새로운 산업의 성장 엔진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관련 선진 외국 기업의 유치는 하나의 지상과제입니다.

외국기업 유치 위한 강점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차별적 유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현재 우리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지정학적 요인보다는 고정 관념이 배제된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꼼꼼하게 설계된 계획을 바탕으로 관련 당사자들이 계획에 맞게 차근차근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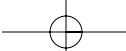
인천의 지정학적 요인이 상해 푸둥에 비해 확실한 우위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력 수준이 우리보다 선진화된 주변의 일본이나 대만, 홍콩, 싱가포르에 비해 확실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자신있게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의 핵심은 자연적인 요인보다는 잘 설계된 계획과 계획에 맞는 충실한 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획과 이행의 핵심 대상은 최고 수준의 기업 환경과 생활환경을 갖추는 것이라고 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계 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규제가 얹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공서가 합리성보다는 그들만의 편의성에 치우쳐 논리에도 안 맞는 기존의 복잡하고 낡은 잣대로 규제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한국 기업도 납득이 안가는 규정을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경제구역도 사람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면 외국인의 생활에 편리한 생활환경 제공이 필요조건이며 이를 위한 관련 생활시설 및 기업의 유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설 유치에 있어서는 중앙 부처의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한 요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라고 봅니다. 주요 유치 대상 산업들에 대한 해외의 유명

**제6장** - 오피니언 리더와 언론이 본 IFE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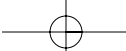
전시회나 세미나 참여를 통한 홍보 활동의 강화와 함께 해외에서 갖는 직접적인 투자설명회 등 적극적인 홍보가 뒤따라야 가시적인 성과가 빨리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홍보는 방법 뿐 아니라 홍보라는 기본 취지에 맞는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개발도 방법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계획과 홍보를 통해 투자 유치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련의 계획을 수행하는 중앙 부처, 지방 부처, 경제자유구역청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경쟁력이 배가되고 우리가 바라는 선진기업의 유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현재와 같은 국제 무역, 금융의 중심지가 된 것은 좋은 기업 활동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잘 짜여진 계획과 제도, 그리고 이를 운영하고 시행하는데 엄격한 거버넌스(governance) 확립과 리더십 때문이지 자연적인 요소는 극히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란 배에 송도경제특구 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최초로 승선한 셀트리온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커다란 발전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기원합니다.





“IFEZ는 세계적인 엔지니어링과 R&D 건설을 위한 최고의 지역입니다”



GM 대우는 2004년 12월 30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자구에 자동차 성능시험장 및 연구시설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인천시와 체결해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05년 2월 초 닉 라일리 GM대우자동차 사장을 만나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닉 라일리
(GM대우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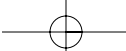
–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장님의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GM대우는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인천시와 시장님의 협조 및 지원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번 프로젝트는 GM대우와 제너럴모터스(GM)사에 모두 중요합니다. 또한 인천시와 한국을 위해서도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세계적인 엔지니어링과 R&D 건설을 위한 최고의 지역 중 하나로 한국의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GM 대우 또한, 새로운 자동차 성능시험장과 R&D 센터를 통해서 신차 모델 개발 진행을 향상시키고, 성능시험과 평가 능력을 높여서, 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총 시간을 단축시킬 것입니다.”

– 이번 사업이 GM대우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뿐만이 아니라 인천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요?

“이번 프로젝트의 효과는 매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지역 경제에 수십 억 원 상당의 투자액이 몰릴 것이고, 수백 개의 새로운 직업이 창출될 것이며,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이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시키기에 매력적인 지역이라는 메시지를 미래의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서는 외국 기업의 유치가 관건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장점은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IFEZ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IFEZ에는 이미 훌륭한 항구가 있고, 예상되는 지역의 급격한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항구를 더 짓고 있습니다. IFEZ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하기 때문에, 외국 사업가들의 한국의 입출국이 용이합니다. 또한 중국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국제금융지구와 송도국제비즈니스센터가 완공되면, 외국인 투자자는 완벽한 종합 서비스를 인천 지역에서 받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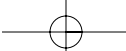
“전 세계에 걸쳐 800개 이상의 자유무역지대(FTZ)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지역에서, 관세 예외와 세금에 관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자유구역(FEZ) 그 자체를 특수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유연한 측면에 있습니다. 기업이 본사에서 떨어진 지역에 사업장을 설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어에서부터 문화, 사업 실행에서부터 간단한 일상의 생활 요소까지의 모든 것이 복잡한 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유연한 측면의 이슈를 결정 방정식을 통해 하나씩 해결해가면서,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그 자체를 상당히 차별화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관리인들은 정부와 금융 서비스를 포함해 모든 것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일은 주택, 건강관리, 교육, 교통, 의사소통, 쇼핑 등의 필요에 대해서, 기업의 임직원들의 요구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은 계약 성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2002년 10월 GM대우가 공식출범한 뒤 햇수로 4년이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그동안 GM 대우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GM대우가 설립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많은 수치 결과가 좋은 출발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GM대우는 71개 국가에서만 자동차를 팔았습시다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140개가 넘는 시장에서 자동차를 팔고 있습니다. 또한 2년 전에는 25만 유닛 약간 넘게 수출을 했지만, 올해는 100만 유닛을 넘을 것이고, GM사에서도 손꼽히는 수출 업체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원래 GM대우는 파산한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까운 미래에 수익을 바라보는 기업입니다.





– 한국에서 GM 대우를 경영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만 우리나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GM대우의 설립 이래, 한국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GM대우를 경영하기 시작했을 때, 한국인들의 GM대우에 대한 좋은 감정에 어찌할 바를 몰랐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한국인들이 GM대우의 성공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의 한국 기업으로서, 사업을 계속 발전시킬 것입니다.



“ 인천대교 사업은 몇년 후의 이익이 아닌 차세대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진행되어야 할 국책사업입니다 ”



2005년 6월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인천대교의 착공식 두달 뒤인 8월 1일, 코다개발(주) 대표이사 겸 아멕코리아(AMEC Korea) 대표인 김수홍 사장을 만나 인천대교 추진현황을 알아보았다.

김수홍
(코다개발 대표이사)

- IFEZ 개발과 관련, 인천대교 건설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인천대교는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핵심 인프라 시설로서 인천공항의 항공물류와 인천항의 해상물류를 연결하는 ‘바다 고속도로’ 입니다. 인천대교의 완공으로 영종지구, 송도지구,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이라는 정책이 구체화 가시화되고 추가 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사업은 건설회사 위주로 개발돼 있으나 이번에는 순수 투자자들이 주도했습니다. 특히 정부, 해외투자자, 재무적 투자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최초의 SOC민간투자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자부합니다.

인천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정책99-2)와 기획예산처 공보관실 자료(2001년 5월) 등에 따르면 인천대교 건설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총생산유발 3조 8900억원, 부가가치유발 1조 5,163억원, 고용유발 4만8천 등에 달합니다. 이 수치가 현실화되어 지역과 국가 경제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대교 공사를 맡은 KODA개발의 각오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KODA개발 사장으로서 인천대교 건설에 임하는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더불어 KODA개발 회사 소개도 해주십시오.





“인천대교 사업은 몇년후의 이익이 아닌 차세대, 차차세대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진행되어야 할 국책사업입니다. 그런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후세에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모든 사업 과정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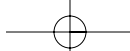
그동안 많은 외국사들이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중도 포기하곤 했습니다. 몇몇 성공한 사례도 국내사와 공동참여한 경우였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외국사로서 인천대교사업을 주관, 6년의 협상 과정을 거쳐 마침내 대역사(役事)를 시작한 코다개발과 아멕의 끈기와 저력은 높이 살만하다고 자부합니다.

인천대교 프로젝트의 큰 특징 중 하나는 투명한 사업추진 과정입니다. 민자 사업 사상 최초로 시공사를 국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고 사업시행자와 시공사를 분리했습니다.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었던 것도 교량의 안전성, 교통수입 및 공사비 검증, 사업관련 인허가 등을 포함하는 사업타당성 산출에 있어 그 어떤 사업보다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운영하여 신뢰도를 높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저의 사업관 역시 ‘공명정대함’ 인만큼 이 부분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코다개발 주식회사는 영국계 다국적 개발회사인 아멕 AMEC사가 인천대교 프로젝트를 위해 인천시, 재무 투자자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입니다. 자기자본으로 투자하는 약정금(총 1646억)의 지분율은 아멕 AMEC 23%, 인천시 6%, 재무투자자 71%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다개발주식회사는 인천대교가 준공되는 2009년 10월까지 공사 진행과 자금 운용 등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게 됩니다.”

－ 인천대교의 규모 및 공사 일정과 함께 8월 말 현재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총 1조270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 2009년 10월 완공할 계획인 인천대교는 총 연장 12.3km(왕복 6차선, 교량폭 31.4m)로서 인천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해상 교량 길이만 11.7km에 이릅니다. 이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긴 교량인 부산 해운대의 광안대교(8.429km)와 경기 평택-충남 당진을 잇는 서해대교(7.31km)보다 3~4km 더 긴 규모입니다. 최대 교각 간격이 800m로 세계 5위이며 주탑 높이는 230.5m로 63 빌딩 높이와 비슷합니다.



현재(8월말)진행되고 있는 공사는 바다속에 원통형 지지대(파일)를 박는 작업입니다. 사장교 부분과 서측 고가교, 서측 접속교에 동시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 공정을 100%에서 5% 정도 진행된 것입니다.

인천대교 건설에서 가장 힘들고 시간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사장교 공사는 2008년 5월 주탑 완공을 포함하여 2009년 5월경 끝나게 됩니다. 고가교와 접속교 부분은 사장교와 동시에 진행 되어 2009년 초반에 모두 마무리됩니다. 한편 국고사업으로 시행 중인 인천대교의 접속도로 (9.1km)는 올해 11월에 착공하여 인천대교 준공에 맞춰 개통될 예정입니다.”

- 인천대교를 사장교로 짓는 이유는 안전성 확보와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건설되나요?

“인천대교는 초속 72m의 폭풍과 진도 7의 지진에도 문제없으며 100년 이상의 수명을 가지도록 설계됩니다. 인천대교의 주경간 거리는 800m로 국내서 전례가 없는 것(서해대교 470m)입니다. 이는 인천대교 아래를 지나다니는 대형 선박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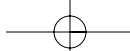
지난해 주경간 폭에 대한 시민단체의 이의 제기로 다소 공기가 지연되기는 했지만 외부적 힘이 아닌 당사자 간 대화에 의해 합의를 도출해내면서 인천대교 사업에 대한 지역의 이해가 훨씬 깊어지게 됐습니다.

주경간 800m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장교 또는 현수교 외에는 다른 교량 형식이 없는데 이 중 인천 해양의 수심과 지지기반 등을 고려했을 때 현수교보다 사장교가 더 안전한 형식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대형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 시행 조직과 별도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조직을 도입, 품질 증대 및 적 기준공을 이뤄낼 것입니다.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패스트 트랙(fast-track)방식으로 공기 단축했으며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삼성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아 안전 하고 정밀한 공사 진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외관에서도 바다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량으로 인천대교는 단순히 차량이 오가는 통행 수단만이 아니라 인천과 한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금문교가 있어서 샌프란시스코가 더욱 매력적인 도시가 되었듯 인천도 인천대교로 인해 한층 활기차고 아름다운 곳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야경과 도로 주행, 선박 운항, 비행기에서 내려다 봤을 때 아름답게 보이도록 미적 설계를 했습니다. 교량에 특수 조명도 설치하고 이





다리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행사 개최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장점과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등 경쟁국 경제특구 성장속도가 위협적이긴 하지만 이들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우리의 IT 기술과 풍부한 제조 기반을 적극 활용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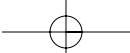
경제특구는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만큼 기반시설의 완공과 투자 업종의 인센티브 확충, 규제완화, 교육 의료 주거 등 외국인 생활 환경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선결 과제로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 차원의 과감한 지원과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 그리고 제도 개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필요한 것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국민적 공감과 지지입니다.”

– 코다개발과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나요? 교량 건설 분야에 대한 경력, 경영 철학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대교 프로젝트의 태동은 1999년 한국 정부와 캐나다 아그라(AGRA)사가 인천대교(당시 명칭은 제2연륙교) 건설을 위한 투자 의향서를 체결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는 당시 아그라사 한국 지사장이었던 제가 외자유치사업으로 인천대교 건설을 양국에 제안하면서 구체화된 것입니다. 이후 2000년 아그라사가 영국 아벡에 합병된 후 제가 아벡 코리아와 코다개발의 일을 맡아 하면서 인천대교 프로젝트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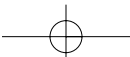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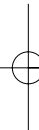
‘고향에 다리 하나 놓고 싶다’는 바람은 영종도 토박이인 제가 어린 시절부터 품어왔던 소망이었습니다. 와세다 대학 건축학과 출신인 아버지의 영향도 컸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판문점 설계와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인 마포아파트 건축등을 담당하신 분이었는데 늘 “영종도와 인천을 잇는 다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이렇게 품어왔던 생각이 외자유치와 연결돼 현실화 되었습니다.

제게 ‘사업’의 의미는 ‘공명정대함’과 ‘나눔’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편법이나 술수를 쓰지 않고 정도를 가자는 것이 저의 신조입니다. 결국 이런 방식이 긍정적 결과로 돌아오더군요.



제6장 - 오피니언 리더와 언론이 본 IFEZ

사업과 사회복지를 연결시키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싶은 것이 저의 큰 바람입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사회기여를 주요 경영 원칙으로 삼는 아맥의 철학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코다개발(주)와 아맥이 인천대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 단기적 이익만 좇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발전과 자사의 성장을 함께 추구하는 건강한 기업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3절

국내외 주요 언론 보도내용

2003년 8월 11일 인천의 송도·영종·청라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국내에서 처음 지정·고시되고, 같은 해 10월 1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된 뒤 오늘에 이르기까지에는 애정어린 비판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준 많은 언론의 도움이 컸다.

앞으로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한 언론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기대한다.

그동안 언론매체에 다뤄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주요 기사를 모았다.





한국경제

2003년 10월 16일 목요일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공식 출범

다국적기업 유치 ... 동북아 경제허브 시동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16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출범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동북아 경제허브 시동을 위한 다국적기업 유치에 힘쓰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주도한다.

이날 출범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동북아 경제허브 시동을 위한 다국적기업 유치에 힘쓰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주도한다.

◆여름계 개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6일 공식 출범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주도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주도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주도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주도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주도한다.



투자기업 5년간 소득·법인세 감면 교육·노동·의료시장 획기적 개방 외국인에 '살만한 곳' 평가 받아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주도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주도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주도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주도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주도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주도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주도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주도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은 경제부총리(왼쪽), 한상수 인천시청장(오른쪽)이 1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참관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주도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주도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주도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주도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주도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주도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주도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주도한다.

www.incheonfez.com

한겨레

2003년 10월 30일 목요일

“인천은 중국 진출 위한 최상의 후방기지”

안거대가
■ **번안 서경**

川野田 忠雄 監製・演出・脚本・撮影・編集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 1991년 1월 10일부터 1992년 1월 10일까지 1년간의 운영을 평가한 결과, 평가자 100여명 가운데 90% 이상이 이 프로그램이 유익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이 유익한 것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자신의 생활습관 개선'이 40.5%, '건강에 대한 관심'이 30.5%, '가족에 대한 이해'가 17.5%, '자신의 성격 개선'이 12.5%, '가족의 역할 이해'가 8.5%로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이 유익한 것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자신의 생활습관 개선'이 40.5%, '건강에 대한 관심'이 30.5%, '가족에 대한 이해'가 17.5%, '자신의 성격 개선'이 12.5%, '가족의 역할 이해'가 8.5%로 나타났다.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이 단장은 "물론이겠지만 모든 국민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라 (수용자)와 교도관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이라며, 무엇보다도 국민이 아닌 '모든 국민'이라는 말이 잘못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수용자"라는 말을 "수용"이라는 동사와 "수용자"라는 명사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illegible]

2009년 10월 26일

[illegible][illegible][illegible]

● "공무원 연세 지우려고 청문 대신 '사이드' 청문"
● "의회위가 근본 원한 경제관리반의 책임 아니다"
● "외국학교에 내국인 입학 불허 경제자유 못가니"
● "외국기업 유자 거둬 규제 풀고 세금감면 추진"

總發行所：東京公債 證券-東京2100

[illegible][illegible]

1993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1993년 전국 1000가구 가계수입조사에 따르면, 1992년 가계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수입은 1인 가구가 1,100만원, 2인 가구가 1,800만원, 3인 가구가 2,500만원, 4인 가구가 3,200만원, 5인 가구가 3,900만원, 6인 가구가 4,600만원, 7인 가구가 5,300만원, 8인 가구가 6,000만원, 9인 가구가 6,700만원, 10인 가구가 7,400만원으로 나타났다.

[illegible][illegible]

새마을금고 100주년 기념 특집

— 새마을금고는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1962년 설립된 이래, 농촌의 빈곤을 해소하고 농민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100주년을 맞아, 새마을금고의 역사와 현황을 소개합니다.

— 새마을금고는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1962년 설립된 이래, 농촌의 빈곤을 해소하고 농민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100주년을 맞아, 새마을금고의 역사와 현황을 소개합니다.

— 새마을금고는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1962년 설립된 이래, 농촌의 빈곤을 해소하고 농민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100주년을 맞아, 새마을금고의 역사와 현황을 소개합니다.

[illegible]

● 中国书画函授大学肇庆分校

참: 柳龍 2월 10일 국문(國門) 2월 10일 국문(國門) 2월 10일 국문(國門)

이들은 2004년 10월 21일(수요일) 오후 2시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신림초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하여 10월 24일(토요일) 오후 2시에 본교에서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illegible][illegible]

그런데 이같은 조항은 1994년 12월 15일 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100조 제1항에 의거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 시 「헌법재판소법」 제10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헌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위헌 결정의 효력은 「헌법재판소법」 제10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헌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위헌 결정의 효력은 「헌법재판소법」 제10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헌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 23494-9026

최고: 명품 가방 가치있지 않다는
확신에 한 조류시절부터

이러한 사실은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한국 사회의 '탈근대화' 현상과도 관련이 있다.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한국 사회는 급속도로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면서, 전통적인 농촌 사회의 구조와 문화가 크게 변모하였다. 이로 인해 농촌 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크게 약화되었고, 이는 농촌 지역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illegible][illegible]

이러한 사실은, 1990년대 이후의 한국 사회가,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의 한국 사회와 다른 사회였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의 한국 사회가,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의 한국 사회와 다른 사회였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의 한국 사회가,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의 한국 사회와 다른 사회였음을 보여준다.

인천일보

2003년 10월 31일 금요일

송도서 '한국신화' 창조

盧 대통령 “국가 미래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달렸다”

訪韓 前 유엔대사 등 해외 CEO 8명과 환담서 강조

“지금도 투자할 기회…기업활동 장애요인 과감 제거”

노무현 대통령은 2002 "지금 우리 한국의 문화적경쟁력은 세계에 비해 훨씬 낮은 실정"의 의문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상) 호소에서 시작해 한국에서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혁신정부를 "한국적 가치관"의 실용적, 다 사업에 몰입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미래를 위한 것은 생각은 곧 실천과 한국적 모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illegible]

노 대통령은 개헌이 3년의 개
헌 과정의 완결점을 본연으로 "헌법
개정 또는 개헌을 거론하는 것은
이미 송두리째 붕괴된 헌법을 애고
강변하는 것으로서 타당성 없다"고
강하게 부정 뒤 "개헌(改憲)이
국내 갈등을 해 미국의 경제인들에
게 대외적인 신뢰와 안정성이나
가능성에 대한 불신감을 갖고 있
는 것으로서 내외 여론을 설득

심장이 뛰을 때 전원은 두지자를 매기는 좋은 기회로, 지금이 바로 한국에 두자를 가르치고 매기겠다"고 힘차고 "나는 그 당시 한국문화의 이해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었고 그 믿음이 일본문화의 유구함과 존엄성을 이해"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은 부가, 참여외엔, 대등
노 대등원인 "부" 참여는 그로인
수행원인 "대" 참여를 커지고, 이
계 원인을 확립의 접근은 참여로
로 실용 원인을 전, 대, 참여가 되
는 것은, 실용은, 대, 참여로, 참여
"대" 참여로, 참여로, 참여로, 참여
기전 원인 참여, 참여, 참여는, 참여

해당 국가 기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인원 5천명까지 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전쟁이 끝났지만 구미에 불이
안고, 부처님에는 외국기업들
대한 지원하고 고고의 제2차
대전은 종전하고는 일로조는 미국
을 찾아, 일본은 미국도 지
지않고, 일본도 미국과 전쟁
미국이 미국을 지지하는 것은
미국이 미국을 지지하는 것은
미국이 미국을 지지하는 것은

[illegible]

2011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유족회로 지원된 '송도신도시 후지유치 설립회'의 협력과 밀착한 리처드-홍보효과로 연
유명대사, 안철수 진면시장을 비롯한 해외 CEO 방문을 장려해준 점, 제8회고 있다. (한정대사한기제)

경인일보

2003년 11월 21일 금요일

‘경제특구’ 코트라 연계 첫 국제투자설명회
‘기업천국 비전’ 시선집중

市, 원스톱서비스 약속... 실질적 상담성과없어 '아쉬움'

인본정책지원구체화 출범 이후
 2000년 12월 14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00
 인본정책지원구체화심포지움'과 '국립
 부처님 오신날 기념행사'를 계기로
 2001년 1월 14일, 정부 차원에서
 출범했다.

[illegible]

김수현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8일
국내외 관공터 불교지도 일출을 영
남북 200여 지에서였다.

《관련기사 3면》

[illegible]

전환을 시킨다는 사실만 믿는다면, 왜 “조선총독부지령”에 “외국기업과 기업활동의 장려”에 의해 “조선의 기업, 외국적인 자본을 유치한다”는 내용의 부칙처럼 외국적인 관심은 없었을까.

이처럼 높은 관심으로 삼각 지남
북극항로에서 개척하는 항해는
저항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illegible]

보통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박'은 1993년 1월24일(토)에 개봉한 박정호 감독의 **관상사**이다. 흥행만 구하지는 아니하지만, 1993년 1월24일(토)에 "대박"을 거둬들인

[illegible]

（附免費工具） www.knowsky.com



“여기가 동북아허브”

*본문에 사용된 사진은 실용화가 20일 전인 8월도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제4회
북지리데이 행사에 출품한 것임에 유의한다. /문의: 070-6944-4999

富田城下町 - <http://www.tomioka-jichu.jp/>



朝鮮日報

2003년 11월 28일 금요일



국민일보

2003년 12월 15일 월요일

“인천은 본사 中은 공장… 원-원전략”

들어봅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구상 안 상수시장

“생선잡은 중국에 남기고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와 연구개발본부 등 핵심업을 이끌어 가는 기능은 원천경제자유구역에 두도록 하는 분권편리를 추진하겠습니다.”

한양주 인형시장은 11월 안전경제자유구역
을 삼아야한다 IT분야가 앞장 '인텔리전트시
티'로 만들어가는 전략을 세웠어 밝혔다.

한 시인은 "지금엔 돈이 쓰는 경제정책으로
는 안 된다는 걸과 인간부분이 더 많아 있어
있는 [문화에 대한] 정부부처는 비효율적인
만큼 신원자를 개혁해야 한다"와 "신원자는
경제자유구역이고 새로 원천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상하이보다 앞선 'IT허브'로
언택트전트시티 청사진 밝혀

한 시장은 여의하면, "최근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례대 면담과정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대한 자산에 우선권을 말했다.

그는 경제정부의 10대 과제다 중 일개가 독
과에 중점국가 건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어 행정조직과국무회의 상공합 수 있는 조건
으로 중국 정부와 재외동포장 등 중국 3천
제출을 거치로 커주었다고 밝히고 있는바
중국 3년에서 상해의 거리가 1시간이면
경남에 방해 인천은 1시간이면 갈 수 있다는
상황을 들었다. 인천국제공항은 경영 공약
다 100만명으로서의 조건을 잘 갖추고 있
는 점

한 시장은 "최근 중국발달이 빨라오며 전후
반 무려 4년의 스텔렌베스트결과에 미국시장에

한 아들은 법정에 대해, 대통령도 무죄를 받
다"며 "언론은 그 전조까지"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설립목과 공통되는 서면질문 하에 안전경제자유구역에서 대단위 토목공사를 일으켜 일차로 관측해 토목수준을 조절하면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인은 "환경경제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의 협조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국가공무원
급여면제에는 성공했으나" 부처의 보살직
임근직책을 국책하고 학교 및 병원을 폐
쇄해야 한다"고 "2008년 8월 배여출판권 이
전에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자금지도를 정방
수사로 평가가 된다"고 지적했다.

한 시장은 "법정부자원의 협조를 통한 국내 자본 유치의 확대도 2000초가 넘는 부동자금이 변

다국적기업 유치 중국과 공생
공한 등 여건 좋아 성공 확신

한편 부차적 수 있도록 하겠다"며 "최근에 들어 IT·HARD 관련 외국대학의 유치를 늘려온 기존의 성과를 토대로 국립대학의 본교 및, 국립대학의 여건, 천천대학의 국립대학 전환 등 100개 대학이 경제자유구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고 강조했다.

영동도 개발과 관련, 한 시당은 최근 조영환
씨와 개발을 요구하는 영동도 주민들과 만나
공명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조건으로 도
내개발을 각급 인재를 시가 주도적으로 추
진해오지 못했다는 점을 남기지 않게 투명하
게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시당은 영동도
50만명에 대한 단지개발을 2006년, 차곡차
곡 2007~2009년에 철거민에게 임대주택을 입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연락처: 02-312-0100 | www.korea.com

경인일보

2004년 1월 3일 토요일

기반조성 元年 삼겹다

이 환 군 경제구역형질에 묻는다

“정도는 그정도 그대도
알고있잖아 구름처럼고
정도는 윈드미스트 실존해
나와”

[illegible]

—출처: 경제자유구역개발
추진 위원회

“唐臣郭元振疏：‘唐太宗皇帝，自王公以下，咸知所畏。’”

한 참가자를 거두고 각종 제도개선 및 보편
권을 통해 경제자유구역과 개발 속도를 한
단계 높이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2004년 1
2월경부터 보상을 위한 지원조항에 전권을
기탁합니다.

—李德裕與周鼎 趙鼎與 呂頤仲

*주요 지역별지사와 연계해출발여행
특히, 구례·순창·영암·완주·진안·진천·진평도
로 보면 됩니다. 현재, 전국 각급 대상지
는 순창유원지, 순창·완주지구, 수도
관내지구, 완주·영암·진천·진평도
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자유구
역인 단산읍·화진동·진천
다. 단산과 화진동



중앙과 유기적 협조
대뉴얼로 투자유치
주변지 원-원개발

원세장으로부터 연천지역 권세와 균형지언, 계층을 위한 것입니다. 현재 테스트프로그램을 구성해 연세 계층분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에 따른 재산이 늘어
가는데, 공짜로 재산이
늘어난다.

[illegible]

문화유산은 곧 삶의 터전이다.

- 223 - 李炳祥 李炳祥 李炳祥

“이제부터는 두자유의식령을 잘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비서관, 정치인들, 때때로는 관공란지, 불려다니, 국공인 학교 및 병원 등 본따, 비르니스, 문명, 개성하고 두자유의식령을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특히 제1차 1차 기업 중 10개 기업에 국하되도록 결정하고 두자유의식령을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특히 제1차 1차 기업 중 10개 기업에 국하되도록 결정하고 두자유의식령을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특히 제1차 1차 기업 중 10개 기업에 국하되도록 결정하고 두자유의식령을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정승환기자 news@yeongju.com



인천일보

2004년 1월 15일 목요일

“인천경제자유구역 빠르게 추진”

盧대통령 연두회견…“모든 절차동원 성공 시킬 것”

노무현 대통령(사진)은 14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인천을 비롯한 공양, 부산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관심이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인천 공양 부산 등 3개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예산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정부의 여러가지 업무를 평가해볼 때 (경제자유구역이) 가장 순조롭고 속도가 빠른 정책과제 중 하나”라며 “정부가 법적으로 가능한 한 모든 절차를 동원해 가장 빠른 속도로 성공시키려 하는 것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2·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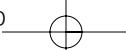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연초에 다시 한번 각계의 책임있는 분들을 모아 점검하겠다”며 “정부가 하는 일 가운데 모범적 사

례”라고 평가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지난해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요청한 1천억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지자체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에 대해 “예산 1천억원이 꺾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고 전제한 뒤 “큰 규모의 예산은 회계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그런 절차 때문에 또는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1천억원 예산에 제동이 걸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예산 삭감 및 지원 부분에 대해 재확인할 것임을 시사했다.

〈손미경 기자〉

mimi@incheontimes.com



인천일보

2004년 2월 27일 금요일

ABN암로은행 등 송도신도시 투자 전격결정

자금 확보에 대외 신인도 '업'

127개 일파라는 기대를 깨뜨리며, 인천 개발은 인천광역시와 송도신도시 개발공사(이하 송도신도시공사)가 2004년 2월 26일(수) 오후 2시 30분께 송도신도시 개발공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BN암로은행 등 송도신도시 투자 전격결정

자금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송도신도시 개발공사(이하 송도신도시공사)는 26일 오후 2시 30분께 송도신도시 개발공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BN암로은행 등 송도신도시 투자 전격결정

자금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송도신도시 개발공사(이하 송도신도시공사)는 26일 오후 2시 30분께 송도신도시 개발공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BN암로은행 등 송도신도시 투자 전격결정

자금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송도신도시 개발공사(이하 송도신도시공사)는 26일 오후 2시 30분께 송도신도시 개발공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BN암로은행 등 송도신도시 투자 전격결정

자금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송도신도시 개발공사(이하 송도신도시공사)는 26일 오후 2시 30분께 송도신도시 개발공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BN암로은행 등 송도신도시 투자 전격결정

자금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송도신도시 개발공사(이하 송도신도시공사)는 26일 오후 2시 30분께 송도신도시 개발공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BN암로은행 등 송도신도시 투자 전격결정



26일 서울 회계통무위원회 본관에서 열린 '송도신도시 금융지원계약 조인식'에서 송도개발(주)의 송도신도시 개발공사(이하 송도신도시공사)와 ABN암로은행 등 송도신도시 투자 전격결정

佛 세계부동산박람회서 투자설명회 홍콩·싱가포르·뉴욕도 줄이어 개최 美 게일사 회장 "본격 마케팅" 언급

송도신도시를 홍보하는 광고를 '실사'한다. 송도신도시를 홍보하는 광고를 '실사'한다. 송도신도시를 홍보하는 광고를 '실사'한다.

송도신도시를 홍보하는 광고를 '실사'한다. 송도신도시를 홍보하는 광고를 '실사'한다. 송도신도시를 홍보하는 광고를 '실사'한다.

송도신도시를 홍보하는 광고를 '실사'한다. 송도신도시를 홍보하는 광고를 '실사'한다. 송도신도시를 홍보하는 광고를 '실사'한다.

송도신도시를 홍보하는 광고를 '실사'한다. 송도신도시를 홍보하는 광고를 '실사'한다. 송도신도시를 홍보하는 광고를 '실사'한다.

송도신도시를 홍보하는 광고를 '실사'한다. 송도신도시를 홍보하는 광고를 '실사'한다. 송도신도시를 홍보하는 광고를 '실사'한다.

송도신도시를 홍보하는 광고를 '실사'한다. 송도신도시를 홍보하는 광고를 '실사'한다. 송도신도시를 홍보하는 광고를 '실사'한다.

송도신도시를 홍보하는 광고를 '실사'한다. 송도신도시를 홍보하는 광고를 '실사'한다. 송도신도시를 홍보하는 광고를 '실사'한다.

한국경제

2004년 4월 10일 토요일

지지체 '기업유치' 박빙고 쏜다

10. **송도신도시 바이오산약센터**

국내 합작사까지 '중매' ... 발길 잡아

[illegible][illegible]

“당국은 북핵소련은 심각하게 중
국 정부로부터서 인위적인 위협
감소로 인해 주의를 기울여 주었
다. 당사 입장은 우리가 항상 주의를
감, 지원할 때 국가적 및 국제적
의 조건을 제시하는 데 있어 핵심
을 거둬 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해 겨울 미국에서 아이오와주
코네티컷을 방문 국내 예술가들에게
의미심장한 자화상이 소개를 했습
니. 연한색에 얹어놓은 푸른색과 노란
색을 좋아했다.

남이 제스전을 무리하게 의심 순간
으로 요구한 사항은 신변보호사
를 관할할 것으로 차근 차근

[illegible][illegible]

美 백신 R&D·백신공장 설립 정보입수

안천시 팔각 50% 할인등 자격조건 제시

루자유치 경쟁 싱가포르 간발의 차 따돌려

다. 엑스선과 바륨을 같이한 약을
받은 후 2시간을 복부를 2시간 이내
압박하고, 2시간 후 1시간 이내
인공변을 삽입해 2시간도 안 걸려
이변을 2시간에 2시간 42시간
정도

[illegible][illegible][illegible]

4. 舊金山時報 舊金山時報 1998年11月14日

17년째 전국을 돌며 지역적으로 많은 기간에 걸쳐서다"고 말했다. 문명의 정구변이는 1년 4월부터 1월과 2월을 4월로 정한 123번의 문-국과 수백여개의 78년 123의 이 부사장은 말했다.

[illegible]

www.sagepub.com

중앙일보

2004년 4월 28일 수요일

英 아멕사 인천공항에 2兆 투자

국제업무지구 120만평 건설하기로

아멕사는 2004년 영종도 인천공항 인근에 총 130만평 규모의 국제업무지구 건설을 완료한다. **(그림 참조)**

건설교통부는 지난 26일 영국 런던에서 아멕사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아멕(AMEC)사가 인천공항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관한 외국인 투자 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아멕은 이 사업에 2010년까지 모두 20억달러(약 2조3000억원)를 투자해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아멕은 인천공항 제2 국제업무지구(IBC-Ⅱ) 130만평(유수지 40만평 포함)에 국제업무단지, 호텔, 공연장, 레저시설, 고급 주거시설 등을 건

설하게 된다. 정부는 민정부 차원의 사업추진 전담조직을 구성해 아멕 측과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구체적 사업계획은 아멕 측이 하반기 중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인천공항의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고 환승객 및 공항·물류 시설 종사자를 위한 휴식공간도 확보될 것으로 건설부는 내다봤다. 또 건설 중인 제2연륙교로 송도 국제업무지구와의 연계 발전이 가능해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멕은 유류·가스·교통·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회사다. 현재 인천공항 제2연륙교 건설사업의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다.

제2 국제업무지구 건설에 앞서 건설교통부는 인천공항의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 활용도와 공항 수익을 높이기 위해 1996년 제1 국제업무지구

를 조성했다. 제1 국제업무지구(IBC-Ⅰ) 예정지 15만평 중 5만평은 인천공항공사 주도로 건설 중이며 2005년 완공된다. 여기에 관세청·출입국관리소 등 공공시설이 입주해 있으며 호텔·상업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8월 인천을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송도지구(1611만평)는 국제업무·첨단산업 ▶영종지구(4384만평)는 항공·국제물류 ▶청라지구(1700만평)는 관광·레저·국제금융 중심지로 오는 2010년까지 두 단계로 나눠 개발할 방침이다. 영종지구는 인천공항·경제자유지역·골프장, 그리고 국제업무지구 등으로 계획돼 있다.

권근영 기자

young@joongang.co.kr

서울경제

2004년 5월 11일 화요일

인천 국제공항·항만배후 566만 5,000평에 국제·지역물류기지 13곳 조성

민간개발... 市, 내년초 계획수립 용역 착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항만·공항 배후 566만5,000평에 13개의 국제 및 지역물류기지가 새로 조성된다. 인천시는 10일 화물운송지원협회와 창립총회에서 "인천항과 송도신항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배후에 13곳의 국제물류기지 및 지역물류기지를 수요자 중심의 민간개발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 초 물류단지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 연월별 지 구분, 개발모형과 사업순위를 선정한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이들 물류기지를 조부 대 중국 수출입화물 및 동북아 물류거점 기지로 활용하고 수도권지역 집하중 기지와 인천항 및 인천공항의 수출입 화물 집하장으로 차용, 북해

아 물류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인천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물류기지 조성권 관련, 인천시는 인천항 4부두와 인천국제공항 관제자유지역, 인천의 석항, 남항, 청라, 운서동, 남항 컨테이너부두 일원 등에 10개의 국제물류기지를 오는 2014년까지 조성하기로 했다. 이들 물류기지는 모두 민간개발로 추진되며 인천시는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 후기로 했다. 시는 우선 중연선 소유 토지인 석항 배후지역 77만평 중 15만평을 석항 배후물류단지로 조성하고 인천국제공항 인근 운서동 일원 44만평 가운데 18만평을 항공물류물류시설로 개발하기로 했다.

또 인천국제공항 면적자인 청라지구 일원 57만평 중 22만평을 청라화



물류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 송도신항 배후 물류단지 135만평은 지난해 인천시와 영해각서를 체결한 한진중공업(미국 파인사, 독일 한

내비트그시)이 1조8,000억원을 투자 오는 2006년까지 국제물류기지로 3영하기로 했다. /인천=정현일기자

hichung@whi.com.k



朝鮮日報

2004년 5월 15일 토요일

“인천송도신도시 개발 2억弗 우선투자 확정”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송도신도시 개발 사업에 내달 말까지 외자 2억달러(약 2400억원)가 우선 투자된다. 또 미국 유명 사립학교와 대학병원의 유치도 연말쯤 확정될 전망이다.

미국 록펠러재단이 운영하는 ‘아시아소사이터티’ 행사 참석차 내한한 미국 게이컴퍼니(Gale company)의 스탠 게이(Stan Gale) 회장은 지난 13일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금융 주선을 맡고 있는 우리은행·모건스탠리·ABN암로은행 등 3개사가 다음달 말까지 송도신도시 1단계 개발에 필요한 자금 2억달러를 제공하기로 확정했다”면서 “연내 5억달러의 자금 지원이 추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건설과 함께 송도신도시 개발을 추진 중인 게이컴퍼니는 지난 2002년 총 127억달러의 외자 유치를 통해 송도신도시 내 167만여평 부지에 1·2단계로 나눠 대형 국제업무단지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게이 회장은 “이번 파이낸싱 성공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면서 “오는 10월 15일쯤 컨벤션센터 캠퍼스의 착공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컨벤션센터 캠퍼스에는 컨벤션센터, 호텔, 쇼룸, 주상복합 아파트(300여가구), 랜드마크타워



연내 5억달러 추가 투자
美사립학교·병원도 유치

(5층 규모) 등이 들어선다.

그는 또 “현재 하버드대와 공동으로 미국 동부지역 유명 사립학교 및 대학병원 유치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연말이면 유치 대상 기관이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이 회장은 “금융·보험·자동차·첨단 기술 분야 등에 걸쳐 미국과 유럽의 20여개 기업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 중 12개 업체는 큰 관심을 갖고 있고, 2·3개 업체는 투자 유치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전했다.

미국 뉴저지주 본사를 둔 게이사는 지난 1965년 설립 이후 미국·유럽·한국 등에 투자하고 있다.

유하윤기자



東亞日報

2004년 6월 12일 토요일

용유도 웰빙형 해양관광단지 39만평

2008년까지 우선 개발

해저탐험관 조각공원 건립

국제종합휴양지로 개발될 인천 용유도와 무의도 213만평 가운데 인천 국제공항과 가까운 용유도 선녀바위 주변 39만평이 '웰빙형 해양관광단지'로 2008년까지 우선 개발된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선녀바위~덕교동 해안 4km 일대에 휴양 문화상가 숙박 등의 시설을 건립하는 개발기본구상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곳에는 호텔 1개, 콘도미니엄 4개, 펜션 1개 등 테마별 숙박시설과 카지노, 민속공예촌, 조각공원, 해저탐험관, 해양전시관, 일몰 조망대, 범선 카페 등이 들어서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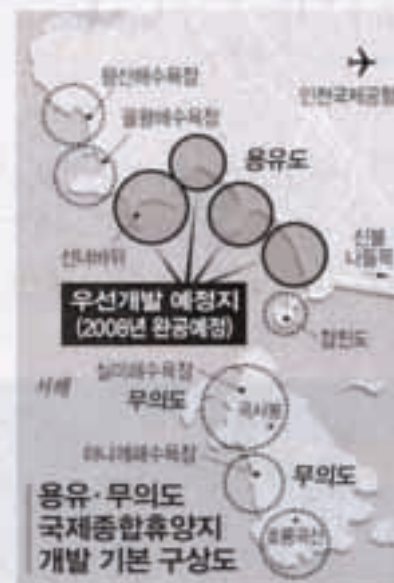
공사 측은 내년 말까지 실시계획 승인 및 토지보상을 마친 뒤 공사에

들어가 2008년경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용유도 선녀바위 일대 39만평을 우선개발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나머지 174만평에도 민자유치를 통해 유희시설, 외국인 전용 숙박시설, 해변휴양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용유도와 무의도 213만평에 45억달러를 유치해 호텔 콘도 미니엄 테마파크 등의 국제종합휴양지를 조성하기로 했으나 2002년 "투자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투자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미국 모 회사와의 계약을 취소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안영규 영종개발과장은 "용유도와 무의도 국제관광단지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된다"며 "이 가운데 39만평이



인천도시개발공사 주도로 개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재기자 mm07@donga.com

세계일보

2004년 7월 2일 금요일

“서울 관문 탈피 동북아 허브로”

*사회의 과잉으로서 인간의 애
함은 끝났습니다. 어떤 동화대사의
의 결론도 이런 다시 대어줍니다.*

한승주 전한성시장은 만났다가 올
봄 2007년 1월 재직임종으로 만년
별에서 “전한성 시대의 의과대사로
한 개를 더 없애고”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 시장은 “전한에 커져
나갔고, 분열한다”며 “전한을 전한
공로와 경제자유구역로 앞장 댈뿐
아니고 심야 동맥이 커진로 앞장들
사라지고”라 밝혔다. 그는 취임
후 9.19.12.12(가정)는 물론 다국적
의료법 기업을 찾아 의사주에게 적
고 나갔고 성과를 올렸다. 다음은
한승주 시정교섭의 발원지

—우선, 1991년 2월 25일, 1991년 2월 25일, 1991년 2월 25일.

는 않는다. 경제가 어렵고 생활수
도 지장을 놓고 여타 국민경제에 심
격한 침체에서 국민적효를 실현
한다면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전경가 힘을 뺀 국
민의권 수를 침해를 거쳐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經濟學部 教授 田中 邦雄

▲자녀에 관한 귀담 돌리는 부모. 선도시와 함께해왔다. 인천국제공항 주변 영종도 등 161만평을 영종도부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받았다. 아예 파파 인턴을 공짜·의견과 함께 국제금융과 금융, 세제, 주거 등을 갖춘 일파아 국제 금융·물류도시 개발을 제안한 그는 본가



이전보다 인건비가 15% 상승했는데도 우리 공단은 인건비에서 세입 고은 물건의 가격을
안정, 저가품, 고가품 모두에서 고 인건비

인천공항·경제자유구역이 성장 모멘텀
생활환경 열악한 구도심 개발에도 주력
시민참여 이뤄내 참다운 지방자치 할것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성장유치와
시민보육육구단 출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지난 2년 제임 기간
중 스스로 평가한다.

▲지난 2년 동안의 놀이해보면 시간이 가장 부족했던 것 같다. 놀이만 진행하면서 지극 말년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매우 높았지만 역설의 다양한 의견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시간을 아끼려 하려고 하게 되었고, 이런 아쉬움이 있었다.

마침 가운데 지난 26일은 원형의 세차유구와 출토된 천연 곡해공과 함께 송도문화유산조사 결과로써 출토된 한 '천연곡해공'을 구입하는 등 천연의 원형을 기를 대안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과 그에 따른 국민투표 실시에 대한 입장

▲안전통제자유구역 개발 등 지역 발전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철저한 검토를 거쳐 시행함으로써, 지역 시민을 추구하는 데 있어 열의와

이러한 정책가 결의능력에 있어 중요한
변인이다. 또 의결사항과 관련 부류
의 결정수준도 의사결정 과정에 중요

● **반응다.**
 ○ **반응**은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도 경제자유구역 167만평에 127개
달러를 들여 60층 규모의 코퍼비트
나스다워를 2008년까지 건설하는
계획이다. 사업도 10월에 냈다. 올
해도 4000평 부지당에 대해 40나사
분배(100%)에 대해 40. 4000(1000)
개입(100%)을 10월 10일 10월 10일
하는 한편 10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구도심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

▲인간·물·환경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지역은 도시가면 시정·세
정·환경이 산책로로 연결된 지역
으로, 속도·쾌락·심도시간의 격차

물레소라고 지역간 군정 발언을 위해 개발과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시에서는 정부부처들을 위함으로 한 '수도권 군정발전 태스크 포스(Task Force Team)'을 구성, 총괄적인 개발 방안으로 연구 중이다.

한글: 2005. 12. 26. 10:00
한글: 2005. 12. 26. 10:00

사업을 포함하는 구도심 재생사업
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군·구별로
차별특성에 맞는 최우선사업을
발굴, 선정해 추진할 것이다.

또 문화·복지·체육시설·방과후
원·주차장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에 도움이 되는 각종 사업과 공간
을 조성할 것이다. 시정의 확립 및

는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 제도를 거쳐
개발을 지원하는 등 재정확충에도 나
서고 있어 포만감-결핍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对违约和延迟, 进行详细调查

▲우편 자판차의 반대 측인 자판차간행회도 자판차회원의 역할 관측 대상이 되고 있다. 자판차회는 영자군 상호협회를 통해 우체국 설립을 시도, 기존 자판차를 전국 곳곳에 배치하고 있다. 자판차회는 중앙정부에 제출하고 독자적 자판차회 운영을 해 왔다. 그러나 2004년 1월 1일부터는 우체국과 우편물 배송, 자판

이처럼 지방정부에서 중앙의
정책과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필요하다.

재지하므로 주민참여를 할수있을 프로그램 마련에 시급하다. 지방자치의 주안은 바로 시민으로, 시민들과 함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참다운 지방자치는 있을수 없다.

—남은 월가가 200원에 떨어졌을 때
어떤 일에 주의를 기울인가.

▲ 應酬品 贈送 不可也 可當時也
贈送品 李正路 鄭三誠 趙三誠 等

2008年12月1日，中国铝业公司正式挂牌成立，成为我国第一家资产总额超过1000亿美元的特大型中央企业。

한 반박위원은 우리 헌법이 역사적 계급 투쟁으로 되어있고 있으며, 이는 헌법 31조 2항 동안 많은 사건과 의회과정에서 보여준 단일원 최고 권위적인 관행이 증명된다.

앞으로 인천 3기 후반기는 혁신의 추진과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함께 인천경제 도시 개발의 추진, 4·9구로 삼고 싶은 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이라며 '동학마을·중심도시, 인천'을 강조했다.

地址: 中国北京
电话: 010-62569595
网址: www.gre.com.cn



東亞日報

2004년 8월 6일 금요일

영종지구에 英외국인학교 들어선다

초중고교 2000명 규모... 2008년경 개교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 영국계 외국인 학교가 2008년경 문을 연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6일 영국 교육전문그룹인 '노드 앵글리아 에듀케이션'과 외국인 학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노드 앵글리아는 7월 230억원을 들여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교를 건립해 2000여 명(내국인 포함)을 교육하겠다는 투자意向서를 인천경제청에 제출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지구에는 미국

계일사가 개발을 맡는 국제업무지역(167만평)에 미국계 외국인학교 설립이 추진 중이어서 노드 앵글리아가 설립하려는 외국인학교를 영종지구에 유치하기로 했다.

노드 앵글리아는 1972년 설립된 교육 전문회사로 영국 내에 11개 사립학교와 101개 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중국 상하이(上海), 러시아 모스크바, 베트남 호치민, 독일 베를린, 헝가리 부다페스트 등 전 세계 10개국에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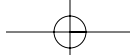
노드 앵글리아 학교 졸업생 가운

데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의 진학률은 4.5%에 이르며 미국의 아이비리그에도 평균 6.5%가 진학하고 있다.

영종지구에서는 4월 제 2연륙교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영국 아벡사가 용유도 완산 주변의 국제업무단지(IBC)-II 지역 80만평에 20억달러를 투자해 국제비즈니스센터, 국제학교, 워터파크 등을 만들겠다는 MOU를 체결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학교가 설립되면 외국인 투자유치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또 한국 교육시스템 개선에도 적잖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donga.com



중부일보

2004년 8월 13일 금요일

자유구 新교통시스템 도입

송도등 3개지구 도보·자전거 중심 친환경체계 구축

인천 송도, 청리, 영종 등 경제자유구역내에 국제적인 특성을 갖춘 친환경적인 신교통시스템 도입이 추진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신도시, 청리, 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의 국제적인 특성을 고려해 친환경적인 무공해, 최첨단 신교통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교통체계는 송도, 청리, 영종 등 3개 지구별로 구축되며 각 지구내 교통수단은 도보, 자전거 등 녹색교통수단과 불연속선이 연결되도록 만들어진다.

지하철등 수도권 광역망과 연계- 2008년 추진목표

다.

이들 지역의 신교통시스템은 향후 인천지역에 도입될 신교통수단(LRT)과 연계 개발되며 송도신도시는 인천지하철과 청라지구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 및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과도 연계된다.

경제자유구역내 신교통시스템으로는 LRT(Light Rapid Transit)와 PRT(Personal Rapid

Transit)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LRT는 노선이 구역내 또는 구역간으로 시속 60~80km로 여객 수요에 따라 차량을 10개정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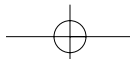
PRT는 시속 45~60km의 택시와 같이 승객인원 4~6명으로 상주연구가 밀집된 국제 업무지역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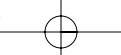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달중 국토연구원에 신교통시스템 도입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을 의뢰, 최종결과가 나오는대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며 오는 2008년 신교통시스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의 환경 및 지형은 물론 국제적인 특성을 고려, 가장 적합한 친환경적인 신교통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이달중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재갑기자 hjo@jjangnet.com





매일경제

2004년 11월 12일 금요일

‘동북아 허브’ 송도신도시 첫삽

국제업무단지내 1만2600평 컨벤션센터 착공

인천 송도신도시 개발에 막이 올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미국 기업사는 11일 오전 인천 송도신도시 국제업무지구에서 인천제 경제부총리, 이완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스티븐 제임스 미 기업사 회장,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컨벤션센터” 기공식을 열었다.

국제컨벤션센터는 계획사가 앞으로 1500여평을 투자해 2007년 12월까지 연면적 1만2600평 규모(지상 1층, 지상 2층)로 국제회의와 전시회 등을 개최하는 첨단 공간으로 컨벤션과 송도지구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완구 부총리는 “정부는 송도신도시의 성공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송도지구내 국내외 기업들이 모여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컨벤션센터는 송도 국제업무지구의 상징적 핵심시설로 향후 컨벤션, 첨단 국제업무단지의 성공적 개발의 신호탄이자 이를 계기로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이 본격화됨을 의미한다.

송도신도시는 행정·형리지구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 3대 핵심 개발지구로 꼽힌다.

이곳은 총 1차 1만평에 국제컨벤션센터를 포함한 대규모 전시장 등이 2014년까지 들어서 첨단 국제업무



이완구 경제부총리(오른쪽 여섯째), 이완구 인천시장을 비롯해 인사들이 11일 인천 송도신도시 컨벤션센터에 마련된 ‘송도국제컨벤션센터 기공식’에서 발파 버튼을 누르고 있다. [인화]

무단지로 조성되는 것을 비롯해 2020년까지 지식정보산업단지, 테크노파크, 첨단바이오단지 등으로 개발된다. 이에 따라 국제비즈니스, IT·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위한 정책과 경제 허브의 입체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업무단지는 이날 착공한 국제컨벤션센터와 그 주변에 다국적 아태본부건물, 65층 규모 아시아무비엔터빌딩, 호텔, 대형쇼핑몰 등 40여 개 빌딩이 들어서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 개발된다.

최근들어 조성되는 지식정보산업단지는 국내외 IT기업에게 총 다지 빌딩타이먼트, 관련 제도·유형업

제들을 유치해 IT허브지구로 개발된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휴렛팩커드, 선마이크로시스템스, KT 등 국내외 유명 IT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10여달여를 투자해 IDC(디지털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건설 작업을 진행 중이다.

송도지구에는 또 13만여 평 규모의 ‘송도테크노파크’ 벤처빌딩이 이미 들어섰으며 내년 3월에는 미국 벡센사가 1억5000만달러를 투자해 짓고 있는 첨단바이오단지(10만9000평)가 완공됨으로써 첨단산업 클러스터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송도에는 이 밖에 미 부동산개발회사인 프루덴셜머니, 미 건축설계업체인 KPF, 미 부동산투자사 카운 & 페르너스, 미 골드코스트디자인사 제니콜라루스사 등이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안영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장은 “송도신도시의 동북아 허브 성공은 무엇보다 첨단 외국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며 “이들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교육, 의료 등 인프라서비스 서비스를 완벽히 갖춰 실패한 국제도시로서 기쁨이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화/경기홍기자

경인일보

2004년 12월 13일 월요일

주경간폭 800m 극적합의

4년여간 대립 종지부... 경제특구 건설 '탄력'

정부 "향후 확장변수 있다" 설득나서
범대위, 사업 시급성 감안해 한발양보

중앙정부와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며칠을 빙빙 돌린 인천 제2연륙교 확충 주경간폭의 800m로 극적인 타협을 이뤘다.

지난 1999년부터 주경간폭을 둘러싸고 정부와 인천지역 항만업체가 대립을 빚어 왔으나 이번 극적 타결로 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의 최대 걸림돌이 제거됐다.

인천시는 12일 오후 5시 중구 라다이스 호텔에서 안상수 인천시장과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 장승우 해양수산부장관, 열린우리당 인천시당 이효웅 위원장, 지용택 "제2연륙교 범시민대위(범대위)" 공동대표 등 10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 2연륙교 확충 주경간폭"에 대한 합의를 맺었다.

이번 범대위측은 "인천 제2연륙교 건설의 시급성을 감안, 정부측에서 제시한 주경간폭 800m를 수용

하겠다"며 "다만, 정부측은 인천항의 항만규칙과 인천항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회의 초기부터 범대위측은 인천항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위해 제2연륙교 확충 주경간폭이 800m는 되어도 된다며 정부측이 제시한 주경간폭 800m에 대해 반발했다.

이날 장 해양부장관은 "JMS(일본 해양개발)와 함께 검토, 제2연륙교의 주경간폭이 800m이상이면 인천항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따라서 제 2연륙교의 주경간폭은 800m가 적절하다"며 중립성을 강조했다.

또 강 건설부장관은 "사기 JMS의 용역결과를 참고해 800m이상으로 주경간폭을 제출하면 강아를 확장하는 변수가 있을 것"이라며 "총무 제2연륙교 건설과정에서 최소 800m이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장승우 해양수산부장관(왼쪽 첫번째)이 12일 오후 라다이스호텔에서 안상수 인천시장 및 범대위 대표들과 제2연륙교 주경간폭에 대해 협의를 갖고 있다. /임은석기자-esim@kyeongin.com

상으로 주경간폭을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범대위측을 설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측이 관치와 양보없이 각본을 거듭했다. 범대위측에서 주경간폭 800m까지 수용할 수 있다며 입장을 후회해 극적인 합의를 이루게 됐다. 이처럼 범대위측이 정부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제 2 건설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시간을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정부측의 설득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와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인천 제2연륙교 주경간폭을 놓고 벌인 지난 4년여동안의 대립이 이번 타결로 종지부를 찍게 된다.

특히 인천 제2연륙교가 주경간폭 논란으로 건설이 지연되면서 그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건설 파장을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타결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희동기자-dhlee@kyeongin.com



중앙일보

2004년 12월 30일 목요일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기로

재경위, 개정안 가결

내국인도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이해훈 의원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만약 내국인 진료에 허용되면 부유층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탈퇴 요구가 속출하고 그에 따라 보험수가가 올라가 국내 의료체계의 균형을 허무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반대했으나 소수의견에 그쳤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2008년께 경제특구 내에 세워질 외국병원에서는 환자가 돈을 더 내면 원하는 고급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럴

게 되면 국내 병원의 의료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 환자들이 외국으로 나가 큰 돈을 쓰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병원과 외국병원의 경쟁으로 의료 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의료시장의 이익부진 이번 현상이 가속될 것"이라며 개정안 내용을 반대해온 일부 의료·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개정안은 경제특구에 국내병원이 진출하는 것을 여전히 규제하고 있어 '역차별'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국내 유명 대학병원들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은 경제특구에 국내병원도 진출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수 기자

newslady@joongang.co.kr



釜湖日報

2004년 12월 31일 금요일



30일 안상수 인천시장과 리 라일리 GM대우차 사장이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GM대우차 성능 시험장 및 R&D시설 유치 양해각서 조인식을 갖고 있다. 한동식기자·jdh@kholbo.co.kr

GM대우차 연구소 건립 '시동'

인천시 '청라지구 30년 사용' MOU체결

인천의 전략산업인 자동차 부품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의 핵심기능을 담당하게 될 'GM대우차 성능시험장 및 R&D시설'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인천시는 지역혁신특성화 사업으로 선정된 자동차 산업클러스터 구축의 일환으로 GM대우차 자동차 성능시험장 및 R&D시설을 외국인 직접투자로 유치하기로 하고 3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GM대우차 리 라일리 사장과 안상수 인천시장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양해각서가 체결된 GM대우차 R&D시설은 청라지구 농업

기반 소관 부지 13만7천여평을 인천시가 매입, 30년간 무상으로 GM측에 제공하고 GM측은 672억원을 투자해 성능시험장(178억원)과 R&D시설(494억원)을 건설하고 이 가운데 500여원은 외국 인적투자자에 의해 유치된다.

GM대우차 R&D시설이 들어서게 될 청라지구는 자동차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핵심기능은 물론 전 세계 연구·개발 및 전략기지로 부상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으로 꾸준히 추진해왔던 대우인천자동차의 조기 인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동식기자·ashan@kholbo.co.kr



경향신문

2005년 1월 11일 화요일

“buy 인천 원년... 외자유치 팔 겠겠다”



새해 인터뷰 →

안상수 인천시장

“경제자유구역 중 인천국제 공항-수도권 개발이 최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를 넘어 인천 (IN) F&B(Food & Beverage)의 전략으로 삼겠다.”

안상수 인천시장(2005 경향신문과 2005 일과 이야기)은 인천국제공항을 필두로 중남동서북 개발전략을 통해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비전을 내세웠다. 그는 “인천은 수도권 개발을 위해 수도권과 맞닿은 동쪽을 구축,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하고 싶었다.”

→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신도시와 경부·동해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송도신도시 개발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있다.

“송도신도시는 인천-인천도와 연결된 동해·수도권 개발의 중심지다. 특히 송도신도시, 송도신도시를 개발하는 데 있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인천과 수도권, 서울을 연결하는 효과가 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인천과 수도권, 서울을 연결하는 효과가 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인천과 수도권, 서울을 연결하는 효과가 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있어 팔 겠겠다.”

→ 인천에 구도를 개발 전략을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인천과 수도권, 서울을 연결하는 효과가 있다.

“수도권 개발과 경제자유구역 추진의 두 가지 전략에 집중하겠다. 수도권 개발을 통해 수도권과 맞닿은 동쪽을 구축,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하고 싶었다.”

→ 인천에서도 송도신도시와 맞닿은 동쪽을 구축,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하고 싶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통해 인천과 수도권, 서울을 연결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송도신도시, 송도신도시를 개발하는 데 있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인천과 수도권, 서울을 연결하는 효과가 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인천과 수도권, 서울을 연결하는 효과가 있다.”

“올해 최초로 개발한 경제자유구역 중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인천과 수도권, 서울을 연결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송도신도시, 송도신도시를 개발하는 데 있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인천과 수도권, 서울을 연결하는 효과가 있다.”

→ 인천에서도 송도신도시와 맞닿은 동쪽을 구축,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하고 싶었다.

“수도권 개발과 경제자유구역 추진의 두 가지 전략에 집중하겠다. 수도권 개발을 통해 수도권과 맞닿은 동쪽을 구축,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하고 싶었다.”

→ 인천에서도 송도신도시와 맞닿은 동쪽을 구축,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하고 싶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통해 인천과 수도권, 서울을 연결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송도신도시, 송도신도시를 개발하는 데 있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인천과 수도권, 서울을 연결하는 효과가 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인천과 수도권, 서울을 연결하는 효과가 있다.”



朝鮮日報

2005년 1월 28일 금요일

송도 국제학교 2007년 9월 開校

하버드대 컨설팅기관 HAG, 2개校 추진
유치원~고등학교 과정... 2100명씩 수용

인천 송도신도시(경제학구)에 2007년 9월을 2개교의 내·외국인을 국제학교가 문을 열 전망이다. 세계 최고 수준 교육시설을 갖추고 유치원~고등학교 과정을 담당할 인천송도 국제학교(가칭)는 1개교당 각각 2100여명을 수용할 예정이다. 2개교가 동시에 개교될 경우 모두 42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 한국인 학생 비율은 정원의 40%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아 모두 1700여명 정도의 내국인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본지는 인천 '송도신도시 국제학교' (New Songdo City International School·NSCIS) 설립을 컨설팅해 온 하버드 대학의 '하버드 어드바이저리 그룹' (HAG)의 마크 포드폴슬라 팀장



과 27일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HAG는 송도신도시개발을 맡아 온 게임엔터테인먼트사로부터 교육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받고, 지난 2년 동안 송도신도시 국제학교 설립 계획을 추진해왔다.

■ 인천 송도신도시 국제학교 시설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최고 수준의 스포츠 시설 · 최고의 문·포도관인 도서관 · 화성대학 시설 구축 · 원거리에서도 연결된 통신망
교사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교사 유치 · 높은 급여 · 최적의 주거환경 및 기타 보육시설 등 높은 삶의 질 ·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입학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미국·대만 등 제 1·2차 세계대전 후 이민자 · 미국 국무부가 해외에서 운영하는 미국인학교 · 중국·홍콩·일본·싱가포르·대만·태국 등 국제학교
교육 프로그램 및 학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학년 수학·과학·언어 학습능력 향상 수업 · 학생들을 위한 수업 · 미국 대학 입시반 운영 · 교사인원당 학생 10~12명 · 1년간 해외 연수 프로그램 운영 · 학생들은 미국 대학에서 연수

■ 향후 일정

2005년 1월~2005년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시설 계획 승인 · 국제학교 설립 인가 획득 · 미국 연방 교육청인 교육부로부터 교사들에 대한 세제 면제 혜택 부여 · 일본·미국·대만 등 제 1·2차 세계대전 후 이민자 학교
2005년 9월~2006년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선발 · 교사 연봉·복지·주거혜택 등 결정 · 학교 운영 책임자 채용 · 향후 1년간 학교 운영 전역 수립
2006년 9월~2007년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웹사이트 구축 · 홍보 및 광고물 제작 · 교직원 교육 재차 계획 · 국제학교·사립·영문학교 설립 · 입학 확보
2007년 9월	개교

(자료: 하버드 어드바이저리 그룹 보고·HAG2005)



경기일보

2005년 2월 19일 토요일

도시철도 1호선 연장건설 기공식

인천도시철도본부는 18일 연수구 동춘동 송도신도시 내 3합거장 부지에서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과 안상수 인천시장, 박승숙 인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민, 공사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신도시 연장건설 사업 기공식'을 열었다.

어날 착공한 도시철도 1호선 송도신도시 연장사업은 연수구 동춘동 동막역~매립1공구까지 총연장 6.5km에 4개 정거장이 건설되며, 총 사업비 7천45억원(국비 4천 227억·시비 2천818억원)을 들여 오는 2008년 10월 시민의 날에 맞춰 개통될 예정이다.

한편 송도 경제자유구역 대중교통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구간은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침수기자



인천도시철도본부는 18일 동춘동 송도신도시내 3합거장 부지에서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과 안상수 인천시장, 박승숙 인천시의회 의장, 주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신도시 연장건설 사업 기공식'을 열었다.



경향신문 | 2005년 2월 23일 수요일

“경제 돌파구 제역할 하려면
제도개선·과감한 투자 필요”

이환균 경제자유구역 청장

“경제자유구역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해 시작한 만큼 중앙정부도 국고지원 비율을 늘리는 등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환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2일 인천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제도개선과 국가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청장과와의 일문일답.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이후 본지와 유치 실효가 없는 데,
“지난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출범 전이기 때문에 조직 정비와 국내외 홍보에 치중했다. 특히 외국투자가들도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입찰자서면 체결현황을 본다. 올해는 입찰자서면 본 계약으로 연결하고 보다 많은 신규 투자를 끌어오기 위한 공적 경영에 나서겠다.”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NSC)와의 계약이 흔들리다는 지적이 많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불리하거나 체감소액이 분명치 않은 일부 조항 때문에 매달 회의를 갖고 계약을 보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8백억원 상당의 개발 이익을 확보했다.”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가.
“경제자유구역사업은 국가적인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인 만큼 우선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율, 한도 50%에서 8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또 외국 투자자



가 편리하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콜리싱 직속으로 '순수 투자 상담 창구' 역할에 국한된 경제청을 만들어 본산인 투자유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만큼 국내 기업 유치도 중요한 과제 아닌 가.
“부담스러우나 경쟁력을 갖아가 국내 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진출을 호소했으나 세제혜택도 없는 데다가 수도권정비법 등의 제약 때문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외국처럼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국내외 기업 모두가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법 제정이 시급하다.”

—올해 구상하고 있는 주요 사업 일창은.
“다들 말하길 컨벤션센터가 착공되고 4월부터 아파트단지 입주기 시작된다. 5월에는 제1연회고 공사가 착공되며 올 연말에는 송도경제자유구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65층짜리 국제업무빌딩도 공사를 시작한다.”

이환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News@Incheon.gov.kr

한국경제

2005년 3월 15일 화요일

167만평 국제업무도시 진행 '착착'

송도신도시 내 국제업무都市는 경제특구인 송도신도시를 품속아 경제권의 국제비즈니스 허브로 조성하는 핵심 프로젝트다.

미국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이 합작한 NSC(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가 1백67만평의 규모로 조성하는 국제업무都市는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약 25km에 위치해 있고 인천국제공항공과 제2연륙교로 직접 연결돼 중국, 일본 등 주변의 경제거점都市와 일일생활권을 가능케 하는 최적의 지리적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다.

NSC는 송도신도시의 마스터플

랜 수립 후 이미 2억달러의 파이낸싱을 확보하고 국제컨벤션센터, 작품 등 사업을 본격화 하고 있다. NSC는 지난 7일 컨벤션센터를 착공했으며 미국 게일사 파트너인 포스코건설도 선진화된 초고층(64층) 주상복합건물을 오는 4월 분양할 예정이다. 국제업무지구에는 컨벤션센터와 초고급 호텔, 백화점 및 쇼핑몰, 오피스 고층빌딩, 골프장, 고급주택단지 등 주거단지와 오피스 하우스 등 문화센터도 세워진다.

국제업무都市 건설 프로젝트에는 최근 미국의 다국적 금융전문서

비스회사인 모건스탠리가 1천5백만달러를 투자, 사업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부동산 개발과 쇼핑몰 운영회사인 타워브랜스도 컨벤션센터 단지 상업시설에 투자키로 했다. 송도 국제업무지구 내에는 이와 함께 하버드 어드바이저리 그룹이 미국 동부의 명문 사립학교를 벤치마킹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국제학교와 필라델피아 의대 자문단이 컨설팅을 제공하는 국제병원 유치도 추진되고 있다.

국제업무지구에는 또 골프장 개발을 위해 미국 플로리다주 람비치에 있는 세계적 골프코스 디자인 회사인 잭 니콜라우스사와 부동산 투자 및 운영회사인 키슨 앤 파트너사가 참여한다.

모건스탠리 부동산 권드의 투자로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자산을 갖게 된 NSC는 2014년까지 송도 국제업무지구에 1백27억달러(약 13조원)의 해외 자본 유치를 적극 추진중이다.

인천=김민경 기자 ykim@hankyung.net



미국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의 합작사인 송도신도시개발유한공사가 조성할 167만평 규모의 국제업무都市 조감도.

서울경제

2005년 3월 29일 화요일

‘황해경제권 시대’
중심도시로

인천

인천 세계경제의 중심이 될까봐 걱정도 많고, 한편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공인 국제 교역 지역으로 베이징경제권, 유럽경제권, 북미경제권과 경쟁하고 있다. 이를 해치 경제권이나 유럽 경제권에 이 실력 확보를 해서 이따가는 인천 베이징이나 유럽 경제권에 속하게끔 해야 되고 있다.

북아시아지역 세계경제 주도 전망속
송도경제구역 지식산업 중심 떠올라

정부에서 한 연구기관에서 발간한 2004년 9월호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2003년 한국의 GDP는 7.9%의 GDP 성장을 이루는 한편, 원화/달러 환율의 상승은 그 같은 경제의 발전에 따른 결과라고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권을 주도하는 지역별 격차, 공적의 부실한 투자와 인력의 세출 불균형, 일본의 동경 등이 최근 한국에 치명적

2004년 국방비 지출(천만달러)
핵심지 분기 보고서 (OS/January)

Query 2004는 영어사어 연구 중 64%가 동북아시아에 집중해 있으며, 지역 GDP 중 42%가 동아시아 지역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들 도시 대부분은 황해에 인접해 있고 황해를 중심으로 다 오강을 이룬다. 즉 황해에 도시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역임을 대외하고 있고 또 북아시아가 세계 경제를 이끄는 2020년이 되면 국제경제의 축이 된다는 것이다.

자라게 해준다는 생각으로 출생과 성

카로리는 북대서양권과 다른 경제권(Northeast Pacific Region)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 한국 등과의 동맹이라는 지리적으로 상당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 조선의 경제협력은 물론, 입국여부가 주목되는 동남아시아 경제권과 경쟁하는 것이 더 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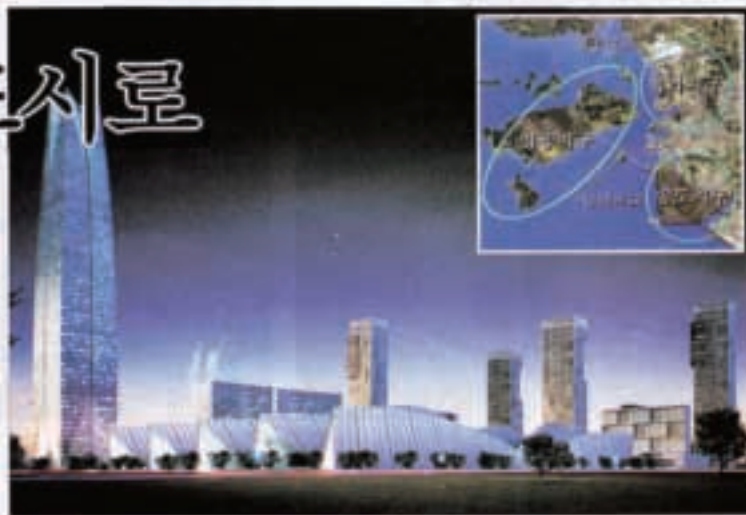
충도분해자유구역을 부여하는 또 하나의 목소리가 바로 인접해 있는 중국과 비교했을 때의 경제 가능성에

다. 그러나 황해경제권을 이루고 있는 중국의 도시들은 중도나 다른 역점을 달지 않는다. 이들은 역점도시와 협동도시로 간격을 주면서 서로 도와주고 칸은 협과 역점 도시를 주력으로 한다. 이에 반해 수도권은 국제화도시나 일부는 경제특구라고 그 역할을 하는 데 반해 거점을 하는 자라만 해안 도시와 협과 중도 역점을 달지 않는다. 즉 수도권은 황해경제권과 달리 다른 도시들과 다른 역할을 달지 않는다.

이와 함께 소위 국제업무자규는 전

해변과 4km 이내에서 녹지로 조성되는 지역으로 유전하는 토지를 변형하지 않는 조항을 담은 도시계획법안 통과에 힘쓰고 있는 김정은 의원은 개발에 의한 공해와 환경오염을 막고, 자연경관·문화·관광 등을 생양어려도 공익에 도시를 조성해 버리고 할 수 있을 만큼 우수하기 때문에 조도는 공익에의 관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선을 가진 도시로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010-312-0100 www.kwangju.ac.kr





인천일보

2005년 4월 11일 월요일

바이오메디컬 허브 단지 영종지구에 들어선다

전문의료센터 건립 2012년 완공 예정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 차세대 성장동력 구실을 할 '인천 바이오메디컬 허브(IBMH·Incheon Biomedical Hub)' 단지가 들어설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공항, 자연환경, 첨단 인프라, 관광·레저시설, 풍부한 주변 인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갖고 있는 장점과 포스트 IT와 연계한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영종지구에 동아시아를 대표할 '바이오메디컬 허브' 단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인천경제청은 '바이오메디컬 허브' 단지에 동아시아 첨단·전문 종합병원과 유전체, 신약, 재생의학, 뇌과학 등 미래 기술을 선도할 연구센터 및 전문의료, 한방, 전문교육 등 기술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연구센터를 유치,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2008년 '인천 바이오메디컬 허브' 단지 구축 사업에 들어가 2012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 바이오메디컬 허브' 단지 후보지로 영종·용유지구 가운데 토지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570만평 내와 공항신도시 인근,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지역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이를 위해 11일 오후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안상수 인천시장 등 시 간부와 유전체 분야의 권위자인 서정선 서울의대 교수, 뇌과학분야 석학인 김병원 조장희 박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바이오메디컬 허브 구축안'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2012년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 '인천 바이오메디컬 허브' 단지 구축을 위해 이달 중 자문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한 뒤 다음달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인천통기자〕(블로그)amin



매일경제

2005년 4월 30일 토요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계 물류대학

경제정책조정회의 MBA수준 전문석사과정도 도입

정부는 동북·수빅·판라크 등지에서 물류아로 물거리는 패덱스(FedEx), DHL, UPS, TNT 등 세계 3대 물류회사의 아시아거점을 유치하기 위해 인천공항과 부산신항, 광안항의 배후도로와 물류기반시설을 조기에 완공하기로 했다.

이들의 물류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해외 물류대학 분교 설립을 추진하고 기존 대학에 물류전문 석사과정을 늘린다.

정부는 29일 박태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물류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아남아시아 국제문송 거점을 이전하려는 세계적인 선박회사들과 항공사들을 유치하기 위해 '부산 중앙물류단지 개발방안'을 발표했다.

부산신항과 광안항의 배후도로와 배후단지 등을 조기에 완공해 중국, 일본 등과의 동북아 중심항만 경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부산신항은 기라성(C~초장IC) 구간이 배후도로를 2008년까지 2년가량 조기에 완공하고, 낙동강~녹산 구간이 배후도로 완공시기도 2008년으로 1년 앞당기기로 했다.

부산신항 물류물자 3T(트럭, 트레인, 트럭)가 단축이 가능한 3T(트럭, 트레인, 트럭)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08년까지 조기에 완공하기로 했다.

경남도와 배후도로인 천주~광양간 고속도로를 예정보다 1년 앞당겨 2011년까지 전 구간 통차 개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공항의 물류중심 기능 강화를 위해 공항사용료 부담도 낮아진다.

정부는 인천공항 사용료를 일제히 5% 인하할 수 있게 개편할 방침이다. 지난해 25%나 증가했던 공항의 보조사용료 상승률을 한 자리수로 낮출

동북아 물류중심을 위한 관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부산~광안항 경유해상 운송
- 부산~인천간 배후도로 배후물류기지 조성
- 부산~서울 간 고속도로 조기 조성
- 인천공항 국제공항철도 확충과 물류연계물류단지 조성
- 공항물류단지 조성
- 공항물류단지 조성
- 항공사 이용료 인하
- 고속도로
- 부산고속도로 3T(트럭, 트레인, 트럭) 선형 운송
- 천주~광양간 고속도로 조기 개통
- 물류 전문인력 육성
- 동북아 물류 대학 설립
- 인천공항 사용료 인하
- 인천공항 사용료 인하

해 유도하고 공항사용료도 주변공항보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또 경제자유구역에 해외 물류대학 이사회분교를 유치하기 위해 미국과 네덜란드 등과 유치협상을 벌이고 있다. 또한 대학의 고급 물류교육 강화를 위해 기존 대학 중에서 1~2곳을 선정해 내년 1학기부터 컴퓨터 자원배출 예정이다.

이들 대학에는 경영학대학원(MBA) 수준의 전문석사과정으로 기업물류 분석에 필요한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과정이 만들어진다.

해상물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물상반기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2개 대학에 올해부터 5년 동안 모두 38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논현이 되어온 로남고속철도의 분기별 선전물 당면거를 원활할 예정이다. 로남고속철도 건설 시기와 연식, 노선 등에 관한 기본 계획은 연말까지 마련한다.

송정훈기자

문화일보

2005년 5월 9일 월요일

교포·현지기업 “원더풀” 연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 동북아의 유망 투자지 가운데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다. 인천시의 다각적인 투자 유치 노력, 국제컨벤션센터를 포함한 주요 시설 착공, 인천국제공항-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송도국제도시) 연결 제2연륙교 건설계획 확정 등에 힘입어 외국 투자자들이 최근들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투자에 비대한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다.

인천시 송도특구 투자유치단 방문 코스



특히 연상수 인천시장이 지난날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모두 14명으로 구성된 투자유치단 일행 14명을 이끌고 캐나다 토론토, 미국 필라델피아,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가진 일련의 투자설명회는 색다른 내용과 형식으로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투자설명회가 종전과 크게 다른 점은 ▲대상국을 재미교포로 크게 확대했다는 점 ▲송도지구 내 국제업무단지 167만평 개발사업자인 미국 제일사, 필라델피아 시청, 재미 교연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 등과 공동으로 투자 유치 마케팅을 벌이고 ▲투자설명회를 주후 개별상담으로 연계시켜 효율성을 높였다는 점 등이다.

실제로 인천장을 단장으로 한 투자유치단은 현지시간으로 지난날 29일 필라델피아 시청에서 필라델피아 시청과 공동으로, 29일 뉴욕에서는 코리아소사이어티와 공동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일부 교민 사업자와 공동으로 각각 지역 교민 등을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이들 투자설명회 참석자는 각각 60~200명으로 당초 예상한 크게 웃돌았으며 참석자들 상당수가 투자설명회를 전후에 인천장과 개별상담을 가졌다.

투자유치단은 또 지난날 30일에는 제일사와 함께 후지제록스, 이보추 엔터테인먼트, NBC,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등 세계적인 대기업들에 대한 필라델피아 개발투자 유치상담을 벌여 호의적인 반응을 얻어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장은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 공휴일도 가리지 않고 하루 12시간 이상을 14명의 투자유치 관련 공식·비공식 모임, 개별상담 등에 참석했고 준비하는 데만 놓여주었다. 인천장은 설명회와 상담일정이 너무 바빠 식사를 거르기도 했다.

샌프란시스코 교민 김동욱(로디오서울 대표)

60~200명 설명회 이어 개별상담 '맨투맨 마케팅'
교민 "공항주변 3000명주거촌 만들자" 제의도



연상수(왼쪽) 인천시장이 지난날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투자설명회가 끝난 후 교민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 사무실에서 투자자들과 개별상담을 벌이고 있다. 뉴욕=이성원기자 ysw@

세는 "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이 투자유치자 샌프란시스코 교민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최고경영자(CEO) 출신 시장이 직접 투자유치 세일즈 전면에 나선 탓인지 교민사회에서 인천지역 투자 열기가 갈수록 크게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노력 등에 힘입어 투자유치단은 방문 기간에 ▲미국 유수 엔지니어링회사인 HNTB로부터 투자유치권 획득 ▲세계적인 물류회사인 AMD 프로퍼티의 2억달러 투자 의사 확인 ▲스탠드 대학측의 최고위 경영자 프로그램 국내 도입을 위한 공동추진 의사결정 등의 성과를 거뒀다.

투자유치단은 또 샌프란시스코 교민들로부터 인천공항 인근에 3000여명의 재미교포가 주거할 수 있는 교민 주거촌인 코오타운(Korean-American Town) 건설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자는 제의를 받기도 했다.

인천장은 "투자설명회와 개별상담의 목표는 투자 잠재력이 큰 교민들과 세계적 대기업들을 끌어들이는 데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포 관련 조직, 기업사 등과 공동으로 만나려도 많은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이성원기자 ysw@munhwa.com



중부일보

2005년 5월 19일 목요일

전담기구 설치 강력추진 필요

특별국채 발행 등 자원조달 위한 정부차원 지원 절실

■ 경제자유구역사업이 한 걸음 앞기 위해서는 국가적 사업으로서의 위상 제고와 자금조달을 통해 새로운 한국경제 발전모델을 창출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합평대 차원에서 전담 비서관을 지정해 추진 과제를 행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대협에 도우 14조7천 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사업비가 소요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에는 인천시가 45.7%를 부담하고 국고 21.4%, 토지공사 26.2%, 민자 6.7%가 출당해의 하자로 지방채 발행 등 자원조달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이대협 국무총리와 차남에 12월 27일 인천경제자유구역 건설위원회를 열고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보고 받고 있다.

이 투입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 마무리까지 기간이 소요되고 사유지 매입 등 자금 조달에 크고 작은 민원 등 장애요인을 안고 있다.

나아가 국내기업에도 주택상회 등을 자격을 부여하고 경제자유구역 내에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를 허용함으로써 비록 현재 외국기업의 입주율 규정에 따른다는 것도 경제자유구역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이다.

또 외국인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시적 지원보다 거시적 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경제자유구역법 연방도 국정은 "외국기업은 국제화와 산업평화를 최우선시하며, 조세감면과 대해서는 크게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고 말한다.

한편 투자자들은 기업경영환경보다 외국인 경영환경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높다는

실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외국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외국인 출입국 절차의 간소화, 의사소통의 원활화 등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국토교통부발전이란 할에 있어 개발 집중을 논하기 앞서 경제자유구역의 특성을 인정해야만 사업 성공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도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부조전 내 자택에 이익이 되는 것을 따지기보다 국가적인 대외경쟁에서 경제자유구역을 바라보는 할 때만 할이다.

수도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포스트건설의 관계자는 "수도권이 아닌 경제자유구역 그 자체로 세계적인 외국도시와의 경쟁우위를 확보해야만 외자유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혜선기자

도로 및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비와 매립 등 부지조성에만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자원조달은 인천경제자유구역 3개지구 중 전라지구만 한국토지공사와 일부 국비로 사업비가 확보되고 송도지구와 영종지구는 인천시가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송도지구의 경우 매립토지 매각차금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영종지구는 민간투자 또는 민간개발과 정부투자기관(토지공사 등)을 통한 사업자본이다 보니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고지원 및 시 자체재원



朝鮮日報

2005년 5월 19일 목요일

송도에 65층 국내最高 빌딩

韓美합작법인 내년1월 착공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연준 국내 건물 중 최고층인 65층짜리 건물<사진>이 들어선다.

송도경제자유구역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자인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NSC)는 18일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안 8만4000여평 터에 내년 1월부터 2009년 말까지 9억500만달러를 들여 초대형 오피스빌딩 4개 동을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NSC는 미국의 부동산 투자회사 '게일'과 한국의 포스코 건설이 2002년에 맺은 합작 법인이다.

이 중 65층(지상 300여m) 높이로 지을 '아시아 트레이드타워'는 3만 5000평 터에 4억5000만달러를 들여 짓는 국내 최고층 건물로 송도국제도시의 마스터플랜을 세운 미국의 건축 설계회사 KPF(Kohn Pederson Fox)가 설계를 맡았다. 이곳에는 사무 공간 22개층, 5성급 호텔 공간 14개층과 함께 호텔식 아파트가 들어 서게 된다. 또 맨 위층에는 안전 알바 다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가 들어서고, 1~2층에는 4만2000평 넓이에 극장과 오락시설 등을 함께 갖춘 대형 쇼핑몰이 자리잡는다.

나머지 3개의 오피스빌딩은 '아시아 트레이드타워'보다는 낮게 지을 예정이다. 이들 오피스빌딩 주변에



는 지난해 11월 착공해 2007년 말 완공 예정인 국제 컨벤션센터 외에 두 곳의 국제학교, 골프장, 병원 등이 들어선다.

인천·최재홍기자 inchoi@chosun.com



중앙일보

2005년 5월 20일 금요일

송도에 ICT개발센터 설립 유엔 산하 기관 첫 유치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유엔 산하 기관을 국내에 유치했다.

19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는 1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연례총회에서 산하 기관인 '정보통신기술(ICT) 개발센터'를 한국에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구는 한국의 제안에 따라 설립되는 것이며, 설립 경비와 운영비는 우리 정부가 부담한다.

'ICT 개발센터'는 앞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62개 ESCAP 회원국가 및 준회원국가를 위해 무료로 정보통신기술 교육과 정보화 격차 해소에 필요한 인력양성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센터는 정보통신부와 인천광역시가 5년간 1000만 달러(약 100억원)를 들여 인천 송도 경제자유지역에 설립한다.

우리나라가 유엔 기구를 유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제사회에서 정보기술(IT) 강국의 면모를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됐다. 우리나라는 1996년 국제백신연구소(IVI)를 유치했으나 이는 정부간 국제기구로서 유엔기구는 아니다.

이희성 기자

buddy@joongang.co.kr

인천일보

2005년 6월 7일 화요일

경제자유구역 연계 도로망 구축사업 2009년 대부분 마무리

경제청, 인천대교 개통시기 맞춰 완공
제3경인고속도로·송도해안도로 함께 추진

제3경인고속도로, 송도 해안도로 확장 등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도로 인프라 구축사업이 2009년 인천대교 개통시기에 맞춰 완공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인천대교 연계 도로망 구축사업을 2009년에 대부분 마무리하는 교통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달 중순 가공식을 할 송도국제도시~인천국제공항(12.34km)을 연결하는 인천대교(6차

선 도로) 본 교량공사는 KODA개발(인천시와 영국 아벡(AMEC)사 국내 합작법인)이 1조300억원을 투자, 2009년 완공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교통대책을 마련하면서 우선 인천대교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0.14km에 이르는 연결도로 시공업체를 이달 중 선정하기로 했다.

연결도로 가운데 7천여원의 국고를 투입할 동측 구간 0.74km(2~6차선)를 제외한 2.4km

(6차선)의 사측 연결도로 사업비(1천 534억원)와 요원소 부지 매입비(400억원) 부담 주체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또 환경단체와 시흥시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제3경인고속도로

(14.3km)를 2009년에 완공한다는 목표로 남동공단~월곶을 연결하는 인천시 구간을 조기에 착공해기도 했다.

아울러 함께 공사 착공 지연으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송도 해안도로(5.67km) 확장(12차로)공사도 2009년에 완공하기 위해 시 총합건설본부와 조기 착공 방안을 마련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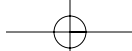
인천경제청은 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2.00km)는 2007년에, 지난해 착공한 송도유원지 연결도로(400m)는 올해 안에, 송도국제도시~청라지구를 연결하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30km)는 2010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2009년은 인천경제자유구역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로 인천의 자랑거리인 인천대교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연계도로의 개통도 이루어져야 한다"며 "송도 해안도로 확장 등 연계도로 건설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현안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열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총기자 jing.kim@ncc.or.kr

경제구역 도로 인프라 구축도





내일신문

2005년 6월 16일 목요일

송도에 유비쿼터스 도시 세운다

NSC-LG CNS, '송도 U-라이프 유한회사' 설립 MOU 체결

아파트 등 건물이라는 물리적 틀 안에서, 편의성, 편안함의 등 다양한 IT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U-라이프 유비쿼터스 도시'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구축될 전망이다.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대표 최학민)와 NSC는 15일 LG CNS와도 협정합의에 의한 송도 국제업무지구 U-City 구축사업을 담당할 '송도 U-라이프 유한회사'를 통해 이번기회로 설립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회사는 '알프스 NSC'와 'H'인명, 공공의 송도 국제업무지구 301호선까지 약 1호선을 부설해 주지, 학교, 병원, 공공기관 등 도시민에게 편의 유비쿼터스 인프라를 구축해 입주자와 입주인들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생활편의 및 문화생활을 위한 중앙도서관과 각종 IT서비스를 하기

적으로 생활에 편의성, IT서비스, 보안, 편의성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도시 생활편의 서비스사업'을 벌이게 된다.

이러한 내용의 '송도 U-라이프 유한회사'를 통해 오는 2006년까지 300~400명 규모의 인원이 활동할 것으로 LG CNS측은 추정했다.

또 도시생활초기단계부터 첨단 유비쿼터스 인프라가 구축되기 때문에, 중대 시공착차를 방지할 수 있고, 규모의 경제 효과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에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프로젝트에는 IT서비스, 건축, 보안 등 시스템개발 분야에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예정이며, 다국적 기업 유치와 국제유치도 기대된다.

LG CNS-고려원 계열은 'U-라이프'는 자원유치발전과 수익성

을 지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어 기술력이 아닌 실행 가능한 U-라이프 컨셉의 선도로 발간 될 것"이라고 "정부 국내-외 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행 계획을 송도국제도시로 확장했다.

조금 NSC와 협력 부사장은 "송도 U-라이프는 기존 도시에 진행되는 'U-라이프'와 달리 개발이라는 'U'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매우부터 이상적인 인프라 및 도시개발이 가능하다"고 "이를 통해 일차로 송도와 IT강국으로 변모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락처: 02-2600-1111



LG CNS와도 협정합의에 의한 송도 국제업무지구 U-City 구축사업을 담당할 '송도 U-라이프 유한회사'를 통해 이번기회로 설립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U-라이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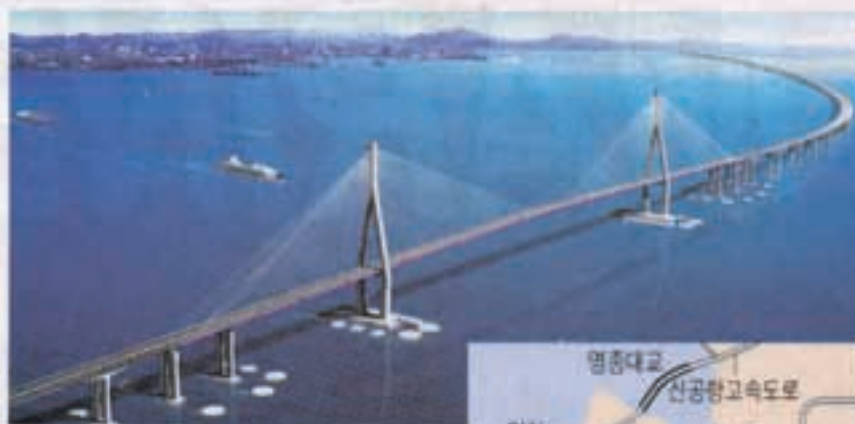
도시의 생활공간에 편의 서비스 인프라를 기반으로 생활 편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첨단 환경을 말한다.

학교, 병원 등 공공기관은 물론 아파트, U-라이프 서비스 제공자(유니버시티)를 통해 편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첨단 환경을 말한다.

朝鮮日報

2005년 6월 17일 금요일

인천공항~송도 연결 인천대교 착공



국내최장 12.3km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영종도 인천 국제공항을 잇는 '인천대교(Incheon Bridge)' 건설공사가 16일 기공식과 함께 시작됐다.

인천대교는 2009년 10월 완공 예정이며 길이 12.3km 왕복 6차선의 사장교(斜張橋·주탑에서 비스듬히 내려 드리운 케이블로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다리)다. 완공되면 서해대교(7.3km)를 제치고 국내에서 가장 긴 다리가 된다. 교각(橋脚) 사이 최대 거리는 800m이고, 주탑의 높이는 230.5m로 서울 63빌딩 높이(249m)에 조금 못 미친다.

전체 사업비는 1조2467억원이며,



시행사는 인천시(7%)와 영국 아메사(AMEC·23%) 등이 출자한 코다(KODA) 개발. 코다는 총 공사비의 71%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외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다는 인천대교 완공 후 운영권을 넘겨받아 30년간 유료로 관리할 방침이며, 통행료는 5000원(승용차 기준)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인천=최재홍기자 (홍보)ychol.chosun.com



한국경제

2005년 6월 24일 금요일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을 위한 1조5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계약 체결식이 23일 송도 마케팅센터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김동원 국민은행장, 한수영 포스코건설 사장, 황영기 우리은행장, 이환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스펀 게일 게일사 회장, 윤경희 ABN암로 대표.

'송도' 1조5천억 파이낸싱계약 체결

ABN암로·국민·우리은행등 - 민간 최대규모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내 국제업무단지 사업개발자인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NSC)는 23일 네덜란드의 ABN암로은행 및 국민·우리은행 등과 1조5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계약을 체결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조성된 1조5000억원은 송도국제업무도시의 중앙공원 컨벤션센터 국제학교 등 공공 인프라 구축에 주로 투입되며, 나머지는 금융비용과 주상복합 건축비 등에 사용된

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순수 민간 개발사업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파이낸싱이 성사됐다"며 "이번 파이낸싱에 국내외 26개 금융사가 총 5조원을 신청할 만큼 관심도 컸다"고 말했다. 게일 회장도 "이 같은 결과는 이 사업에 대한 해외 기업과 금융사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크게 공헌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천·김인곤 기자 ikkim@hankyung.com



인천일보

2005년 7월 26일 화요일



25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외자유치 1호 기업인 (주)셀트리온 준공식에 참석한 안상수 인천시장, 신영은 지의회부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사장 등 지역 인사들이 축하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인천투데이) (불로그kanyou)

셀트리온 신약생산 가동

송도국제도시내 바이오 의약시설 준공식

송도국제도시 내 외자유치 1호 기업인 (주)셀트리온(CELTRION)이 25일 미국 식약청(FDA) 의약품 품질관리 규정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s)에 맞춘 대용량 바이오 의약시설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신약 생산에 나섰다.

아날 오전에 열린 시설 준공식에는 안상수 인천시장, 이환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서정진 (주)셀트리온 사장, 지역 국회의원, 합작사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주)셀트리온은 2002년 2월 미국의 맥스젠사 및 국내 제약, KT

&G, 제이스테판엔컬퍼니벤처스 간 합작회사로 앞으로 첨단 생명공학기술과 동물세포 대량 배양기술을 이용, 관절염 치료제, 항암제 등 각종 치료용 생물 의약품을 연구·개발·생산한다.

송도국제도시 내에 본사를 둔 (주)셀트리온은 2003년 3월부터 2천400억원을 투자(자본금·1천45억원), 연구소와 5만㎡ 규모의 생물 의약품 생산설비를 건설해 이날 준공식을 가졌다.

(주)셀트리온은 지난달 22일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회사인 미국의 브리스톨-마이어스 스쿼브(BMS·Bristol-Myers Squibb)사와 바이

오 신약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 제품 생산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세계적인 종합 생명공학회사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주)셀트리온은 올해 3개 품목의 자체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시작으로 2010년까지 1천 500억원을 투자, 30개의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나설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2단계 사업으로 1만2천500㎡ 배양실비 8기를 증설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준공식에 앞서 (주)셀트리온은 오스트리아 암치료제 개발 전문회사인 이겐네온(Igennion)사와 대장암 치료용 항체인 IG311를 공동 개발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인천투데이) (불로그kanyou)

편집: 조원주기자 (불로그kanyou)258



Newsweek

Business

CHARM CITY?

South Korea's New Songdo leads a wave of digital cities trying to replicate the best of Paris or Venice

**BY ADAM PIERRE**

TO HEAR PLANNER JOHN A. Hyman tell it, the rise of New Songdo City will be as dramatic as the resurfacing of Atlantis. With more than 4.6 million square meters of office space and half a million people, a city larger than downtown Boston will materialize off the western coast of South Korea, near Incheon, where once there was only water. Golf courses and parks will emerge like emeralds in the sea. New communities will magically take root in 30,000 homes. Yet for all the ambition of his plan, even Hyman can't answer one question with certainty: Will people want to live in New Songdo City?

The answer is crucial to South Korea and its American partner, the Gale Company, where Hyman is CEO of the international division. The scale of this \$100 billion megaproject dwarfs previous attempts in Asia to build a "digital city," and is going ahead full speed despite the hard times that have troubled Hong Kong's \$2 billion

Cyberport and Malaysia's \$12 billion Cyberjaya. Its planners say their grand ambition is a vision: New Songdo is at the forefront of a new wave of high-tech megaprojects whose architects are betting that living decisions are based on much more than low rents and broadband access. While Cyberport and Cyberjaya were designed mainly to attract the offices of tech multinationals, New Songdo is meant to be that and have much more. There will be a convention center, a retail park, a golf course, cafes, schools, a health service, a port, an opera house. In short, New Songdo will attempt to be a real city from day one.

Some experts say it's too soon to write off the old-model tech enclaves. They claim the difficulties of the Cyberport and Cyberjaya are natural growing pains, made worse by the recent technology market crash. Economic globalization and outsourcing are likely to fill those empty offices someday. That's good news for New Songdo, too. "I have no doubt [New Songdo] can attract the companies," says MIT urban planner

Dennis Fischman. "The question is, can they attract the workers to live there?"

That's the challenge facing the new digital cities, all self-contained pockets of housing and high-tech commercial space. Though they are going up in a big hurry, all pitch themselves as oases from the sterility of suburbia and the hassle of modern life. MIT's Fischman ticks off a list, from small communities like the "Helsinki Virtual Village," which is no house: 22,000 residents and 700 IT companies by its completion in 2000, to city districts like Central in Copenhagen and tech parks like One North in Singapore and Solihull in South. Helsinki bills its village as a grand experiment in which techclass communities will make it easier to find friends, keep abreast of local music times and events, and build a warm community. Singapore's One North is pushing an ecologically theme, promising lush, filtered air, tree gardens and winding roads "to allow people to thought and contemplation in the midst of technology and commerce."

These projects follow a model city model.

25

NEWSWEEK MARCH 22, 2004

March 29, 2004

Report

2004 IFEZ

THOUSANDS. (Left to right) A rendering of Songdo's commercial district, cultural center, the Gai Company town, Songdo's central park

Whether they can achieve that, no one will know until the project reaches completion, which is scheduled for 2020.

Korean investors got surprisingly recent mentions, except in the brochures on "location." But Koreans aren't the target customers. New Songdo is one of many aspiring "gateways" to China, and will be competing for that trade with rivals from Singapore to Japan. Government officials promise foreign companies easy access to a nearby harbor and newly buil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he area is designated a Free Economic Zone, with corporate and personal tax breaks and none of "the usual red tape" for foreigners. All construction will take place in the official

“ The square footage is just amazing. If you fail, you have very little opportunity to turn back. ”

tion that includes American technology firms like Boston, Virginia— which evolved slowly from its founding in 1994. The big difference now, says Randy Crane, a professor of urban planning at UCLA, is that "some scenarios are being more top-down," pushing much larger projects much faster to keep pace with rapid urbanization.

One of the few developments that comes near to scale to New Songdo is the London Docklands. Begun in 1981, the Docklands offices have filled in recent years with tenants like the Telegraph Newspaper Group and Morgan Stanley. The project is a financial success, yet many residents find the area depressingly empty of the charm that comes easily to older parts of London. Cyberjaya gets similar complaints, and Hynes insists that New Songdo has been shaped by these lessons. "Look, you can't just go out, BB in [1,200 lectures], develop roads and invite corporations to locate their headquarters without quality of life included in that program," says Hynes. "Where are your people going to live? Where are they going to sleep? Where are your children going to go to school?"

His answer lies in what New Songdo bills as both the "most ambitious piece of real estate in the world" and "the world's most technologically advanced city." The building designs are ultramodern, yet the advertising brochures hype both Western colonialist charm and 24-hour street life. They claim the city will have six libraries of culture "that echo Venice," street scenes out of Paris, a waterfront modeled on Chicago, schools inspired by the prep schools of New England and a health services designed by Harvard consultants. Promoters even vow to "eliminate the dull quiet that plagues many downtowns."

—UCLA PLANNER DENATE MCKEETA

language of New Songdo City: English. South Korean officials express confidence that the development will draw foreign tenants, but the risks are high. "The square footage we're talking about is just amazing," says UCLA urban planner Denate Mckeeta. "If you fail, you have a lot of capital investment, and very little opportunity to turn back. I would be surprised if you could anticipate such demand."

The larger ambitions of New Songdo depend on whether it can build in little more than a decade what took centuries to evolve in other cities: character. The street life of Paris? New Songdo has a lot better chance of making a profit, and even that will take some time.

WWW.IFEZ.CO.KR
02-20000000-0 2000 to 2004





The New York Times

New Island Hopes to Be Hong Kong Of Korea

By JAMES BOWEN

INCHEON, South Korea — After Hong Kong, Singapore, and Shanghai, will Asia's next hub be Incheon?

From the mud flats of a man-made island here, Stanley Gale, a New Jersey developer, spins a vision of a future hub city for Northeast Asia, an ambitious \$20 billion, 120-million-square-foot development that takes the size of Canary Wharf in London.

"Over the next 19 years, you are going to see 40 million square feet of office space here, that is a building the size of downtown Boston," Mr. Gale said looking across the one-year-old island, its shores lapped by the waves of the Yellow Sea.

About 200 miles across the Yellow Sea lies China, the driver for the Incheon development. One of the region's most aggressive bets on the China trade, Incheon is intended to be a corporate hub in a free economic



An American is developing a trade center on a man-made island in the Yellow Sea off Incheon, South Korea.

zone, a bilingual English-Korean city where foreigners can own land, run schools and hospitals and where companies can get relief from Korean taxes and bureaucracy.

By 2008, a six-lane, 6.4-mile bridge is to connect Incheon with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 \$5.5 billion complex with direct flights to 24 Chinese cities.

The Nov. 15, ground is to be broken here for a \$2 billion first phase, a 13-million-square-foot complex slightly smaller than Rockefeller Center. By 2007, this 10-acre core of the future city is to hold a convention center, a retail mall, 1,200 hotel rooms, 1,500 apartments, and a 40-story North-east Asia World Trade Center.

"It is Korea's challenge to Peking, Can Korea challenge Shanghai?" Richard E. Bollenstein, chairman of the Asia Society, said in an interview referring to the Peking financial center in Shanghai. "Everyone knows they will finish on time, or ahead of schedule and on budget, because Koreans always do. The critical

question is, Will they get enough investors, headquarters, companies to make it viable?"

For now, Incheon is not bracing for a corporate version of Gen. Douglas MacArthur's famous Korean War landing of September 1950. Multinational companies seem to be saying, Build it, and then, maybe, we will come.

"One theme we hear is: 'Get it going, and then come back and talk to us,'" John E. Hynes III, president of Gale International Korea, said in an interview after his office contacted the 100 American and European companies in South Korea. "We hear, 'Where are my people going to live? Where are my kids going to go to school? Where are they going to have lunch? What are they going to do on weekends?'"

If Young Mann, Korea president for United Technologies, said after one Incheon presentation in Seoul: "Location, location, location — who wants to go there? All the companies say they want to be in Seoul."

But many South Koreans are already voting with their feet, migrating to the shores of the Yellow Sea. Next to the Incheon site, apartment towers with 1,000 units are nearing completion. One year from now, it is expected that 25,000 people will be living there.

The shift reflects a turning from Seoul, the nation's island capital, 30 miles east of Incheon. It is a congested city with traffic jams, high housing prices and odd odors from nearby farms. To relieve congestion in Seoul, President Roh Moo Hyun is preparing to move much of the capital to Yeosu-Gwangju, a small city about 100 miles south of Seoul.

For business, Incheon is regaining an economic vibrancy it enjoyed a century ago as Korea's "Chinese city." With the rise of China, some of South Korea's economic action is shifting west to the Yellow Sea. Last year, the government announced a goal of more of billions of dollars in

Continued Page 7



Incheon, on the Yellow Sea, is benefiting from trade with China.

September 24, 2004



2004 IFEZ

R

eport

Island Rising With Hopes of Being Hong Kong of Korea

Continued From Page 101

new investment by 2020 in the Yeosu-jeong area, the part of the free economic zone that includes the airport.

"We don't see China as a competitor, but rather, as complementing us," Lee Ilwon Kyun, chief executive of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said in an interview here. "We see Korea and China as being interdependent."

With China having surpassed the United States as South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exports to China are helping to push South Korea's overall exports up by about one quarter this year, to a historic level of \$245 billion.

Seogwi will offer parks, two miles of sands, a seaside cultural center, an aquarium and three attractions that South Koreans usually can enjoy only if they get on an airplane: an 18-hole golf course; a privately owned, American-managed, international school; and a privately owned, American-managed hospital.

"So many people I know in Seoul send their kids with the mother to study in the U.S., while the father stays home and works for the chaebol," James von Klempner, principal of Kohn Pedersen Fox Associates, the architectural firm for the master plan, said referring to South Korea's big conglomerates.

The developers are banking that there will be a market for years to come for a Yellow Sea city that offers expatriate families a comfortable Western lifestyle. Looking at demographics and economics, planners say that 50 cities of one million people or more are within a 3½-hour flight, a radius that includes almost one-third of the world's economic activity.

On a recent afternoon, airplane noise was not noticeable here. This is lucky because airport authorities have set a goal of carrying 70 million passengers by 2018, triple this year's forecast level of 23.5 million. Under a \$2.6 billion expansion, Incheon would emerge in 2018 as the world's 10th-

largest airport in passenger capacity. For cargo, the airport's annual handling capacity is nearly doubling, to 4.5 million tons by 2018.

This fall, Korea's National Assembly is expected to pass legislation that would allow foreign schools to open economic zones to admit Korean students, and also take away some of the union power to work spies. The planners say that Seogwi will emerge as a center for finance and development of high technology.

"It is important that the government's commitments are very strong," Huh Chan Guk, director of macroeconomic studies at the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said in an interview. "They must ensure the foreign investors that the regulations will work, there will be tax incentives and the labor-management issue will be controlled."

Free-zone measures include a flat 17 percent income tax on foreign executives and employees, no export duties on import of capital goods, and cash grants for foreign high-technology investments.

Hong Jae Hyung, a National Assembly member and chairman of the ruling party's policy committee, predicted that Seoul would pass the special economic zone measures on schools, hospitals and labor relations, "as a sign shown by the government of how much we welcome foreign investment, and how much the government is willing to make the environment friendly to foreigners."

Last year, new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outh Korea fell by almost a third, to \$4.5 billion. With much of Seogwi's \$20 billion price tag expected to come from overseas, this project seems bound to become one of the largest foreign investments here for many years to come.

Government planners freely admit that one strategy behind Incheon and two other coastal economic zones is to set an example for what economic liberalization and reduction of red tape can do, creating support for the adoption of such measures on a national scale.

"The entire country should be a

free economic zone," Bill Oberlin, president of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said at one recent public forum in Seoul on the project. Kevin Tae Shin, deputy minister of finance and economy for international affairs, said, "The reason we started free economic zones is because we cannot make all of Korea a free economic zone."

With Northeast Asia currently a

world hot spot for economic growth, Seogwi does not need to become the region's Hong Kong to succeed.

"Everyone is grasping, competing to be a hub," said Nicholas Platt, president emeritus of the Asia Society, who visited the Seogwi site this year. "Shanghai wants to be a hub; Incheon wants to be a hub; Pusan wants to be a hub. Frankly there is room for all of them."



Stanley Gale, above, chief of the Gale Company, based in Fairhaven Park, N.J., is developing a trade hub on an island rising off Incheon, Korea. Below, a rendering of the Seogwi City Convention Center.



2004 Incheon Free Economic Zone Fairport

IFEZ

2004. 9. 24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THE NEW YORK TIMES (NEW YORK) AND THE WASHINGTON POST (WASHINGTON)
ESTABLISHED 1857

Breaking ground on a Korean bid

By Andrew Salama

SONGDO ISLAND, South Korea: On a man-made island some 30 kilometers west of Seoul, U.S. developers and South Korean government officials broke ground Thursday on what they say is the world's largest private real estate development.

Songdo New City, off South Korea's west coast, is the centerpiece of Incheon, the first of three protected free economic zones which the nation hopes will transform it into the "Hub of Northeast Asia."

"This is a clean palette," said Stanley Gale, the chairman of the New Jersey-based Gale International, which is lead developer alongside South Korea's Pooson Engineering & Construction.

"I mean, what an honor — to build an entire city."

The first phase of construction of the 830-hectare, or 1,554-acre, city is a 21,000-square-meter, or 1.3-million-square-foot, conference center. The project has absorbed \$300 million so far; an additional \$1 billion will be injected next April. By its completion date of 2012, the city is expected to have soaked up \$15 billion to \$20 billion, with financing provided by Morgan Stanley, ABN AMRO and World Bank of South Korea.

The developers envision the city becoming a "logical alternative" to Shanghai and home to a white-collar work force of 70,000, mainly in the financial services, IT, biotechnology and regional sales and marketing.

However, Songdo is only one component of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Government plans see this comprising the areas of Songdo, Yeonghwa, which includes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nd Choeung, a projected tourism and leisure hub. The zone is designed to leverage Korea's geographical proximity to China and the rest of Northeast Asia, which currently represents 18 percent of global gross domestic product.

The development of two other free economic zones, Busan and Gwangyang on South Korea's south coast, are also under way.

Officials dismiss concerns about the proximity of North Korea.

While Incheon, a nondescript, blue-collar port and satellite city of Seoul, is

best known as the site of U.S. General Douglas MacArthur's amphibious invasion during the Korean War in 1950, government officials believe the former enemy offers opportunities rather than threats.

"North Korea will open its doors sooner or later," Incheon's mayor, Ahn Sang-soo, said. "When it does, we are best positioned to be the gateway."

Besides its location and free economic zone status, one of Songdo's key advantages, developers say, will be a quality of life currently unavailable elsewhere in Northeast Asia. The master plan models the city's canals on Venice, "pocket parks" in Savannah, Georgia, its main park on New York's Central Park and its seaside opera house on Sydney's.

"In the U.S., the best corporations are attracted to the best communities,

and the best communities are defined by quality of life," John Hynes, the chief executive of Gale International, said. "There is no international-standard city in Korea," added Gale. "This will be Singapore on the Yellow Sea; a marketing hub offering great quality of life." There are concerns, though, that Songdo — currently a plot of muddy ground — will face difficulties competing with Northeast Asia's extant hub, Shanghai.

"I think it's a bit premature; the problem is they don't have any infrastructure up and running," said Hank Morris of Seoul's Industrial Research & Consulting.

"There are no high speed rails, no dedicated highways, no schools or hospitals there yet."

"It's a bit early to tell; we will be reviewing options," said David Kim, a director of Anheuser-Busch, one of 30 multinational representatives who flew in for the event. "But the geographical location is very exciting."

Others warn of the risks of the government watering down free economic zone legislation, which cuts red tape, permits foreign ownership of schools and hospitals and allows a more flexible labor regime than pertains elsewhere in the country.

"The worse thing would be if Korea lost its conviction and this project became something less than it could be," said Pietro Doran, the managing director of Gale International Korea.

"China and Japan are really strong



John Hynes, chief executive of the contractor

competitors: Korea faces the real challenge of becoming irrelevant in Northeast A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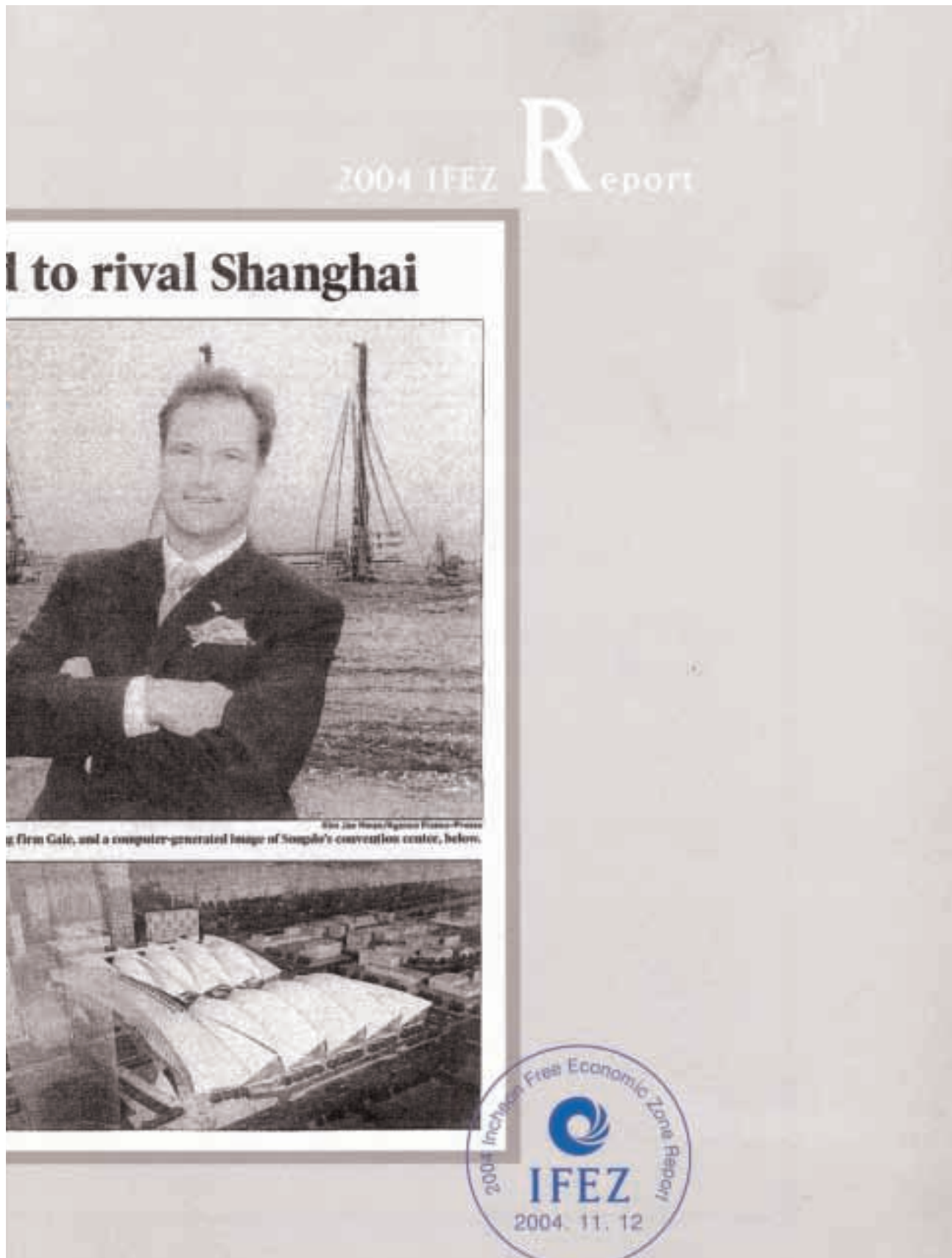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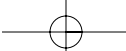
It is also unclear how global Songdo will be. Hynes hopes for a 25 percent-75 percent mix of expatriates and locals, but observers caution that Korea, one of the world's most homogeneous societies, has always struggled to market itself internationally.

A final problem could be if early promises of retail and housing space go badly, but that appears unlikely. 8,000 apartment units in an adjacent development were sold in two days.

And with several thousand people attending on Thursday, Songdo suffered what one participant called "an historic moment" — its first traffic jam.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November 12, 2004



R

2004 IFEZ Report



From left: Seo Jung-jin, co-CEO Citicor Inc.; Sohn Jiw-ae, president of SPCC; Dr. Ahn Young-ae, director general of IFEZ; Oh Kyo-won, deputy minister at the Planning Office of Free Economic Zone, MOFE; and Lim Myung-gyu, vice president of Daewoo International, at the IFEZ foreign press conference on the current development and future strategies of the IFEZ, hosted at SPCC on July 8, 2004.

...and hotels in Yangsu and Mawi - the combined area consisting of about 150 islands.

Songdo Intelligent City: Specially designed for investment

Songdo Intelligent City is the center of the IFEZ islands. It is the key to a dynamic future of international business, an information and knowledge industry hub, and an excellent city. Combining international business, comfortable living, and convenient shopping, the Songdo Intelligent City will become a standard for the perfect future city by 2020.

Cherrygrove Area: The new entertainment hub

The Cherrygrove area is designated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business, sports and leisure facilities and a state-of-the-art hotel complex.

Overlooking the sea, this district has been designated as an international entertainment city with a dynamic international business and leisure complex.

Why is the IFEZ?

- 1. Dynamic Domestic Market:** A world economic power needed 11th place globally in terms of GDP.
- 2. Globally Competitive Industries:** Global competitiveness in electronic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miconductor, steel, shipbuilding, and auto industries.
- 3. Excellent Infrastructure:** State-of-the-art communication networks enabling an information society.
- 4. Connectivity: Airport, Sea Port, Railways**
 -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 2nd largest Cargo Volume in the world
 -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handles 19 million tons of cargo per year
 - EA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Railway: Connection to TCR, TSE and North Korea
- 5. IT Powerhouse:** Incheon is an IT & mobile powerhouse with a ubiquitous computing network.
 - The best and most advanced mobile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including the global CDMA market
 - Broadband and maximum speed communication networks connecting the entire country.
- 6. Natural Beauty:** Incheon is blessed with beautiful natural beauty, ancient culture and energetic urban centers. Korean and foreign visitors alike will enjoy the atmosphere.

Incentives

1. Tax Breaks: Development business operations in the Free Economic Zone and foreign investment recipients are entitled to benefits such as exemption from or reduction of various taxes including corporate income, registration, property and aggregate land.

Exemption of scope of tax-free business job allowance for foreign officers and employees transferred to Korea (FEZ).

For large-scale investment in a Free Economic Zone that meet the support requirements of Foreign Investment Zone, the state support in an advanced technology business Foreign Investment Zone is provided.

- Income and corporate tax exemption for three years, 30% reduction for the following five years.
- Flat 17% income tax for executives of foreign companies.

Incheon's Door of Opportunity Is Wide Open to the World

The new prosperity of the global economy is being driven by the knowledge-based technology, science and high-technology industries. In particular, the Northeast Asian region (China, Korea and Japan, a triangle) seeking towards becoming the world's largest economic bloc, along with NAFTA and the EU. China's remarkable economic performance has very well put Northeast Asia over the top to become the world's leading regional economy.

Incheon's geographic position as the hub port of the Yellow Sea region, its state-of-the-art airport and its global competitiveness make it a city for the future. The Free Economic Zone, consisting of Songdo, Cherrygrove and Cherrygrove, will become the hub of the Northeast Asia region, an information technology, the technology, R&D, tourism, and leisure industries.

The recently established Incheon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an agency of the municipal government operating with the full support and cooper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is accelerating high quality business experts in an effort to provide the best possible environment for global corporations, creating the best business and logistics hub of Northeast Asia.

Moreover, Incheon is making vigorous efforts to attract the world's leading corporation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s.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will become a superhub for economic cooperation among major cities in Northeast Asia and the engine driving the Korean economy in the 21st Century.

Incheon will transform into a business hub of superior competitiveness. Toward this end, our city will continue to do its utmost in ensuring that international corporations will achieve exponential growth in Northeast Asia with Incheon at the heart of it all. Welcome to the IFEZ! Incheon will remain.



Ahn Sang-hoon, Mayor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안상훈

Advantages of IFE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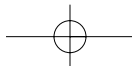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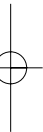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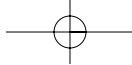
1. Living Environment

- The city of the future, attainable only by a country strong in IT, and utilizing the most advanc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 Total automation and information applied to areas such as security, justice, education, medical services, public services, social services, transportation, broadcasting, communication, commerce, and business.

2. Foreign Friendly Conditions

- Major foreign currencies such as the US Dollar, Euro, and Yen can be used freely.
- Medical facilities to meet global standards.
- World class hospitals and pharmacies for foreigners will be provided.
- Foreign schools.
- Easing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foreign schools, training teachers for global specialization, and improving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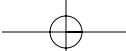




부 록

책임집필: 기획팀 윤도영

1.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주한 외국기업인 인식 조사결과
2. IFEZ 송도지구 입주업체 현황



부록 1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주한 외국기업인 인식 조사결과

(조사기관: 전국경제인 연합회, 2004년 11월)

1. 조사 개요

가. 조사 목적

- 주변국의 경제특구 경쟁에 대응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내 기업경영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
-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성공적 진행여부는 수요자인 외국기업의 인식과 평가가 주요한 잣대
- 본격적 사업 추진 1년을 기해 동 사업에 대한 주한 외국기업의 인식도 조사를 통해 보다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보완과제 및 시사점 발굴

나. 조사 내용

- 사업내용 인식도 : 인지도, 관심도, 지역별 선호도 등
- 해외 경제특구와의 비교 평가: 한국(FEZ),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 외국인 생활환경 평가: 교육여건, 의료여건, 주거환경

다. 조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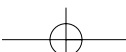
- 조사방법: 自記式 설문지 조사
- 조사기간: 2004. 10. 20 - 2004. 11. 10
- 조사대상: 주한 美상의, EU상의, Japan Club 회원사 95개사
 - 지역별 : 유럽 32%, 아시아 39%, 미주 22%, 기타 7%
 - 업종별 : 제조업 37%, 유통업 31%, 금융업 8%, 물류업 4%, 기타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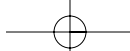
2. 조사결과 분석

가. 전반적 인지도

1) 인지도

- 대다수 응답 업체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해 인지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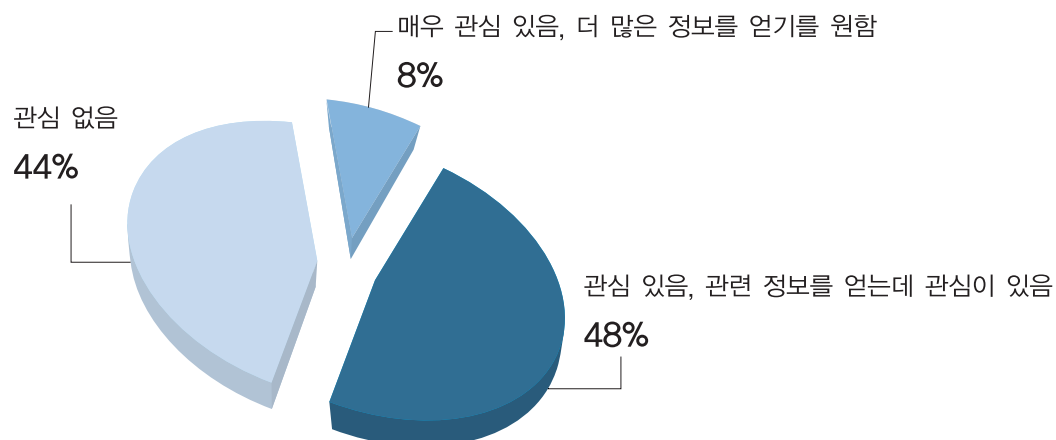




- 응답 업체 76%는 '경제자유구역 사업계획을 들은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 라고 답변
- '구체적 사업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는 업체는 18%, '사업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 고 답한 업체는 6%수준

2) 관심도

- 과반수가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해 추가 정보를 구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하여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한 관심을 표명
- 반면 전혀 관심이 없다는 응답 비율도 44%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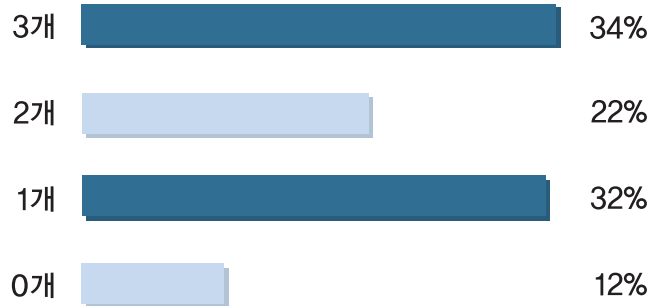
나. 지역별 인지도

1) 지정지역 인지 여부

- 경제자유구역 사업계획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도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3곳을 모두 정확하게 응답한 비율은 34%에 불과
- 32%의 응답자가 1개 지역을 정확히 응답하는데 그쳤으며 단 1개 지역도 제대로 맞추지 못한 응답자도 12%에 상당
- 이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한 체계적 홍보활동이 취약했음을 시사



부록 1-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주한 외국기업인 인식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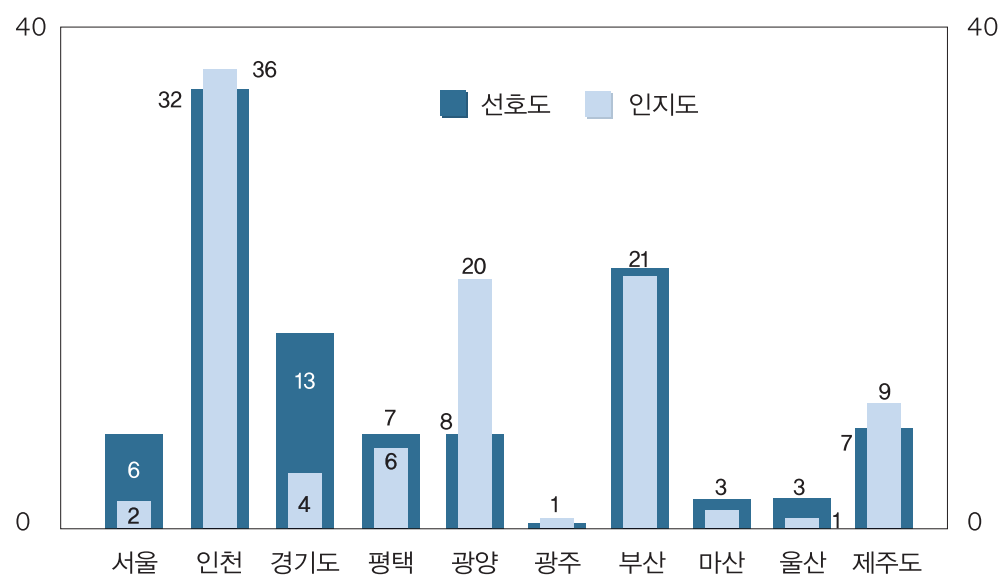


2) 지역별 인지도/선호도

-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지명 문항에 대해 실제 지정지역인 인천, 부산, 광양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국제자유도시 개발이 진행 중인 제주와 경기도 평택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선택한 비율이 높음
- 반면,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선호 지역은 인천, 부산, 경기도 순으로 지적되어 인지지역과 다소 상이
 - 평택을 포함할 경우 경기지역을 선호지역으로 응답비율이 20%에 달해 산업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수도권 지역에 대한 외국기업의 선호도를 시사

※ 인지 지역 : 인천→부산→광양→제주→평택→경기→마산→서울→울산, 광주

※ 선호 지역 : 인천→부산→경기→광양→제주→서울→평택→마산→울산→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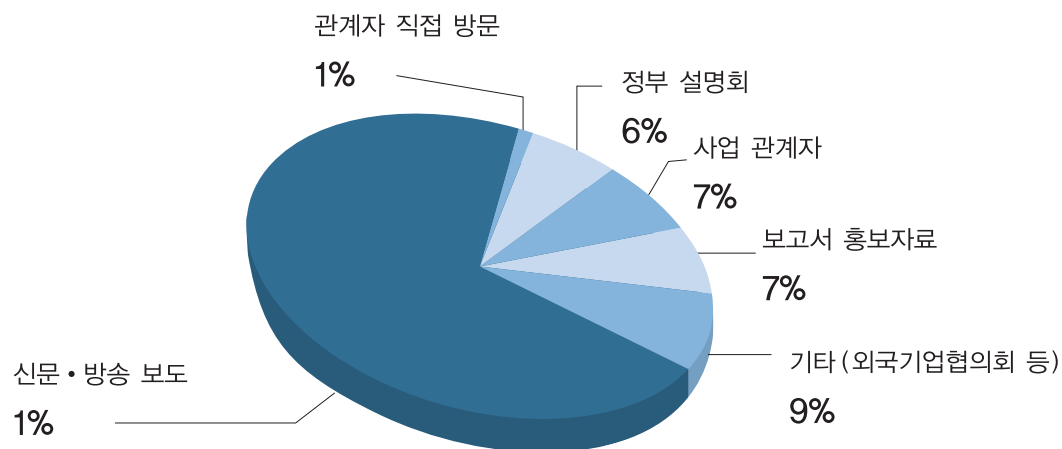




다. 정보입수 및 투자계획

1) 정보입수 경로

-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주로 **신문·방송 보도**를 통해 관련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주요한 홍보수단으로서 개최하고 있는 **설명회**의 홍보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외국 정부로부터 투자유치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도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에 있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지속적 국가마케팅 활동이 필요함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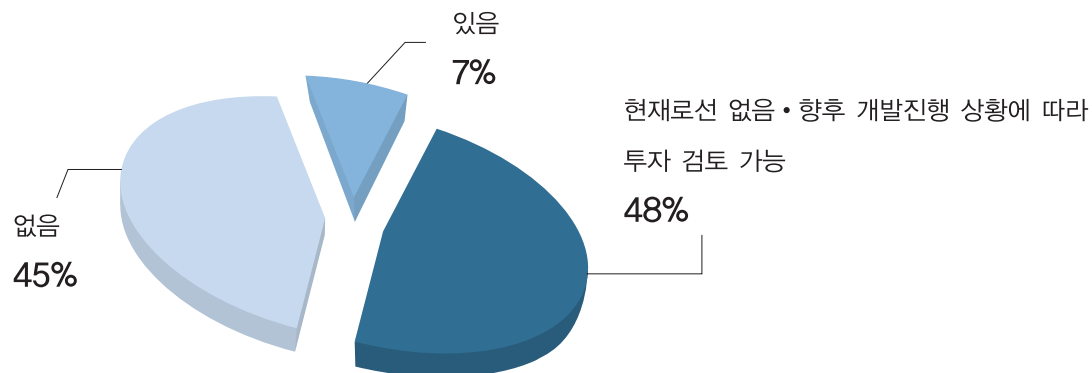
※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중국)** 정부로부터 투자유치 정책에 대한 정보제공을 받은 경험:

정기적인 투자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6%,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다 30%, 정보를 받은 적이 없다 64%

2) 투자 의향

- 당장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7%에 불과하나 잠재적 수요는 존재
 - 대부분의 업체가 현 시점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투자 의향이 없다고 답변
 - 그러나 응답업체 48%는 당장은 투자계획은 없으나 향후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진행 상황에 따라 투자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 **잠재적 투자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마케팅 활동의 필요성을 시사

부록 1-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주한 외국기업인 인식 조사결과



라. 해외 경제특구와의 비교

1) 대외 이미지

- ‘우수한 인적 자원’ (한국), ‘투명하고 부패없는 사회’ (싱가포르), ‘시장친화적 정부정책’ (홍콩), ‘성장하는 시장’ (상하이)이 각국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나타남

※ 대표적 국가 이미지

- 한국 : 우수한 인적자원, 우수한 산업인프라, 긍정적 이미지 없음
- 싱가포르 : 투명하고 부패없는 사회, 시장친화적 정부정책, 우수한 공무원
- 홍콩 : 시장친화적 정부정책, 우수한 산업인프라, 투자인센티브
- 상하이 : 성장하는 시장, 경쟁력있는 투자인센티브, 우수한 인적자원
- 특히 한국의 경우 긍정적 이미지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교대상 4개국 중에서 월등히 높은 비율인 16%로 나타남
-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국가 이미지 관리를 통해 대외이미지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

구 분	한국(FEZ)	싱가포르	홍 콩	상하이
투명하고 부패없는 사회	0%	30%	6%	0%
성장하는 시장	10%	1%	5%	49%
우수한 산업인프라	24%	11%	18%	8%
우수한 공무원	1%	15%	4%	2%
시장친화적 정부정책	6%	21%	28%	8%
우수한 인적자원	28%	8%	16%	10%
경쟁력있는 투자인센티브	14%	12%	18%	20%
긍정적 이미지 없음	16%	0%	5%	4%

2) 기업 경영환경 비교

- 기업 경영환경 평가에서 한국은 비교대상 4개국 중 최하위 기록
 - 경영환경 총점 : 싱가포르 → 홍콩 → 상하이 → 한국(FEZ) 순

*한국 : 인적자원, 산업집적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 여타 부문에서는 대부분 낮은 평가. 특히 정부관료, 시장접근성면, 지리적 위치, 조세인센티브에서 경쟁력 열위

*싱가포르 : 전 부문에서 고르게 높은 평점(비교대상 8개 부문 중 5개 부문 최고점). 4개국 중 기업경영환경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

*홍콩 : 지리적 위치는 높은 평점. 연관 산업 집적 측면에서는 경쟁력 열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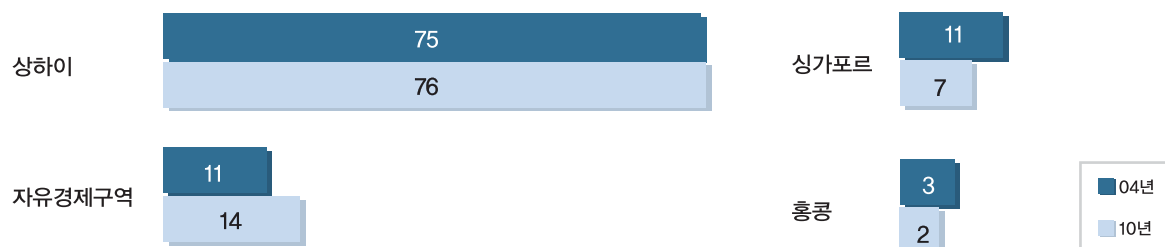
*상하이 : 연관산업 집적, 시장접근성 측면에서는 높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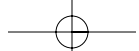
구 분	지리적위치	산업인프라	산업 집적	시장접근성	인적 자원	정부관료	생활여건	조세인센티브	총 점
한국(FEZ)	3.650(4)	3.630(3)	3.437(1)	3.495(4)	3.886(2)	2.465(4)	3.165 (3)	3.189(4)	3.365(4)
싱가포르	3.650(3)	4.005(1)	3.405(3)	3.640(3)	3.972 (1)	4.063(1)	4.092(1)	3.937 (1)	3.845(1)
홍콩	3.811(2)	3.647(2)	3.357(4)	3.826(2)	3.626(3)	3.348(2)	3.612(2)	3.643(2)	3.609(2)
상하이	3.929(1)	3.308(4)	3.411(2)	3.990(1)	3.310(4)	2.611(3)	3.030(4)	3.537(3)	3.391(3)

주: ()는 순위

3) 투자 선호지역

- 가장 매력적인 투자지역 문항에 있어 비교대상 4개국 중 상하이가 2004년, 2010년 공히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힘
 - 한편, 경제자유구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은 비율이 2004년 현재시점 기준으로는 11%였으나 2010년 기준으로는 14%로 더 높게 나타남
 - 이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추진에 대해 주한 외국기업의 긍정적 기대가 있음을 시사





부록 1-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주한 외국기업인 인식 조사결과

마. 생활환경 평가

1) 생활환경의 중요성

- 기업들은 해외 투자지역 결정시 경제적 환경 못지않게 임직원들의 생활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생활환경 부문별로는 교육, 의료, 주거 환경에 대해 고르게 중요도를 평가

구 분	경제적 여건	생활여건	의료	교육	주거
중요도(평균)	4.055	4.046	4.096	3.945	4.096

2) 의료 여건

-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모국 병원이나 해외에 있는 국제병원 등 한국 병원 이외의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30%에 달함

※ 이용 의료기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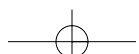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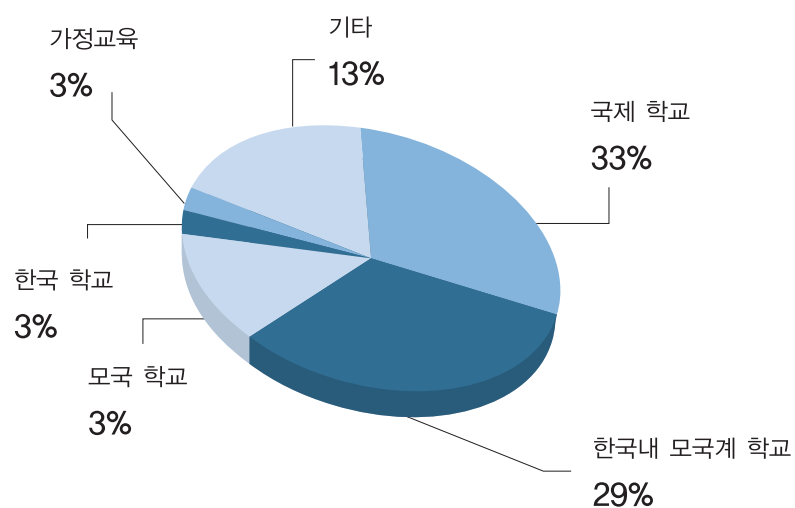
인근 한국병원 37%, 외국인 의료기관 지정 한국병원 33%, 모국 병원 28%, 해외 국제병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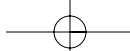
- 한국 의료기관 이용을 기피하는 이유는 의사소통 문제와 의료 서비스의 질 때문

※ 한국 의료기관 기피이유:

의사소통 문제 67%, 의료서비스의 질 22%, 비용문제 7%, 보험문제 4%

3) 교육 여건





- 외국인 임직원 자녀들의 교육은 주로 **한국내 국제학교와 모국계 학교**를 이용
 - 모국에 있는 학교를 보내는 경우도 19%에 달하는 반면 자녀를 **한국 학교에 보내는 경우는 응답자의 3%에 불과**
 - 국제학교나 모국계 학교의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65%가 만족한다고 답변

※ 국제학교 · 모국계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 :

매우 만족 5%, 만족 60%, 보통 30%, 불만족 5%

4) 주거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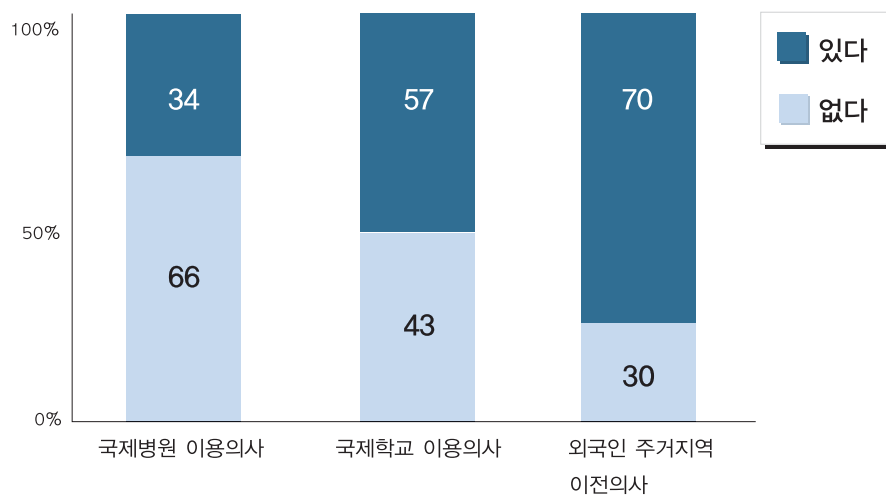
- 현재 한국내 주거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과반수가 보통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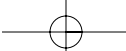
※ 현재 주거여건에 대한 만족도 :

매우 만족 2%, 만족 37%, 보통 52%, 불만족 7%, 매우 불만족 2%

5) 경제자유구역 이주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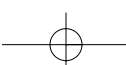
- 경제자유구역에 국제 의료기관이 설립될 경우 이를 이용할 의사는 높게 나타났으나, 주거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옮기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게 나타남
 -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될 국제교육기관 이용의사에 대해서는 ‘있다’ 와 ‘없다’ 가 비슷한 비중
 - 회사가 경제자유구역 입주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임직원이 거주 · 생활지역을 옮길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국제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 이용의사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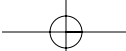




3. 시사점

- 경쟁력 분석과 비교우위 설정에 기초한 개발 추진
 - 주한 외국기업들은 경제자유구역의 비교우위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주변국 경제특구와의 경쟁력 비교에서도 부정적으로 평가
 - 이는 경제자유구역이 전략적 목표 없이 진행되는 - 즉, ‘모든 부분에 대해’, ‘제한된 수준에서’ 추진 되는 - 통상적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나 외국기업 유치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반증
 - 비즈니스 거점화 경쟁에서 후발주자인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변국 경제특구와의 경쟁력 분석을 통해 비교우위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차별적 마케팅을 추진할 필요
- 경제자유구역 사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 주 수요자인 외국기업의 동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도가 낮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주력하는 홍보 방식인 설명회의 홍보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일반적인 설명회 개최는 지양하고 대중인지도 제고활동과 집중적 마케팅활동, 즉 방송보도 등의 대중적 홍보활동과 직접 방문 두 가지 부문에 역점을 둘 필요
- 비우호적인 국가 이미지 개선이 경제자유구역 성공의 전제 조건
 -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서의 한국의 국가 이미지 매우 취약
 - * ‘긍정적인 이미지가 없다’ 는 응답이 비교대상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부정적 국가 이미지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걸림돌이자 동시에 만약 경제자유구역이 성공적으로 추진 된다면 국가 이미지의 획기적 개선이 기대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
 - 이 같은 중요성을 갖는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명실상부한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한 선택과 집중(전략 산업 선정 및 규제 완화·지원 확대)
- 국제적 수준의 의료, 교육, 주거환경 조성 필요
 - 투자처 결정시 생활환경이 경제적 환경에 못지않게 중요한 결정요소로 지적됨
 - 즉,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서는 최고 수준의 선진적 교육·의료·주거여건 등이 제공이 필수적
 - 생활환경 개선에 있어 핵심사업인 국제적 의료기관, 교육기관 유치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제·개정 작업을 조속히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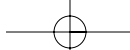
참고1 경제자유구역 추진 현황

- 2003년 인천 등 3곳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사업 본격화

구 분	인 천(2003.8.6 지정)	부산 · 진해(2003.10.27 지정)	광양만권(2003.10.27 지정)
위치	송도,영종,청라 일원 3개 지구	부산 강서구 및 경남 진해시 일원 5개 지구	여수 · 순천 · 광양시, 경남 하동군 일원 5개 지구
면적	6,336만평	3,154만평	2,691만평
기간	2020년까지 단계별추진 -1단계:2008년까지 -2단계:2020년까지	2020년까지 단계별추진 -Ⅰ-1단계 : 2006년까지 -Ⅰ-2단계 : 2010년까지 -Ⅱ 단계 : 2020년까지	2020년까지 단계별추진1단계 : 2010년까지 -2단계 : 2015년까지 -3단계 : 2020년까지
추정사업비	14조 7,610억원	7조 6,902억원	8조 1,000억원
재원조달	국고지원(21.4%), 지자체(45.7%), 민자 · 외자(6.7%), 한국토공(26.2%)	국고지원(27.7%), 지자체(40%), 민자 · 외자(32.3%)	국고지원(43.5%), 지자체(27.9%), 민자 · 외자(28.6%)

참고2 해외 경제특구 지원내용 비교

구 분	한국(FEZ)	싱가포르	홍 콩	상하이
투명하고 부패없는 사회	0%	30%	6%	0%
성장하는 시장	10%	1%	5%	49%
우수한 산업인프라	24%	11%	18%	8%
우수한 공무원	1%	15%	4%	2%
시장친화적 정부정책	6%	21%	28%	8%
우수한 인적자원	28%	8%	16%	10%
경쟁력있는 투자인센티브	14%	12%	18%	20%
긍정적 이미지 없음	16%	0%	5%	4%



부록 2

IFEZ 송도지구 입주업체 현황

1. 산업시설구역

**한국전자공업(주) 본사 및 중앙연구소**

- 소재지 :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94-26
- 주생산품 : 자동차 전장모듈, 광/무선통신 부품
<http://www.ket.com>

**벽진시스템(주) 본사 및 연구소**

- 소재지 :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94-25
- 주생산품 : 통신용 장비
(네트워크 기구장치, KVM 스위치)
<http://ibpass.com>

**(주)서미트 기술연구소**

- 소재지 :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94-23
- 주생산품 : 전자계측기기
(아날로그/디지털 멀티테스트)
<http://summit.co.kr>



엔하이테크(주) 부설 기술연구소

- 소재지 :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94-22
 - 주생산물 : LED디스플레이 및 전자제어장치
- <http://n-hitech.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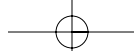
(주)유성계전 본사 및 기술연구소

- 소재지 :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94-19
 - 주생산물 : 수 · 배전반, 축소형 감시제어반, 자동제어반
- <http://yousung.com>



대한트랜스(주) 연구소

- 소재지 :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94-17
 - 주생산물 : 네온트랜스포머, 전력용 변압기, LED모듈
- <http://www.daehantrance.com>



부록2 - 송도지구 입주업체



(주)디에스이 전자기술연구소

- 소재지 :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94-39
 - 주생산물 : 센서조명기기
- <http://hippolight.co.kr>



경신공업(주) 본사 및 중앙연구소

- 소재지 :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94-13
 - 주생산물 : 자동차 와이어링 하네스, 전선
- <http://kyungshin.co.kr>



(주)대화연료펌프 송도 R&D 본부

- 소재지 :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94-12, 30
 - 주생산물 : 자동차 연료펌프
- <http://www.daewha21c.co.kr>





(주)에스피씨

- 소재지 :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94-38
 - 주생산품 : 전기 절연성 레진
- <http://spchemica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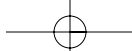
재영솔루텍(주) JDH

- 소재지 :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94-35
 - 주생산품 : 금형, 전자·반도체 부품, 시스템 엔지니어링
- <http://www.jysolute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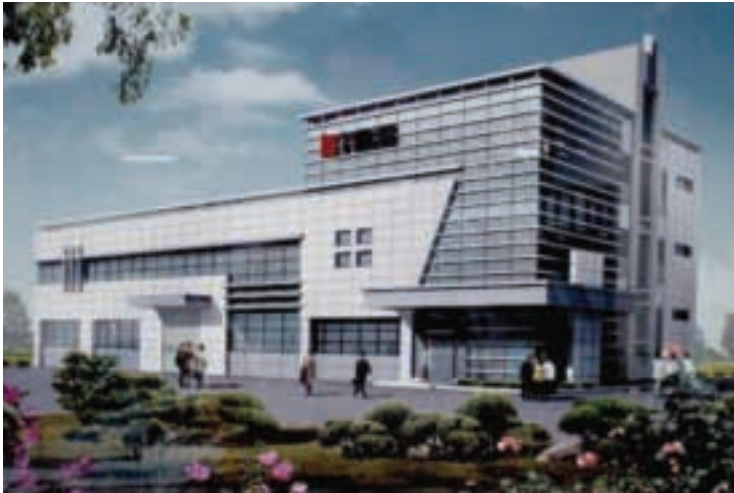


(주)와이지원 공구기술연구소

- 소재지 :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94-34
 - 주생산품 : 절삭공구
- <http://www.yg1.co.kr>



부록2 - 송도지구 입주업체



(주)아이씨텍

- 소재지 :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94-33
 - 주생산물 : 원적외선 스토브
- <http://www.incpi.co.kr>



(주)신원기술

- 소재지 :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94-62
 - 주생산물 : 반도체 부품
(리드 프레임, 스탬핑금형)
- <http://www.shinwontech.com>



(주)영진정공

- 소재지 :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94-62,63
 - 주생산물 : Cone Synchronizer
- <http://www.youngjin-pi.co.kr>





(주)엔비텍

- 소재지 :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94-41
- 주생산품 : 계면활성제, 버섯균사체추출물
<http://www.enviemi.com>



(주)코바이오텍 기술연구소

- 소재지 :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94-59
- 주생산품 : 원료 의약, 미생물 발효기
<http://www.kobiotech.com>



(주)에스엠씨

- 소재지 :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94-56
- 주생산품 : PCB(인쇄회로기판) 장비
<http://koreapcb.co.kr>



부록2 - 송도지구 입주업체



(주)대지금속

- 소재지 :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94-57
- 주생산품 : 자동차 흠배기 시스템
<http://www.djmetal.co.kr>



동양텔레콤(주)

- 소재지 :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94-48
- 주생산품 : 초고속망 전송기기, CATV 기기
<http://www.dyt.co.kr>



(주)한국뮤즈

- 소재지 :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94-18
- 주생산품 : 엠프, 미디시스템
<http://muse-inc.com>



노아텍이엔지(주)

- 소재지 :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94-16
- 주생산품 : 지능형 CCTV시스템
<http://www.noahtek.c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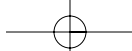
(주)루보 기술연구소

- 소재지 :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94-15
- 주생산품 : 무급유 베어링, 금형 표준부품
<http://lubo.co.kr>



에이티아이(주)

- 소재지 :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94-37
- 주생산품 : 반도체 자동검사 장비
<http://ati2000.co.kr>



부록2 - 송도지구 입주업체



무송엔지니어링 본사 및 기술연구소

- 소재지 :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94-61
- 주생산품 : 자동화 기기(산업용로봇)
<http://www.moosong.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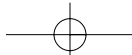
(주)케이엠에스아이

- 소재지 :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94-43
- 주생산품 : 기능성 의약품
<http://kmsi.co.kr>



유신정밀공업(주) 기술연구소

- 소재지 :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94-40
- 주생산품 : 자동차 호스 클램프,
드라이브 플레이트
<http://www.ysptech.com>



**(주)파버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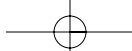
- 소재지 :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94-48
- 주생산물 : 3D 디스플레이
<http://pavonine.net>

**(주)아이블포토닉스**

- 소재지 :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94-46
- 주생산물 : 단결정, 광통신부품
http://www.ibule.com/kor/co_2.html

**(주)큐리온 본사 및 R&D센터**

- 소재지 :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94-47
- 주생산물 : 통신용 장비
(네트워크 장비, 교환기)
<http://qrion.com>



2. 지원시설구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소재지 :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94-32
- 연구분야 : 생산기반/공정기술 연구
<http://kitech.re.kr>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 소재지 :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94-31
- 연구분야 : 생물산업공정연구
<http://kbcc.kitech.re.kr>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소재지 :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94-70
- 연구분야 : 의료용품, 생체재료 안전성 평가
<http://www.komtri.com>





가천의대생명과학연구소

- 소재지 :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94-53
 - 연구분야 : 생명 과학 연구
- <http://www.gachon.ac.kr>



인천대학교 미래관

- 소재지 :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94-53
 - 연구분야 : 국책연구 및 대학부설 연구
- <http://itic.re.kr>



인하대 산학협력관

- 소재지 :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94-28
 - 연구분야 : 산학 협력 및 연구 시설
- <http://inha.ac.kr>



부록2 - 송도지구 입주업체

3. IFEZ 외자유치 1호 기업



(주)셀트리온

- 소재지: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1001-5
- 주생산품: 단백질 의약품 개발
<http://www.celltrion.com>

